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10년사

2012-2022

KOREA AGENCY OF EDUCATION,
PROMOTION AND INFORMATION SERVICE IN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IES

EPIS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10년사

설립 30년, 통합 10년, 미래로 10년

2012 | 2022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에서 미래를, 농촌에서 희망을 꿈꾸는 사람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줍니다

ICT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한 미래농업을 열어가는 데 지혜로운 동반자로 함께 합니다

K-농업·농촌의 가치를 전하기 위해 매일매일 최선을 다합니다

EPIS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설립 30년, 통합 10년, 미래로 10년을 위한 도약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가치 확산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 첫 발을 내디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어느덧 통합 1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10년사』 발간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농촌·농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농정원의 역할을 되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농업(農業)을 근간으로 발전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20세기에 들어와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팽창 등에 따라 농업·농촌의 위상과 역할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에 농업 정보화로 경쟁력과 성장동력을 높이기 위해 1992년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가 처음 설립되었으며, 농업의 가치를 알리고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홍보하기 위해 〈농촌정보문화센터〉가 2005년에, 농업인재 발굴·양성과 농업인 전문역량 제고를 위한 〈농업인재개발원〉이 2009년도에 각각 설립되었습니다.

3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능과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농정원이 2012년 탄생하였으며, 통합 10년 만에 농업·농촌의 혁신성장과 가치 증진을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농정원은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기후변화, 농촌 환경 악화, 코로나19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핵심요인인 전문농업인과 미래 청년농업인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지원하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해 왔습니다. 또한 첨단기술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농업 확산으로 농식품 미래 성장동력을 키워 나가는 한편, 농촌의 가치 증진 활동과 농촌 고령화 해소를 위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특히, 국제농업협력 체계 구축 및 ODA 사업 등을 통해 우리 농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10년사』는 이런 노력의 발자취를 정리한 역사서입니다. 또한 농민·농업·농촌 등 3농(三農) 정신과 상농(上農)·후농(厚農)·편농(便農)의 관점에서 행복한 농촌 실현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책입니다. 10년사의 편찬은 농정원이 나아갈 방향과 새로운 역할을 탐색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농정원의 지난 10년 성과를 함께 만들어 온 임직원 여러분에게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전합니다. 앞으로도 농정원은 잘사는 농민·튼튼한 농업·활기찬 농촌을 실현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5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정 황 근

튼튼한 농업·활기찬 농촌·잘사는 농업인 실현에 앞장서기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통합 10주년과 10년사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기관 통합 이전부터 도합 30년의 연륜을 맞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그동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농업 경영 혁신과 농촌 가치 확산에 지대한 공을 세웠습니다.

우수한 농업 전문 인재와 청년 농업인을 발굴·육성하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해 도농상생을 실현하는 디딤돌을 놓았습니다. 특히, 농업·농촌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해 우리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미래성장산업화를 촉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최근엔 귀농·귀촌에 관심을 둔 희망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국제농업 협력을 강화해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시장개방 위기에도 K-푸드 위상을 높이며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자, 무역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세계 각국은 자국의 안전과 식량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식량문제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이자 우리의 생존을 담보하는 미래 산업입니다. 어느 산업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를 갖는 핵심 산업인 것입니다.

정부가 튼튼한 농업·활기찬 농촌·잘 사는 농업인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농업혁신을 위하여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고, 디지털 전환을 통한 혁신생태계를 조성해 농업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우리 농업·농촌의 밝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발간되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10년사는 그동안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립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번 발간을 계기로, 국민과 농업인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핵심 역할을 잘 수행해 농업·농촌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10년사』발간을 축하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소중한 기록물을 남겨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CONTENTS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10년사

2012-2022

012 **발간사**
014 **축사**
018 **연혁화보**

Part 1. 창립전사

024 **CHAPTER 1.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_ 농어촌 정보화의 선도적 수행**
024 1.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창립
026 2. 정보화 기반의 농림수산정보서비스 개시
027 3. 정보화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활성화
029 4. 농어업 인재 육성 및 정보화 역량 강화
030 5. 농어촌 지역정보화 사업 확대
030 6. 정보서비스 시스템의 고도화

033 **CHAPTER 2. 농촌정보문화센터 _ 농업·농촌 가치 홍보의 새 지평 개척**
033 1. 농촌정보문화센터 설립 및 농정홍보 시작
035 2. 농어업 가치 홍보 본격 전개
038 3. 조사·분석 업무의 전문화
039 4. 농식품 소비촉진 홍보 확대

042 **CHAPTER 3. 농업인재개발원 _ 실습중심 교육으로 농업전문인재 양성**
042 1. 농업인재개발원 개원
043 2. 농업인재 양성 전문역량 확보
043 3. 농업인 맞춤형 교육체계 확립

Part 2. 통사

048 **CHAPTER 1.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으로 통합되다**
2012-2014
049 1. 3개 기관 통합 '농정원' 창립
054 2. 경영체제 정비 및 '비전2020' 선포
059 3. 농업인재 양성 위한 인프라 개선
063 4. 농업·농촌 다원적 가치 및 소비촉진 홍보
068 5. '귀농귀촌종합센터' 이관 운영 개시
072 6. 농업정보서비스 허브기관으로의 진화
076 7. 국제통상 및 협력사업의 시작

080 **CHAPTER 2. '세종시대'의 개막, 행복한 농촌을 꿈꾸다**
2015-2016
081 1. 청사 세종시 이전 및 새 전략체계 수립
086 2. 인사체계와 조직문화 혁신
090 3. 귀농귀촌 및 청년 취·창업 지원 강화
094 4. 통합 정보서비스 체계 구축 가속화
098 5. 환경변화에 대응한 미래·전문 농업인재 양성
102 6. '농촌=쉼터·삶터·일터' 홍보 본격화
106 7. 농식품 소비 홍보의 활동범위 확장

112 INTERVIEW 하영효 초대 원장 인터뷰

114 **CHAPTER 3. 농업의 4차 산업화 기반을 닦다**
2017-2020
115 1. 새 비전 및 중장기 전략 수립
119 2. 조사·분석 및 정책제안 기능 강화
124 3. 귀농귀촌종합센터 통합 이전 및 사업 확장
128 4. 청년층 취·창업 연계 교육 강화
132 5. 농기자재 수출 지원사업 활성화
135 6. 스마트팜 보급·확산 위한 기반 조성
139 7. 도시농업 확산과 동물보호복지 홍보 확대
144 8. 공익적 가치 홍보의 범위 확장
149 9. 우수 공공기관 새 모델 제시

152 INTERVIEW 신명식 3대 원장 인터뷰

154 **CHAPTER 4. '독립청사'시대, 미래농업 발전을 위해 도약하다**
2021-2022
155 1. '독립건물'로 신청사 건립 이전
159 2. 농업교육체계 개편 및 식품전문인력 양성
162 3. MZ세대 대상 홍보와 먹거리 안전 선도
165 4. '스마트팜 혁신밸리 빅데이터센터' 업무 개시
168 5. 국제협력 통한 농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
174 6. '제2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 실행
180 7. ESG 실천하는 농업·농촌의 동반자로

186 기획지면 – 개원 10주년 기념행사 및 심포지엄
196 POWER INTERVIEW 이종순 원장

Part 3. 사업현황

204 **CHAPTER 1. 인재양성본부**
205 1. 인재양성본부 개요
206 2. 농업계 교육기관 지원 및 운영
207 3. 농업인력 전문성 제고 교육
209 4.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210 5. 농업·농촌 활성화 위한 지원
211 6. 농업교육포털 운영 및 온라인 교육 확충

212 **CHAPTER 2. 농식품소비본부**
213 1. 농식품소비본부 개요
214 2. 농업·농촌 가치 및 도·농 교류 홍보
215 3. 도시농업 활성화 및 성숙한 반려동물 양육문화 조성
217 4. 농식품 소비 촉진 홍보
218 5.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운영

220 **CHAPTER 3. 지식융합본부**
221 1. 지식융합본부 개요
222 2. 농식품 정보 포털 서비스
223 3. 농식품 공공데이터·빅데이터 활용 지원
224 4. 스마트팜 모델 개발 및 확산
225 5.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지원
226 6. 스마트 통계체계 구축 및 운영

228 **CHAPTER 4. 국제협력처**
229 1. 국제협력처 개요
230 2. 공적개발원조 사업 기획·운영
232 3. 글로벌 농업협력 강화
233 4. 통상협상 대응 지원 및 해외정보 활용
234 5. 농업 분야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
235 6. 농기자재 수출 활성화 지원

236 **CHAPTER 5. 귀농귀촌종합센터**
237 1. 귀농귀촌종합센터 개요
239 2. '귀농귀촌 종합계획' 실행 지원
239 3. 귀농귀촌 상담과 멘토링 서비스
240 4. 현장 수요 반영한 맞춤형 교육
241 5. 지역 지원사업과 '농촌에서 살아보기'
242 6.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 구축 착수

244 INFOGRAPHIC 주요 성과

APPENDIX 부록

248 1. 현 임원진
250 2. 역대 원장 및 임원
252 3. 현 조직도
253 4. 조직변천
262 5. MOU 현황
266 6. 인증 및 수상
269 7. 연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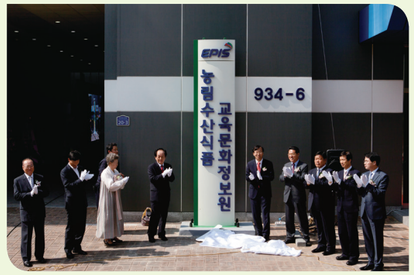
농정원이 걸어온 10년

2012-2022

2012

5월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설립(경기도 안양시)
- 제1대 하영효 원장 취임

6월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개원식



2013

1월
- 비전 및 미션 선포식

11월
- 가족친화 우수 공공기관 인증(여성가족부)

2014

7월
- 귀농귀촌종합센터 업무 개시(서울시 양재동)

11월
- 정부 3.0 평가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농림축산식품부)

12월
-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 대상 우수상(미래창조과학부)

2015

5월
- 제2대 박철수 원장 취임

9월
- 기관 이전(세종시 조치원읍)

11월
- 이전 개원 및 비전 선포식

12월
- 국가중점 공공데이터 개방 우수 공공기관(행정자치부)
- 정부 3.0 추진 전반 분야 우수 공공기관 표창(농림축산식품부)

2016

5월
- 가족친화인증기관 재인증(여성가족부)

8월
- 노사문화 우수 공공기관(고용노동부)

12월
- 남녀고용평등 우수 공공기관(고용노동부)

2017

2월
귀농귀촌종합센터 이전(양재동 aT 센터)

4월
농식품 빅데이터센터 개소

9월
세종 오송 지역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 공동선언

11월
대한민국 데이터 품질대상 우수상(한국데이터진흥원)

2018

1월
제13대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사회봉사 부문(한국서비스산업진흥원)

11월
제3대 신명식 원장 취임

12월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우수 공공기관(행정안전부)

가족친화인증기관 재인증(여성가족부)

2019

5월
전자정부 해외수출 유공 표창(행정안전부)

12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관 국무총리 표창(고용노동부)

2020

12월
제38회 공공 인적자원개발 경연대회 인사혁신처장상(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농림축산식품 정보자원관리 유공 표창(농림축산식품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종합 2등급(국민권익위원회)

2021

4월
반부패경영시스템(ISO 37001) 국제인증 취득

5월
신청사 건립·이전(세종시 반곡동)

12월
제4대 이종순 원장 취임

가족친화인증기관 재인증(여성가족부)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국제인증 취득

2022

5월
기관 통합 10주년

Part 1.

PREHISTORY

창립전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으로 통합되기 이전,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는 1992년부터 농어촌 정보화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했고,
<농촌정보문화센터>는 2005년부터 농업·농촌 가치 홍보의 새 지평을
개척했으며, <농업인재개발원>은 2009년부터 실습중심 교육으로
농업전문인재를 양성하며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CHAPTER 1.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CHAPTER 2.
농촌정보문화센터

CHAPTER 3.
농업인재개발원

CHAPTER. 1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농어촌 정보화의 선도적 수행

1.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창립

농어촌 정보화의 시작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산업은 농업(農業)이다. 모든 산업 분야를 통틀어 가장 긴 역사를 가진 산업이 농업이라는 뜻이다. 농업은 오랜 기간에 걸쳐 인류의 발전에 밑거름이 돼 왔다. 또 인류 생존을 위한 먹거리와 연관된 산업이라는 점에서,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인류가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발전해나갈 지속가능한 산업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도 전통적으로 농업을 근간으로 발전해 왔다. 농업이 국가의 근본이었고 생존의 기반이었다. 근세(近世)에 이를 때까지도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은 우리나라가 추구해 온 최고의 가치였다. 농사가 천하의 가장 큰 근본이 되는 중요한 일로 인식돼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산업 전반의 근대화가 이루어지면서 농업의 위상이 크게 달라졌다. 특히 1960년대 이후 산업화·공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농촌이 낙후하는 현상이 벌어졌다. 1990년을 전후한 시기에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 협상에 따라 쌀을 포함한 농림수산물 시장 개방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농촌의 위기감은 더욱 높아졌다.

언론에서도 연일 농업 전반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이 임박한 1992년 4월 21일자 동아일보는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농업의 기반이 붕괴될 것"이라며, "농업의 주역인 농민은 영농의욕을 잃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농(離農)이 급증하고 농업투자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해마다 증가하는 휴경(休耕)농지, 폐가가 된 농가주택은 오늘의 심각한 농촌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농지제도를 개편하고 추곡수매가를 현실화하는 등 농가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면서 농림수산물 시장 개방에 대비하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농림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농업현대화 방안의 하나로, 농림수산업 종사자들과 국민에게 각종 농어촌 정보를 제공하여 자생력을 높여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기관으로 1992년 2월 1일 재단법인 '농림수산정보센터'가 설립되었다.

농림수산정보센터는 우리 농어촌이 농림수산업의 국제화, 개방화 추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농어민에게 농림수산 정책과 국내외 농림수산업 동향, 새로운 기술정보 등을 제공하고 국민들에게는 다양한 농어촌 정보를 제공하여 농림수산업의 발전과 농어촌의 활력 제고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농림수산정보센터는 1997년 1월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로 개칭되었다.

사옥 이전 및 경영효율화 노력

설립 당시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는 조경식 전 농림수산부장관이 초대 이사장을, 권동섭 전 농림수산부 대변인이 초대 사장을 맡아 업무를 시작했다. 당시 직원 수는 20명 정도였다.

최초의 사무실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의 문창빌딩에 두었다. 그 후 직원 수가 늘어남에 따라 1993년 1월 서초구 양재동 삼호물산빌딩으로 이전했고, 2000년 3월에는 업무효율화를 위해 수원시 장안구 화서2동 농촌지도자중앙회 건물로 다시 이전했다. 2006년 12월에는 안양시 경수대로 593(호계동 944-4)에 자체 사옥을 마련하여 이전함으로써 마침내 독립사옥을 갖게 되었다.

설립 이후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는 농어업·농어촌의 정보화를 통해 농어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다양한 사업을 전개했다. 사업경험이 어느 정도 축적된 후에는 농어업 정보서비스와 농어업 정보화교육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했다. 2000년대 중반 무렵에는 농수산물 유통경영체시스템과 농식품안전정보, 농산물이력추적시스템 등의 사업도 새로 시작하며 농어업 선진화를 위해 노력했다.

이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직 내부적으로는 조직혁신과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책임경영 및 성과중심 경영체제를 확립했다. 특히 2002년 호봉제 폐지와 완전연봉제 도입에 이어 2004년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외부평가 및 다면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조직에 새바람을 불러왔다.

2003년에는 개혁성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 경영인을 기관장으로 영입하기 위해 사장공모제를 도입했고, 2009년에는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 자원관리) 기반의 전자결재시스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한 일광절약제(조기출퇴근제), 고용안정과 일자리 나눔을 위한 임금피크제, 구매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전자조달

2000.03.
농림수산정보센터 수원사무실

2006.02.
농림수산정보센터 안양사무실

입찰제를 도입했다. 또 2011년에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스마트워크(Smart Work)를 도입하는 등 꾸준히 변화와 혁신을 추구했다.

2. 정보화 기반의 농림수산정보서비스 개시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는 설립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1992년 8월 한국PC통신이 운영하는 하이텔을 통해 AFFIS(Agriculture Forestry Fisheries Information Service) 정보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농어민과 소비자들은 가정에서 컴퓨터를 통해 농림수산 분야의 국내외 뉴스와 시장정보, 가격동향, 품질인증 현황, 주요 농업경제지표 등의 정보를 간편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1993년 9월부터는 데이콤의 PC통신인 천리안, 1995년 9월에는 삼성데이터시스템의 유니텔, 10월부터는 나우콤의 나우누리를 통해서도 정보서비스를 제공했다.

1994년 10월에는 VAN(Value Added Network, 부가가치통신망)에 기반을 둔 자체 통신망을 구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고품질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풍부한 데이터를 한 곳에 축적하고 이를 토대로 주요 농림수산 관련 기관·단체와 개인 회원 등에게 24시간 연중무휴로 다양한 정보를 폭넓게 서비스할 수 있게 되었다.

1996년 11월에는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웹서비스를 시작했다. 비로소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가 시작된 것이다. 다음 달인 12월에는 해외사용자들을 위해 영문판 홈페이지도 개설해 서비스를 시작했다.

한편, 농어민 상호 간의 정보교류 및 의사소통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1993년 7월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는 PC통신망에 '농산어촌 사랑방'을 개설해 운영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최초의 농업인 온라인 모임인 '농민동호회'가 결성되었다.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는 이들에게 온라인교육을 실시하며 모임 운영을 지원했다.

우리 농업·농촌을 e롭게
WWW.AFFICE.NET

3. 정보화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활성화

농어민을 위한 정보화 인프라 확충

PC통신망을 기반으로 농림수산정보 서비스를 본격화한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는 1996년 11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 웹(Web) 기반의 서비스 체제로 전환했다. 이때부터 AFFIS 서비스는 농림수산식품과 관련한 종합정보채널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AFFIS는 국내외의 농업 사이트는 물론 농수산식품에 관한 각종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누구나 쉽게 필요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농업정보의 길잡이 역할을 했다. 나아가 관련 기관·단체와 연계하여 농수산물의 생산방법, 판매처, 판매가격, 생산이력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농수산 포털(Portal)의 위상을 갖추게 되었다.

웹 기반의 정보서비스 체제로 전환한 이후에는 필요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여 서비스의 수준을 높였다. 농산물 정보를 통합적으로 검색하여 소비자가 인터넷 상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품질의 상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농축수산물 통합쇼핑몰(Mall&Mall)을 구축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정부 정책에 따라 추진한 농산물 전자상거래 사업은 당시 시작 단계였던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

1998년 6월에는 농림축산식품부(당시 농림부)와 함께 종합적인 농축산물 직거래정보 사이트 '농축산물 전자직거래 마당'을 개설했다. 이와 함께 행정기관, 생산자단체, 유통업체 등이 개별적으로 농수산물 관련 코드를 제정하여 운영한 데 따른 비효율과 상품 취합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농수산물 표준코드'를 제정했다. 또 1999년 4월에는 농업기상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농업인이 기상정보를 영농활동에 접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의 읍·면 단위별로 'AFFIS 1500 농업기상정보' 서비스도 제공하기 시작했다.

또한 농업인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중심의 농어업용 S/W를 잇달아 개발하여 보급했다. 1997년 16종의 S/W를 개발하여 농업경영인 등에게 보급한 데 이어, 1998년에는 17종의 S/W를 개발 또는 업그레이드하는 등 지속적으로 S/W를 개발·보급하여 농어촌정보화를 이끌었다. 특히 1998년에는 농업인이 농가회계 및 영농일지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아피스 농가경영장부'를 개발하여 농가의 경영관리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 밖에도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는 '농어업경영체 정보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개별농가 및 농업법인의 홈페이지 운영능력 제고와 농산물 소비촉진을 지원하고자 농업인·임업인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시작했고, 1999년 10월에는 '사이버농업 재발견 운동(Cyber Discovery Agriculture)'을 지원하는 홈페이지도 새로 개설했다. 이 운동은 농촌경험이 적은 청소년 등에게 사이버 상에서 농촌의 풍요로운 이미지를 체험하기 위해 시작한 캠페인이다.

2000년에는 각 작물의 실시간 가격, 시황, 거

래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농업인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상품을 출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출하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을 시작했다. 이어 2004년 3월에는 농업인의 PC 활용을 돕기 위해 '온라인 원격지원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농가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지원 인프라를 구축했다.

서비스 활성화 위한 지원 강화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는 지속적으로 정보화 인프라를 확충하는 동시에, 농업관계자들이 보다 원활하게 정보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 사용능력 향상과 사용환경 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2002년에는 고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각종 사이트의 운영방안과 콘텐츠 관리방안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고객의 문의와 불만을 해소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고객지원센터는 2004년부터 콜센터를 설치 운영하였고 휴면회원 관리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2003년에는 주요 사업의 하나로 정보화교육 사이트 통합구축 및 운영 사업을 펼치기로 하고, 농업인 사이버학당 통합 사이트를 구축·운영하는 동시에 온·오프라인 통합교육을 위한 콘텐츠를 개발했다. 기존에 구축했던 출하지원정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여 기능을 확장한 것은 물론, 도매시장 경락정보 등을 추가하고 서비스 품목을 확대하는 등 시스템을 내실화·고도화하는 작업도 진행했다.

이어 2004년 6월에는 전남 곡성군 칠봉리 마을을 시작으로 농촌주민들을 위한 원격진료서비스를 도입하였고, 1998년에 개발하여 보급한 PC용 S/W '농가경영장부'도 웹 기반으로 전환하여 대표적인 영농재무정보시스템으로 정착시켰다.

2000.05.16~17.
2000년 이동 정보화교육

2005.10.20.
정보화 홍보교육 심화과정

한편,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는 1992년 5월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각종 토론회, 공청회, 세미나 등을 수시로 개최하고, 이를 통해 농정(農政)과 관련한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농업발전에 반영하고자 노력했다. 또 1992년부터 매년 '농어민 정보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농어민의 정보화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정보화 DB 구축 및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에 반영했다. 이는 AFFIS 정보서비스가 농어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는 토대가 되었다.

4. 농어업 인재 육성 및 정보화 역량 강화

고도의 인프라와 광범위한 고품질 콘텐츠를 갖추고 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도 실제로 농어업 종사자들이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한다면 효율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는 농어업 종사자들이 보다 원활하게 정보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 사용능력 향상과 사용환경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통해 새로운 정보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농업인의 정보화역량을 높임으로써 도농(都農) 간의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복안이었다.

이를 위해 1993년 3월부터 '농업인 정보화교육'을 통해 농어민의 컴퓨터 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한 정보통신이용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때는 개인용 컴퓨터가 새로운 도구로 보급되기 시작하는 시기여서 컴퓨터가 매우 생소하게 받아들여졌지만,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는 자체적으로 정보화 교육장을 설치하여 체계적인 정보화교육을 실시했다. 그 결과 교육수요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이에 1996년 3월에는 충북 음성에 별도의 정보통신 교육장을 설치해 운영하기도 했다. 또 합숙교육 외에도 외부출장교육, 현지순회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더 많은 농어민이 교육의 혜택을 받도록 했다.

1999년에는 '농업정보 119서비스'를 새로 시작했다. 컴퓨터 교육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농촌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컴퓨터 지식과 활용방법을 전수하여 영농정보 이용능력을 제고하고 농업정보화를 촉진함으로써 도농 간의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둔 사업이다. 이 서비스는 농촌 인근 대학의 컴퓨터동아리 학생들이 서비스팀을 발족하고, 지역 농가를 직접 찾아가 컴퓨터 활용방법을 가르쳐주거나 도와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000년에는 바쁜 농사일로 교육기회가 부족하여 사실상 정보화에서 소외되고 있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장비가 탑재된 차량으로 현장을 찾아가 교육하는 '정보화 이동교육' 사업도 시작했다. 2007년까지 계속된 이 사업으로 총 837마을 1만 332명이 교육을 받았다.

한편, 2000년대 중반 들어서는 지식과 정보활용 능력을 갖춘 인적자원 확보가 농업경쟁력의 핵심으로 대두되었다. 자연히 농업교육의 품질향상과 체계적인 운영관리, 농업교육 홍보 등 농업교육 전반을 통합관리하고 원스톱 교육체계를 갖출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는 농업교육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그리고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정보화 교육 표준교재도 제작해 배포했다. 2006년

부터는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착수하여 농업교육 전문 포털사이트를 개발한 데 이어, 국제표준에 맞춘 온라인 농업교육관리시스템(LMS), 사용자용 온라인 농업교육관리시스템(LMS), 학습콘텐츠 관리시스템(LCMS) 등을 개발해 정보화교육을 내실화했다. 또 2009년 2월에는 농업 전문 인재 육성을 전담하는 '농업인재개발원'을 부설기관으로 설립했다.

5. 농어촌 지역정보화 사업 확대

정보통신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세상은 빠르게 정보화사회로 변화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보화 인프라가 대도시에 편중되어 농어촌은 정보에서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가 정보화 인프라를 확충하고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해도 농어촌의 현실이 이를 활용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던 것이다.

이에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는 보다 적극적으로 농어촌 지역정보화 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지원 활동의 일환으로 충북 음성군의 인터넷 포털 역할을 할 군청 홈페이지를 구축했다. 그리고 군정(郡政) 홍보 및 민원처리 기능, 정책포럼 등을 탑재해 사이버 군정 기능을 강화하고, 영어교육, 날씨 등 다양한 콘텐츠를 수록하여 농어민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했다.

2003년에는 농촌형 정보화 모델인 '디지털사랑방' 구축에도 나섰다. 이 사업은 농촌 실정에 맞는 소규모의 현장밀착형 농업·농촌 정보화 마을 기반 구축사업으로, 정보화 추세에 뒤떨어진 농촌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정보화환경을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그해 11월에는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에도 위탁 용역사업자로 참여하여 농어촌지역 정보화에 크게 기여했다.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은 정보화에 뒤떨어진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 전자상거래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주민의 정보 생활화를 유도하고자 추진한 농어촌지역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다.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는 전자상거래, 체험관광, 콘텐츠, 커뮤니티, 교육·홍보, 운영관리 등으로 분야를 나눠서 이 사업을 진행했다. 특히 전자상거래 및 체험관광 분야에 역점을 두어 웹 환경을 구축하고 전담인력에 대한 교육과 마케팅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2005년에는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전라북도 인터넷 쇼핑몰 'JB-Plaza'의 위탁운영을 맡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도 했다.

6. 정보서비스 시스템의 고도화

미디어환경 반영한 신규 채널 구축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가 농어촌의 정보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며 노력을 기울이는 동안, 세상은 IT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정보화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 이에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는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정보서비스 체계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여 성과를 높여가고자 했다.

먼저 한층 전달력 높은 동영상 형식으로 농업인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01년 인터넷방송 사이트를 자체 개발해 운영에 들어갔다. 인터넷방송에서는 주요 농산물의 경매현장, 각 지역의 전통문화와 맛집, 생산농가의 농산물 등을 취재해 소개했다. 2003년 12월 자체 스튜디오와 편집실을 설치한 이후에는 '아피스칼럼', '집중취재' 등 자체기획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농어민들의 정보수요를 충족하고자 했다.

2004년에는 편성시스템을 새로 도입하고 스튜디오와 조정실을 개선하는 동시에 사용자 참여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명실상부한 농업전문 인터넷방송으로 한 단계 발전했다. 자연히 동영상 콘텐츠의 수도 크게 늘어났다. 뿐만 아니라 미디어 서버 등 하드웨어도 보강함으로써 생방송과 스트리밍 서비스도 가능해졌다. 라디오방송도 새로 시작해 농어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크게 개선시켰다.

2009년 들어서는 방송통신 융합의 대표적 서비스인 IPTV가 보편화함에 따라 IPTV 3사와 제휴하여 '아피스TV'를 런칭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농식품 정보와 건강정보 등을 제공하고, 해외 이주노동자와 다문화가정을 위한 VOD(주문형 콘텐츠) 서비스도 별도로 편성해 운영했다.

그해 12월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는 농어업정보서비스인 아피스넷(AFFIS.net)의 BI(Brand Ldentity)를 '옥답(Okdab)'으로 변경하고, 2010년 3월에는 '옥답CEO(www.okdabceo.com)' 서비스도 새로 시작했다. 옥답CEO는 삼성경제연구소와 손잡고 농식품 경영 리더들을 위해 최신의 경영기법과 마케팅 트렌드, 성공노하우 등을 제공하는 맞춤형 지식정보 서비스이다.

2011년 1월에는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정보화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휴대폰 어플 '스마트 농식품'을 개발하여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서비스도 시작했다. 스마트농식품은 농산물 소비촉진 및 농어촌관광 정보를 비롯하여

2010.11.24.
옥답 Festival 2010

농수산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 어플리케이션이다.

농식품 IT융합 모델화 추진

농촌사회는 요소(토지, 노동, 자본) 투입형 농어업이 한계에 봉착하고 농업개방이 가속화하며 농업소득은 정체 또는 후퇴하는 어려움이 계속되었다. 이에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는 농수축산 경영의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해 각 분야별로 IT융합 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하기로 하고, 2010년 산업통상자원부(당시 지식경제부)로부터 '농수축산 IT융합 모델화사업'을 이관받아 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IT 기술을 농수축산업의 생산·유통·소비과정에 내재화하여 제품·서비스의 공정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품목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선정하여 실증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림수산정보센터는 2010년 지자체 공모를 통해 돼지, 딸기 등 5개 품목에 RFID 등 IT 신기술을 적용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대상 품목을 확대하여 유통지능화 및 경영선진화를 추진했다.

이 사업은 농어업의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고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등 농어업 경영체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식품 안전관리 및 긴급대응

사회 전반에서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 즉 웰빙(Well-being)문화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이에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식품 안전정보 공개를 위한 대표창구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농식품안전정보시스템(Foodsafety)'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시작했다.

농식품안전정보시스템은 고품질의 안전한 농수산식품을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안전관리시스템과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등 관련기관의 업무시스템을 포괄한 포털로, 농식품 안전·위험 관련 뉴스 및 동향 등의 정보와 주요 이슈, 식품안전 칼럼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되었다.

이에 앞서 2006년에는 '농산물이력관리시스템(farm2table)'의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란 농산물의 생산에서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의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농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산물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이다.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가 운영을 맡은 농산물이력관리시스템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 신청한 생산·유통·판매 사업자가 농산물의 생산정보, 출하정보를 입력하도록 구축한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는 농산물의 공정한 거래와 위험관리, 그리고 품질 및 안전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CHAPTER. 2

농촌정보문화센터
농업·농촌 가치 홍보의 새 지평 개척

1. 농촌정보문화센터 설립 및 농정홍보 시작

2000년대 중반, 세계는 1995년 출범한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체제가 정착되고 각국이 상호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하면서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개방 압력이 거세지고 있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공산품뿐 아니라 쌀과 쇠고기를 비롯한 농축수산물의 개방 압력이 커지고 있었다.

시장개방은 대체로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산업은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농어민들의 피해가 특히 우려되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도 농어업 분야에 대해 다양한 대응책을 검토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을 수립한다 해도 그 취지가 올바로 전달되지 않거나 오해가 생긴다면, 혹은 그 정책을 믿지 못하고 불신한다면 기대했던 효과를 보기 어려워진다. 농어업 분야의 홍보가 중요하게 대두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 내에서도 ①농어업 정책의 국민 이해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및 대국민 여론조사를 수행하고, ②농어업 정책, 농어업·농어촌의 가치 및 농식품 소비촉진, 농어업인 성공사례 등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홍보함으로써, ③농어업·농어촌 정책에 대한 대국민 이해 제고에 이

2005.07.06.
농촌정보문화센터
개소식

바지하는 농업·농촌 홍보 전문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이에 2005년 2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 분야에 민간의 고도화된 홍보기법을 도입한 농촌홍보기관을 설립하기로 하고, 그해 3월 노무현 대통령 업무보고 때 "한국농촌경제연구원(KERI)의 부설기관으로 설립하겠다"고 보고했다. 독립적인 특수법인으로 설립하되 법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는 과도기적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해 4월 경제사회연구회 제107차 임시이사회 의결을 거쳐 2005년 7월 6일자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설 농촌정보문화센터(CRIC)'가 설립되었다. 사무실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외교센터 4층에 마련되었다.

창립 당시 정원은 신문기자 출신인 진재학 초대 소장을 포함해 16명이었다.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지만, 법적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자체 이사회 의결로 설립하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충분한 인력이나 예산을 확보하기는 어려웠다. 그럼에도 농촌정보문화센터는 홍보환경의 변화나 우발적인 농정홍보 상황이 발생하면 T/F팀 형식으로 조직을 유연하게 운영하며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농업 희망찾기' 위한 농정홍보 강화

농촌정보문화센터가 설립될 당시 농업분야는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농산물의 생산에만 그치지 않고 농산물 가공 직거래, 농촌체험 등으로 농산업이 발전한 시기이기도 했다. 이처럼 농업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데 주목한 농촌문화정보센터는, 우리 농업의 희망을 찾아 도시민과 농업인에게 전달하는 홍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농촌정보문화센터가 설립 이후 처음으로 내놓은 홍보콘텐츠는 성공한 농업인들의 이야기를 다룬 성공사례집 『농자천하지대박』의 발간이었다. 이 책자는 도시민에게는 농업도 성공할 수 있는 산업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농업인에게는 미래를 어떻게 헤쳐 나갈지를 보여주었다는 평가와 함께 농업계와 언론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농촌정보문화센터는 해마다 한두 차례씩 성공사례집을 발간하여 농업계의 희망을 확산하는 데 앞장섰다.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우리 농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전국 각지의 농촌마을에서 운영하는 농촌체험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그 일환으로, 어린이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30개 마을을 선정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얽힌 이야기를 담은 『아스팔트 아이들 농촌에서 보물찾기』라는 책자를 발간해 각급 학교에 배포했다. 이와 함께 미래세대인 어린이들을 농업 우호층으로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도시의 초등학교와 농촌체험마을이 자매결연을 맺는 '1교1촌 프로젝트'를 운영하기도 했다.

어린이 농업교육 사이트 '으라차차'도 오픈하여 서비스를 시작했다. 또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애니메이션 '요리조리 맛술사'를 제작해 KBS 2TV를 통해 방영토록 했다. '요리조리 맛술사'는 만화책으로도 발간돼 큰 호응을 받았다.

2007년에는 초등학생들에게 친환경농업의 중요성을 알려주기 위해 교육청과 협력하여 『초등생을 위한 친환경농업 이야기』를 발간했다. 초등학교에서 교재로 활용할 수 있게 제작하여 인정도서 승인까지 받은 이 책자는, 각 초등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은 결과 제작부수의 10배가 넘는 신청이 밀려들 만큼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홍보예산을 추가 투입해도 소화하지 못할 정도였다. 이 책자는 학생들에게 환경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영향력 있는 교재로 자리를 잡았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농촌정보문화센터는 학교급식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1박 2일 코스의 친환경농업 현장견학을 연 8~10회 실시하고 친환경 급식 레시피를 책자로 만들어 전국 초등학교에 배포함으로써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친환경 급식 기반을 다지는 데 큰 몫을 했다.

이후에도 농촌정보문화센터는 『농식품 안전이야기』, 『초등생을 위한 쌀 이야기』 유아를 위한 쌀 동화책 등의 도사를 지속적으로 발간하며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농업홍보를 강화했다.

『요리조리 맛술사』 표지

『우리 쌀 원정대』 표지

2. 농어업 가치 홍보 본격 전개

새 비전 수립 및 업무 확장

농촌정보문화센터의 홍보활동이 설립 초기부터 큰 성과를 거두게 되자 사업영역과 사업예산도 크게 늘어났다. 이에 2009년 농촌정보문화센터는 기관의 설립목적에 부응하는 동시에 대내외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활동영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리고 '도시와 농어촌의 가교 역할, 저탄소·녹색성장을 지원하는 농

어업홍보 전문기관'을 새로운 비전으로 수립하고, 다음의 네 가지를 '4대 역점 경영목표'로 설정하여 기관의 역할 확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사업방향을 정립했다.

- 도시와 농어촌의 가교! 농정홍보 허브! 소통 UP
- 농어업·농어촌·농정 홍보 선도! 신뢰 UP
- 미래세대 농어업교육 홍보기반 확충! 농어업·농어촌 희망 UP
- 창의적 인재양성의 전문화·체계화! 창의력 UP

4대 역점 경영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실행방안으로는 4대 추진전략, 10개 중점과제, 23개 세부 실천과제를 수립했다. 농촌정보문화센터는 이를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전략체계에 맞춰 농촌정보문화센터는 온라인 '사랑방'을 구축하고 홈페이지에 체험마을 메뉴를 신설해 지역별 농촌체험마을 정보를 제공하는 등 도시민과 농어업인의 실질적인 교류를 지원하는 도농 소통 채널을 운영했다.

또,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농수산식품산업의 긍정적인 미래상을 전달하는 캠페인을 운영하는가 하면, 센터에 홍보자료DB를 구축하고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하는 등 데이터 관리와 조사·분석 업무도 확대했다. 미래세대에 대한 농어업·농어촌 교육·홍보 프로그램의 운영도 강화하는 동시에, 중점 소비촉진 농산물인 쌀소비 확산을 위한 홍보채널 '쌀박물관'도 이 시기에 새로 개설했다.

농정홍보 관련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유관기관 홍보자문, 정책홍보협의회 등의 운영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농어업 분야의 홍보수요를 선제적으로 충족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출입기자들의 국내외 현장취재를 지원하고 외부전문가로 구성한 홍보자문단 운영을 정례화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을 펼쳐 농업정책 홍보의 중심축 역할을 해나갔다.

효과적 농정홍보 위한 전략 실행

농촌정보문화센터가 설립된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효과적인 농정홍보에 있었다. 따라서 농촌정보문화센터는 고도의 홍보역량을 바탕으로 농정홍보에 관한 전략 제안 및 자문을 실시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농정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업무의 핵심으로 삼았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농업·농촌의 가치 홍보, 농업정책 홍보, 농식품 소비촉진 홍보, 농업인 성공사례 홍보 등을 4대 홍보사업으로 설정하고, 전문가 시각에서 농업·농촌·농정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해 나갔다. 이 시기에 농촌정보문화센터는 매년 연평균 50건 내외의 홍보사업을 수행했다.

먼저,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에 대한 홍보는,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미디어 홍보를 비롯해 농업·농촌 가치확산 캠페인, TV 프로그램 협찬을 시행하고, 오피니언리더 현장체험, 농어촌 여름휴가 보내기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농촌정보문화센터가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 확산을 위해 처음 시행한 '촌스러워 고마워요' 캠페인은, '촌스럽다'는 의미를 긍정적으로 전환한 획기적인 캠페인으로 평가되어 '2009 대한민국광고대상' 인터넷부문 우수상, '2009 웹어워드 코리아'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특히

'촌스러워 고마워요' 캠페인 화면

'촌 스테이' 프로그램은 매년 대기자 명단이 생길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농업정책 홍보 측면에서는, 농업정책에 대한 농업인의 이해도 증진과 비농업인의 농업에 대한 우호적 여론 조성을 목표로, TV 다큐멘터리 제작·방영 지원, 지역 농업클러스터 공동홍보 등의 활동을 펼쳤다. 또 농식품 소비촉진을 위해서는, 우리 농식품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홍보하여 지속적으로 충성고객을 확보하고, 농가의 판로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아침밥 먹기 캠페인, 명절맞이 우리 농식품 소비촉진 홍보 등의 활동을 이어갔다.

이 밖에도 미래세대 주역인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농업·농촌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토록 하여 향후 농업에 우호적인 인식을 가진 국민으로 성장하거나 실제 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농업·농촌 체험학습 등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온라인 농업교육 콘텐츠도 제작·배포했다.

또한 음식물 원산지 표시 정책과 관련하여 KBS와 공익광고 캠페인을 전개하는 동시에, 온라인 배너와 지하철TV, 음식업 관련 단체들과의 공동홍보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홍보기법을 활용하여 정책홍보의 성과를 높여 나갔다.

온라인 홍보 강화

농촌정보문화센터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무렵에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온라인 매체가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미디어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네티즌의 88% 이상이 포털을 통해 뉴스를 접한다는 조사결과도 있었다. 더 이상 기존의 신문·방송 매체만으로는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기가 어려운 매체환경이 열린 것이다.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하나의 콘텐츠가 여러 개로 확대재생산 된다는 점도 온라인공간의 영향력이 커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

이에 2008년 농촌정보문화센터는 온라인 홍보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 한층 고도화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터넷 여론을 일일·주간 단위로 분석했다. 온라인 서베이 시스템도 새롭게 정비하여 재구축하고, 지식검색을 통한 사전 정보제공 활동도 강화했다. 온라인에서 쟁점이 되는 이슈가 발생하면 해당 여론의 전개 추이에 맞춰 시뮬레이션을 통해 대응기법을 개발하고, 위기관리 차원에서 특별히 '인터넷 관리 과제'를 선정해 대응력을 높여나갔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온라인 공간은 구전(Viral)효과가 크다는 점에 착안하여 네티즌에 의해 정보가 확산되도록 온라인 활동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농식품부와 함께 '식품안전', '국제곡물' 등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농업현장 체험을 전파하기 위한 온라인 체험단 등도 운영했다.

온라인에서도 다양한 홍보채널을 구축하여 이슈에 선제 대응하는 홍보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농촌정보문화센터는 농어업·농어촌 홍보의 가장 믿을 만한 전진기지로 자리를 잡아나갔다. 특히 온라인 홍보의 전문성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온라인 공간에 최적화된 홍보기법을 활용함으로써, 농촌정보문화센터의 온라인 홍보는 언론과 네티즌들 사이에서 수시로 화제를 불러 모으곤 했다.

3. 조사·분석 업무의 전문화

농촌정보문화센터가 출범 초기부터 비중 있게 수행한 업무 가운데 하나가 조사·분석 업무이다. 이 업무는 처음에는 홍보의 방향과 방법 등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데 참고하기 위해 국민들 특히 농어업인들의 의식을 조사하는 업무로 시작되었다. 국민의 농업·농촌 인식도 및 농업인의 정책 인지도 조사, 소비자 등의 국산 농산물 선호도 조사, 농업·농촌 홍보사업에 대한 평가·분석을 실시하여 홍보방향 및 중장기 계획과 홍보전략을 제안하는 근거로 활용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조사·분석의 결과가 높은 신뢰도를 확보하게 되고, 홍보활동뿐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 관련 기관, 언론 등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조사·분석 업무는 독립적인 고유의 리서치 업무로 자리를 잡아 정례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농촌정보문화센터가 수행한 주요 조사·분석 업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과 농업인에 대한 인식도 조사·분석이다. 국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농업인의 정책 인식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한다. 매년 8월 초에서 9월 말 사이에 실시하여 분석한 후 10월경에 홍보방향을 수립하는 데 적용되었다. 갤럽 등 여론조사 전문업체를 통해 실시한다.

둘째, 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조사이다. 국민과 농업인의 인식도 조사와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는데, 마찬가지로 갤럽 등 여론조사 전문업체를 통해 실시한다.

셋째, 농촌정보문화센터가 실시하고 있는 현행 농정홍보에 대한 평가·분석이다. 홍보사업의 추진실태와 그 효과성을 분석하는 업무인데, 홍보사업별로 비교분석도 실시하여 우수한 홍보사례를 발굴하고 벤치마킹도 실시한다. 대개 10월 초에서 11월 말 사이에 실시하며, 12월에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홍보추진방향과 전략을 수립하여 매뉴얼로 제작한다.

이후에도 농촌정보문화센터는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하는 등 조사·분석 업무의 범위를 확장하여 농정홍보 및 정책 제안에 도움이 될 자료들을 축적했다. 이에 따라 농촌정보문화센터는 홍보기관으로서만이 아니라 조사·분석기관으로서의 면모도 갖추게 되었다. 물론 이런 조사 분석들은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농업과 농촌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됨은 물론이다.

4. 농식품 소비촉진 홍보 확대

농촌정보문화센터의 홍보활동 가운데 농식품 소비촉진 홍보의 비중이 점차 높아졌다. 국민들의 식문화가 급변했기 때문이다. 가격이 낮은 수입농산물과 간편식을 선호하는 소비트렌드가 확산되는가 하면, 아침 결식자가 늘고 육류 소비는 증가하는 등 과거와는 다른 경향이 뚜렷해졌다.

그 결과 쌀을 비롯한 국산 농산물의 소비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했다. 1995년 1인

2011.03.18.
교사지원단 발대식

당 106.5kg이었던 쌀 소비량은 2008년에는 75.8kg으로 급감했다. 이런 현상은 농업인의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졌다. 따라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촌의 희망을 높이려면 우리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충성도를 높이는 소비촉진 홍보가 매우 중요해졌다.

이에 농촌정보문화센터는 쌀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전개했다. 먼저, 2006년 1월 1일 새해 첫 일출을 보기 위해 서울 남산에 몰려든 사람들에게 쌀떡국을 나눠주며 '아침밥먹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 캠페인은 KBS 2TV가 현장스튜디오에서 전국에 생방송으로 내보내 큰 반향을 일으켰다.

'농업인의 날'인데도 오히려 '빼빼로데이'로 더 많이 알려져 있던 11월 11일에는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는 '가래떡데이' 프로모션을 기획·운영하여 우리 농산물과 농업·농촌의 가치를 전파하고자 노력했다.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경기도 부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실시한 가래떡 만들기 행사는, 1,111미터에 달하는 세계 최장의 가래떡을 만든다는 점이 화제가 되어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2008년에 실시한 '행복한 아침밥상' 메일 보내기도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소비자들이 쌀밥 중심으로 손쉽게 아침밥을 해먹을 수 있도록 메일을 통해 레시피를 제공하는 활동인데, 이 소식이 MBC 뉴스에 보도된 후 레시피 메일을 받겠다는 신청 전화가 쇄도해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 이를 계기로 쌀을 활용한 요리를 다양하게 개발하여 그 레시피를 책자로 발간하고 온라인 콘텐츠도 만들어 '쌀박물관'을 통해 확산했다.

농촌정보문화센터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전국의 소비자단체들과 손을 잡고 '쌀과 함께 건강생활 운동본부'를 결성해 범국민적인 '식생활 개선 캠페인'을 전개했다. 쌀소비의 필요성과 쌀의 우수성을 전파하기 위해 드라마 PPL, 팸투어, 온라인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활동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센터 내에 인터넷홍보팀도 신설했다. 쌀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는 기관통합 이후에도 중요한 홍보이슈로 계승되어 지금까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2006.11.08.
농업인의 날
(가래떡데이) 맞이
세상에서 가장 긴
가래떡 뽑기

한편, 같은 시기에 농촌정보문화센터는 쌀뿐 아니라 국가인증 농식품에 대한 홍보도 시작함으로써 우리 농식품에 대한 본격적인 홍보의 첫걸음을 내딛었다. 국가인증 농식품 홍보는 4대 대형 유통업체의 15개 점포에서 일제히 시작되었는데, 이를 통해 국가인증 농식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건강한 먹거리의 소비를 권장하는 활동을 펼쳤다.

이러한 소비촉진 홍보사업들은 기관통합 이후 더욱 풍성한 콘텐츠가 개발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확산되면서, 우리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 충성도를 높이는 홍보사업으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2009.
농촌정보문화센터
사랑의 김장 김치
전달식

CHAPTER. 3

농업인재개발원
실습중심 교육으로 농업전문인재 양성

1. 농업인재개발원 개원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는 농업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2005년 12월 교육·컨설팅·평가 등 교육과정 전반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전문화된 가칭 '농업·농촌 인력교육재단'을 설립하는 방안이 검토되었다. 2006년 3월에는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가 시행한 '농어업인 교육정책혁신 연구' 용역에서도 '농업인력개발센터'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농업 전문인재 육성과 인재개발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자 2008년 9월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의 교육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新)농업교육체계'로의 개편을 단행했다. 신 농업교육체계는 실습장과 실습교육 프로그램이 미비한 채 이론 위주로 운영돼 온 기존의 농업교육을 실습형 현장학습 중심으로 전환한 새로운 교육방식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교육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교육기관으로 2009년 2월 10일 경기도 안양시 호계1동에 '농업인재개발원'이 설립되었다.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부설기관으로 설립된 농업인재개발원은 창조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농업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실습형 현장학습 교육을 시행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농업인재개발원은 표준교육과정 개발, 농업인 교육이력관리, 농업교육 평가 및 성과 확산, 교육프로그램 인증, 전문 강사 육성 및 기초 조사·분석 등 농업교육 전반에 대한 지원·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조직은 정문섭 초대 원장을 중심으로 교육기획팀, 평가인증팀, 교육지원팀 등 3개 팀을 두었다.

2009.02.
농업인재개발원
개원식

농업인재개발원
Agriculture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stitute

2009.02.
농업인재개발원 설립

2. 농업인재 양성 전문역량 확보

설립 이후 농업인재개발원은 양적인 측면이 아닌 질적인 측면의 교육으로 전환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기관별로 중복 또는 분산되어 있던 교육과정을 통합하고, 단기교육을 우수기관에 의한 중장기 실습중심 및 심화교육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2009년 141개 과정이던 이론교육은 2010년 55개 과정으로 축소되었다. 반면에 같은 기간 현장실습교육은 12개에서 70개로 대폭 늘어났다.

2010년부터는 모든 교육과정의 운영기관을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부실 교육기관은 퇴출토록 하여 교육역량을 강화했다. 동시에 보다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각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도 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여러 단계에 걸쳐 엄격하게 시행했다.

그 결과 2010년에는 장기교육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2만 1,000명의 농업인이 교육수강을 지원할 만큼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으로는, 체계적인 교육운영과 교육품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현장실습교육(WPL) 표준프로그램 등 수많은 교육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하거나 재설계했다. 농업마이스터대학 표준교과목과 교과과정도 재설계했다.

2010년에는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한 제도 도입의 기반 연구, 농업마이스터 양성을 위한 제도 연구, 농업교육 학위 취득 표준교육과정 개발 등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다양한 연구활동을 벌여 교육의 질 향상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2010년 12월에는 '농업교육 선진화 및 효율향상을 위한 농업교육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기도 했다.

이러한 교육역량에 바탕을 두고 2010년 2월 농업인재개발원은 농어업경영컨설팅 평가점검사업자 승인을 받아 농어업경영컨설팅 인증사업을 시작했다. 같은 시기에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을 위한 평가기관으로도 지정받아 후계농업경영인 평가 및 홍보사업을 시작했다.

2011년 2월에는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 및 농업법인 CEO MBA 교육과정의 운영을 시작했다.

이처럼 농업인 교육 분야에서 고유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전문인재 육성에 적극 나서면서, 농업인재개발원은 국내 최고의 농업인 교육정책기관이자 전문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3. 농업인 맞춤형 교육체계 확립

농업인재개발원의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실질적으로 농어업 분야의 전문인재 육성이라는 당초의 목표를 구현할 수 있도록 농업인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교육을 시

행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가 현장실습교육(WPL)이다. 이론교육장과 실습장 등을 갖추고 선도농업인이 보유한 전문기술과 핵심노하우를 후발농업인에게 전수하는 현장실습형 교육을 말한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2009년 2월 설립된 '농업마이스터대학'이다. 농업마이스터대학은 최신 농업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추고 이를 전수할 수 있는 전문농업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으로, 실습중심의 기술 및 경영역량 교육을 실시하는 2년제 학습과정(설립 첫해에는 4년제로 운영)이다. 농업인재개발원은 운영지원기관으로서 농업마이스터대학이 고급 농업기술인력의 산실로 자리 잡는 데 크게 기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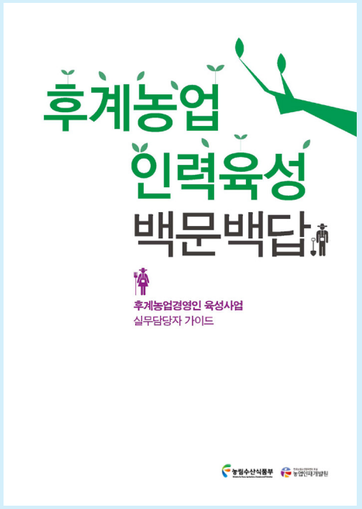
'귀농귀촌교육'도 마찬가지이다. 농업인재개발원은 2009년 6월 귀농귀촌 종합대책사업 사업자로 지정된 후 귀농자가 농업·농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했다. 귀농귀촌 희망자를 위해 온라인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농촌적응 영역, 농업경영 영역, 기초기술 영역, 법률 및 정책 등 다양한 교육을 제공했다.

오프라인 교육의 경우 공모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귀농귀촌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과정을 운영했다. 비농업계 창업희망자의 귀농귀촌에도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 귀농귀촌 오프라인 교육의 경우 2009년 36개 과정, 2010년 23개 과정, 2011년 19개 과정을 운영했다.

교육수료생에 대해서는 귀농귀촌 사후관리 사업도 시행했는데, 영농정착 실태조사, 영농정착 컨설팅 및 자문 지원, 우수사례집 제작 등을 실시했다. 사후관리를 위한 e-Tutor를 운영하며 온·오프라인에 걸쳐 귀농상담소도 가동했다.

한편 2011년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귀농귀촌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국내 최초로 전문 코디네이터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도

귀농귀촌 온라인 홍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백문백답』표지

현장실습교육(WPL) 실습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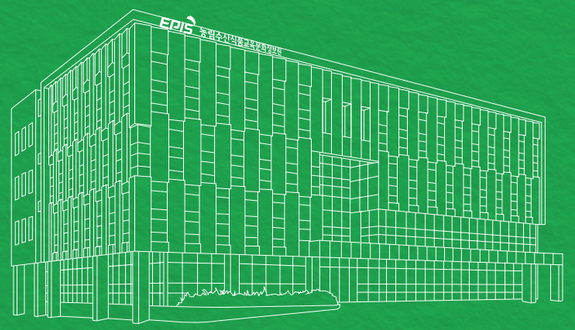
했다. 귀농귀촌 코디네이터는 귀농정책, 법률, 상담기법 등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수료한 전문인력으로, 지역 및 품목 결정, 정보수집, 네트워크 형성 등 귀농 준비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현장의 종합 안내자 역할을 담당했다.

이런 농업인재개발원의 노력이 2014년 귀농귀촌활성화에 대한 법률이 추진될 때 귀농귀촌종합센터 추진주체를 농정원으로 정리하게 된 기반이 되었다.

Part 2.

HISTORY 통사

2009년 정부 부처 통폐합 논의에 따라 농업 정보화 및 농정 전반의 교육 홍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개 기관이 통합하여 2012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으로 새롭게 탄생하였으며, 설립 이후 10년간 상호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농식품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하였다.



CHAPTER 1.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으로 통합되다
2012-2014

CHAPTER 2.
'세종시대'의 개막, 행복한 농어촌을 꿈꾸다
2015-2016

CHAPTER 3.
농업의 4차 산업화 기반을 닦다
2017-2020

CHAPTER 4.
'독립청사'시대, 미래농업발전을 위해 도약하다
2021-2022

CHAPTER. 1

2012
2014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으로 통합되다

1. 3개 기관 통합 '농정원' 창립
2. 경영체계 재정비 및 '비전2020' 선포
3. 농업인재 양성 위한 인프라 개선
4. 농업·농촌 다원적 가치 및 소비촉진 홍보
5. '귀농귀촌종합센터' 이관, 업무 개시
6. 농업정보서비스 허브기관으로의 진화
7. 국제통상및 협력사업의 시작

1 3개 기관 통합 '농정원' 창립

통합 이전의 기관 운영

농어촌의 정보화를 촉진하여 농어촌 선진화를 실현하려는 노력은 199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우리 사회에는 개인용 컴퓨터가 빠르게 보급되기 시작하고 이를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정보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다. 하지만 도시지역에 비해 농어촌지역은 '정보화에서 소외되었다'는 말이 나올 만큼 정보화 진행속도가 매우 더뎠다. 사실상 정보화와는 동떨어진 형편이었다.

농어촌이 도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현격하게 정보화가 뒤처진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무엇보다 정보화의 개념이 생소하고 그 효과에 대한 이해도 높지 않은 상황에서,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산업으로 유지돼 온 농어업 종사자들은 새로운 '정보'에 접근하기가 어려웠다. 더욱이 당시만 해도 정부 정책이 경제개발 및 수출증대를 위한 산업화·공업화에 치중해 있어 농업 분야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었다.

젊은 인력이 대거 도시로 진출하는 바람에 농어촌의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었다는 점도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였다. 또 도농 간의 소득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점 또한 마찬가지였다. 당시 농어촌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높지 않은 데다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 협상에 따라 쌀을 비롯한 각종 농림수산물 시장을 개방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농어민들의 의욕이 크게 저하되어 있었다.

농어촌의 위기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며 '농어촌 살리기'에 나섰다. 첨단기술이 세상을 바꿔가는 테크놀로지의 시대에 전통산업인 농업은 자칫 사양산업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국가의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산업이라는 점에서 결코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중요한 산업이라는 인식이었다.

농어촌을 살리기 위한 노력 가운데 하나로 추진된 것이 바로 농어촌 정보화 사업이다. 이를 위해 1992년 2월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AFFIS)'가 설립되었다.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는 농어촌의 정보화 인프라를 확충하고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물론, 농어업 전문인재의 육성과

농어촌 지역정보화 사업에 박차를 가했다. 덕분에 정보화와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였던 농어촌에도 정보화의 기반이 구축되기 시작했다.

2005년 7월에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부설기관으로 '농촌정보문화센터(CRIC)'가 문을 열었다. 농촌정보문화센터는 새롭게 변화하는 농업·농촌의 모습을 널리 알리고 농산물의 우수성 및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에 주력함으로써, 농정(農政)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우리 농업·농촌의 희망찾기를 선도하기 위해 설립된 농업·농촌 홍보 전문조직이다. 농촌정보문화센터는 미디어홍보, 출판, 이벤트 프로모션, 농촌체험 프로젝트 등 다양한 홍보채널과 툴(tools)을 가동하며 농업홍보의 새 장을 열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조직이 바로 '농업인재개발원(AHDI)'이다. 농업인재개발원은 창조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전문 농업인재를 육성하고자 2009년 2월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부설기관으로 설립되었다. 농업인재개발원은 농업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기술과 전문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중장기 현장실습 교육과정 및 국내외 연수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고급 농업인재를 대거 양성했다.

이처럼 농림수산정보센터, 농촌정보문화센터, 농업인재개발원은 저마다의 영역에서 농어촌 살리기의 첨병이 되어, 우리 농어촌이 과거의 낙후한 모습에서 벗어나 선진 농어촌으로 변화하는 데 동력을 제공하는 선도자 역할을 수행했다.

3개 기관 통합 논의의 진행

2009년 무렵 정부 부처 통폐합 논의의 진전에 따라 조직규모가 커진 농림수산식품부는 소관업무를 조정하고 소속기관 일부를 재정비해 통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의 통합이 검토되는 등 소속기관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통폐합 방안이 검토·추진되었다.

이 과정에서 농업 정보화 및 농정 전반의 교육·홍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농업인재개발원, 농촌정보문화센터 등 3개 기관을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되었다.

이들 3개 기관을 통합하여 농어업·농어촌 정보화와 농업인재 양성 지원, 농업교육 표준교육과정 개발, 농업·농촌의 이해증진과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의 기능을 한 데 모으면 상호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농업 선진화에 더 큰 동력을 얻게 될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발전미래전략
전 직원 워크샵

마침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지적된 터여서, 기관 운영을 정상화하고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2012.02.02.~03.
농정원 발전방안
토론 워크샵

당시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자체적으로도 통합을 통해 저비용·고효율의 농어업 생산이 가능하도록 IT를 기반으로 농어업 생산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구상을 갖고 있었다. 기후변화 대응과 친환경 농산물의 수요가 급증하는 등 세계적으로 농업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첨단 IT 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 농업을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환경 변화에 맞춰 농어업의 생산·유통·가공·마케팅에 걸쳐 최신 맞춤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농어업 경영체제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 여러 기관에 산재한 가격, 유통, 경영, 식품안전 정보 등을 통합 관리하여 정보 활용의 효율을 높이겠다는 복안이었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내에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개혁추진작업반'이 구성되었다. 개혁추진작업반은 2009년 7월 첫 회의를 갖고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이를 토대로 12월에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3개 기관의 통합을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후 동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해 2010년 6월 법령정비협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2010년 8월 이를 입법예고했다. 9월에는 법제처 심사까지도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다만 법제처는 통합법인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여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설립근거를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한때 조속한 통합추진을 위해 법령 개정 절차를 정부입법으로 할 것인가 의원입법으로 할 것인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다. 하지만 3개 기관의 기관장 협의와 실무협의를 거치면서 정부입법 형식으로 추진하기로 최종 정리되었다. 동시에 법제처 권고에 따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 2를 신설하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설립'을 규정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이 2011년 2월 28일 재차 입법예고되고, 3월에는 법제처 심사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4월 1일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대체로 기관통합에 찬성하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통합의 시너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신중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국회는 “통합법인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할 때는 각 기능을 효과적·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기관통합의 시너지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조직구조와 인력운용 등 여러 측면에서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률개정안은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반 년 정도가 지난 2011년 10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정부가 11월 22일 이 법을 공포함으로써 통합법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EPIS)’(이하 약칭 ‘농정원’)의 설립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이 갖춰지게 되었다. 농림수산식품분야 공공기관 가운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설립근거를 둔 기관은 농정원이 최초였다.

농정원 개원 및 준정부기관 지정

3개 기관을 통합하여 농정원을 설립한다는 방침이 법제화됨에 따라 2011년 11월 22일 나승일 서울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7인의 전문가들로 ‘농정원 설립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설립위원회는 11월 30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매월 1차례 이상 회의를 개최해 농정원 설립계획과 일정 등을 토론하며 주요 현안들을 검토·확정했다.

실무를 담당할 설립준비단도 발족해 활동에 들어갔다. 설립준비단은 2012년 1월 2일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해 통합법인 설립을 위한 실무업무를 수행했다.

개원 준비를 마친 농정원은 2012년 5월 23일 공식 출범했다. 농업경영의 핵심요소인 정보·교육·홍보 분야의 업무를 통합해 수행할 전담조직이 마침내 문을 연 것이다.

기구조직은 4본부 2실 15팀에 정원은 108명으로 구성하고, 임기 3년의 초대 원장에는 하영효 전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사장을 선임했다.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의 캠프넷빌딩에 임시 통합사무실도 마련했다.

농정원은 기존의 3개 기관이 고유 업무로 수행해오던 농림수산사업의 정보화, 정예 농어업인 육성, 농어업·농어촌 가치 확산 등의 업무를 한층 고도화하고 각 사업별로 책임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해 경영기획본부, 정보화사업본부, 인재양성본부, 가치확산본부 등 4개 본부 체제를 도입했다. 또 정보화사업본부 산하에 정보화전략실을 두고 농식품 IT융합사업 및 농업경영정보 관련 업무를 담당토록 했다. 이와는 별도로 통상정책과 국제협력에 관한 정보 지원, 농수산물에 대한 지식 및 산업재산권 보호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미래전략실을 신설했다.

농정원 출범에 맞춰 하영효 원장은 농식품 IT 융합 및 활용 촉진, 전문 농업경영인 교육, 맞춤형 지식·정보 제공, 귀농귀촌 정착 지원, 농식품 글로벌 협력 지원 등 농식품·농어촌 분야의 신(新)가치창출을 위한 10대 과제를 선포했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농식품 정책지원뿐 아니라, 대국민 편익을 향상하여 미래세대 농식품·농어촌의 가치와 지식·정보를 창출하는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2.05.23.
농정원 개원식

한편, 공식 출범하여 업무를 시작한 농정원은 6월 4일 통합사무실이 입주한 캠프넷빌딩 본관 1층에서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홍문표 국회의원 등 주요인사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갖고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 자리에서 하영효 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농정원은 세계 일류의 농식품, 농어촌, 지식정보 선도기관이 되어 미래세대 농어업·농어촌의 가치창출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탄생했다”며, 농어업과 농어촌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 힘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서규용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3개 기관 통합을 위해 3년이라는 진통 끝에 양보와 타협을 통해 법적 근거를 가진 통합기관이 탄생했다”고 회고한 뒤, “빠른 시간 내에 조직역량을 결집하고, 인화(人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며 조기에 조직의 화학적 통합을 이뤄 업무성과를 높여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통합을 계기로 농정원은 3개의 기관이 담당하던 정보화와 교육, 홍보 업무는 물론, 스마트 기반의 농정 지원과 국제통상협력분야 등으로 업무범위를 확장했다. 이로써 농정원은 국민에게 양질의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어업과 농어촌의 가치를 높여나가는, 농어촌의 동반자와 같은 조직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다. 농정원은 출범 이듬해인 2013년 1월 31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 경영체제 정비 및 ‘비전2020’ 선포

비전2020과 전략과제 수립

농정원의 설립 근거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제11조의 2에서 농정원의 설립목적이 ‘농어업 인적자원 육성, 정보화 촉진, 가치 확산, 농수산물의 안전정보 제공’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농정원 정관 제2조는 여기에 더해 ‘농어업경영체의 역량 제고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즉, 농정원의 설립은 ①농식품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경영체 역량 제고에 주력하면서, ②농업정보화를 촉진하여 농어촌의 지속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③농촌의 다원적(多元的) 가치를 확산함으로써 ④경쟁력 있는 농업, 행복한 농촌 실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농정원은 설립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전 임직원이 공유할 가치체계(Value System)를 새롭게 정립하기로 했다. 기관 출범 직후인 2012년 6월 최초의 가치체계가 수립되었지만, 기관의 설립목적을 온전하게 구현하는 나침반으로 삼기에는 부족함이 많아 이를 재정비하기로 한 것이다.

농정원은 2012년 10월 비전정비추진T/F를 구성하고 하영효 원장이 직접 단장을 맡아 실무작업을 진두지휘했다. T/F는 우리 농어촌의 현실과 이를 둘러싼 환경, 조직 내부의 역량, 정부 정책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전 직원 및 유관기관,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 회의 등을 진행하며 의견을 청취했다. 그리고 주요 간부들이 참석하는 워크숍과 경영전략회의를 거쳐 2012년 12월 이사회에서 새로운 가치체계를 확정했다.

2013년 1월 2일, 농정원은 100여 명의 전체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비전선포식을 갖고 새롭게 수립된 가치체계를 대내외에 선포했다.

‘비전2020’으로 명명된 새 가치체계는 농정원의 설립목적과 업무특성을 반영하여 미션(Mission), 비전(Vision), 핵심가치(Core Values), 전략목표 등의 요소로 구성되었다.

2013.01.02.
농정원 시무식 및
미션비전 선포식

미션은 농정원의 존재 이유를 명확히 밝힌 것으로, “농업경영 혁신과 농촌가치 확산으로 경쟁력 있는 농업, 행복한 농촌 실현에 기여”로 설정했다. 그 이후 여러 차례 가치체계 개편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수립한 미션은 변함없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한편, 농정원의 미래상을 정의한 비전은 “농식품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지식정보 전문기관”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비전 실현을 위해 임직원이 공유해야 할 핵심가치로는 ‘창조성, 전문성, 소통, 고객행복’ 등 4가지를 정했다.

비전2020 실현을 위한 4대 전략목표도 수립했다. ①창의적 농업인 양성, ②농업경쟁력 기반 구축, ③농촌가치 공감대 확산, ④지속발전 경영체계 확립 등이다. 농정원은 4대 전략목표를 토대로 10개의 전략과제와 30개의 세부과제를 도출하여 해당 사업본부가 중심이 되어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했다.

이로써 농정원은 출범 7개월여 만에 전 임직원이 공유하면서 한마음으로 실천해나갈 가치체계

농정원의 비전2020 가치체계

미션	농업 경영 혁신과 농촌 가치 확산으로 경쟁력 있는 농업, 행복한 농촌 실현에 기여			
비전 2020	농식품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지식정보 전문기관			
핵심가치	창조성	전문성	소통	고객행복
전략목표	창의적 농업인 양성	농업 경쟁력 기반 구축	농촌 가치 공감대 확산	지속발전 경영체계 확립

비전2020에 따른 전략목표와 전략과제

전략목표	10대 전략과제	30대 세부 과제
창의적 농업인 양성	▸ 창의적 인재양성 체계 확립	▸ (3개) 농업인 사이버 평생학습 기반 구축 등
	▸ 글로벌 정예 농업인 양성	▸ (4개)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등
농업경쟁력 기반 구축	▸ 농식품 지식·정보활용 촉진	▸ (3개) 농식품 지식 정보 제공 등
	▸ 첨단 농업 기반 조성	▸ (4개) 농식품 IT융합 모델 발굴·확산 등
	▸ 농식품 글로벌 협력지원	▸ (3개) 농식품 국제통상 지원 등
농촌가치 공감대 확산	▸ 도·농간 소통 지원 확대	▸ (3개) 농정과제에 대한 홍보 등
	▸ 농식품 소비자 알권리 보장 및 정보교류	▸ (3개) 농식품 소비종합정보망 구축 등
	▸ 농식품 소비촉진 및 인식 제고	▸ (2개) 농식품 소비촉진 및 우수성 홍보 등
지속발전 경영체계 확립	▸ 전략경영체계 선진화	▸ (3개) 전략적 성과관리체계 구축 등
	▸ 지속적 경영효율화 및 책임경영 강화	▸ (2개) 기관 재무건전성 및 사업수행효율성 강화 등

와 기관의 설립목적을 구현할 구체적인 사업추진의 방향을 명확히 정립했다. 이때 정립한 가치체계와 전략과제는 이후 사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일부 수정되기도 했지만, 농정원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구심점 역할을 했다.

비전 전파 및 내재화 노력

아무리 훌륭한 가치체계를 정립했다 해도 이를 전 구성원이 공유하고 실천하려는 노력이 뒤따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에 농정원은 비전 2020을 널리 공유하고 내재화하여 실제 업무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먼저, 비전을 선포할 때부터 노사 공동으로 선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했다. 홈페이지에 가치체계를 상시 게시하고 매월 월례조회 시에는 외부강사를 초빙해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신입사원들이 열정과 역량을 표출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하고자 'EPIS Passion Camp'를 운영한 것을 비롯해, 5월 3일 개최한 '노사 어울림 한마당' 등의 행사를 통해 임직원이 함께 어울리며 가치를 공유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했다.

2014.08.27.
원장님과 함께하는 생일자 오찬

특히 하영효 원장은 매월 생일을 맞은 직원들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며 소통하는가 하면, 주 1회 정기적으로 'CEO칼럼'을 작성해 인트라넷으로 전파하며 비전과 핵심가치, 농정원의 사업전략 등을 폭넓게 공유하도록 앞장섰다.

농정원은 외부 고객들과도 가치를 공유하는

2015.04.30.
노사상생 어울림 한마당

노력을 병행했다. 임직원이 이해관계자를 직접 방문해 가치체계를 설명하면서 원활한 협업을 다짐하는 것은 물론, 소식지와 각종 출판물을 전달하며 가치체계를 공유했다. 또 관련 기관단체들과 MOU, 포럼, 세미나, 워크숍 등 다양한 형식의 모임을 갖고 농정원의 의지와 사업방향을 공유하며 건강한 파트너십을 다져나갔다.

농정원은 가치체계의 전파 및 전략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실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모니터링도 강화했다. 주 1회 주간업무점검회의, 월 1회씩 경영성과관리위원회와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했으며, 주요 사업별로 외부 인사를 전담이사로 지정해 수시로 현황을 파악하도록 했다.

분기 1회 평가자문회의를 열어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기도 했다.

2013년 1월 설치한 '고객행복위원회'는 비전 실현을 향한 농정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농정원은 가치사슬(Value Chain)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고객으로 분류하고, 이들과 소통하기 위해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고객행복위원회를 설치해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는 등 고객만족을 실현하고자 노력했다.

비전2020 기반의 새 조직문화 조성

조직의 비전을 실현하는 주체는 임직원이다. 비전은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공존하며 협력해야 실현 가능한 원대한 목표이지만, 그 실행주체는 결국 내부의 임직원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직구성원이 비전을 향한 열정과 핵심가치를 내재화하고 이를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농정원은 조직의 가치체계와 조화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각별한 정성을 기울였다. 더욱이 농정원은 3개의 기관이 통합하여 출범한 기관이기 때문에, 전 조직이 높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단일한 가치관 아래 단합하는 화학적 통합을 이루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이에 농정원은 출범 직후부터 조직통합을 위한 제도개선 조치들을 잇달아 내놓으며 조직 전반에 성과지향의 문화와 열정 넘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했다.

먼저, 2012년 6월 인사보수체계를 단일한 기준으로 조정하여 통합했다. 기관 설립과 동시에 전 직원에 대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그 이후 성과평가 체계를 고도화하여 2014년 12월에는 노사합의를 거쳐 정부 지침에 따른 성과연봉제를 정착시켰다. 성과연봉제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는 조사 결과 73%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03.
『상상낙서』 창간호

농정원 고유의 조직문화를 조성하려는 노력도 병행되었다. 3개 기관 직원들이 합쳐진 만큼 직원들이 조기에 원팀(One Team)으로 뭉쳐 단합할 수 있도록 2012년 7월 전 직원 통합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수시로 단체행사를 진행하여 직원들 간의 스킨십을 높여나갔다. 2014년 1월, 감사원 감사 결과 일부 항목에서 방만경영 사례가 지적되었을 때는 노사 공동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노사가 함께 일터혁신수준 진단을 실시하여 개선활동을 펼치는 '좋은일터 만들기' 캠페인을 벌이는 등 노사가 협력하는 건강한 노사문화도 정착해나갔다.

선배직원과 신입사원 간 대화의 장인 'EPIS Passion Camp', 젊은 세대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경영에 반영하기 위한 'New Wave Board' 등을 운영하여 세대 간 소통을 확대했다. 또 2013년 6월에는 육아휴직 대신 근무시간을 단축해 이용할 수 있는 육아기 단축제도를, 2013년 8월에는 주 2회 시행하는 '가족사랑의 날'을 도입하는 등 일과 삶의 균형(Work & Life Balance)을 추구하는 제도도 적극적으로 운영했다.

농정원이 새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소식지 『상상낙서』의 역할은 매우 컸다. 『상상낙서』는 임직원 상호 간의 소통과 정보교류를 촉진하고 상상력을 높여 유연하고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2013년 3월 창간된 계간지이다. 『상상낙서』는 국내외의 최신 농림수산업 관련 정보와 화제의 농업인, 농정원 소식 등 다채로운 정보를 소개하여 조직 안팎을 연결하는 유익한 정보채널로서의 역할도 담당했다.

이에 앞서 2012년 11월에 시작한 '칭찬릴레이' 이벤트도 새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한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꼽힌다. 이 프로그램은 모범적인 업무태도로 직원 화합 및 즐거운 직장문화 만들기에 앞장선 '칭찬사원'을 매월 2명씩(2014년부터는 월 1명씩) 선정하고, 연말에는 직원투표 등을 거쳐 '올해의 칭찬사원'을 선정, 포상하는 이벤트이다. 이 프로그램은 매번 큰 화제를 모으며 사내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고 조직 내에 칭찬문화를 확산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3 농업인재 양성 위한 인프라 개선

'창의적 인재 육성' 전략과제 수립

농정원의 설립목적 가운데 그 첫 번째는 '농식품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경영체 역량 제고'이다. 농업인재 육성이 농정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다. 이 같은 설립목적에 맞춰 농정원은 비전2020을 수립하면서 '창의적 농업인 육성'을 4대 전략목표 가운데 하나로 설정했다.

농정원은 농촌으로의 신규 인력 유입을 늘리기 위해 기관통합 이전부터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농업교육을 실시하며 농업인력 육성에 힘을 쏟았다. 동시에 농업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고품질 교육과정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농가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농산업 인력 부족으로 농촌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기존의 교육만으로는 농촌의 열악한 현실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예화된 농업인력을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더욱이 다른 산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농업 역시 글로벌 경쟁이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글로벌 수준의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과 고도의 생산역량을 갖춘 농업경영인 육성이 매우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농정원은 '창의적 농업인 양성'이라는 전략목표에 따라 ①창의적 인재양성 체계 확립, ②글로벌 정예 농업인 양성 등 2개를 전략과제로 선정하고, 농업인 사이버 평생학습 기반 구축,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등 7개의 세부과제를 수립했다.

이와 함께 농업인을 위한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하고 분야별·계층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농업마이스터’ 등 정예 농업인 양성

농정원은 기관통합을 계기로 핵심 농업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기로 하고, 보다 효율적인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교육과정 운영방식 전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갔다.

먼저 ‘농업마이스터대학’의 표준교육과정을 개편했다. 농업마이스터대학은 품목별 최고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실습중심의 평생교육기관으로, 교육을 통해 농업인의 기술경영능력을 제고하고 소득을 향상시키는 데 목표를 둔 2년제의 실용교육체계를 말한다. 2009년 2월 개교 이후 농업인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교육체계라는 호평을 받아 왔다.

전국 9개 도(道)에 소재한 대학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가운데 1개교씩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데, 운영체계상 농정원은 학사운영 지원, 교육운영 및 성과평가, 학사관리시스템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마이스터대학의 지정 및 관리, 품목전공별 교육과정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농정원은 2012년 6월까지 교과과정 개편과 관련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업마이스터대학 표준교육과정 및 교과목을 전면 재설계했다. 특히 기존 과정을 일부 재조정하고, 5개 분야 32개 품목전공, 591개 교수요목 및 수출전략품목전문가과정 11개 품목을 새로 개발했다. 이에 따라 2013년의 경우 9개 대학에서 전년보다 13개가 늘어난 101개 전공분야가 개설되었고, 이 중 96개 전공에 2014명이 등록해 교육을 받았다.

이와 함께 농정원은 맞춤형 현장실습교육(WPL)을 확대 강화하기로 하고, 영농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선진 영농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장을 늘려 지정했다. 특히 6차산업 활성화에 대비하여 말, 허브 등 신규 분야를 추가하여 실습장을 지정하고 교육대상도 크게 늘렸다.

그 결과 2011년에 현장실습교육장 33개소, 교육인원 1,763명이었던 WPL 교육이 2012년에는 49개소, 3,361명으로 급증했다. 실습장은 그 이후에도 2013년 91개소, 2014년 105개소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2013. 07. 22.
2013 농업마이스터
지정자 워크숍 및
지정자 수여식

2013년에는 농업인 국외훈련사업의 일환으로 ‘농산업 HRD(Human Resource Development)리더 역량강화’ 과정을 신설해 운영했다. 국내 농업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도입한 이 교육은 2013년 5월 시범운영을 거쳐 농업경영, 마케팅, 첨단미래농업·농식품가공 등으로 확대돼 본격 운영되었다.

2018.06.25.~07.20.
영농창업특성화
사업단 해외현장실습

정예 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노력은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이라는 새로운 제도의 운영으로 이어졌다. 농업마이스터는 해당 분야의 고급 기술·지식과 경영능력을 갖추고 다른 농업인에게 전문적인 농업경영, 기술교육 또는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지도력 있는 전문농업경영인을 말한다. 소정의 시험과 현장심사·평가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는 방식이다.

2012년 말부터 농정원은 단계별 시험운영 매뉴얼을 개발하고 심사·평가위원 풀(Pool)을 구성하는 등 농업마이스터 지정을 위한 체계를 정비했다. 그리고 2013년 7월 22일 지정식 행사를 열고, 필기시험, 역량평가, 현장심사 등 3단계의 관문을 통과한 102명을 첫 농업마이스터로 지정했다. 농업인들 사이에서 농업마이스터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최고의 농업인재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농업마이스터 제도에 대한 관심도 크게 높아졌다.

한편, 농정원은 농업계 학교의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업계 학교교육 운영기관 선정방식을 개편했다. 2013년부터 교육운영기관 선정방식을 완전공모 방식으로 전환하고 교육대상도 대폭 확대한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농고(農高)의 경우 2012년 10개교 7,323명에서 2013년에는 17개교 1만 5,083명으로, 농대(農大)의 경우 10개교 1,690명에서 15개교 7,400명으로 급증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전국의 농업계 고교 및 대학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진로탐색, 영농승계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계 학교 역량강화교육 지원사업’도 확대했다. 이 사업은 농업계 고교 및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영농을 포함한 농산업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현장과 연계하여 실용중심의 과정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3년의 경우 32개 학교에 39억 원을 지원했다.

‘농업교육포털’ 서비스와 ‘농업교육 패널조사’

농정원은 농업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교육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 서비스를 확대했다. ‘애그리에듀’로 불리는 농업교육포털은 교육기관과 농업인 간, 교육기관 간 교육정보를 공유하고 학사관리를 체계화하며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2007년 8월 구축한 통합 농업교육 정보시스템이다.

2016.12.28.
농업·농촌교육 성과공유대회

농정원은 농업교육포털의 기능과 인터페이스를 대폭 개선하여 교육계획·교육과정·이수실적 등의 기능을 수정·보완하고, 온라인을 통한 교육과정 홍보, 과정신청 및 진도관리 등의 학사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했다.

또 농업마이스터대학 학사시스템 관리 및 교육생 등록·유지·실적 등의 기능도 업그레이드했다. 그 결과 운영개선 첫해인 2012년에 벌써 신청자가 6만 9,561명을 기록해 전년도의 3만 7,178명의 2배에 가까울 만큼 큰 호응을 받았다.

농업교육포털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2014년에는 교육과정·이력등록 등의 관리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기능을 고도화하고 모바일 웹사이트도 새로 구축했다. 이에 따라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교육정보 제공 및 학습이 가능해짐으로써 관리절차가 간소화되고 교육생들의 편의도 향상되었다.

한편, 2014년 1월 농정원은 농업교육정책의 효과성을 객관적·합리적으로 측정하고 농업인의 성장과정을 체계적·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정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 '농업교육 패널조사'를 새로 시작했다. 이 조사는 농정원 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있는 농업인, 농고·농대생 등 3,600여 명에게 매년 동일한 문항으로 교육현황, 효과 등의 실태를 조사하여 교육효과를 추적조사하는 사업이다.

조사 결과 농업인들은 농업교육 이후 생산성 또는 품질 향상, 판로 또는 유통개선, 농업경영비 절감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정원은 이러한 조사결과와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 학술연구 등에 활용토록 제공하여 농산업교육의 효과 및 성과를 널리 확산해나가기로 했다.

4 농업·농촌 다원적 가치 및 소비촉진 홍보

도농 간 소통 및 '행복한 농촌 가치' 홍보

스마트팜TV
유튜브 채널 화면

농업·농촌에 대한 일반의 인식은 2000년대 이후 꾸준히 변화돼 왔다.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고 농촌관광과 같은 새로운 문화가 생겨난 것이 단적인 예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농촌이 가지는 다원적(多元的) 가치를 재인식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즉 농촌은 웰빙(Well-being)생활과 자연보존의 가치, 미래농업에서 창출되는 산업경제적 가치, 농업·농촌체험으로 얻을 수 있는 인문학적 가치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갖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다. 나아가 농업이 6차산업 즉, 농촌융복합산업으로 부상하면서 농업의 가치는 새롭게 조명되기 시작했다.

농정원은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널리 홍보하여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을 바꿔가기로 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 변화를 기반으로 우리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는 캠페인을 벌여 농가 소득을 올리는 동시에 도농상생(都農相生)의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로 했다.

초기에는 '도농 소통 활성화'를 목표로 삼았는데, 2014년부터는 '행복한 농촌가치 확산'을 전략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신문·방송·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그중 매우 특별한 홍보채널이 선을 보였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공익방송, 도·농 공감을 통해 농식품 IT 융합의 가치를 홍보하는 농업전문 방송'을 표방한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 '스마트팜TV'를 개국한 것이다.

스마트팜TV는 2013년 2월 18시간 방송체제로 시범방송을 시작했다. 그리고 시범방송 기간의 시청자 분석을 통해 농업인, 예비 귀농인, 도시민 등 시청자층에 맞춰 편성을 재정비하고 24시간

2017
도시와 농촌의 유쾌한
동행 해피버스데이

종일방송 체제로 전환하여 본방송을 시작했다. 방송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스마트팜TV는 농림축산식품부 5대 농정과제인 복지농촌건설, 농가소득증대, 농림축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유통구조개선, 안정적 식량수급 체계 구축이라는 기조에 맞춰 '우리 마을 최고!', '우리 농촌이 달라졌어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농업·농촌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방송 콘텐츠는 농업분야 지식콘텐츠 생산자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농촌진흥청 등과 협업하여 개발했다.

농정원은 외부 미디어에도 귀농귀촌 사례, 농어촌 인성학교 등을 두루 소개했다. 또 제주 밭담, 청산도 구들장논과 같은 농업유산 다큐멘터리 제작을 지원하거나 드라마, 교양, 예능 프로그램에 살기 좋은 농촌마을의 모습이 방영되도록 제작협찬 등을 추진하여 농촌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도시민과 농촌 간의 친밀도를 높여나갔다.

특히 화제를 모은 것은 '처음 알았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전개한 공익 캠페인이다. 농업·농촌이 국민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일깨우기 위해 2013년 2월 제작한 캠페인 영상을 통해, 식량공급과 생태환경 보호, 자연경관 제공, 산소 발생으로 국민 건강지킴이 역할을 하는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전달하고자 했다. 이 캠페인 영상은 MBC, MBN 등 TV방송에 296회 노출되고 온라인으로도 확산되면서 "농촌가치의 재발견에 기여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농촌체험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했다. 각 지역사회에 해바라기 씨 수확, 연근 캐기 등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체험장을 개설해 도시민을 초청하는가 하면, 2013년 9월에는 대구자연과학고등학교에서 '도시농업 박람회'를 개최하여 도·농간의 소통을 촉진하고 농업·농촌 가치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2013년 5월 시작한 '해피버스데이(Happy Busday)' 행사 역시 농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대표적인 현장체험 프로그램으로 꼽힌다. '도시와 농촌의 유쾌한 동행'이라는 콘셉트로 진행된 이 프로그램은 가족 단위의 도시민들이 버스를 타고 농업의 6차산업화 우수 현장을 찾아가 농업의 다원적 가치와 농촌의 새로운 활력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5월 19일 용산가족공원에서 열린 출범식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총 148회 진행하는 동안 4,745명이 참여하는 성황을 이루었다. 이 프로그램은 2014년 11월 '한국PR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농업 미래성장산업 대토론회 개최

2014년 11월 19일 농정원은 농업인, 기업인, 농업계 학생, 농업분야 전문가, 정부관계자 등 4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성 팜랜드에서 '농업 미래성장산업 대토론회'(부제: 농업, 대한민국 새로운 미래를 열다)를 개최하여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5일간 농업 미래 전시물 100선을 선보이며 행사의 의의를 더했다.

대토론회는 쌀 관세화와 한·중 FTA 등 농산물시장의 전면적 개방시대를 맞아,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농업계 간 상생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농가·농촌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시키자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대토론회 행사에 앞서 9월부터 10월까지 1개월간 6차에 걸쳐 농업주체별 연속기획 세미나를 진행하고, 사전 온라인 홍보를 위한 특별 홈페이지를 오픈하는 등 분위기 조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95분간 진행된 대토론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방안' 발표에 이어 2개 주제로 나눠 사례 중심의 열띤 토론으로 펼쳐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생산농가·육종가-CJ', '차생산농가-아모레퍼시픽 ㈜장원', '한국농축산연합회㈜농식품법인연합회-롯데마트' 등 농가와 농업관련 단체, 민간기업 등이 상생협약을 맺고, ①공동출자법인 설립, 농업-기업계 간 상생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 ②농식품 수출 확대 협력 등을 주요내용으로 상호 협력을 다짐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대토론회는 성공적인 역대 첫 농업토

2014.11.20.~23.
농업, 대한민국
새로운 미래를 열다!

2014.11.09.
농업 미래성장산업
대토론회 개최

대토론회 토론 주제 및 발제자

[Session 1]수출경쟁력 있는 농식품기반 구축	진행·정리 : 최세균 KREI원장
① 전문화·조직화를 통한 버섯 수출 확대	한국버섯수출사업단 남상원 대표
② 농가-CJ 종자분야 상생 비즈니스 방안	CJ제일제당 김철하 대표
③ 차농가-아모레퍼시픽 ㈜장원 공동수출법인 설립 방안	아모레퍼시픽 ㈜장원 이진호 대표
④ 농업인과 기업의 공동출자 선도 사례	국순당 고창명주 김영동 대표

[Session 2]농업의 6차산업화로 농가·농촌경제 활성화	진행·정리 : 서울대 이기원 교수
① 들녘경영체를 기반으로 한 6차산업화 사례	산청영농조합법인 안두현 대표
② 귀농·귀촌을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례	백석올미영농조합법인 김금순 대표
③ 사과(와인)를 활용한 6차산업화 성공사례	은성농원 정제민 부대표
④ 스마트폰을 활용한 로컬푸드 활성화	김포로컬푸드 최장수 본부장

론회였다는 호평을 받으며 주요 방송사의 메인 뉴스와 일간지 타이틀기사로 보도될 만큼 많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우리 농업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미래성장산업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이날 대토론회의 가장 큰 성과로 꼽혔다.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 캠페인 전개

농정원은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 홍보와 병행하여 우리 농산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소비를 장려하는 캠페인에도 힘을 쏟았다.

먼저, 올바른 식생활 문화를 정착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아침밥 먹기' 범국민 캠페인을 시작했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2012년 5월 쌀을 재료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요리를 개발하여 『행복한 아침밥상』 레시피북을 발간했다. 또 주부들을 초청해 쌀로 만든 간편 간식 쿠킹클래스를 진행하는가 하면, 2014년에도 '맛있는 밥, 건강한 밥, 간편한 밥'을 주제로 200여 개의 요리법을 담은 『국민행복수라상』 책자 2권과, 어린이용 쌀요리 교육교재 『아이러브 米 - 건강한 밥, 맛있는 밥, 간편한 밥』을 발간했다.

농정원은 요리책 출판 외에도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이벤트 행사를 열어 쌀소비 문화를 확산하고자 했다. 2012년 11월 쌀면을 주제로 '2012 대한민국 쌀면 요리왕 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11월 11일을 '가래떡데이(Day)'로 홍보하는 캠페인을 전개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학교급식에서 쌀제품 소비를 확대하도록 촉구하고, 2013년 11월에는 쌀가루를 활용한 쌀 제과·제빵 제품을 개발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2014년 4월 시작한 '바른 밥상 밝은 100세' 캠페인도 관심을 모았다. 이 캠페인은 100세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국민 식생활에 대한 관심과 변화를 촉구한 공익캠페인인데, 바른 밥상을 위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실천지침'(① 아침밥 먹기 ② 채소, 과일 많이 먹기 ③ 텃밭 가꾸기 ④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⑤ 축산물 저지방부위 소비하기)을 소개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농정원은 신문·잡지·방송 등 미디어를 통한 쌀가루·쌀국수 소비촉진 홍보도 꾸준히 전개했다. 쌀가공식품 소비를 장려하고자 제작하여 런칭한 공익광고는 '2013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국민행복수사랑 표지

행복한 아침밥상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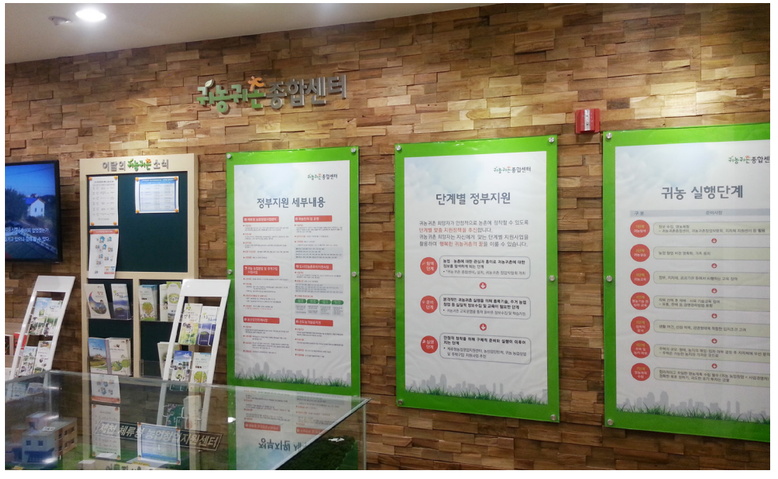
5 ‘귀농귀촌종합센터’ 이관 운영 개시

농촌진흥청에서 농정원으로 업무 이관

산업화 이후 농촌을 탈피하려는 인구가 급증하면서 농촌경제가 침체하고 활력이 떨어지는 어려움이 한동안 계속되었다. 그러나 1998년 IMF사태 이후 일자리를 찾아 떠났던 사람들 중 고향으로 귀농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귀농을 지원할 체계화된 정책과 지원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다. 2008년 미국의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다시 한번 귀농귀촌이 화두로 떠올랐다. 농림어업 취업자가 많아지고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를 중심으로 농촌에 정착하려는 계층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인 것이다.
이를 계기로 귀농귀촌 희망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는 귀농귀촌을 적극 장려하기로 하고, 귀농귀촌 지원기구를 설치하는 등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귀농귀촌 희망자들에게 필요한 정보·교육·컨설팅 등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8년 1차 지원체계가 마련되고, 2009년 5월 13일에는 농협중앙회 내에 ‘귀농귀촌종합센터’가 문을 열었다.
귀농귀촌종합센터를 농협중앙회에 둔 것은 농협이 전국적으로 방대한 지역조직을 갖고 있으면서 다양한 영농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었다. 귀농귀촌종합센터는 귀농귀촌에 대한 정보 탐색부터 실제 정착 단계까지 필요한 정보와 교육 등을 수요자의 니즈에 맞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계기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귀농귀촌을 구상하는 단계에서부터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실습중심의 현장교육, 창업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여 희망자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저마다 귀농귀촌 지원 조직을 두고 귀농귀촌 희망자 유치를 위해 앞을 다퉈 갖가지 지원책을 내놓았다.
귀농귀촌 가구가 2011년 들어 처음으로 1만 가구를 넘어설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귀농귀촌 희망자들이 정부·지자체의 정책과 관련 정보 취득, 상담 등을 한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원스톱(One-Stop) 서비스가 가능한 정부 차원의 귀농귀촌종합센터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12년 3월 12일 정부와 지자체, 농촌진흥청, 농어촌공사, 농협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귀농귀촌 지원업무를 통합하여 경기도 수원시 서둔동 농촌진흥청에 ‘귀농귀촌종합센터’를 정식으로 개소했다. 동시에 귀농귀촌 관련 자료를 통합·연계하는 포털사이트를 확대 개편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도록 했다.
농촌진흥청은 귀농귀촌종합센터를 통해 정부의 농업정책, 품목별 전문기술, 금융정보는 물론이고 농지 구입과 빈집 정보, 귀농 희망지역 동향 등 귀농귀촌 희망자들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했다. 구체적인 귀농계획이 잡히면 전문가들을 통해 품목별 재배기술에 대한 1대



서울 양재동 귀농귀촌 종합센터

청년귀농
장기교육 현장

1 상담을 실시하고, 농어촌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139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귀농귀촌 상담실과 연계해 멘토링 서비스도 제공했다. 그 결과 2013년만 해도 귀농상담자의 16%인 3만 2,424가구가 실제로 농촌으로 이주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처럼 귀농귀촌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자 정부는 2014년 3월 12일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그중에는 귀농귀촌종합센터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상담을 원하는 귀농귀촌 희망자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귀농귀촌종합센터를 서울로 이전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었다. 더불어 이들의 농어촌 정착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주체를 농촌진흥청에서 농정원으로 이관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는 인재양성본부가 농업인 재개발원 시절부터 추진해 온 귀농귀촌정책지원사업과 통합하여 시너지를 내기 위한 조치였다.

이에 따라 2014년 7월 1일 귀농귀촌종합센터의 위치가 서울 양재동 송암빌딩으로 옮겨지고 관련업무도 농정원으로 완전히 이관되었다. 이에 따라 농정원은 귀농귀촌종합센터 운영을 신규사업으로 담당하면서, 기존의 각종 농어업·농어촌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귀농귀촌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귀농귀촌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조직이 처음으로 가동되었다.

귀농귀촌 지원 서비스 본격화

농정원은 2014년 6월 20일부터 사흘간 서울무역전시장(SETEC)에서 '2014 귀농귀촌창업박람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농업에서 희망찾기, 농촌에서 행복찾기!"라는 슬로건 아래,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비전을 제시해 귀농귀촌 준비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2014.06.20.~22.
귀농귀촌 2014
창업박람회

이어 7월 16일에는 '귀농귀촌센터 소그룹 강의과정'을 새로 시작했다. 이 강좌는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귀농귀촌에 관한 다채로운 정보와 조언을 듣고 사례도 발표하는 형식으로 운영되었는데, 첫해인 2014년에는 총 20회에 걸쳐 496명이 수강하는 실적을 나타냈다.

농정원은 귀농귀촌에 관심이 있는 희망자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모든 문제들을 해소하여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역맞춤형 귀농귀촌 상담의 날' 행사도 개최했다.

2014년 9월 시범운영을 시작한 귀농귀촌 상담의 날은, 상담자에게 귀농귀촌 희망지역의 특성에 맞는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자 약 2주간 9개 도 22개 시·군의 담당공무원이 1일 상담관으로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시범운영 결과 상담자의 만족도는 매우 높지만 좀 더 다양한 지역의 정보를 알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농정원은 더 많은 지역의 담당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10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2개월간 정식으로 '지역맞춤형 귀농귀촌 상담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 상담 중에는 귀농창업 및 정착 프로그램, 영농교육 및 현장실습 지원 등 시·군별 귀농귀촌 지원정책과 빈집·농지와 유망 작목 정보, 작목별 수익 등 지역맞춤형 정보가 집중적으로 소개돼 희망자의 이해를 높여주었다.

6 농업정보서비스 허브기관으로의 진화

‘농식품 지식정보서비스’ 활성화

농정원이 추구하는 농업·농촌 정보화의 방향은 ‘농식품 지식정보서비스 활성화’에 맞춰져 있었다. 농업경영 효율화와 생산성 제고를 통해 궁극적으로 농업의 스마트화(Smart化)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식정보서비스를 활성화하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할 기본요소라고 본 것이다.

농정원은 수요자에게 만족을 주는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농식품 전문 경영지식 콘텐츠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또 수요자들이 활발하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채널을 강화하고, 고품질 지식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관리체계도 구축해나갔다.

2014년에는 ‘스마트 농식품 정보화’를 전략목표로 잡고, ①맞춤형 농식품 지식정보 제공 확대 및 경영체 정보화 지원, ②첨단 농식품 ICT 융복합모델 확산, ③정보화 기반 스마트소비 확산 등 한층 확장된 개념의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농정원이 추구하는 정보화의 범위가 고도화되고 광대해졌지만, 이 모든 스마트화 구상의 바탕에는 여전히 농식품 지식정보서비스 활성화가 자리하고 있었다.

2012년 2월 농정원이 생명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인 ‘생명자원정보서비스(BRIS)’를 시작한 것도 농업인과 농식품 연구 관계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식정보 서비스 콘텐츠를 확충하려는 노력의 하나였다.

농촌진흥청, 산림청, 국립종자원,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유관기관들과 연계하여 식물·미생물·곤충·가축 등의 생명자원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생명자원정보 외에도 생명자원과 관련된 특허정보검색 및 특허기술맵(Map)도 구축하여 기관·기업·대학 등의 생명자원연구와 의약품, 식품, 화학 등 제품개발에 필요한 특허정보들을 제공한다.

농정원은 국내외 농업생명자원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해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곳에 제공하고, 나아가 데이터 표준화를 통해 생명자원 데이터 품질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이 서비스를 시작했다.

생명자원정보서비스 (BRIS) 메인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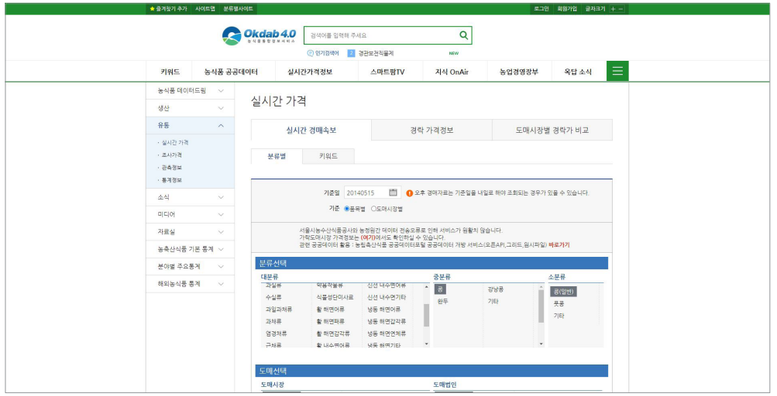
‘옥답(Okdab)’ 포털, 농업·농촌 정보의 허브로

2012년 8월 23일 농정원은 한국소비자원과 정보교류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한국소비자원,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농업·농촌 소비자 가격정보 서비스를 시작했다. 농수산물의 실시간 수급상황과 가격정보는 물론, 농식품을 포함한 생필품의 소비자가격 정보도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가격정보 서비스를 통해 산지에서부터 도매시장 및 소비지에 이르기까지의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농어업인들에게는 출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소비자들에게는 합리적인 소비생활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가격정보 서비스는 농업·농촌 정보포털 ‘옥답(www.okdab.com)’을 통해 이루어졌다. 2010년에 첫 선을 보인 옥답은 농업인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로, 농정원의 대표 서비스라 할 수 있다.

과거 PC통신을 이용하던 시절에 도시민들과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아피스(AFFIS)’라는



옥답 실시간 가격정보 화면

이름으로 시작한 서비스이다. 그 후 2010년에 '기름진 논', '농식품에 관한 해답' 이라는 뜻을 가진 '옥답'으로 브랜드 명칭을 변경하고, 스마트농업인을 위한 영농가이드, 도시민을 위한 도시농업과 귀농귀촌 정보, 농식품 관련 뉴스, 지식 공유를 위한 동영상 정보 등으로 서비스 영역을 넓히면서 농업인들이 애용하는 국내 유일의 농업·농촌 종합 정보포털로 발전했다. 자연히 옥답은 농정원이 추진하는 농식품 지식정보서비스의 핵심으로 자리를 잡았다.

2013년 들어 옥답은 농업경영에 도움을 주는 지식정보 콘텐츠를 대거 보강했다. 영농시기별 콘텐츠를 재구축하는 동시에 기존 정보를 '농식품 3.0' 서비스로 업그레이드한 것이다. 농식품 3.0은 농촌진흥청이 보유한 풍부한 생산정보와 농정원의 유통·소비정보를 융합하여 품목별 통합 영농가이드를 새로 개발한 것이 특징이다.

타 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정보·데이터를 연계하여 통합적인 농식품 맞춤 서비스를 개발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농정원이 농업·농촌의 각종 정보를 통합해 관리하고 운영하는 중심축이 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한 추가적인 서비스도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농정원은 농업·농촌 관련 지식정보와 데이터가 가장 많이 모이고 또 제공하는 '지식정보 허브(Hub)' 기관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그 이후에도 농정원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관련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성능과 인터페이스를 개선하여 옥답의 역할을 강화했다. 2014년 5월에는 이용자의 니즈와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도시농업 및 텃밭 가꾸기 등의 콘텐츠를 보강하고 모바일서비스(m.okdab.com)와 모바일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리뉴얼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언제 어디서든 한 곳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옥답은 지속적인 콘텐츠 확충과 리뉴얼을 실시하여 이용자들이 신뢰하는 최고의 농식품 정보포털로 자리를 잡았다. 이에 힘입어 2014년 12월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이 주관하는 '2014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또 중앙일보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iECO Award Korea : 소비자의 선택'에서 2014년과 2015년 2년 연속 농식품·농어촌 부문 대상을 차지하는 등 각계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농림사업정보 및 식품종합정보망 혁신

농정원은 옥답 외에도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가동하며 농식품 분야 지식정보의 중심기관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갔다. 기관통합 이전인 2004년 11월에 서비스를 시작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도 그중 하나이다.

흔히 '애그릭스'로 부르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은 다양한 농림사업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사이트로, 농업인 지원을 위해 도입된 직불제 이행의 창구 역할을 하는 정보시스템이다. 농정원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맡아 운영하면서 2012년 1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 드론을 연동한 현장점검시스템 기능을 개선하여 주요 직불제 사업의 행정업무를 효율화하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2013년 12월에는 기존에 운영해오던 농식품안전정보시스템을 소비자 참여형의 식품종합정보망 '농식품정보누리(www.foodnuri.go.kr)'로 확대 개편하여 농업·농촌 정보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기존 시스템에 소비자의 니즈와 농식품 소비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농식품 소비 및 안전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정보 네트워크로 전환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2014년 9월 기준으로 민간기관, 소비자단체 10개 기관의 14개 사이트와 소비, 인증, 식생활, 가격정보 등 농식품 관련 정보사이트를 연계하여 포털 수준의 식품 종합정보망을 구축한 것은 획기적인 변화였다. 농정원은 수차례에 걸쳐 전문가협의회 논의와 수요조사, 그리고 일반인 대상 공모를 통해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한 후 이 같은 종합정보망을 구축하는데 성공했다.

이와 함께 농정원은 소비자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20명 규모의 '소비자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콘텐츠의 기획·점검·평가에 참여하도록 하고, 매 분기별로 농식품 분야의 컨슈머리포트라 할 수 있는 '농식품 인사이드'를 작성해 제공하는 등 정보망 이용자의 만족도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농식품정보누리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식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인증된 안심 먹거리, 건강한 식생활 정보, 가격정보 등 농식품의 안전성 및 소비와 관련된 정보를 원스톱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가장 편리하고 공신력 있는 정보창구가 되었다. 국민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농식품 소비문화를 확산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이 같은 변화를 높이 평가받아 2014년 11월 농식품정보누리는 정부가 실시한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한편, 2014년 봄 농정원은 스마트한 농식품 구매와 소비를 추구하는 3050세대 워킹맘을 독자층으로 하는 계간 정보매거진 『농식품 소비공감』의 발행부수를 4만 부까지 늘려 농식품에 관한 풍부한 정보를 널리 공유하도록 했다. 『농식품 소비공감』은 당초 웹 매거진 형태로 창간돼 온라인으로 배포되었으나, 콘텐츠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2014년부터 오프라인 형태로 발행되었다.

7 국제통상 및 협력사업의 시작

글로벌 농업 환경과 통상지원업무의 시작

2010년대 초반 무렵의 우리 농업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변화의 한가운데 놓여 있었다. 미국을 제외한 세계경제의 저성장, 보호무역주의 강화, G2(미국·중국) 의존도 심화에 따른 리스크 등으로 경제 전반의 불안정성이 높아졌다. 무엇보다도 자유무역협정이라고 부르는 FTA(Free Trade Agreement)는 우리 농업에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다. 우리나라는 2004년 4월 최초로 발효한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인도, 미국, 호주 등 여러 나라들과 잇달아 FTA협정을 체결·발효하며 자유무역의 국제적 흐름에 동참했다.

FTA는 무관세나 낮은 관세로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산업은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산업은 큰 피해를 입을 위험성도 갖고 있다.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부족한 우리 농업에 위기의식이 높아진 것도 이 때문이다.

다른 산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농업도 글로벌시장에서의 경쟁이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업의 글로벌화를 실현하여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농업인, 농업 관련 단체 등 이해관계자간 공감대를 형성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특히 국제사회와의 협력은 대단히 중요하다.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교류하며 해외 농업정보를 수집·분석하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선진 농업국이나 국제기구 등과 글로벌 협력을 확대하면서 공동 프로젝트 활동을 펼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 11월 조직된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의 회원국으로서, 국제개발협력을 통해 개도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다는 점도 글로벌 협력이 중요해진 또 하나의 요인이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 2는 농정원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통상정책과 국제협력에 관한 정보 지원' 업무를 주요 업무 가운데 하나로 수행할 것을 규정했다. 기관통합 이전에는 깊이 있게 담당하지 않던 업무였으므로, 기관통합 이전에는 유엔식량농업기구 한국협회(FAO 한국협회),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이 분산하여 추진하였던 국제통상협력 업무를 통합하여 추진하기 위해 별도 법인을 설립하거나, 농정원이나 농촌경제연구원 등에 위탁하고자 검토한 결과, 기관통합을 계기로 농정원에 위탁하게 됨으로써 농어업 및 농식품 분야의 해외정보 수집과 국제협력 업무가 새롭게 시작되었다.

새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농정원은 2012년 5월 미래전략실 산하에 국제통상지원팀을 두어 법이 규정한 '통상정책과 국제협력에 관한 정보 지원'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농정원은 해외통상 및 국제협력을 지원하는 '해외사업'을 통해 우리 농어업의 발전을 측면 지원하는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국제통상지원팀은 2014년 10월 산하에 국제통상팀을 둔 국제통상협력실로 직제가 개편되었다.

FTA정보조사 업무 이관

새롭게 해외사업 업무를 시작한 농정원은 국제통상·해외농업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DB를 구축하면서 우리 농어업을 상시 지원하기 위한 체제를 구축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매주 '통상소식지'와 '이슈리서치'를 발간하여 농어업 관계기관과 농업인, 학생 등 개인들에게 배포하고, 동식물검역규제협정(SPS)과 같은 관련 정보들을 번역해 배포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통상정보 수집·분석 활동을 본격화한 것은 2013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FTA정보 조사 업무를 이관 받으면서부터이다. 이때부터 농정원은 FTA 이슈가 존재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농업 개황, 교역 현황 등 세계 각국의 관련 정보를 수집해 서비스했다.

2015.10.19.~28.
AFSIS 초청연수

이처럼 정보 모니터링, 수집·분석 기능이 확대되면서 농정원은 주요 OECD 국가들의 농업연구 동향을 분석하는 등 통상 관련 연구에도 많은 비중을 두기 시작했다. 그 결과 OECD 농업위원회 회의 의제를 검토하는 등 정책지원 기능까지 수행할 만큼 역량이 향상되었다.

이와 더불어 농정원은 WTO와 FTA 관련 전문가와 농업인 등 이해관계자들을 초청해 전문가포럼을 개최하거나 권역별 지역포럼, 지역설명회 등의 학술 또는 정보교류 행사를 열어 국제협력 정책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활동도 펼쳤다.

2014년 12월 31일에는 국제통상 및 세계농정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농식품 해외정보공유서비스(MAPs)' 시스템을 오픈했다. 이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유관기관의 해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통합하여 농업협상정책 관계자들에게 농업정보와 통계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MAPs 시스템은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와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바탕으로 최신 정보를 제공하여 정부가 국가통상정책을 수립하는 데 든든한 뒷받침을 해주었다.

'아세안 식량안보' ODA사업 수행

해외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사업에 참여한 것은 농정원의 역할을 국제무대로 확대한 전환점일 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고 국제사회에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고하는 의미 있는 활동으로 평가된다. ODA는 선진국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해당 개도국 또는 국제기구에 공여하는 공적지원을 말한다.

농정원은 2014년부터 농업 ODA사업인 '아세안(ASEAN)+3 식량안보정보시스템(AFSIS)' 협력사업에 나서 아세안 지역의 식량안보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했다.

2014.10.
식량안보정보 시스템(AFSIS) 구축을 위한 연수

AFSIS 협력사업은 아세안 6개국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개도국의 식량안보를 위한 사업으로, 국가별 생산·유통정보 관련 식량안보정보시스템을 구축 또는 고도화하여 아세안+3 국가 간의 식량정보를 수집·분석·공유하는 사업이다. 아세안 국가들의 농업ICT 분야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AFSIS 회원국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세안 지역 국가들의 식량안보에 기여하고자 2014년 4월 2일 AFSIS 사무국과 식량안보에 관한 정보 수집·분석 및 식량안보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협의의사록(R/D)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농정원은 2014년부터 이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AFSIS 협력사업은 총 3단계로 계획되었는데, 이 중 1단계 사업(2014~2017)은 아세안 6개국(라오스,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미얀마)을 대상으로 농업생산 정보시스템과 인적역량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2014년에는 라오스, 2015년에는 캄보디아, 필리핀, 2016년에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2017년에는 미얀마에 식량안보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선제적으로 아세안 지역의 식량안보를 위한 대응기반을 구축하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약 8개월의 작업 끝에 2014년 11월 26일 농정원은 이 사업의 첫 번째 대상국인 라오스의 실시간 식량안보정보시스템을 구축 완료했다. 이와 함께 이 시스템을 운용할 관계 공무원 50여 명을 한국으로 초청해 시스템 활용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로써 농정원은 ODA사업의 첫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시스템 운영 결과 라오스 현지에서도 찬사가 이어질 만큼 평가도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AFSIS 협력사업 단계별 추진계획

분류	1단계(Production)				2단계(Consumption/Price)				3단계(Forecasting)P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2024P	2024~2025P	2025~2026P
대상국가	LAOS	CAMBODIA, PHILIPPINES	VIETNAM, INDONESIA	MYANMAR	PHILIPPINES, LAOS	CAMBODIA, VIETNAM	INDONESIA	–	LAOS	INDONESIA	VIETNAM, CAMBODIA	PHILIPPINES, MYANMAR
	1개국	2개국	2개국	1개국	2개국	2개국	2개국	–	1개국	1개국	2개국	2개국
주요내용	• 개도국 6개국 식량생산정보시스템 구축(생산량 중심, 지방↔중앙 통계행정 전산화) • 개도국 공무원 인적역량개발 (AFSIS 초청연수, 시스템사용자 현지연수)				• 개도국 6개국 식량유통정보시스템 확대구축(재고/가격/수출입 정보 중심, 모바일 구축) • 개도국 공무원 인적역량개발 (AFSIS 초청연수, 시스템사용자 현지연수)				• 개도국 6개국 식량예측 시범사업 (전략작물생산예측모델 구축, 모니터링) • 개도국 공무원 인적역량개발 (AFSIS 초청연수, 시스템사용자 현지연수)			

CHAPTER. 2

2015
2016

‘세종시대’의 개막,
행복한 농촌을 꿈꾸다

1. 청사 세종시 이전 및 새 전략체계 수립
2. 인사체계와 조직문화 혁신
3. 귀농귀촌 및 청년 취·창업 지원 강화
4. 통합 정보서비스 체계 구축 가속화
5. 환경변화에 대응한 미래·전문 농업인재 양성
6. ‘농촌=쉼터·삶터·일터’ 홍보 본격화
7. 농식품 소비 홍보의 활동범위 확장

1 청사 세종시 이전 및 새 전략체계 수립

2010년대 중반의 농업 환경

2010년대 중반 무렵까지도 우리 농림업을 둘러싼 환경은 여전히 어려운 국면이 계속되었다. 농림업의 생산성과 국민총생산(GNP)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이 줄어들고 농가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농업인의 소득은 도시민에 비해 갈수록 떨어지는 현상이 계속되었다. 농축산물의 무역수지 적자폭도 커졌다.

반면에 긍정적인 요소도 적지 않았다. 중국, 무슬림 등 주요 FTA시장에서 안전한 먹거리와 할랄(Halal)식품의 수요가 늘어나는 등 새로운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었다. 국내에서도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농어촌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귀농귀촌 희망자가 많아지고, 다양한 농식품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스마트 컨슈머(Smart Consumer)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농산업에도 기술의 융복합화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농업인들의 정보화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어 스마트농업의 가능성이 커진 것 역시 좋은 신호였다.

그러자 2015년 초 농림축산식품부는 창조농업 핵심인력 양성, 농식품 산업의 융복합 촉진,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 글로벌 경쟁력 제고 등을 4대 정책과제로 제시하며 농산업의 재도약을 모색했다.

특히 6차산업화를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정책에 힘이 실렸다. 농식품의 ICT 융합을 확대하여 첨단화·규모화 하는 방안도 속도감 있게 추진되었다.

새 정부가 ‘정부 3.0’ 정책기조를 강력히 추진한 것도 중대한 변화요인이었다. 정부 3.0은 공공정보의 개방·공유와 부처 간의 소통·협력을 통해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시행된 정부의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다.

이 같은 환경 변화에 따라 농정원의 경영과 사업운영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마침 농정원은 2015년에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특별자치시로의 청사 이전이 계획되어 있었으므로 2015년을 시작하는 자세가 남다를 수밖에 없었다. 농산업이 정보화·글로벌화·6차산업화로 전환하는 과도기와도 같은 시기여서 농정원에 대한 기대는 더욱 커지는 중이었다. 정부 3.0 패러다임에 따라 공

공정보의 개방 바람이 거세지고 기관 간 통합과 협업의 가치가 중요하게 대두된 것 역시, 정보서비스를 핵심 업무 중 하나로 수행하는 농정원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변화였다.

세종시 조치원 청사로의 이전

국내외 농산업 환경이 가파르게 변화하던 2015년 9월 21일, 농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정부기관이 밀집해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신청사를 마련해 사무실을 이전했다.

그리고 11월 4일에는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이춘희 세종시장, 관계기관의 주요 내·외빈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전 개원식을 갖고 기관통합 3년여 만에 '세종시대'의 본격적인 막을 열게 되었다.

농정원의 세종시 이전은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2012년 12월 27일 제48차 지역발전위원회의 최종 판단에 따라 결정되었다.

이전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수산식품연수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 농림수산식품 관련 기관들이 주로 이전하는 전라남도 나주혁신도시로 함께 이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일각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세종시에 입주하는 농림축산식품부(당시 농림수산식품부)와의 업무 연관성, 통합적 관점의 농어촌 경쟁력 향상을 실현하기 위한 업무효율성, 전국에 퍼져 있는 농림업 현장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세종시에 입주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특히 기관통합 이후 업무범위가 방대해진 농정원이, 농어업 분야의 교육·홍보·정보화 정책집행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긴밀하게 공조·협력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2015.09.21.
세종시 이전 기념

2015.11.10.
세종시 이전 기념
쌀 나눔 활동

농정원이 새로 입주한 건물은 세종시 조치원읍에 위치한 옛 세종시청사 건물로, 세종시가 보람동 세종신도시에 새 청사를 신축해 이전함에 따라 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읍·면 단위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례였다.

실제 이전 작업은 2015년 9월 19일부터 3일 동안 진행되었는데, 농정원이 사용하는 공간은 건물 1~3층 3개 층의 연면적 3,495㎡ 규모이다. 1층에는 정보화사업본부, 2층에는 경영기획본부와 국제통상협력처, 3층에는 인재양성본부와 가치확산본부가 각각 입주했다.

이전 작업을 마친 농정원은 새로운 환경에서 의욕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이와 관련하여 제2대 원장인 박철수 원장은 "농정원이 가진 교육·홍보·정보화의 전문성을 더욱 높여 특화된 업무환경을 완비한 농식품 전문기관으로 성장함으로써, 세종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지역사회와 소통 및 상호 협력하여 지역발전에 앞장 설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행복한 농촌'을 추구하는 새 비전 선포

세종시에 새 둥지를 마련해 이전한 농정원은 조직 전체가 심기일전하여 더 큰 성과를 창출하자는 의욕적인 분위기로 가득했다. 청사 이전 직전인 2015년 5월 22일자로 취임한 박철수 제2대 원장도 업무환경이 달라진 만큼 모든 구성원이 더 분발하자는 취지로 직원들을 독려했다.

청사 이전을 계기로 농정원은 국내외 농산업 환경의 변화와 정부 3.0으로 대변되는 정부 정책의 변화를 반영하여, 사업환경의 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전략방향을 도출하기로 했다.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전략방향을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농정원은 그동안 축적한 사업운영 경험과 이미 탄탄하게 구축해 놓은 정책고객들과의 다양한 소통채널, 그리고 정보화·교육·홍보 인프라를 활용하여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로 하고, 주변 환경의 변화와 사업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새로운 전략체계를 마련했다.

새 전략체계는 통합 출범 당시 수립했던 비전2020과 마찬가지로 미션, 비전, 핵심가치, 전략목표 등의 요소로 구성되었다.

그중 미션은 기존대로 유지하되, 비전은 '창조농업·행복농촌을 실현하는 미래가치 창출 전문기관'으로, 핵심가치는 '혁신, 협업, 소통, 고객행복'으로 수정되었다.

눈에 띄는 것은, 비전에 '창조농업·행복농촌'이 명문화되었다는 점이다. 단순히 경제적 이익이나 추상적인 가치 창출에 머무르지 않고, 농정원 업무의 목표가 농업의 혁신적인 발전과 농업인의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데 있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비전으로 표현한 것이다. 말하자면 농정원의 꿈은 농어촌의 행복에 있다는 것을 대내외에 비전으로 명확히 천명한 셈이다.
전략목표는 ①농업인의 경쟁력 강화, ②농업의 생산성 증대, ③도농상생(都農相生) 기반 강화, ④

농정원 중장기 전략체계 (2015)

비전	창조농업, 행복농촌을 실현하는 미래가치 창출 전문기관				
미션	농업 경영혁신과 농촌가치 확산으로 경쟁력 있는 농업, 행복한 농촌 실현에 기여				
전략목표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	농업의 생산성 증대	도농상생 기반 강화	글로벌 환경 대응능력 강화	고객행복 경영체계 실현
전략과제	① 미래세대 농업인 육성 ② 전문 농업 경영인 양성 ③ 농업인력 양성	④ 농식품 ICT 융복합 촉진 ⑤ 농식품 지식정보화 확산 ⑥ 스마트 농정 지원	⑦ 농업농촌 가치 공감대 확산 ⑧ 농업미래성장 산업화 인식창출 ⑨ 우리 농식품 소비 확산	⑩ 농식품 글로벌 통상정책 협력 지원 ⑪ 농식품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⑫ 전략경영체계 선진화 ⑬ 책임경영 및 윤리경영 강화
주요사업	행복한 농업·농촌 가치확산사업	창의적 농업 전문인력 육성사업	스마트 농식품 정보화 촉진사업		
실행계획	• 농업·농촌에 대한 가치 인식 확대 • 국정과제 및 농정현안 인식 제고	• 미래 농업인 역량 강화 지원 • 전문 농업경영체 육성 교육 지원	• 농식품 ICT 융복합 모델 확산 • 수요자 맞춤형 지식정보 서비스 확대		

2015.08.12.
정부 3.0기반 농식품 정보 원스톱 서비스 관련기관 협의회 개최

2015.10.12.~13.
농업·농촌 미래발전 컨퍼런스 참여

글로벌환경 대응 능력 강화, ⑤고객행복 경영체계 실현 등 5개로 재정립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13대 전략과제도 새로 마련되었다.
이와 함께 ①행복한 농업·농촌 가치 확산사업, ②창의적 농업 전문인력 육성사업, ③스마트 농식품 촉진사업을 농정원이 추구하는 3대 핵심사업이라는 점도 명시했다. 기관통합을 계기로 업무 스펙트럼이 넓어져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지만, 그중 농정원의 존재가치를 보여주는 핵심사업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여 조직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로써 농정원의 전략체계는 보다 구체적이고 보다 현실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농정원은 2015년 11월 4일 신청사에서 비전선포식을 겸해 열린 '농정원 세종 청사 이전 개원식'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략체계를 선포했다.
한편, 농정원은 새 전략체계에 대한 실행력을 높이고 전문성에 바탕을 둔 조직역량을 극대화한다는 취지에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조직개편에 따라 기구조직은 경영기획본부, 인재양성본부, 가치확산본부, 정보화사업본부, 그리고 국제통상협력처와 귀농귀촌종합센터 등 4본부 1처 1센터(13개 팀) 형태로 재정비되었다.

2 인사체계와 조직문화 혁신

지속적인 인사체계 혁신 추진

기관통합으로 새롭게 출발한 농정원은 그동안 고유사업의 시너지 창출과 경영효율 제고를 위해 과감하게 혁신을 추진하며 조직의 안정과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느라 분주한 시간을 보내야 했다. 특히 서로 다른 3개 기관이 통합한 만큼 그동안 서로 다르게 운영돼 왔던 조직의 화학적 통합을 위해 새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이 과정에서 농정원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보수체계를 단일화하는 등 인사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성과연봉제는 기관 통합에 따른 보수체계 통합 차원에서 2012년 부분적으로 도입한 이후 2014년 12월 노사합의가 이루어져 전면적인 시행에 들어갔고, 보수체계는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던 각종 수당항목을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연봉제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임금구조를 단순화했다. 이와 함께 농정원은 고졸학력자와 비정규직 직원의 보수 및 복리후생제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조치도 단행했다.

2016.08.10.
노사문화우수기업
인증서·인증패 전수식

2021.
과차장급 리더십교육

하지만 인사체계는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이 적지 않았다. 더욱이 2015년에는 세종시로 청사를 이전하는 데다 소통·협업을 추구하는 정부 3.0이 추진속도를 더해가는 등 경영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자연히 '창조농업·행복농촌을 실현하는 미래가치 창출 전문기관'을 추구하는 농정원으로서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전략체계를 수립하면서, 기관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정부 3.0을 업무에 반영하는 등 새로운 경영문화를 조성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따라 농정원은 기관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HRD(Human Resources Development, 인적자원개발)를 강화하고 성과·능력 중심의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며, 합리적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등 인사체계 전반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또 노사관계를 선진화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구축하며 지역사회공헌 활동도 확대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도약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 및 성과연봉제 도입

인사체계 중에서도 농정원이 중점적으로 혁신하고자 한 것은 직원들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보수체계이다. 농정원은 보수체계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갔다.

먼저, 임금피크제를 합리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임금피크제는 직원이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해당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고용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정부가 제도 도입을 권고하는 상황이었다.

농정원은 경영기획본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T/F 조직을 구성하여 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했다. 외부기관의 자문을 받는 것은 물론 제도 적용 대상자와의 면담도 실시했다. 노사공동워크숍도 두 차례 개최하여 노사 간 의견을 조율하기도 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2015년 8월 공공기관 가운데 선도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제도 도입 이후 농정원은 임금피크제를 지속가능한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 재원 조달 방안, 신규채용 계획, 대상자 교육 계획 등 세부사항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임금피크제는 빠르게 조직에 안착되었다.

또 하나의 이슈는 당시 사회 전반에 화두로 떠오르기도 한 성과연봉제이다. 농정원은 성과연봉제를 더욱 확대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 성과에 따라 보수로 연계되는 구조를 만들어 조직 전반에 합리성과 공정성을 갖춘 성과중심의 문화를 정착하겠다는 복안이었다. 성과연봉제의 핵심은 성과와 직무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에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제도

설계와 더불어 합리적인 평가지표 개발에도 역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농정원은 2015년 8월부터 2016년 3월까지,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2단계로 나눠 노사 공동으로 성과평가제도 및 체계 개선을 위한 T/F를 운영했다. 또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가며 완성도 높은 최적의 안을 도출해냈다. 성과연봉의 비중을 늘리고 경영평가 성과급의 차등 폭을 확대하는가 하면, 비간부직에 대해서도 직무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제도가 마련된 후에는 성과보고회를 열어 성과연봉제의 취지에 대한 이해를 넓히면서 제도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공감도 이끌어냈다. 그리하여 2016년 3월 28일 농정원은 공공기관 중 최초로 노사합의를 이루어냈고, 3일 후인 3월 31일 자로 성과연봉제의 조기 확대 도입이 실현되었다.
성과연봉제 도입을 확정한 이후에도 농정원은 성과연봉제의 신뢰를 높여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직무와 성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합리적인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T/F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지표체계를 재정비함으로써 성과평가체계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처럼 노사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면밀하게 제도 설계에 나선 덕분에 농정원은 공공기관 중 선도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면서도 조직구성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최적의 안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이루어냈다. 그러나 성과연봉제 확대 방침은 성과연봉제 후속조치에 관한 정부의 지침에 따라 2017년 9월 노사 합의를 거쳐 철회되었다.

화합과 상호존중의 선진 노사문화 정착

농정원이 출범 3년여 만에 세종시로 이전한 2015년은 공공기관 정상화, 정부의 5대 노동관련 법률 개정, 청사 이전에 따른 근무환경 개선,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 도입 등 조직 안팎으로 많은 이슈가 산적해 있었다. 이 많은 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무엇보다도 노사화합의 문화를 정착해야 했다. 또한 농정원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조직에 주어진 설립목적의 효과적인 이행, 그리고 직원들의 근무의욕 제고를 위해서는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사협력이 절실했다.

이에 농정원은 설립 직후부터 노사관계 선진화 계획을 수립하여 진정성 있게 실천했다. 특히 자체적으로 '노사전략 10대 과제'를 발굴해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하나하나 실천해나갔다. 노사관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도 갖추었다.

이를 바탕으로 2015년 들어서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그리고 먼저 노사협력수준을 진단하여 미비점을 발굴했다. 이 과정에서 외부기관인 노사발전재단의 도움을 받아 '노사가 하나 되는 행복한 일터'를 노사 비전으로 하는 '노사관계 신(新) 선진화 전략'을 수립하고, 노사관계 선진화 전략 강화, 일터혁신 기반 마련 등 8대 실행과제도 도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농정원은 양방향 소통채널을 체계화하여 노동조합과 신뢰에 기반을 둔 소통문화를 정착해 나가고자 노력했다.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과정에서 노사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교섭의 원칙 및 체계를 사전에 확립하기도 했다. 특히 분기별로 개최되는 노사상생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노사협력의 성과를 높여나갔다.
농정원은 주요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의논하는 문화를 정착해나갔다. 청사 이전 사례의 경우, 수차례의 노사협의회를 갖고 사내 인트라넷에 별도 게시판을 운영하는 등 수시로 정보를 공유했다. 2015년 5월에는 새 청사 부지를 노사가 함께 답사하고, 지방 이전에 따른 직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방안을 함께 도출하기도 했다. 동반자의 자세를 보여주는 이러한 행동은 경영진의 진정성을 전달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다.
일터 혁신과 관련해서도 수시로 노사간담회를 갖고 현안을 공유했다. 이를 통해 전 직원 대상 유연근무제 활성화, 사내 동아리 확대, '가족사랑의 날' 시행, 여직원 당직근무 개선 등 조직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된 문제들까지도 세세하게 논의하여 서로 힘을 보태서 추진했다. 이러한 신뢰와 존중의 노사문화를 기반으로 2015년 12월에는 노사가 함께 '인권경영선언문', '노사상생화합선언문'을 발표해 모범적인 노사화합의 문화를 대내외에 과시했다.
이에 힘입어 농정원은 설립 이후 단 한 건의 노사분규도 발생하지 않는 전통을 이어가게 되었고, 2016년 5월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8월에는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또 12월에는 2013년에 이어 고용노동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재선정된 데 이어, 한국경제신문·한국경제매거진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소통경영대상'에서 공공기관부문 대상을 수상하여 기쁨도 누렸다.

2015
세종대왕 나눔봉사
대상 수상

2015.12.17.
2015 노사상생
행복바자회 개최

3 귀농귀촌 및 청년 취·창업 지원 강화

귀농귀촌 지원 프로그램과 교육 체계화

도시생활에 지치거나 혹은 농촌에서 새로운 삶을 모색하고자 귀농귀촌에 관심을 갖는 인구는 완만하지만 꾸준히 늘어났다. 농정원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농업·농촌 가치 확산 사업과 창의적 농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이 귀농귀촌 지원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귀농귀촌에 관심을 갖는 인구가 많아진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40대, 나아가 20~30대 청년층으로까지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자 농정원은 귀농귀촌 촉진 정책을 한층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귀농귀촌 활성화를 통해 농산업 분야에 더 많은 신규 인력이 유입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복안이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농업·농촌의 발전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40대는 물론 30대 이하 청년층의 유입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귀농귀촌종합센터 상설교육장을 확충하고 2015년 3월에는 '귀농귀촌아카데미'를 신설해 귀농귀촌 희망자들에 대한 교육을 체계화했다.

귀농귀촌아카데미는 주로 교육시간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도시의 젊은 직장인들에게 타깃을 맞춰서, 이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주제의 기초교육과 현장 주문형 특화교육을 실시했다. 귀농귀촌아카데미는 기대 이상의 호평을 받으며 수강신청자들이 쇄도하는 인기를 누렸다.

이와 함께 2014년 처음 도입한 소그룹 강의도 확대 운영하고, 기존의 인터넷교육을 모바일교육 콘텐츠로 대거 전환하여 상시 학습체계를 구축했다. 나아가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의 편의를 위해, 지역맞춤형 상담의 날과 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을 동시에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도 시작했다.

2015년 4월 들어서는 귀농귀촌자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귀농닥터(Doctor)제도'를 도입했다. 농촌 경험이 부족한 도시민들이 귀농귀촌 진입단계에서 겪을 수 있는 각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귀농선배나 분야별 전문가를 매칭하여 개인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도입 첫해인 2015년에 귀농닥터 596명으로 풀(Pool)을 구성하여 시범운영한 결과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16년 농정원은 귀농닥터 풀을 확대하고 컨설팅의 내용도 대폭 보강하여 서비스했다.

2015년 12월에는 전국의 전원마을 분양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한 '전원마을 분양정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귀농귀촌 예정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 시스템은 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의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전원마을 분양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장점이다.

한편, 2016년 5월 농정원은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귀농귀촌 정보를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귀농귀촌종합센터'를 개발하여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앱에는 귀농귀촌 준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와 지원정책, 각 지자체의 교육정보, 귀농귀촌박람회 정보, 커뮤니티 기능 등이 포함돼 있다.

2022
귀농귀촌 아카데미

법적 근거 확보 및 '제1차 5개년 종합계획' 수립

2015년 7월 21일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귀농귀촌 정책도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이 법은 2014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15년 1월 20일 공포되었는데, 그로부터 반년 후인 7월 21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은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 등으로 귀농·귀어·귀산·귀촌인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농어촌지역에 삶의 터전을 마련하려는 도시민들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농어촌지역의 인력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제정되었다.

중요한 것은, 이 법이 농정원의 귀농귀촌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해당 업무를 농정원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농정원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 귀농귀촌사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또 이 법은 제5조에서 귀농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 및 농업경영의 기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5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규정하고, 제9조에서는 종합계획 및 귀농인·귀촌인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세우고 시행하기 위하여 귀농귀촌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법 규정에 따라 농정원은 2016년 5월 처음으로 귀농귀촌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실태조

사 결과를 통계로 보존하는 동시에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변화의 추이를 분석·관리하도록 했다.

이 같은 귀농귀촌 실태조사를 토대로 2016년 11월 농림축산식품부는 귀농귀촌사업 사상 최초로 '제1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2017~2021)'을 수립해 공표했다. 이 종합계획은 특히 청년층에 대한 농업 창업 지원, 일자리·주거 등 정착 지원, 귀농귀촌 저변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층의 농업 창업을 중점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선도 농가·우수법인 등을 '청년 창농 교육농장'으로 지정하여 지원한다. 둘째, 귀농귀촌 교육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내실화하여 교육의 품질 및 만족도를 제고한다. 셋째, 귀농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급격한 소득 감소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주거 지원을 강화한다. 넷째, 귀농귀촌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귀농귀촌박람회 개최, 대학생 농촌교류 활성화 등을 통해 귀농 관심층을 폭넓은 연령·직업군으로 확대한다. 다섯째,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 간 갈등 방지 및 지역공동체의 활력 증진을 위해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의 화합·융화를 촉진한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청년 귀농 창업 1만 가구를 육성하고, 귀농 5년차 가구의 소득을 농가 평균 소득의 90%까지 향상시키며,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상생 협력으로 농촌 활력을 증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계획은 귀농귀촌 정책의 패러다임이 '도시민 농촌 유치'와 같은 기존의 양적 확대 정책에서 '청년층의 농촌 유입과 안정적 정착 지원' 위주의 질적 정책으로 전환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청년층 대상 농업 취·창업 지원 강화

농정원은 귀농귀촌자들의 연령대를 청년층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에 따라, 청년세대가 농어촌에 취업하거나 창업하여 경제적 기반을 갖추고 정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에 나섰다. 2014년 6월 서울무역전시관(SETEC)에서 개최한 귀농귀촌 창업 박람회는 이러한 지원사업을 본격화하는 시그널과 같은 것이었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우수 인력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귀농귀촌·농식품 일자리 박람회'도 개최했다. 2015년 6월에는 '농촌=일터+삶터+쉼터'라는 주제로 개최했는데, 기존의 귀농귀촌 박람회에 농식품 분야의 일자리 박람회를 포함하여 국내 최대 규모로 개최함으로써 농촌 정착을 희망하는 도시 우수인력에게 유익한 정보를 폭넓게 제공하여 큰 관심을 모았다.

2030세대를 대상으로 2014년에 처음 시작한 바 있는 '2030세대 귀농귀촌 창업 공모전'도 규모를 확대하여 개최했다. 창의적인 창업 아이디어 도출 및 면밀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귀농귀촌을 실행하도록 유도하고자 개최한 행사이다. 특히 2015년에는 2030세대 대상의 취·창업 교육과정도 별도로 개설하여 2030세대들이 농촌에서 더 많은 취·창업의 기회를 갖도록 지원했다.

한편으로는 육군본부, 경찰청,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등과 협력하여, 전역예정 군인, 퇴직예정 경찰 등 특정 직업 출신자들과 북한이탈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귀농귀촌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했다. 이들이 농업분야의 경영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농업기술을 전수하는 실습 중심의 교육이다. 2015년 10월에는 국방부 산하 국방전직교육원과도 업무협약을 맺고, 전직 예정인 간부들을 대상으로 귀농창업을 지원하는 설명회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다.

2015.12.18.
2030세대 귀농귀촌
창업계획서 공모전
시상식

2015년 11월에는 도·농 협력 일자리 연계사업의 일환으로 농산업 일자리와 도시 유휴인력을 연결시켜 주는 '농업·농촌 일자리정보시스템(www.agriwork.kr)'을 개발하여 서비스를 시작했다. 주요 권역별로 구인·구직자 DB를 구축하고,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면서 구인·구직자를 매칭시켜 주는 서비스이다. 농정원은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지자체는 인력포털을 활용하여 매칭된 구인·구직자를 위한 각종 편의와 안전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서비스는 농촌의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민들의 농촌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실질적인 서비스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았다.

한편, 2016년 8월 농정원은 지역민과 귀농귀촌인이 함께하는 '마을공동사업 창업 아이디어 및 성공사례 공모전'을 열었다. 지역민과 귀농귀촌인이 마을의 인재와 자원을 활용한 마을공동사업을 통해 융화하고 협력하여 자발적으로 지역문제 해결과 마을 활성화에 나서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뿐만 아니라 9월에는 전국의 농업계 고교 및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농산업 창업·취업 실전캠프'를 열어 농산업 취·창업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을 고조시켰다. 농산업 관련 직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진로 탐색에 도움을 주고자 개최한 이 행사에는, 40개 팀 164명의 농고·농대 학생이 선발돼 9월 2일 발대식을 갖고 약 3개월간의 실전교육을 받았다. 이 행사는 농산업 분야에서의 청년층 일자리 창출과 창업문화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

4 통합 정보서비스 체계 구축 가속화

원스톱 통합 서비스 향한 옥답의 진화

2015년 선포한 새 비전에서 농정원은 '스마트 농식품 정보화 촉진사업'을 3대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로 명시했다. 그리고 크게 농식품 ICT 융복합 모델을 확산 전파하는 활동과 수요자 맞춤형 지식정보 서비스를 확대하는 활동을 통해 농산업·농식품의 정보화를 고도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미 2014년까지 농정원은 정부3.0 시책에 발맞춰 유관기관과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면서 각종 데이터의 통합을 추진했고, 농업·농촌 발전에 도움이 될 다양한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해 원스톱 서비스를 추구하면서 국민들의 시스템 이용도를 크게 높여왔다.

2015년부터는 정보 통합의 기반 위에서 맞춤형 농식품 지식정보서비스를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정부 3.0 기조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활용을 극대화하여 서비스의 충실도를 높이고, 농업경영체의 정보화 지원에도 힘을 쏟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농업·농촌·농식품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농정원의 구상이었다.

이 같은 구상의 중심에는 농업·농촌 종합정보포털 옥답이 자리하고 있었다. 농정원은 쌀박물관, 농식품정보누리, 귀농귀촌종합센터 등 관련 정보시스템을 옥답으로 통합하여 원스톱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다. 민간까지 연계한 포털로 발전시켜 '귀농귀촌에서 소비문화까지 농식품 관련 정보를 한 번에' 종합적이면서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농정원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에 걸쳐 옥답 시스템의 고도화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2015년에는 농식품 데이터에서 귀농귀촌 정보까지 아우르는 통합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 2016년에는 민간 포털사이트 서비스와 연계하여 농식품 원스톱 서비스의 활용도를 높여나가며, 2017년 이후에는 귀농, 기술, 유통, 경영, 소비, 식품안전 등 영역별로 분산되어 있는 정책지원형 서비스를 통합함으로써 각종 지원정보의 통합 제공 및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2015년 5월 한국정보화진흥원과 농업인의 정보화역량 강화에 협력키로 하는 MOU를 체결했다. 이어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한국농수산대학, 한국RFID/USN융합협회, CJ E&M, LG유플러스 등 공공 기관단체 및 민간기업들과도 협약을 맺고 정보협업 네트워크를 확

2015.09.01.
2015 옥답 OK서포터즈
1기 발대식

대했다. 8월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14개 기관과 '정부 3.0 기반 농식품정보 원스톱 서비스 관련기관 협의회'를 갖고 소비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강화 방안을 협의하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옥답 메뉴에 '소셜 빅데이터로 본 농식품 이슈' 등 고급 콘텐츠를 보강하고, 모바일 중심으로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여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이어 카카오스토리를 추가 개설하여 고객과의 소통을 확대했다.

2015년 9월에는 'OK서포터즈'의 운영을 시작해 옥답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홍보를 강화했다. OK서포터즈는 경쟁을 거쳐 선발된 대학생들이 국민들이 쉽고 재미있게 옥답의 농업·농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바이럴마케팅, UCC 등의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펼치는 일종의 대학생 홍보단이다.

이 같은 활동에 힘입어 옥답은 2015년 11월 제8회 대한민국 소셜미디어 대상에서 준정부기관 대상을 수상했다. 본격적으로 고객과 소통한 지 3년여 만에 이룬 쾌거이다. 더욱이 이해에 옥답은 '소비자의 선택' 농식품·농어촌 정보서비스부문 2년 연속 대상과 '2015 인터넷에코어워드(iECO Award Korea)' 공공서비스 혁신부문 사회복지 분야 대상을 수상하는 겹경사를 맞아 국내 최고 농업지식포털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했다.

‘모두농’ 개설 및 웹사이트 품질인증 획득

이 시기에 눈에 띄는 성과 가운데 하나는 신개념의 정보사이트 ‘모두가 도시농부(www.modunong.or.kr)’(이하 약칭 ‘모두농’)를 오픈했다는 점이다. 모두농은 급격한 도시화와 고령화의 영향으로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중장년 및 시니어 계층의 올바른 여가문화 확산을 위해 개설한 도시농업포털이다. 국민 모두가 농업에 관심을 가지면 농촌이라는 공간적 한계에서 벗어나 도시민도 농부가 될 수 있다는 콘셉트로 기획되었는데, 2015년 12월 4일 서비스를 시작했다.

모두농은 대학생, 주부, 직장인,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베란다 텃밭, 옥상정원 등 수요자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호평을 받았다. 서비스 이용자들은 급증했고 시니어 계층의

2015.12.04.
‘모두가 도시농부’
사이트 오픈 당시
메인 화면

2016.03.31.
‘모두가 도시 농부’
체험단 모두농
1기 발대식

2016.07.11.
인터넷에코어워드
공공서비스 혁신부문
대상 수상

만족도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2016년 3월 농정원은 도시농업 확산을 위해 모두농을 통해 ‘도시농업체험단’을 공모하여 운영하는 등 모두농 사이트를 더욱 활발하게 운영해나갔다.

이에 힘입어 모두농은 2016년 3월 신설된 ‘2016 한국 시니어산업 대상’에서 여가문화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또 7월에는 ‘2016 인터넷에코어워드’에서 농업교육포털과 함께 공공서비스 혁신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편, 모두농 외에도 농정원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는 공신력 있는 여러 평가기관들로부터 잇달아 높은 평가를 받아 그 진면목을 과시했다. 2015년 8월 옥답, 옥답CEO, 농식품정보누리, 생명자원정보서비스(BRIS) 등 4개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데이터진흥원으로부터 콘텐츠제공서비스 모바일 부문 품질인증(G인증)을 획득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특히 옥답은 2014년 온라인 콘텐츠 부문에 이어 모바일 부문에서도 품질인증을 받음으로써 서비스의 우수성을 확실히 인정받게 되었다.

같은 달 농정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대표 홈페이지와 옥답 시스템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 가운데 최초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도 획득했다. 이어 2016년 6월에는 모두농을 비롯하여, 자원 및 품종 전문정보를 제공하는 생명자원정보서비스, NCS 기반으로 산업 맞춤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코리아 푸드잡, 농업인 온라인 교육 콘텐츠 및 정보를 제공하는 농업교육포털 등 4개 웹 서비스가 추가로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을 받아 G마크를 획득했다. 이 중 농업교육포털은 한 달 뒤인 2016년 7월 열린 ‘2016 인터넷에코어워드’에서 공공서비스 혁신 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5 환경변화에 대응한 미래·전문 농업인재 양성

국정과제로서의 농업인재 육성 정책 수립

농정원은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우수한 농업인재를 육성하고자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20일 한·중 FTA가 공식 발효하면서 시장개방이 가속화함에 따라 농가경영이 악화될 우려가 커졌다.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의 여파로 각국의 식량 수급에 비상이 걸리면서 우리나라도 안보 차원의 식량 수급이 국가적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에 정부는 농업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했다. 2014년 11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방안'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 보고서에는 쌀 관세화와 한·중 FTA 등에 따른 시장개방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농업대도약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자는 구상이 담겼다. 농업을 ICT 융·복합의 첨단기술 집약산업, 세계와 경쟁하는 수출산업,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식품산업, 농촌경제를 활성화하는 6차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여 FTA시대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자원의 융·복합을 통해 농촌의 활력을 충전하는 것이 목표다.

이어 2014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전문인력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지식과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창조농업을 선도할 핵심인력을 본격적으로 양성해나가기로 했다. 2015년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전문인력 양성'을 주요 농정과제로 보고하면서 인재육성을 통해 농업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러한 방침에 맞춰 2015년 농정원은 '창조농업 실현 및 미래성장산업화'를 선도할 인적자원 육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히 전문 농업경영체 양성교육을 확대하고 미래농업인 역량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요자 중심으로 실습교육을 확대하고, 품목별 전문농업인의 역량을 강화하며, 농업마이스터 제도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또 농고·농대생의 농산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고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역량 강화 방안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품목별 전문농업인 교육 강화

농정원은 시장개방 및 농가경영 악화 상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인재,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먼저 농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실습교육을 대폭 강화했다. 현장실습교육(WPL)을 품목·대상별로 세분화하여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실습장을 추가 지정했다. 특히 2015년부터는 첨단기술 공동실습장도 지정하여 첨단기술을 직접 습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선도농업인의 핵심기술과 노하우를 확산 전파하는 WPL 장기·심화 교육을 대폭 확대했다.

2015년에는 ICT 첨단기술을 활용한 품목특화교육을 확대하여 농업법인 및 품목별 전문농업인의 역량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 '토마토대학'을 새로 개설해 운영을 시작했다. 토마토대학은 선진국 수준의 농업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개설한 첨단 품목특화 전문교육과정을 말한다. 농정원은 국내외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했다. 또 선진 우수사례 습득을 위해 해외전문가를 초빙하거나 농업인의 해외연수도 실시했다.

2015년에 토마토 품목과정으로 운영에 들어간 토마토대학은, 2016년 들어 딸기, 버섯, 양돈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면서 농업경영체를 위한 최고의 교육과정으로 금세 자리를 잡았다.

이와 함께 농정원은 농업법인 역량강화교육도 확대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교육과정도 새로 도입하여 농업법인의 경영능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온라인 교육과정은 농정원이 더 많은 농업인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온 사업인데, 법인뿐 아니라 개인 대상으로도 작물보호, 원예학개론 등 품목교육 콘텐츠를 집중 개발하여 운영함으로써 품목교육 핵심기본과정의 상시운영체계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최고의 전문기술과 경영역량을 갖춘 리더를 양성하고자 도입한 농업마이스터 제도는 제도 시행 이후 그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남에 따라, 농업마이스터의 문호를 확대하고 이들의 활동

2015.07.31.
품목특화 전문교육과정(토마토대학) 입교식

2015.10.23.
제2회 농업마이스터
지정서 수여식 및
워크숍

영역도 넓혀 나갔다.

먼저, 농업마이스터대학을 2016년 기준 9개 대학 33개 캠퍼스, 99개 품목전공으로 조정하고, 농업마이스터 지정제도도 개선하여 지정품목 수를 34개로 늘렸다. 문제은행도 추가로 개발하여 평가의 내실을 기했다. 그 결과 2014년 102명이었던 농업마이스터는 2015년 45명이 신규 지정돼 147명으로 늘었다. 2016년에는 367명이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농정원은 농업마이스터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들을 강사로 활용하는 강좌를 확대하여 전문농업인 양성에 박차를 가했다.

미래 농업인 양성 위한 교육체계 개편

농정원이 역점을 둔 사업 가운데 하나는 현재 시점에서의 전문농업인뿐만 아니라 미래의 농업인재를 양성하는 일이다. 경쟁력을 갖춘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이에 농정원은 농고·농대생들이 뛰어난 역량을 갖추고 장차 농산업 분야로 진출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농산업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을 높이고 이들이 졸업 후 농산업 분야에 취·창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한 것이다.

먼저, 농고·농대생의 농산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농산업 현장과 연계한 실용 중심의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했다. 특히 현장실습교육, 창·취업 동아리, 선도농업인과의 교류, 자격증 취득과정 등 각 학교별로 특성화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지원했다.

2016년에는 농고·농대 교육체계를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농산업분야 직업교육체계로 개편하기로 하고, 농고·농대 관계자 협의회 등의 논의를 거쳐 '영농창업특성화사업'을 시작했다.

영농창업특성화사업이란 축산 및 원예 분야의 승계 또는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들을 선발하여 전문이론과 현장실무교육을 제공하는 특성화 교육과정을 말한다.

이 사업 계획에 따라 미래농업선도고교(나중에 창조농업고교로 개명) 3개교, 영농창업특성화대학 5개교를 선정하여 운영을 시작했다. 니래농고, 영농특성화대학은 2021년 2월 첫 졸업생이 배출되었는데, 2022년 4월 현재 두 교육과정을 합쳐 총 896명이 졸업하고 1,125명이 교육을 받고 있다. 농정원은 이들의 취·창업을 지원하고자 농업교육포털에 취업게시판을 개설하고, 창업캠프, 일자리박람회 등의 행사도 주기적으로 개최하며 다양한 정보도 제공했다.

이와 함께 농정원은 'Start Up! 청년농업 스타 되기!' 과정을 새로 개발하는 등 온라인 교육과정을 확대하는가 하면, 선도농업인 코칭프로그램과 장기 현장실습과정을 신규 개발하여 농산업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할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데 힘을 쏟았다.

후계농업경영인 양성 사업도 농정원이 미래 농업인 양성을 위해 각별한 공을 들인 사업이다. 농정원은 역량 있는 후계농업경영인을 발굴하고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영농 정착을 유도한다는 취지에서 이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했다. 정기적으로 사업순회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참여자를 확대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하고 지역·품목·성장단계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는가 하면, 2016년에는 우수후계농업경영인 평가·인증시스템을 개선하여 보다 유망한 후계인력이 탄생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그 결과 이 사업은 참여자가 2015년 2,056명, 2016년 2,348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면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정착되었다.

2018.
농업계학교
창·취업캠프
성과공유대회

6 ‘농촌=쉼터·삶터·일터’ 홍보 본격화

‘도농상생’ 향한 홍보방향 설정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요소 가운데 하나는 농업인뿐 아니라 농업·농촌을 바라보는 국민의 인식이 긍정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긍정적인 인식이 전제되어야 농업·농촌의 존재의의와 미래가능성을 신뢰하게 되고,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도농상생(都農相生)을 실현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농정원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확산에 주력한 것도 이 때문이다.

농정원은 농업·농촌 가치에 대한 국민적 지지 기반을 확보하고 귀농귀촌 등 농정과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대국민 홍보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대중매체뿐 아니라 대면소통, 현장홍보, 사이버홍보 등 정책수요층의 눈높이에 맞춰 홍보채널을 다양하게 가동하면서 인식 개선에 공을 들였다. 덕분에 농정과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높아지고 농업·농촌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수치로도 확인될 만큼 크게 변화하는 성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2015년에는 한·중 FTA 발효로 인한 농가의 불안감, 쌀값 하락, 그리고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물 판매 저조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치면서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이 저하되거나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할 우려가 커졌다.

이에 농정원은 2015년 새로 수립한 중장기 전략체계에서 ‘도농상생 기반 강화’를 전략목표 가운데 하나로 설정하고, 보다 면밀한 홍보전략을 수립하여 농업·농촌 가치 및 정책공감대를 확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행복한 농업·농촌의 가치를 널리 확산하고, 우리 농식품의 소비 활성화를 지원하며,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귀농귀촌 사업에도 힘을 불어넣어 농촌의 활력을 증진하는 데 홍보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통합 홍보DB 구축 및 전략적 농정 홍보

홍보DB UCC 공모전 포스터

새로 수립한 홍보전략에 따라 2015년 농정원은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농식품 통합 홍보의 기반을 새롭게 구축했다.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각 기관의 홍보DB를 ‘농업·농촌 PRDB(www.agripr.kr)’(약칭 ‘홍보DB’)로 통합하여 체계화함으로써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 것이다.

홍보DB는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의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농식품 분야의 영상, 이미지, 간행물과 같은 농식품 관련 홍보 콘텐츠를 통합·관리해 서비스하는 정부 3.0 기반의 농정홍보 서비스를 말한다. 농업 종사자는 물론 일반 국민들이 농식품 관련 자료를 쉽고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돕기 위해 만들었다.

원래는 2013년 3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처음 사이트를 구축했고, 시범서비스를 거쳐 2014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그리고 2015년 들어 참여기관 수를 16개 기관으로 확대하여 7만여 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명실공히 국내 최고·최대의 농업·농촌 홍보 사이트로 발돋움했다.

2016년 1월에는 홍보DB를 업그레이드하여 서비스를 더욱 확대했다. 기존의 웹 서비스에 더하여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모바일 반응형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추가로 도입한 것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 전문 24시간 인터넷방송인 스마트팜TV와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유튜브 채널인 Mafra TV를 연계하여 함께 서비스함으로써 농식품 홍보 메신저로서의 역할도 강화했다.

농정원은 유관기관의 홍보DB를 통합하여 서비스하는 데 머물지 않고, 정부의 농정과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 농촌진흥청, 농협중앙회 등 13개 유관기관과의 협력홍보에도 적극 나섰다. 주요 정책에 대해 각 기관별로 서로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메시지의 통일성이 부족하고 홍보효과도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협력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실·국 홍보협의회와 유관기관 홍보협의회로 이원화되어 있던 홍보협의회를 정책홍보협의회로 통합하고 농정원이 홍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운영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6차산업화, 동물복지 등 5대 중점홍보 과제를 선정하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시너지를 창출

하는 홍보전략을 펼쳐나갔다.

한편, 한·중 FTA, 밥쌀용 쌀 수입 등 민감한 현안 이슈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면서 부정적 인식이 확산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동시에, 우리 농산업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적절한 홍보소재를 발굴하여 전파하는 데도 힘을 쏟았다. 특히 6차산업화 우수사례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전파하는 등 맞춤형 정책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국민 인식을 제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쉼터+삶터+일터'로서의 농업·농촌 가치 확산

농정원은 국민들에게 도시와 상생하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농업이 미래 신성장 동력이 될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는 데 공감하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했다. 농촌이 우리 모두의 쉼터이자 삶터이며 일터로서의 가치가 크다는 점을 전 국민에게 널리 알린다는 게 농정원의 목표였다.

이를 위해 농정원은 농식품 미디어 홍보매체인 스마트팜TV와 홍보DB 사이트, 그리고 SNS와 소식지 『상상낙서』 등 다양한 채널을 모두 가동하는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쳤다. 광고는 물론 TV의 인기 예능·생활정보 프로그램과 연계한 홍보도 빠뜨리지 않았다. 소비자가 소비자를 교육하는 '농사랑 알리미' 제도를 확대 운영하는가 하면, 가족 단위 농촌체험 프로그램 '해피버스데이'의 참여대상을 외국인으로까지 확대하여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게 했다.

게릴라가드닝 공모전 개최

2015.11.07.
'꿈틀 어린이 텃밭학교' 졸업식

동물복지형 농장체험과 같은 현장소통 방식의 홍보 이벤트를 잇달아 개최하고, '전국 으뜸 농산물 한마당', '코리아 애그리컬처 푸드쇼', '우리 농축산물 큰잔치' 등 지역행사와 연계한 농산물·농촌 문화체험 행사도 적극적으로 개최했다. 이 같은 국민참여형 홍보 방식은 도시민이 농업·농촌 가치를 자연스럽게 인식하는 데 큰 효과를 발휘했다.

이 시기에 빼놓을 수 없는 홍보활동으로는 2015년 7월 실시한 '농업농촌 가치 확산 공모전'이 손꼽힌다. 농촌의 '일터, 삶터, 쉼터'를 주제로 공익캠페인 영상 제작용 스토리보드를 공모한 행사인데, 대상 당선작을 기반으로 '우리 곁의 미래, 농업·농촌'이라는 슬로건을 붙인 캠페인 영상을 제작해 전파하기도 했다. 이 영상은 국민들이 우리 농업·농촌을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미래성장산업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일터, 삶터, 쉼터의 다원적 가치를 전달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해 8월에는 광복 70주년 및 농림업 70주년을 기념하여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서 '농림업 70년을 관통하는 과거-현재-미래 사진전'을 개최했다.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읽는 녹색드라마'라는 주제로 열린 이 사진전은, 역사 이래 처음으로 보릿고개를 극복한 농림업 70년의 변화와 발전상을 한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이 소장하고 있던 사진자료를 대거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같은 달 15일 MBC TV에 방송한 다큐멘터리 '농업, 새로운 미래를 꿈꾸다' 편은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다. 광복 이후 토지 재분배, 녹색혁명, 백색혁명을 통해 식량 자급자족을 실현한 우리 농업의 70년을 조명한 이 프로그램은, 농업이 ICT를 접목한 최첨단 농법과 6차산업이라는 새로운 환경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구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농정원은 서울 및 광역도시에 '꿈틀 어린이 텃밭학교'를 운영하거나 도시농업을 주제로 '어린이 꿈틀 동요 UCC 공모전' 행사를 개최하는 등 도시농업을 알리는 홍보에도 힘을 쏟았다. 또 신산업 육성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식용곤충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곤충요리 경연대회 및 체험행사를 여는가 하면, 성숙한 반려동물 보호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도 비중 있게 전개했다.

한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친 농정원은 2015년 12월 열린 '2015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에서 소식지 『상상낙서』가 인쇄사보 공공부문 편집대상을, '평생건강, 아침밥을 부탁해' 광고가 광고·공익캠페인 부문 최우수상을, 『귀농귀촌가이드북』이 한국광고홍보학회장상을 수상하며 3개 부문을 수상하는 기록을 세웠다.

7 농식품 소비 홍보의 활동범위 확장

쌀 소비 촉진 및 식문화 개선 캠페인 전개

행복한 농촌 구현과 도농상생 기반 확보를 목표로 농정원이 전개한 홍보활동의 중요한 한 축은 우리 농산물 소비 확산을 위한 캠페인이다.

최근 들어 생활수준의 향상 및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따라 식(食)문화의 서구화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어 우리 농산물 소비 확산 캠페인의 중요성은 매우 높아졌다. 더욱이 2015년은 한·중 FTA가 발효하고 밥쌀용 쌀 수입 허용 등 농산물시장 개방이 가속화하는 상황이어서, 국민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는 홍보가 절실한 시점이었다.

이에 농정원은 밥 중심의 바른 식생활 문화 정착, 고품질의 안전 농산품 소비 확대, 그리고 소비자에 대한 소비정책 소통 강화 등 크게 3가지 갈래로 방향을 잡고 홍보활동을 강화했다.

먼저, 쌀소비를 밥 중심의 올바른 식문화와 연결하여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예를 들면,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지속하며 아침밥의 중요성과 레시피를 전달하는 홍보 및 공익광고를 선보였고, 가족과 함께 하는 식사문화 정착을 위해 '가족사랑 가족밥상 실천' 범국민 실천 캠페인을 전개했다. 또 TV 홈쇼핑과 연계하여 쌀가공품의 판매도 진행했다.

2015년 11월에는 전국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영유아 식생활 교육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어 영유아 및 청소년층을 위한 올바른 식습관을 교육했다. 같은 시기에 쌀가공식품의 소비 확대를 유도하고자 KBS 농업인의 날 특집 다큐 '쌀의 진화'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기도 했다. '가래떡 데이'로 정한 11월 11일을 전후해서는 쌀 관련 기관과 함께 다양한 프로모션 행사를 열어 국민들의 시선을 사로잡기도 했다.

2016년 10월에는 국제구호개발 NGO인 굿네이버스와 협업하여 아침밥 기부를 위한 '#밥킷리스트' 캠페인을 벌였다. '밥킷리스트'는 '아침밥'과 인생에서 꼭 해보고 싶은 목록을 의미하는 '버킷리스트(Bucket list)'의 합성어로, '아침밥이 모여 아침밥이 꼭 필요한 아이들에게 전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2016
'米's KOREA' 공모전
포스터

농정원은 아침밥을 먹는 건강한 식문화를 조성하는 동시에 결식아동에게 쌀(밥)을 후원해 아침식사 결식률을 낮춘다는 취지에서 이 캠페인을 기획했는데, 유명 연예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참여 속에 1억 원 상당의 쌀 및 쌀가공식품을 마련해 아동보호기관 47곳에 기부했다.

한편, 2016년 7월 농정원은 외식산업이 쌀의 최대 소비처로 떠오르고 있는 현실에 착안하여, 식자재로서의 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집 밖에서도 쌀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米's KOREA' 공모전 행사를 개최했다. '밥맛이 남다른 米's KOREA'와 '쌀 요리로 소문난 米's KOREA' 2개 부문으로 진행된 이 행사는 국민들이 전국 곳곳에 숨겨진 밥 또는 쌀 요리 맛집을 직접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농정원은 추천된 맛집에 대해 식미평가단과 전문가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그해 11월 20곳의 米's KOREA를 선정해 인증패를 수여했다.

이어 9월에는 4개 민간 식품기업과 협력하여 쌀을 이용한 디저트 개발을 목적으로 한 오디션 프로그램 '쌀의 맛있는 기적 米라클'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를 통해 쌀 디저트 5종이 개발돼 상품화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고부가가치 농식품 판매 촉진 활동

전 국민적인 캠페인까지 전개하며 쌀소비 촉진에 나선 농정원은 쌀 이외의 품목으로도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국민들의 건강한 식생활과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부가가치가 높은 농식품 및 농가공식품에 대한 소비 촉진에 발 벗고 나섰다.

2015년 5월 TV홈쇼핑 채널인 NS홈쇼핑을 통해 지리적표시(Geographical Indication) 제품의 홍보를 시작한 것도 이 같은 노력의 일환이었다. 지리적표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거하여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 가공품의 명성이나 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국제적인 지리적표시 보호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우수한 지리적 특성을 가진 국산 농산물 및 가공품을 보호하고 지리적특산품의 품질을 향상하여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우리 농산물 및 가공품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이 제도를 도입했다. 2002년 보성녹차가 제1호 제품으로 등록되었고, 2015년 기준 90건의 농식품 및 가공품이 등록되었다.

8월에는 민간의 모바일 쇼핑몰을 활용하여 우수한 농식품의 판매를 촉진하고자 LG유플러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LG유플러스에 대한민국식품대전관, 국가인증농식품관, 우수 쌀가공식품

2015.08.25.
LG유플러스와 우수 농식품 모바일 마케팅 강화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관 등 농식품 관련 테마 쇼핑몰을 개설했다. 농정원은 우수한 제철 농식품을 활용한 제철레시피 등 다양한 농식품 전문 콘텐츠를 제공하여 농식품 판매 활성화에 기여했다.

농정원이 특히 역점을 둔 것은 국민밥상의 안전에 도움이 되는 고품질의 안전 농식품 소비를 촉진하는 홍보활동이다.

친환경 농산물은 농가의 소득을 증진하는 고부가가치 농업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식품안전과 직결된 먹거리라는 점에 주목하고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를 장려하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농정원은 급식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현장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유아교육용 동화책을 제작해 어린이집 등에 배포했다. 또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맞춤형 친환경비료' 소비를 장려하는 광고를 제작해 선보이기도 했다.

친환경 농산물 등 고품질 우수 농식품의 판로 개척과 소비 촉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해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제도) 등 국가인증제도를 적극 활용했다. 국가인증 농식품 안테나숍을 설치하여 고객접점에서 소비자반응을 보아가며 판매를 지원하거나 대형 유통업체에 전용 판매관을 설치해 운영했으며, 국가인증 농식품의 통합로고를 널리 알리기 위해 CF를 제작하여 송출하는 작업도 진행했다. 알려지지 않은 우수 농식품의 발굴과 판로 개척을 위해 '농식품 파워브랜드 대전', '도시농업박람회' 등의 행사도 개최해 농식품의 브랜드파워 향상에 기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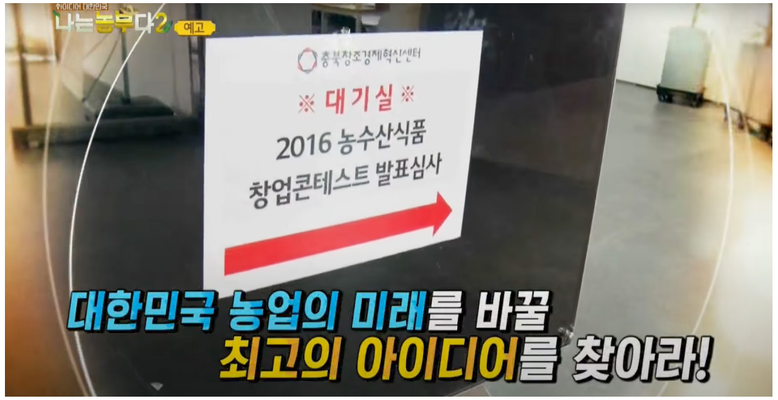
특히 2016년 11월에는 TV홈쇼핑 및 굴지의 대형 마트와 함께 GAP인증 농산물의 판촉 프로모션 행사도 진행하여 국가인증 농식품의 판매 촉진 및 인지도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

국민적 화제 모은 '나는 농부다' 콘테스트

농정원은 기존 농식품의 판매촉진 활동에 국한하지 않고 새로운 농식품의 발굴 및 개발을 지원하여 농식품의 시장성을 확장하는 데도 큰 관심을 두었다. 대표적인 것이 농식품 분야의 아이디어 발굴 및 창업 붐 조성을 위해 2015년 처음 실시한 '나는 농부다'(농수산식품 창업) 콘테스트이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과 협력하여 개최한 이 행사는, 농수산식품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를 발굴하고 성공적인 사업화를 지원하는 공모 행사이다. 참가대상은 개인이나 법인에 제한이 없으며 농수산업 및 식품산업 분야, 농수산업 ICT 접목 분야, 푸드테크 등 창업 아이템의 범위도 넓다.

이 행사는 1등인 대상의 상금이 1억 원에 달하고, KBS의 '아이디어 대한민국, 나는 농부다'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되는 방송 서바이벌 오디션 형태로 실시되는 데다, 창업 또는 사업 성공을 위해 전문가들의 지원도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창의적인 창업 아이템을 가진 예비창업자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대회였다. 2015년 10월부터 11월까지 6회에 걸쳐 KBS를 통해 방송된 제1회 대회의



KBS에서 방영된 '아이디어 대한민국, 나는 농부다'

경우 990건의 신청 건수를 기록할 정도로 큰 관심을 모았다.

예선·본선·결선으로 이어지는 심사 결과, '친환경 꼬마감자와 그를 이용한 가정간편식' 테마로 참가한 꼬마감자팀이 대상을, '표고버섯 용기재배 자동화 시스템'으로 참가한 조해석 씨가 최우수상을 차지하는 등 총 5개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행사가 끝난 이후에도 농정원은 수상팀뿐만 아니라 본선 진출 50팀과 최종결선 진출 10팀을 대상으로 이들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펼쳐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후속지원을 이어갔다. 또 대회 개최를 위해 개설한 공모사이트와 적극적인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농수산식품 분야의 창업 붐 조성에 앞장섰다.

농식품 소비 활성화 위한 인프라 개선

농정원은 농식품 소비 활성화 노력의 일환으로 판매 인프라의 정비에 나섰다.

먼저, 2015년 농정원은 다양한 농식품 소비정보를 제공하는 식품종합정보망 '농식품정보누리'를 확대 개편했다. 농식품의 품질과 건강에 대한 관심, 소비자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유관기관들과의 협의를 거쳐 농식품정보누리에 관련 정보사이트를 연계토록 업그레이드한 것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정보누리는 16개 기관 21개 사이트를 연계·통합하여 종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대형 농식품 정보망으로 발전했다.

11월에는 정부 3.0 정책에 따른 '국가 중점DB 개방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주요 농수축산 공영도매시장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등 4개 조사기관에서 20여 년 동안 축적한 경락(競落) 및 조사가격 데이터를 전수조사한 후, 17종 약 10억 건의 농수축산물 경락 및 조사가격 데이터를 대거 개방했다.

이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거나 농업경영체가 딸기, 토마토 등 농산물의 출하시기를 조절하는 등 농수축산물 유통 분야가 발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도매시장 가격정보 개방 체제를 바탕으로 2016년 4월 농정원은 도매시장 농수산물의 실시간 가격비교가 가능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아삭'을 출시했다. 농정원이 제공하는 오픈API를 활용해 개발한 이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함으로써, 농민들의 농산품 출하시기 조절 및 정확한 경락가격 파악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보 수집에 어려움을 겪던 농민들의 불편이 크게 개선되었다.

한편, 2016년 11월 농정원은 정부 3.0 정책에 따라 도매시장 관리업무를 혁신하여 농수산물 유통환경의 선진화를 위해, 대전과 부산의 3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5개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도매시장 유통관리시스템'을 통합 구축하는 사업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고품질 농수산물의 경락정보를 개방함으로써 각종 유통 통계정보의 실시간 활용이 가능해져 데이터 기반 도매시장 운영이라는 새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또한 소비자는 더욱 안전한 농수산물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아삭' 화면

통합 과정과 세종시 이전의 노력을 회상하며

하영효
농정원 초대 원장
2012.05.23. ~ 2015.05.22.

Q. 농정원의 초대 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으신 바 있습니다. 3개 기관이 통합한 농정원의 출범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 먼저 농정원 출범 10주년을 축하합니다. 벌써 10년의 세월이 흘렀나 생각하니 초대 기관장으로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농식품부의 농식품 정책을 보조하는 여러 공공기관이 있지요. 농지나 축산, 유통 등 물적 기반을 돕는 기관은 있었으나 농업인 인력육성이나 정보화, 농식품이나 농촌 가치의 확산 등 소프트웨어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은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농업인재개발원과 농촌정보문화센터(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설) 등 작은 규모로 분화되어 있어서 영향력이 크지 않았습니다. 2012년 5월 23일 세 기관을 통합하여 분산 독립되어 있던 기능들이 한 조직 내에서 서로 연결됨으로써 시너지와 효율성을 높이게 되었다는 점, 규모화된 기관으로서 조직의 위상을 갖추게 되었고 대외적인 인식이나 영향력이 증대되었다는 점, 그리고 농업분야에 이런 통합된 소프트웨어 지원 기관이 탄생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둘 수 있겠습니다.

Q. 취임사에서 농정원의 위상과 시너지, 새로운 사고방식, 고객만족 등 여러 가지를 강조하신 것은 그만큼 하고 싶은 일이 많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주로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고 경영을 하셨는지요?

A. 조직 통합 후 물리적 기계적인 통합은 이루었으나 직원 간의 화학적 통합이라고 할까요, 같은 조직 구성원으로서 한 가족 같은 끈끈한 통합을 이루는 문제가 새로 출범한 통합기관으로서는 직원 간 화합 측면이나 조직의 시너지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였어요. 부서 간 이동 배치, 직원 연찬회, 체육활동,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직원 간의 화합에 나름 노력을 기울였으나 시간이 필요했던 문제 같았어요.
고객만족은 직원 월례조회 때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한 것 같은데 농식품부가 1차 고객이니 잘 해야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출범 후 초기, 기관의 이미지와 조직의 생존문제(?)와 관련된 것이어서 신경이 쓰인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Q. 통합기관으로 출범 당시 농정원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요?

A. 첫째로, 통합기관으로서 직원이 늘어나니 함께 근무할 공간이 부족해서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 처리해야하는 당면 과제였습니다. 자체 건물이 없이 당시 인덕원의 협소한 공간에서 불편하게 지냈는데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나아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당시의 큰 정책 이슈였는데 기관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중요한 이슈인지라 대응하느라 이리 저리 뛰어 다녔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Q. 당초 목표하셨던 과제 가운데 가장 보람 있게 생각하시는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겠습니까?

A. 기관출범 초기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세종시로 이전하도록 노력해서 성공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고 보람 있게 생각합니다.
당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심의 결정하는 기관은 '지역발전위원회'였는데 2012년 5월 1차 심의 기관인 '공공기관 지방이전 특별위원회'에서 나주 혁신도시로 결정되었지요. 이후 정부법무공단과 민간 법률사무소의 법률자문을 받는 등 논리를 정리하여 전국적으로 심의위원들을 찾아다니며 설득노력을 펼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남도와 나주시에서의 정치권이나 언론을 통한 반발과 압력, 로비 또한 만만치 않아서 끝까지 방심할 수 없었습니다. 최종심의회에서도 1차 심의 결과를 존중하는 실무위원들은 나주시 이전 필요성을 주장하여 세종시 이전을 두고 찬성과 반대가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었으나 농정원의 입장을 강하게 지지해주신 위원님들 덕분에 12월에 세종시로 이전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농정원의 세종시 이전 필요성을 주장하며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Q. 어떤 조직이든 출범 초기에는 다양한 어려움이 있기 마련인데, 당시 원장님께 가장 고민스러웠던 점이나 아쉬웠던 점은 어떤 게 있었는지요?

A. 독립된 3개 기관을 통합하다보니 기관마다 급여체계와 수준이 달라 함께 일하면서도 상이한 보수 수준 때문에 기관장 입장에서 고민스러웠죠. 직원들의 사기 측면에서 보수를 하향 조정할 수는 없으므로 3개 기관 중 급여가 가장 높은 급여테이블에 목표를 두고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계획을 세웠으나 예산 사정으로 썩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울러, 기관이 새로 생기고 농식품부의 여러 조직에서 일을 부탁하다 보니 사업과 예산 규모가 커져서 기관입장에서 긍적적이고 좋은 면도 있었으나 농식품부 조직마다 중구난방식으로 일을 맡기다 보니 다소 혼란스러운 측면도 있었고 직원의 규모는 한정되어 있는데 거절하기도 쉽지 않아 고민이 되었던 상황이 기억으로 남습니다.
아쉬운 점이 많지만 한 가지만 든다면 통합과정에서 기관 명칭을 정할 때 세 개 기관의 정체성을 살리려 애쓰다보니 기관 명칭이 길어졌는데 이를 짧고 간명하게 정리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Q. 오랫동안 농림수산식품 분야에서 일해 오셨습니다. 우리 농어촌이 더 발전하려면 어떤 노력이 있어야 할까요?

A. 농식품분야의 발전과 농업인의 생활 향상을 위한 경지의 규모화나 농작업 기계화, 유통 효율화를 위한 저장 유통시설, 농촌의 도로, 전기, 수도, 인터넷 등 물적 조건들은 많이 구비되고 향상되었다고 봅니다. 이제는 소프트 파워라고 할 수 있는 농업인의 역량을 증대시켜서 생산, 유통, 판매 등 경영효율을 증대시키는 일과 일반 국민(납세자)를 대상으로 농식품의 중요성을 설득하는 일이 중요한데 여기에 농식품 정책의 초점이 모아져야 하고 이런 일들이 바로 농정원의 역할과 기능이기에 농정원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Q. 기관 통합 10주년을 맞아 임직원에게, 혹은 농업 종사자와 관계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A. 농정원은 수립된 정책이 현장에서 잘 이행되도록 지원하고 돕는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정책의도와 배경을 잘 이해해야 효과적으로 일을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일을 풀어나갈 것인지 늘 고민하고, 행복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CHAPTER. 3

2017
2020

농업의 4차 산업화 기반을 닦다

1. 새 비전 및 중장기 전략 수립
2. 조사·분석 및 정책제안 기능 강화
3. 귀농귀촌종합센터 통합 이전 및 사업 확장
4. 청년층 취·창업 연계 교육 강화
5. 농기자재 수출 지원사업 활성화
6. 스마트팜 보급·확산 위한 기반 조성
7. 도시농업 확산과 동물보호복지 홍보 확대
8. 공익적 가치 홍보의 범위 확장
9. 우수 공공기관 새 모델 제시

1 새 비전 및 중장기 전략 수립

환경 대응 위한 새 전략체계 수립

2017년 들어설 무렵에도 농정원을 둘러싼 경영환경은 여전히 변화의 연속이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해 사회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는 시점이었다. 특히 공직사회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이 높아져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이 요구되었다.

사업여건 측면에서는 스마트팜 등 정밀농업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농업분야 빅데이터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첨단기술을 응용한 농업기술이 다양하게 시도되었다.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시간이 지날수록 고조되고 영농창업을 희망하는 인구도 꾸준히 늘어났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역량 있는 청년 농업인력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렸다.

이 같은 환경 변화는 농정원에게 더 많은 책임과 역할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했다. 농정원은 농산업·농식품 분야의 정책집행기관으로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 및 농업정책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농업·농촌의 가치를 확산하는 임무를 다해야 했다. 농업 분야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도농교류 확대를 통해 상생의 문화를 조성하는 데도 힘써야 했다.

이에 농정원은 변화하는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미래의 농업·농촌을 실현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기 위해 비전과 중장기 전략을 다시 수립하기로 했다.

그리고 전문가 자문, 내부직원 대상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새 비전과 중장기 전략을 담은 전략체계를 새로 마련했다. 농정원은 2017년 11월 2일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비전선포식을 갖고 이를 공표했다.

새 전략체계에서는 '농업경영 혁신과 농촌가치 확산으로 경쟁력 있는 농업, 행복한 농촌 실현에 기여'를 미션(Mission)으로 정했다. 또 농업·농촌의 사회적·공익적 가치를 온전하게 확산 전파하고, 교육, ICT, 홍보를 통해 미래농업의 가능성을 실현한다는 의미에서 '가고 싶은 농촌, 미래농

업을 실현하는 농식품 전문기관'을 비전으로 채택했다.

핵심가치는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반영하여, 기존 4대 핵심가치에 '청렴'을 추가한 '청렴, 혁신, 협업, 소통, 고객행복' 등 5개로 재정립했다.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는 이유였다.

중장기 전략을 담은 새 전략체계에서는 ①농산업 교육인원 연 10만 명, ②우리 농산물에 대한 긍정 인식 85% 달성, ③스마트팜 생산량 35% 달성, ④FTA 협상 대응능력 고도화, ⑤청렴 1등급 달성 등 5대 경영목표를 제시했다. 또 농산업 전문인력 육성, 농업·농촌 지속가능 기반 조성, 농식품 지능정보화 촉진, 국제 농업 통상·협력 지원, 상생협력의 사회적 가치 실현 등 다섯 가지를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17개의 구체적인 과제도 도출했다.

농정원의 새 비전 및 전략체계 (2017)

<table>
<tr><td>미션</td><td colspan="5">농업 경영혁신과 농촌 가치확산으로 경쟁력 있는 농업, 행복한 농촌 실현에 기여</td></tr>
<tr><td>비전</td><td colspan="5">가고 싶은 농촌, 미래농업을 실현하는 농식품 전문기관</td></tr>
<tr><td>핵심가치</td><td>청렴</td><td>혁신</td><td>협업</td><td>소통</td><td>고객행복</td></tr>
<tr><td>경영목표</td><td>농산업 10만명 이상 교육</td><td>우리 농산물에 대한 긍정 인식 85% 달성</td><td>스마트팜 생산량 35% 달성</td><td>FTA 협상대응능력 고도화</td><td>청렴 1등급 달성</td></tr>
<tr><td>전략목표 (5대)</td><td>농산업 전문인력 육성</td><td>농업·농촌 지속가능기반 조성</td><td>농식품 지능정보화 촉진</td><td>국제 농업 통상·협력 지원</td><td>상생협력의 사회적가치 실현</td></tr>
<tr><td rowspan="8">전략과제 (17대)</td><td rowspan="3">농산업 창·취업 활성화</td><td rowspan="3">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확산 및 대국민소통</td><td rowspan="3">스마트팜 확산</td><td rowspan="3">농식품 국제 통상·정책 지원</td><td>기관경영혁신 및 공공 서비스 강화</td></tr>
<tr><td>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td></tr>
<tr><td>인적자원 관리 및 성과 관리체계 향상</td></tr>
<tr><td>전문농업인 양성</td><td>귀농귀촌 활성화</td><td>농식품 지식정보화 확산</td><td rowspan="3">국가 간 농식품 협력 확대</td><td>자율책임경영 및 윤리경영 강화</td></tr>
<tr><td rowspan="2">농업인력 양성 기반 강화</td><td rowspan="2">우리 농식품 소비 확대</td><td rowspan="2">스마트 농정지원</td><td>노사상생 노력 및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td></tr>
<tr><td>일가정 양립 등 일하는 좋은 일터 만들기</td></tr>
</table>

미래 신사업 탐색 및 조직문화 혁신

새 비전과 중장기 전략을 담은 전략체계를 선포한 농정원은, 사업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의 주체인 농정원 자신의 경쟁력과 경영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데 주목했다. 그리고 조직의 역할을 확대하고 조직운영의 능률을 기하는 방향으로 대대적인 조직혁신에 착수했다.

가장 역점을 둔 것은 미래 탐색을 위한 활동이다. 농정원은 국내외 농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정원의 역할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중장기적으로 농정원의 미래전략을 수립하고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여 새로운 역할을 모색해나가야 할 상황이라고 본 것이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2017년 2월 기구조직을 일부 개편하여 신성장전략실을 신설하고, 비상임 한시 기구로 미래발전위원회를 구성했다. 미래발전위원회는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위원회 형태의 조직으로, 산하에는 경영기획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신규사업발굴추진단을 두어 실무를 담당토록 했다. 미래발전위원회는 사업매력도와 실행가능성 등 제반 여건을 평가하여 스마트팜 생산성 향상, 농기자재 수출지원 확대 등 6개의 신성장동력 사업과, 농정통계 및 빅데이터 활용 확산 등 2개의 신규사업을 미래발전과제로 선정했다. 그리고 이를 중장기 전략체계와 연계하여 실제 사업에 반영해나갔다.

업무수행 방식도 강한 실행력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개선해나갔다. 행정정보시스템 '농정-ONE'을 구축한 것은, 행정업무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업무 수행의 효율을 높이는 주목할 만한 변화였다. 농정원은 과거의 관행을 타파하고 일하는 방식을 혁신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T/F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스템의 명칭도 사내공모로 정했다.

젊은 직원들이 중심이 된 주니어보드 활동도 활발해졌다. 주니어보드는 2014년에 시범 도입되었다가 잠정 중단되었는데, 2017년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농벤저스'라는 별칭으로도 불린 주니어보드는 경영혁신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아래로부터의 조직변화와 경영혁신을 주도하는 역할을 했다.

2019.07.09.
농정원 주니어보드
'농벤저스' 출범

2018.12.12.
세종시대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간담회

2018년 11월 5일 제3대 신명식 원장이 취임한 이후에는 조직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이 시기에 혁신활동은 공공의 이익 증진과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소극행정을 타파하고 '적극행정'을 조직문화로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적극행정이란 공직자가 불합리나 비효율을 간과하지 않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농정원은 적극행정의 원칙 아래 62개의 과제를 선정하여 개선활동을 전개했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2019년 한 해에 이미 30건의 과제를 해결할 정도로 큰 성과를 창출했다.

2020년 9월에는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미래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할 경영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시 한번 '미래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했다. 이번에 구성한 미래발전위원회는 내외부 인사 5인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농정원의 경영전략과 사업혁신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한편, 2020년 농정원은 인사체계를 대폭 혁신하여 조직분위기를 일신했다. 특히 노사 공동으로 '보수제도 개선 T/F'를 발족하여 직무가치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수체계와 평가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기반으로 10월에는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가치와 능력, 성과 중심으로 보수체계를 개편했다. 농정원은 전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편된 보수체계의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2 조사·분석 및 정책제안 기능 강화

'농식품 빅데이터센터' 개소

농정원은 설립 이후 꾸준히 조사·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데이터를 축적해 왔다. 또 지속적으로 공공데이터의 개방에 노력하여 310여 종에 달하는 농식품 분야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매년 농식품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경진대회를 열어 우수 활용사례를 발굴하며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지원해 오고 있다.

이러한 활동으로 얻은 대표적인 성과로는 스마트팜에서 발생하는 우수 농가의 생육·환경정보를 수집·분석해 기업의 제품 업그레이드를 지원하고, 농가에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우수 농가 벤치마킹 서비스를 제공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도매시장 실시간 가격정보를 개방하여 농산물 출하시기 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민간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지원한 것도 유익한 성과로 꼽힌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빅데이터(Big Data)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농정원은 빅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2017년 4월 25일에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농식품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융복합을 지원하기 위해 '농식품 빅데이터센터'를 개소했다.

농식품 빅데이터센터는 농업 분야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농업생산·유통, 농촌생활, 농정 등 각 분야별 데이터를 수집해 처리·가공하고, 농업·농촌의 분야별 빅데이터와 트렌드를 분석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농식품 빅데이터센터는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과 박철수 원장, 그리고 학계, 민간기업, 유관기관의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갖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농식품 빅데이터센터는 분야별로 데이터 전수를 조사·분석하여 데이터 맵(Map)을 구축하는 등 빅데이터 활용 기반을 조성하는 데 집중했다. 또 국민 각자의 취향에 맞춰 농촌관광, 농식품 소비 등 소비유형별로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데이터 중심의 융복합 전략을 마련하는 동시에, 데이터 맵을 기반으로 공공·민간의 수요를 조사하여 빅데이터 융복합 활용 과제를 발굴·확산해나

2017.04.25.
농정원 빅데이터 센터
현판식

갔다.

한편, 개소 직후인 2017년 7월부터 농식품 빅데이터센터는 블로그, 트위터 등 곳곳에 산재한 50억 건 이상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빅데이터로 본 여름휴가철 농촌정보', '농식품 빅데이터로 본 명절 선물 소비트렌드' 등 생활과 밀접한 농업·농촌 통계정보들을 공개하여 언론 등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농업·농촌 정보가 도시민들의 생활에 유용하다는 점을 재인식시켜주어 도농교류에도 한몫을 했다는 평가가 잇따랐다.

'스마트 농정'과 축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농식품 빅데이터센터는 개소 직후부터 데이터에 기반을 둔 다양한 변화를 주도적으로 만들어나갔다. 특히 관심을 모은 것은 '스마트농정 통계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16년에 시작한 '스마트농정 농식품통계 생산·활용 기반 구축 사업'으로 탄생한 플랫폼을 말한다. 농정원은 농업·농촌의 현실을 반영한 기초통계를 확충하고 미래지향적 통계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데이터 중심의 과학적 농정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프로젝트를 주도하여 이를 구축했다.

스마트농정 통계체계는 현장과 밀접한 농경지 경계 정보에 각종 통계 및 행정자료를 종합적으로 연계·통합한 팜맵(Farm Map, 농경지 전자지도)을 구축하여, 농정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관기관에서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국가 농식품 통계서비스(KASS)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했다.

팜맵은 스마트농정을 대표하는 최고의 성과로 꼽힌다. 팜맵은 농경지 현실경계를 기준으로 구획하고 논, 밭, 과수, 시설 등 활용 속성별로 판독한 최초의 농경지 전자지도를 말하는데, 항공 및 위성영상, 현장실사 등을 거쳐 완성되었다. 농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등 관계기관의 농업기상과 병해충발생정보, 토양분석 정보와 융복합 팜맵 기반의 농업활동 지원정보를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해 2019년 5월 공개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농업행정은 물론 무인항공방제와 같은 민간의 신규사업 창출, 그리고 학계 및 연구기관의 농업·농촌 분야 연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후에도 농정원은 주요 농정에 직접 접목할 수 있는 활용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행정자료와 연계한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여 고효율의 농식품 통계 서비스를 제공했다.

한편, 2019년 1월 농정원은 축산 분야에도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스마트 축산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축산 분야에서는 2014년부터 시작해 2018년 기준으로 1,400여 농가에 이미 스마트 축사가 보급돼 있었다. 그러나 축산 농가에서 발생하는 각종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통합 플랫폼이 없어 관계기관이 서로 다른 시스템을 이용하는 데다, 그나마도 ICT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축사에서 발생하는 데이터가 표준화되지 않아 수집·활용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농정원은 스마트 축사 빅데이터를 수집·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데이터의 표준–유통–활용 생태계를 조성하여 농가경영 및 전후방 산업을 과학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기로 했다. 그리고 2019년 8월 작업을 시작하여 4개월여 만인 2019년 12월에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생산자단체, 민간업체 등 60여 개 기관·기업과 '축산 빅데이터 연계 협력 및 상호 공동활용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갖고 민간 중심의 축산 빅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네트워크도 구축했다.

빅데이터의 수집·분석 및 활용도 제고

농식품 빅데이터센터를 오픈하면서 명실상부하게 농식품 분야 데이터 허브(Data Hub)기관의 위상을 갖게 된 농정원은, 빅데이터의 수집·분석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공공 빅데이터의 민간 활용도를 높이고자 매년 공공데이터 활용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신규 개방 수요를 발굴하고, 공공·민간의 여러 기관들과 제휴를 확대하며 농식품 빅데이터 수집 및 활용을 위한 네트워크도 공고히 했다.

2017년 6월 NH농협은행과 공공데이터 및 핀테크 활용 모델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도 이러한 노력의 하나였다. NH농협은행과는 농식품 분야 공공데이터와 NH농협 금

2017.06.16.
농식품 공공데이터 및 농협은행 핀테크 오픈플랫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MOU) 체결

2019.09.26.
농식품 공공 및
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시상식

융API의 상호 제공 및 활용, 농식품 빅데이터센터에서 생산되는 정보의 교류를 통한 융복합 활용 서비스 공동 발굴 등 농식품 빅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2017년 10월 27일에는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스마트팜 빅데이터 전략 구상'을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여 빅데이터 운영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이 세미나에서는 스마트팜에서 축적되는 빅데이터를 수집·분석 및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농정원은 스마트팜 관련 정책과 산업동향을 소개하고 관련 연구 및 사업 추진 사례를 공유했다.
공공 빅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이벤트도 꾸준히 개최했다. 그동안 농정원은 각종 정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농식품 소비정보를 제공하는 '농식품정보누리', 쌀소비를 촉진하고자 쌀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쌀박물관', 도시민에게 텃밭농사를 실천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모두가 도시농부' 등 여러 채널을 운영하며 국민들이 농업·농촌에 관심을 갖고 우리 농산물을 올바로 알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왔다.
여기에 더해 2015년에 시작한 '농식품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 팜맵 개방 직후인 2019년에 시작한 '농식품 공간데이터 분석 활용 대회' 등의 이벤트를 개최하여 공공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것을 장려했다. 이를 통해 농식품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신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간접적으로 지원했다.
이처럼 농식품 빅데이터의 수집·활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점을 높이 평가받아, 2018년 10월 농정원은 한국빅데이터학회가 제정한 '제5회 코리아 빅데이터 어워드'에서 공공기관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국가 통계·조사기관으로의 위상 확립

농정원은 농식품 빅데이터의 허브로서만이 아니라 농업·농촌 관련 국가 통계·조사기관으로서의 위상도 확보했다. 농정원이 주관하여 실시하는 통계청으로부터 승인받은 국가통계로서의 자격을 갖춤으로써 한층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농정원이 국가승인통계 자격을 처음 획득한 것은 2016년 10월 지정된 '농업법인 정보화 수준 및 활용도 조사'이다. 이 조사는 농업법인의 정보화 수준과 활용실태 등을 종합적·시계열적으로 파악하여 농업법인 관련 지원정책을 수립하거나 정책평가를 하는 데 기초자료로 제공된다.

2014년에 시범조사 형식으로 첫 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2015년 6월 이 업무가 통계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되면서 농정원 고유사업으로 전환되고 이듬해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되었다.

국가승인통계 지정에 따라 농정원은 국가통계를 작성하는 기관으로서의 더 큰 공신력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또 농업법인의 정보화 수준을 지속적으로 추적조사하고 그 데이터를 국가통계로 제공함으로써 국내 농업법인의 정보화를 한층 더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농정원이 농업·농촌 관련 각종 데이터의 허브로 자리매김하면서 조사·분석, 나아가 이를 토대로 한 정책제안 기능까지 수행하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
'귀농귀촌 실태조사'도 2019년 10월에 국가승인통계 지위를 획득했다. 귀농귀촌 실태조사는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는 데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귀농귀촌의 구체적인 실태를 확인하는 조사를 말한다. 2015년 7월 제정·시행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화된 조사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2016년 귀농인 1,027가구, 귀촌인 1,006가구를 대상으로 제1차 귀농귀촌 실태조사가 실시되었고, 그 후에도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2019년 국가승인통계 승인 이후인 2020년에는 귀농 2,038가구, 귀촌 2,028가구를 대상으로 한 제4차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로써 농정원은 국가통계자료 조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게 되었다. 나아가 통계를 기반으로 국가정책의 수립에 더 많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돼 정책기관으로서의 면모도 갖추게 되었다.

3 귀농귀촌종합센터 통합 이전 및 사업 확장

사무소 이전과 통합 상담체계 구축

귀농귀촌종합센터는 2014년 7월 1일 개소한 이후 수도권 도시민의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맞춤상담과 귀농교육, 정보지원, 정책홍보를 수행하며 귀농귀촌 희망자들의 든든한 지원자 역할을 다해 왔다. 2016년 12월 기준으로 4만 2천여 건의 귀농상담과 1만 7천여 명에 대한 귀농교육도 마쳤다. 그 시기에 온라인정보 누적 이용자는 175만여 명에 달했다. 귀농귀촌종합센터 상담 후 귀농귀촌하여 정착하는 비율은 2014년 9.26%에서 2015년 17.97%, 2016년은 22.15%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것은 귀농귀촌종합센터의 역할이 그만큼 크고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에 2017년 들어 귀농귀촌종합센터는 늘어나는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귀농귀촌자들의 만족도와 귀농귀촌 정책의 성과를 높이고, 나아가 2017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제1차 귀농귀촌 5개년 계획(2017~2021)'의 실행사업을 추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다하기 위해 대대적인 개편작업을 진행했다.

2017.02.03.
귀농귀촌종합센터
이전 개소식

먼저, 청년 귀농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통합상담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2017년 2월 3일, 그동안 서울 양재역 인근 송암빌딩 3층에 있던 사무소를 양재동 aT센터 4층으로 이전했다. 이날 열린 개소식에는 전국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식품유통공사 등 유관기관과 전국 시·군 단위 귀농귀촌협의회 등 민간단체, 관련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확장 이전을 축하했다. 개소식 이후에는 귀농귀촌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청년 귀농 확대를 위한 정책 간담회'도 열렸다.

사무소 이전을 계기로 귀농귀촌종합센터는 기존 1센터 1팀에서 1센터 2팀으로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전문 상담인력을 증원했다. 또 9개 도(道) 지자체와 유관기관이 각각 운영하던 상담 기능을 통합 일원화하여 통합상담체계를 구축했다.

통합상담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지역제한이 없는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사실상 시·군 상담 및 설명회가 상설로 진행되는 것과 같아 상담자는 지역 선택의 고민 없이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 상담 대기시간이 단축되고 상담의 품질도 높아져 이용만족도 향상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귀농귀촌종합센터는 콜백과 해피콜 시스템을 활용하여 만족도를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사무소 이전을 계기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중앙귀농귀촌정책협의회'도 가동되었다. 이에 따라 정책의 일관성과 시너지를 높일 수 있게 됨으로써 귀농귀촌 정책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귀농귀촌 교육체계 대대적 개편

2015년 7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귀농귀촌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 2016년 11월에는 동법 규정에 따라 '제1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2017~2021)'이 수립돼 수요자 중심 교육체계 개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었다.

귀농귀촌종합센터는 제1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①청년 창업 교육농장, 대학생농촌교류단 운영 등 청년층 귀농 창업 지원, ②귀농인과 지역민 융화 프로그램 강화를 위한 상생 공모전, ③귀농귀촌 일자리 창업박람회 등 찾아가는 귀농귀촌 정책홍보, ④귀농귀촌 교육체계 개편을 통해 대상별, 유형별 맞춤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 4가지 업무방향을 설정했다. 그리고 2030 청년세대의 귀농귀촌과 중장년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2018년 2월 귀농귀촌종합센터는 귀농귀촌 수요를 반영하여 2030청년창업농, 4050전직귀농, 60이후은퇴귀농, 귀촌생활 등으로 교육대상을 구분하고 수요자 맞춤형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개편했다. 농산업 분야에서의 취·창업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신규 과정도 도입했다.

특히 2018년에는 청년귀농 1만 가구를 목표로 하는 정부의 제1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반

영하여 청년층에 특화된 '청년귀농장기교육' 신설 과정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청년귀농장기교육은 만 39세 이하 청년 50명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품목별 기술과 노하우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현장합숙 실습교육과 귀농귀촌 관련 멘토링 등 컨설팅으로 진행되었다.

2019년 2월에는 귀촌인이 실습중심교육을 통해 창업 아이템을 구체화하고 농산업 분야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별로 특성화된 교육을 실시하는 '귀촌인 농산업 창업교육' 과정도 새로 개발하여 첫 선을 보였다. 이 교육과정은 2019년 200명, 2020년 361명, 2021년 384명이 수료해 꾸준히 수요가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실직 또는 폐업한 후 농업 분야에 취·창업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업일자리 탐색체험교육'을 신설했다. 농업일자리와 연계하고 관련 정보도 제공하는 이 교육과정도 2020년 2,747명이던 교육생이 2021년 6,156명으로 급증할 만큼 큰 관심을 모았다.

이 밖에도, 2015년 신설된 귀농귀촌아카데미는 교육 공백으로 인한 수요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연중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수요자의 편의증진과 교육효과를 최우선으로 하는 방식으로 교육과정 운영방식을 개선했다.

한편, 코로나19 대유행이 장기화함에 따라 2020년 귀농귀촌종합센터는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그동안 집합교육으로 운영되던 주요 과정들을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했다. 또 현장밀착형 귀농닥터의 멘토링 서비스와 귀농귀촌 상담 및 교육과정 안내 서비스도 2020년 9월 시범운영을 거쳐 비대면으로 전환했다.

귀농귀촌 박람회를 통한 홍보

2018년 7월 농정원은 각 지자체 담당자들과 귀농귀촌 희망자들이 만나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 귀농귀촌 박람회'를 개최했다. 이 박람회에서는 귀농귀촌에 필요한 정보뿐 아니라 우리 농업의 변화상과 현재 위상을 읽을 수 있는 스마트팜 등 최신 정보가 많아 학생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았다.

이 행사에는 65개 지자체와 12개 유관기관 및 단체가 참가해 성황을 이루었다. 농정원은 그 동

2018.07.06.
대한민국
귀농귀촌박람회
현장

2019.11.22.
2019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안 일부 지자체에서 소규모로 개최하던 귀농귀촌 행사들과는 달리 113개 부스에 달하는 전시공간을 확보하여 '청년창농관', '스마트농업관', '지자체관' 등 3개 상설전시관을 운영하고, 컨퍼런스, 부대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구비하여 예비 귀농귀촌 희망자들에게 실질적인 맞춤형 정보와 원스톱 상담 등을 제공했다.

이와 함께 스마트·ICT 농업 등 최신 트렌드를 대거 반영해 농업·농촌의 새로운 가치를 제시했다. 특히 부대행사 중 스마트팜 선도농가와 여성농가 등으로부터 진솔한 경험담을 듣고,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한 사항을 해소하는 '귀농 컨퍼런스'는 청년세대 방문객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대한민국 귀농귀촌 박람회는 2019년에 '대한민국 농업박람회'가 새로 개최되면서 이 행사에 통합되었다. 이에 따라 농업 관련 박람회로는 국내 최대 규모로 열리는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에서 귀농귀촌에 관한 홍보와 상담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청년귀농 장기교육
현장

4 청년층 취·창업 연계 교육 강화

실습학년제 적용한 미래농고 지정 운영

농업인재 양성에 줄곧 노력해 온 농정원은 농촌의 활력 증진과 농업선진화를 이끌어갈 미래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목표로 청년층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청년 취·창업농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장기 현장실습과 첨단기술 기반의 농업인 육성 교육을 강화해 왔다. 이러한 활동은 청년층의 농산업 분야 진출을 확대하고 전문농업인을 양성함으로써 농가소득 향상에도 기여하는 성과로 나타났다. 교육 전후 농고·농대생의 역량도 크게 향상되었음이 수치로 확인되기도 했다.

2017년 무렵에도 농정원 농업교육의 초점은 청년층의 직업교육을 강화하여 농산업 취·창업을 활성화하는 데 맞춰졌다. 이러한 방향에 맞춰 농고·농대의 농산업 연계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일자리 정보도 함께 제공했다.

가장 관심을 모은 것은 '상위 1%'의 전문 후계 농업인력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점이다.

개방화 시대를 맞아 국내 농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세계적 수준의 청년 창업농을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도입한 영농창업특성화대학과 미래농업선도고등학교(약칭 '미래농고') 지원사업이 그것이다.

이들 학교는 2016년에 농고·농대의 교육체계를 NCS에 기반을 둔 농산업 분야 직업교육체계로 개편하면서 도입한 교육과정이다. 영농창업특성화대학은 경북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천안연암대 등 5개 대학이 선정되어 운영을 시작했다.

미래농고 역시 고교 정규교육 단계에서부터 현장중심의 기술교육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농업직업교육을 실시해 농업계 수요 맞춤형의 영농 후계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영농창업특성화대학처럼 최고의 전문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목표로 도입한 신규사업이다. 최초의 미래농고는 강원도 홍천농고, 충북 보은의 충북생명산업고, 전남 나주의 호남원예고 등 3개교가 선정되었다.

미래농고에는 이미 영농창업특성화대학에서 시행 중인 실습학기제처럼 '실습학년제'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영농창업특성화대학의 실습학기제가 영농창업특성화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을 한 학기 동안 심층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습하는 과정이라면, 미래농고의 실습학년제는 3학년 1년 동안 주 단위로 3일은 농가에서 인턴십 실습을 하고, 2일은 교내에서 교육하는 도제식 교육과정을 말한다.

이외에도 미래농고에는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해외 전문기관 연수 프로그램, 현장체험 프로그램 등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이 적용되었다. 해외 전문기관 연수는 일주일 동안 농업선진국을 방문하여 선진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용능력을 함양하는 과정이다.

한편, 2018년 농정원은 국제무대로 진출할 고급 농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농식품 분야 해외인턴십(OASIS, Overseas Agricultural Sector Intern Scholarship)' 프로그램을 신규사업으로 시작했다.

2017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8년부터 본격 가동된 이 프로그램은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매년 50명 내외의 청년들을 UN세계식량농업기구(FAO),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등 농식품 분야 국제기구나 해외 연구소·기업 등에 파견하여 3~6개월 동안 실무경험을 쌓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프로그램 도입 이후 2022년 4월까지 4년여 동안 이 프로그램을 통해 파견된 인턴은 162명이다. 이 중 일부는 능력을 인정받아 해당 기관 또는 유사 국내외 기관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창업 연계 사업과 '청년두드림센터' 개소

농정원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가며 청년들의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였다. 2017년 8월 25일 처음 개최한 '2017 농림식품산업 일자리박람회(2017 A Farm Show)'도 그러한 노력 중 하나이다. 이 행사는 농림식품 분야의 취·창업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청·장년층의 일자리 창출 기회를 확대한다는 목적으로 민·관·지자체가 힘을 모아 개최한 전국 규모의 행사이다. 176개 민·관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 양재

2018.09.01.
2018 농림축산식품 일자리 박람회

동 aT센터에서 열린 첫 행사에서는 약 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에도 박람회 행사는 매년 개최되어 농식품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의 장이 되었다. 2018년부터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 일자리 박람회'도 별도로 개최했다. 행사 이후 설문조사 결과, 농림축산식품 일자리 박람회에 대한 관심도 매년 증가하고 상담의 만족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연계 사업에 대한 의지가 더욱 강해진 농정원은 2018년 2월 인재양성본부 산하에 일자리지원실을 신설해 관련 업무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펼쳐나갔다. 그 결과 취·창업 지원사업은 한층 더 광범위해지고 또 활발해졌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17년 12월 지침을 제정하고 2018년 5월 처음 시행한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제도를 안착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 사업은 영농의지가 강하고 발전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청년창업농 1,600명씩을 매년 선발하여, 3년 동안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농지·자금·교육 등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대규모의 종합적인 청년창업농 지원사업이다.

틈틈이 청년들을 격려하는 응원전도 펼쳤다. 2018년 11월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롱런(農-Run)페스티벌'이 대표적인 예이다. 농고·농대생 1,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농업교육의 성과를 공유하면서 학생들의 농산업 분야 진출을 응원하는 행사이다. 농산업 취·창업을 위해 다 함께 멀리 오래 뛸 수 있도록 준비하자는 의미에서 개최되었다.

2019년 2월에는 농산업 분야에 취·창업하기를 희망하는 청년과 우수한 농업법인을 연결하는 '농업법인 취업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청년들에게는 인턴 형식으로 현장에서 실무경험을 쌓게

2018.11.21.
2018 롱런(農-Run)
페스티벌

2020.06.30.
청년두드림센터 SNS
서포터즈 발대식

하고 농업법인에게는 우수한 노동력을 얻어 경쟁력을 높이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이어 5월에는 농업계 학교의 취·창업 역량을 강화하여 농산업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취·창업 실전캠프' 프로그램도 가동했다. 이 프로그램은 영농창업특성화사업과 농업계 학교 교육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학교의 학생 1,200명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진행되었다.

그리고 2019년 6월 3일, 농정원은 농업계 학교 학생들의 취·창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청년두드림센터'를 오픈하여 운영을 시작했다. 청년두드림센터는 산학이 협력하여 청년층의 취·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온·오프라인 취·창업 서비스 플랫폼이다.

청년두드림센터는 전국의 농고·농대 졸업자와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취·창업 컨실팅 및 취업연계, 취·창업 지원정책과 일자리 정보 제공, 농업 현장실습 교육장 발굴 및 정보 공유 등의 역할을 수행했다. 또 권역별 농고·농대 재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취·창업 관련 특강도 실시하고, 찾아가는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업계 학생들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중요한 것은, 농업계 학교와 농산업체, 유관기관과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각 기관의 농고·농대 취·창업 지원센터 또는 일자리지원센터와 정보를 연계함으로써 농산업 분야 일자리 정보를 실시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이다.

농정원은 농업계 학생들이 청년두드림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알리기 위해 '청년두드림센터 SNS 서포터즈'도 발족해 운영을 시작했다. 2020년 6월 30일 발대식을 가진 서포터즈 1기는 농고·농대 학생 13명으로 구성되어 SNS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했다.

5 농기자재 수출 지원사업 활성화

농기자재 수출지원 사업의 시작

농기자재(農機資材)란 농기계를 포함하여 시설자재, 농약, 비료, 종자, 스마트팜, 친환경자재, 동물용 의약품, 사료 등 농업 전반에 필요한 기구와 자재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최근 국제적으로 곡물수급이 불안정해 나라마다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것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고 농식품 관련 안전사고도 끊이지 않아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다 보니, 생산성이 높고 안전한 농기자재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었다. 농기자재산업이 그 자체로만이 아니라 농식품과 같은 전방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산업으로 떠오르는 이유다. 이 때문에 글로벌시장에서 농기자재의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첨단 디지털산업이 세상을 지배하는 와중에도 농기자재 시장은 빠르게 성장했다. 농기계의 경우 세계시장규모가 2016년 975억 달러에서 2018년 1,025억 달러로 커졌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어 국내 5대 농기계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기준으로 1.1%에 불과했다. 더욱이 국내 농기자재 산업의 90% 이상이 연매출액 100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에 해당했다. 즉,

2019.11.14~15.
농기자재 산업
정보공유 및 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워크숍

수출 의지가 있어도 수출국의 현지정보 수집, 신규시장 발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기자재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었다.

국내 농기자재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수출을 활성화하는 것이 우리 농업·농촌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판단하고 농기자재의 수출 증대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그래서 2017년 2월 조직개편을 통해 해외사업을 총괄하는 국제통상협력처의 인력을 대폭 증원하고, 그동안 축적한 해외사업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삼아 농기자재 수출지원 업무를 미래 성장사업의 하나로 시작하기로 했다. 그리고 3월에는 국내 농기자재 시장의 외연을 확장하고 고용창출 등 신수요를 창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농기자재 수출 활성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효과적인 수출전략을 도출하고 수출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이나 국내외 워크숍 등을 통해 수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게 핵심이었다. 이때부터 농기자재 수출지원 사업은 농정원의 신사업 중 하나로 비중 있게 추진되었다.

수출 기반 및 해외 네트워크 구축

2017년 6월 농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농기자재 관련 8개 품목별 단체, 그리고 업계 대표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기자재 수출활성화 전략수립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농정원은 농기자재 수출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최상의 수출전략을 수립하고, 동시에 유망 수출국 선정 및 기초통계·현지정보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농기자재 품목을 중점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토대로 농정원은 '농기자재 수출활성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추진 방향은 크게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 지원사업'과 '수출 네트워크 사업'으로 나눠 추진하기로 했다.

전자는 인허가 취득과 글로벌 마켓테스트 등을 지원하여 수출기업을 육성한다는 것이고, 후자는 국제워크숍 개최, 현장조사단 파견, 그리고 해외 바이어와의 매칭 등의 수출지원 활동을 벌이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7년 10월 국내 축산 ICT 기자재의 수출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에서 열린 '2017 ILDEX Indonesia'에 참가했다. 이 행사는 다양한 축산 ICT 기자재 기업과 전문 바이어들이 참가하는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축산 전문 국제박람회이다. 농정원은 스마트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축산 ICT 기업의 참가를 지원하고 한국관 부스를 설치해 운영하면서 우리나라의 스마트팜 확산사업의 현황과 관련 기술·제품을 홍보했다. 또 인도네시아의 축산기업 및 단체들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ICT 기자재 수출 증진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농식품FTA활용정보 서비스(MAPs) 메인 화면

12월에는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유망 수출국의 농업부와 농기자재 기관·단체 관계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농업정책 전문가와 수출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농기자재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국제워크숍'을 열어, 수출 유망국의 수입규제 사항과 정부지원제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수출 촉진을 위한 수입규제 완화방안 등 수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 워크숍은 그 이후 매년 개최되었는데,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 비대면 형태로 진행되었다.

2018년 들어서는 국내 농기자재 기업의 수출 준비 및 해외마케팅 활동을 지원하여 농기자재 분야의 수출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농기자재의 해외 인허가 취득과 글로벌시장 개척 기업을 지원하는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사업'을 공식 런칭했다. 첫해인 2018년에는 글로벌시장 접근 지원사업에 11개사, 해외 인허가 취득 지원사업에 12개사 등 23개사에 대해 3억여 원을 지원했다. 또한 11월에는 최초로 중소 농기자재 기업의 수출유망국인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에 현장조사단을 파견하는 등 시장개척을 위한 발걸음을 한걸음 더 내딛었다.

한편, 2019년 1월 농정원은 농식품 해외정보 공유서비스(MAPs) 내에 '농기자재 수출지원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농기자재 품목별 유망수출국에 대한 현지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수출유망국의 시장 트렌드, 유통현황, 경쟁현황, 진입장벽, 바이어 정보 등의 시장분석자료를 비롯하여, 품목별·국가별로 수출절차, 인허가정보, 유통구조, 시장특징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오픈 당시에는 농기계, 사료, 친환경농자재, 동물용의약품 등 4개 품목으로 시작했으나, 그 이후 농약, 비료, 종자, 시설자재 등으로 정보를 계속 추가했다.

농기자재 수출지원 정보시스템은 농기자재 분야의 국내시장 여건이 협소한 현실에서 농기자재 산업의 외연 확대와 신수요 창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6 스마트팜 보급·확산 위한 기반 조성

정부의 스마트팜 확산 정책

'지능형 농장'이라 불리는 '스마트팜(Smart Farm)'은 ICT 기술을 활용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원격 또는 자동으로 작물의 생육환경을 관측하고 최적의 상태로 관리하는 과학적인 농업방식을 말한다. 농산물의 생산량 증가는 물론, 노동시간 감소를 통해 농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장점이 있다. 빅데이터 기술과 결합해 최적화된 생산·관리 의사결정도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최적화된 생육환경을 제공하여 수확 시기와 수확량 예측은 물론 품질과 생산량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차세대 미래농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유럽, 미국 등 선진국들은 스마트팜의 보급 확산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기업들 역시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적용해 생산성 향상과 경비절감을 이뤄내면서 스마트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스마트팜 확산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 11월 '스마트팜 확산'을 혁신성장 핵심 선도사업의 하나로 선정했다.

2018년 4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마트팜 확산 방안을 마련하고, 2022년까지 스마트팜 7,000ha, 축사 5,750호의 농가 보급과 4개소의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또한 농가 단위로 확산하려던 기존 스마트팜 보급 전략을 수정 보완하고, 정책대상을 청년 농업인뿐 아니라 전후방 산업으로 확대하여 규모화·집적화된 확산거점을 조성하기로 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란 청년창업, 기술혁신(R&D), 판로개척 등의 기능이 집약되어 농업인·기업·연구기관 간 시너지를 창출하는 거점을 말한다. 농업인은 생산을, 기업은 연구·개발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중소기업이 참여하여 개발한 신제품과 기술을 향후 농촌에 널리 보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감도

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중소 스마트팜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하게 된다.

이 같은 추진전략을 토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①전후방 기업의 실증연구, 제품테스트, 창업·전시·체험의 기능을 갖춘 실증단지를 조성하고, ②스마트팜 빅데이터(온·습도 등 환경정보, 생육정보) 수집·분석 체계를 개선하며, ③기자재의 표준화를 가속화하는 등 스마트팜 산업의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또 ④2018년부터는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⑤전문교육과정을 통해 2022년까지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청년 스마트팜 창업 생태계 구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스마트팜 확산 위한 기반 조성

정부가 스마트팜 육성 및 확산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농정원의 발걸음도 바빠졌다. 농정원은 국내 스마트팜의 활용 및 확산을 위해 우선적으로 스마트팜 전문 농업인을 양성하기로 하고, 2017년 1월 '수준별 스마트팜 전문교육' 과정을 개설했다. 이는 귀농귀촌센터, 농업마이스터대학 등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농업인, 컨설턴트, 지자체 담당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생의 역량수준이나 품목에 따라 그에 맞는 교육을 실습형으로 실시하는 교육과정이다.

6월에는 '수직형농장 비즈니스모델 실증 사업' 공모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스마트팜 확산 활동을 시작했다.

수직형농장은 완전히 밀폐된 공간에서 비·공기·열·양분 등의 생육환경을 인공적으로 제어하여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계획생산이 가능한 농업 비즈니스 모델을 말한다. 최근 국내외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2019.09.27.
스마트팜 선도농가 탐방 1차 '나는 농촌의 미래로 떠난다'

농정원은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여 식물공장 설비를 구축하거나 전용 가설 건축물 신축을 통해 원예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했다. 그리고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수직형 농장을 통해 농업의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데 서로 협력하자고 다짐했다.

스마트팜을 홍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했다. 귀농귀촌 희망자, 예비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선도농가 현장체험' 행사를 주기적으로 진행하는가 하면, 농업계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수직형 농장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해 스마트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정책사업을 홍보했다.

2017년 10월에는 한·중·일 3국이 참여하는 '스마트팜 빅데이터 국제세미나'를 열어 스마트팜에서 축적되는 빅데이터를 수집·분석 및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12월에는 스마트팜을 도입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선도농가 25곳의 성공사례를 담아 『현장에서 전하는 스마트팜 선도사례 25선』이라는 제목의 책자로 발간해 배포하기도 했다.

2019년 1월에 스마트 축산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 것도 스마트팜을 지원하는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추진된 일이었다. 스마트 축사의 빅데이터를 수립·활용하는 기반을 구축하여 과학적인 축사 경영을 가능하게 하고 전후방 산업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같은 해 7월에는 축산농가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스마트장비를 도입한 축산 농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컨설팅을 지원하는 '농업경영체 맞춤형 데이터 활용 컨설팅' 서비스도 시작했다.

2020년 들어서도 농정원은 우수 기술을 보유한 스마트팜 관련 기업이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사업화에 필요한 데이터를 대신 수집하고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스마트팜 데이터 맞춤 활용 지원 서비스'를 시작했다. 스마트팜에서는 데이터의 수집·분석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반영하여, 2020년 9월에는 '스마트농업 데이터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 행사도 진행했다.

장비규격 정비 및 노지채소 스마트팜 모델 개발

농정원은 스마트팜 확산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면서, 한편으로는 정부의 스마트팜 정책을 집행하는 데도 바쁘게 움직였다.

2017년 12월 '스마트팜 장비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개정한 것은 본격적으로 스마트팜 확산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발판이었다. 이 기준은 스마트팜 확산 사업으로 보급되는 장비의 구동원리와 세부규격 등을 담고 있는데, 농정원은 스마트팜에 불량장비가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스마트팜 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도를 높인다는 취지에서 이 기준을 개정했다.

개정 내용에는 기존 5개 분야(시설원예, 과수, 양돈, 낙농, 양계)에 새로 2개 분야(한우, 노지채

소)를 추가하여 대상을 확대하고, 현재의 기술 및 서비스 수준에 부합하는 규격사항 등이 명시되었다. 농정원은 70여 개 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여 이 기준을 확정했다.

2018년 1월 1일에는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를 구축하고 전북 김제, 경북 상주, 경남 밀양, 전남 고흥 등 4개 지자체를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에 들어갔다.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는 스마트팜에 특화된 실습중심의 장기 교육과정으로, 스마트팜 전문인력 양성 및 청년들의 관련 분야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20개월간의 보육 프로그램이다.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보육센터를 구축한 후에는 전북, 서울, 세종, 경북 등 4개 권역에서 교육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현장 사업설명회를 열고, 스마트팜으로 구현할 농업·농촌의 새로운 미래에 청년들이 동참하도록 홍보했다. 그 결과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580명이 선발되어 교육을 받았거나 받고 있다.

한편, 2018년 4월 농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노지채소 스마트팜 모델 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무·배추·마늘·양파·고추 등의 노지채소 재배에 필요한 온·습도 센서, 관수장비, CCTV 등 ICT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스마트팜 현장

농정원은 노지채소 작물의 스마트팜 모델을 개발하면 노동력 부족과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에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 등 많은 이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이 사업에 착수했다.

그해 7월부터 본격적인 모델 개발에 들어갔다. 이를 계기로 농정원은 향후 재배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다양한 모델을 개발·보급하여 과학에 기반을 둔 농업의 선진화를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7 도시농업 확산과 동물보호복지 홍보 확대

도시농업관리사 제도 시행

도시의 텃밭이나 소규모 농지에서 내 손으로 직접 신선채소 등을 기르는 도시농업의 참여자는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그 이상으로 빠르게 늘어났다. 작은 텃밭 하나로도 충분히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고 심신의 피로를 푸는 힐링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정서순화에 도움을 준다는 인식이 확산된 덕분이었다. 또 도시농지가 빗물의 흡수와 순환촉진, 도시온난화 방지, 공기정화 등 환경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에 공감하는 인구가 늘어난 것도 도시농업이 확산되는 이유 중 하나였다.

때맞춰 시민단체와 지자체들도 각종 이벤트를 기획하거나 관련 조례를 제정하며 주말농장과 베란다·옥상·학교 등의 자투리공간을 텃밭으로 활용하도록 지원을 확대했다.

정부 차원에서도 2012년 7월 1일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에 들어간 이후 다양한 지원책이 강구되었다.

농정원은 풍부한 도시농업 콘텐츠를 확보하여 옥답 포털을 통해 홍보하고, 도시농업포털 '모두가 도시농부'를 구축하여 정보를 서비스했다. 또 도시농업체험단을 모집해 직접 체험하도록 기회를 제공하거나 UCC 공모전 등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이벤트를 열어 도시농업을 장려했다.

2017년 9월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발행하는 국가자격증 '도시농업관리사' 제도의 시행기관으로 지정돼 도시농업 확산 활동의 중심에 섰다. 도시농업관리사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국가자격증 제도로, 도시민을 대상으로 도시농업 관련 지식과 기술을 보급하고 도시농업 시설을 관리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데, 농정원은 이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도 거두었다. 2022년 4월 기준으로 총 8,096명의 도시농업관리사가 양성되었다.

‘학교텃밭’ 확산 및 도시농업 박람회 개최

농정원은 2018년 4월 교육부와 협력하여 ‘학교텃밭 체험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도시농업을 확대하려는 농정원의 계획과, 중학교의 자유학기제를 새로운 프로그램과 접목하여 확대·발전시키려는 교육부의 뜻이 합쳐져 학교텃밭 체험 프로그램을 탄생시킨 것이다.

농정원은 먼저 시범사업을 펼치기로 하고, 부산과 인천에서 이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전문 사업자(도시농업관리사)를 선정한 후 해당 지역의 학교 10곳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시범사업을 마친 후 2018년 12월 열린 성과보고대회에서는 학교텃밭 활동이 농업·농촌의 가치인식 제고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인격형성과 정서 안정 등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등 그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농정원은 학교텃밭 활동 학교를 확대하기로 하고, 2019년 30개교, 2020년 50개교, 2021년 70개교로 늘렸다. 이에 따라 텃밭학교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발전했다.

2021.09.08.~11.
2021 도시농업
박람회 포스터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고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는 붐을 조성하기 위한 공모전 행사도 정기적으로 개최했다. 2016년에 처음 개최한 ‘UCC 어린이 동요 공모전’은 해를 거듭할수록 참가자가 늘어나면서 인기 있는 대회로 부상했다. ‘어린이 꿈틀 동요’를 활용해 도시농업을 알리는 영상 또는 도시농업을 주제로 창작한 동요 영상을 UCC로 제작해 출품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020.
학교 텃밭 활동
프로그램 실습 모습

2017.08.11.
2017 게릴라가드닝
공모전 시상식

‘도시농업 실천후기’와 ‘게릴라가드닝’도 도시농업의 의미와 생활 속의 재미를 동시에 구현한 대회로 개최하여 깊은 인상을 남겼다.

도시농업 실천후기는 실제로 도시농업을 실천한 개인 또는 단체가 텃밭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 등을 후기로 작성하는 대회이고, 게릴라가드닝은 도심 속의 삭막한 공간을 생기 있게 재탄생시키는 ‘도심 속 쉼표 만들기!’를 주제로 동영상이나 사진을 활용하여 참여하는 대회이다. 농정원은 이러한 공모전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도시농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확산해나갔다.

농정원의 도시농업 홍보활동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행사는 2012년부터 개최해 온 ‘대한민국 도시농업 박람회’이다. 농정원은 제1회 서울특별시를 시작으로 매년 각 지방을 순회하며 박람회를 개최해 도시농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고조시켰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을 감안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했는데, 2021년에는 오프라인으로 개최했던 2019년 행사에 비해 2배 가까운 162만여 명이 방문해 화제가 되었다.

한편, 2021년 12월 농정원은 도시농업포털 웹사이트 ‘모두가 도시농부’(‘모두농’)를 이용자 중심 맞춤형으로 개편해 새롭게 선을 보였다. 도시농업 관련 정보를 대거 업데이트한 것은 물론 도시농업관리사 자격 발급, 채용안내 등 도시농업관리사 제도의 운영을 위한 내용을 보강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모바일 GPS를 통해 이용자들이 주변의 도시농업 교육기관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하고, 교육정보에도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게 업그레이드함으로써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이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했다.

성숙한 반려동물 양육문화 조성

2012년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약칭 동물복지인증제)가 도입된 이후, 농정원은 이 제도를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 왔다. 이를 통해 쾌적한 사육환경에서 스트레스 없이 건강한 동물로 생산되는 축산물은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이롭다는 인식을 확산하고자 했다.

2017년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실시한 '동물복지인증 농장 체험' 프로그램은 이러한 활동의 연장선이었다. 동물복지인증제도에 대한 인식과 인증농가 농식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장차 축산물 소비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게 농정원의 구상이었다. 농장체험 프로그램은 사전신청으로 모집된 체험단이 네 차례에 걸쳐 인증농가를 투어하며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농정원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성숙한 반려동물 양육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다각도로 전개했다. 마침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건·사고가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는 상황이어서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생명존중에 대한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상황이었다.

농정원은 이 같은 반려동물 관련 이슈에 대응하여 성숙한 반려동물 양육문화 조성을 위해 동물보호복지 교육홍보 사업을 확대하여 시행했다. 특히 자아형성 단계인 초등학생 때부터 올바른 동물보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를 강화했다.

2017년 10월 동물보호에 대한 어린이들의 인식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 개최한 '어린이 동물보호 그림그리기 대회'가 이에 해당한다. 어린이들이 재미있게 시청하며 배울 수 있도록 개, 고양이 등 친근한 반려동물을 중심으로 교육 영상콘텐츠를 제작해 배포하기도 했다.

일반 대중을 향해서는 생명존중 및 동물보호를 주제로 공익광고를 제작해 방영하고 SNS 등을 통해 정책 메시지를 개발하여 전파했다. 또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개선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매년 전국을 순회하며 '동물사랑 문화축제'를 개최했다. 2020년 11월 14일 부산에서 열린 제6회 행사는 세계 최초로 비대면 방식으로 열렸는데, 전국적으로 열기가 느껴질 만큼 반응이 좋아 반려동물 애호가들의 축제와도 같은 행사로 발전했다.

한편, 2021년 7월 농정원은 성숙한 반려동물 양육문화 확산사업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저학년(8~10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기간 4주간에 걸쳐 동물보호·복지 교육과정을 도입해 운영하기로 했다. 그리고 사전신청을 받아 선정한 충청지역 내 하계 돌봄교실 운영 초등학교와 지역아동센터 10여 개소에서 300여 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농정원은 시범사업을 통해 그 성과를 측정한 후 전국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9월에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7.19.~9.30.)에 맞춰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시범사업도 실시했다. 이 사업은 동물등록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면(面) 지역 반려견의 등록률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자체 공무원과 수의사가 신청지역을 방문해 미등록 견에 내장형 동물등록칩을 무료 시술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어 11월에는 '케이펫페어(K-Pet Fair) 일산' 행사에서도 행사 방문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무료 동물등록 서비스를 제공했다.

교육포털 '동물사랑 배움터' 운영

2018년 농정원은 「동물보호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동물판매업자 등에 대한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동물판매업자들을 대상으로 동물의 보호·복지, 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전담하게 되었다.

동물복지교육 주관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농정원은 '동물보호복지 온라인'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반려동물 관련 사업자, 맹견 소유자,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등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한편에서는 뉴스와 온라인에서 종종 일부 시민들의 무책임한 동물학대 논란이 가열되는 등 동물판매업자 등에 대한 교육만으로는 동물보호복지를 실현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다. 시민사회 전반의 성숙한 동물보호 문화가 절실해진 것이다.

이에 2022년 1월 농정원은 의무교육 대상자에 초점을 맞춰 운영하던 웹사이트를 전면 개편하여, 동물보호복지 교육도 실시하고 관련 정보도 교류하는 온라인교육 포털 '동물사람 배움터'로 탈바꿈시켰다. 기존의 의무교육 프로그램 외에 동물원, 동물약국 등 반려동물 양육에 관한 다양한 정보콘텐츠를 보강하여 누구나 재미있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포털 수준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명존중, 동물보호복지 등을 교육하고 체험하게 하는 프로그램도 제공하여 온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포털로 변신시켰다. 반려동물 양육가이드 등의 교육교재와 교육 콘텐츠도 개발하여 반영했다.

이를 계기로 농정원은 동물등록제와 같은 정부의 주요 정책사항을 홍보하고 공익광고를 통한 펫티켓(Pettiquette, Pet+Etiquette) 확산을 촉진하는 등 동물복지보호 인식 개선에 힘써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선진 수준의 동물보호복지 문화를 조성한다는 것이 농정원의 목표이다.

동물사랑 배움터
메인 화면

8 공익적 가치 홍보의 범위 확장

'농업 가치' 헌법 반영을 위한 캠페인

우리나라에서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홍보하고 정책 공감대를 확산하여 행복한 농업·농촌의 이미지를 그려가는 일은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 경제가 오랜 세월에 걸쳐 도시 중심으로, 그리고 공업 중심으로 성장해 오면서 농업·농촌에 대한 무관심이 깊어진 이유가 가장 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2014년에 실시한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인지도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36.1%로 일본의 63%에 비해 거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정원이 풀어야 할 과제가 그만큼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농정원은 일관된 전략을 가지고 농업·농촌 가치 제고 홍보에 각별한 공을 들였다.

201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 무렵에는 '해피버스데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현장체험 프로그램과, 국민들이 농업·농촌을 친근하게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문화행사와 캠페인, 그리고 농촌에서의 성공사례를 공유하여 희망을 심어주는 성과홍보에 역점을 두었다. 영상 공모전 '내가 농부라면'과 같이 국민 누구나 참여하는 다양한 공모행사를 개최하여 관심과 참여를 촉구하고, 직원들이 직접 나서서 재능기부하는 농촌재능나눔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쳤다.

2017년에 농정원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홍보캠페인 중에는 '농업은 미래로, 청년은 농업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전개한 캠페인이 특히 주목을 받았다.

'농업은 힘들고 어렵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3편의 영상(드론편, 무인트랙터편, 축산편)을 통해 미래농업의 새로운 모습을 제시한 캠페인이다. 이 영상들은 반전의 재미와 함께 직업으로서의 농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소비자를 설득하려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공감하도록 구성함으로써, 언론으로부터 "기존 공익광고의 틀을 깬, 공익광고의 유쾌한 변신"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한편, 정부가 추진하는 헌법 개정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던 2017년 말, 농협을 비롯한 전국의 농업계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농정원도 농림축산식품부 대변인실과 함께 농협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농어촌공사, 자조금단체 등의 농업 관련 기관·단체가 보조를 함께 한 공동캠페인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각종 홍보채널을 통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노력했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된 '농업가치 헌법 반영 1천만명 서명운동'은 시작된 지 한 달 만에 1,0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참여하여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그 이후 헌법 개정 논의가 중단되는 바람에 당초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해 큰 아쉬움을 남겼다.

'사색캠프'와 '#농-업그레이드' 캠페인

농정원의 홍보·캠페인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효율 높은 홍보기법, 그리고 소구력이 뛰어난 메시지 덕분에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2018년 11월 21일 서울 인사아트센터에서 열린 전시회도 마찬가지이다.

'농업과 기술의 만남 : 예술+농촌, 공감'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 전시회는, 귀촌인구 50만 명 시대에 농촌의 삶을 꿈꾸면서도 농촌 경험이 없어 망설이는 이들에게 지금의 농업·농촌의 현실을 보여주고자 기획되었다. 변모하고 있는 농업·농촌의 현장, 특히 농촌과 도시가 공존하는 풍경을 5인의 작가가 저마다의 시각으로 그려내 관람객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도시와 농촌의 스마트하고 여유로운 삶이 공존하는 세상을 공감할 수 있게 그려냈다는 찬사도 받았다.

2019년 11월에 시작된 '리얼 농촌체험, 사색캠프'도 화제를 몰고 온 프로그램으로 손꼽힌다. 농촌의 삶을 경험하고 싶은 2030세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국 4개 권역에서 진행된 4박 5일간의 농촌체험 프로그램이다. 사색캠프의 '사'는 농업·농촌이 주는 가치와 소중함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는 思(사), 권역별로 각기 다른 네 가지 콘셉트의 四(사)라는 이중적 의미를 포함한다.

농정원은 달라진 농업·농촌의 모습과 내재된 가치를 직접 체험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하늘과 바

#농-업그레이드 캠페인 화면

사색캠프 모집 포스터

람과 별과 들, 그 곳에 살아보기'라는 슬로건 아래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복잡하고 바쁜 도시 생활에 지친 직장인, 취업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농업·농촌에서 인생의 전환점를 찾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재충전할 수 있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는 취지이다.

캠프 행사는 11월 11일 전남 나주를 시작으로 경기 양평, 강원 홍천, 제주 서귀포 등 4곳에서 저마다의 지역적 특색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콘셉트로 진행돼 참가자들의 호응을 받았다.

2020년에 진행된 '#농-업그레이드' 캠페인도 눈에 띄는 대표적인 홍보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이 캠페인은 '당신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농업으로 대한민국(을) 업그레이드'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 농업을 미래지향적이고 긍정적인 이미지로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기획된 이 캠페인은, AI와 빅데이터, 자동화, 애그테크 등의 첨단기술로 우리 농업·농촌이 스마트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농업이 업그레이드함에 따라 우리 삶이 더 나아지고 대한민국도 업그레이드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이를 국민들이 지지하고 응원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진행과정에서는 슬로건 탄생을 기념하는 댓글 이벤트와 '#농-업그레이드 대국민 SNS 챌린지' 등 다양한 이벤트를 열어 유명 연예인을 비롯한 많은 이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핵심 메시지를 담은 메인 캠페인 영상은 2020년 12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린 이후 한 달 만에 900만 회에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 캠페인을 통해 농정원은 농업·농촌이 우리 모두의 삶과 매우 밀접하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향후에도 스마트팜, 6차산업 등 스마트한 변신을 통해 대한민국의 업그레이드된 미래를 앞장서 만들어갈 것이라는 희망찬 메시지를 전파했다.

쌀에서 잡곡으로, 꽃과 과일까지

농정원이 우리 농식품의 인식제고 및 소비촉진을 위해 전개한 여러 활동 중에는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농정원이 소비·식생활 트렌드에 어울리는 식문화 교육과 홍보를 펼치며 쌀 및 쌀가공식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나선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우수 농식품의 소비 촉진을 위해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제도) 인증제도에 대한 홍보를 벌여 그 인지도가 높아진 것은 적지 않은 성과였다. 또 2018년 들어서는 '잡곡 소비 활성화 사업'을 벌여 콩, 밀 등 우리 잡곡류의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고 수요 확대의 기반을 마련한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농정원은 우리 농식품의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했다. 2018년 10월에는 이마트, 하나로마트 등 대형마트에 세종농촌융복합산업 인증업체들의 가공·체험제품을 판매하는 '세종 6차산업 안테나숍'을 개장해 고객과의 접점을 넓혔다. 또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수시로 '소비자와 함께하는 친환경농업 현장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전국을 순회하면서 유기농 식단으로 건강하게 임신·출산을 할 것을 장려하고 질병 치유 방안까

'꽃에는 힘이 있다' 캠페인 영상

지 제시하는 '유기농 아카데미'를 개최하는가 하면, 제철 농산물의 우수성과 다양한 활용법을 알리기 위해 '최고의 제철 레시피를 뽑아주세요' 캠페인도 벌였다.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제도 소개

한편, 2020년 농정원은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감염병에 취약한 우리 식사 문화의 개선을 위해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했다. 덜어먹는 식사문화 확산을 위해 "음식을 덜어요, 걱정을 덜어요"라는 메시지로 전개한 이 캠페인은 특히 '덜어요 챌린지' 이벤트가 큰 관심을 모았는데, 캠페인의 취지에 공감한 박서진, 진성, 송소희, 허영만 등 유명인사들이 대거 릴레이로 참여해 캠페인의 효과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이처럼 소비자 인식개선과 농식품 소비 촉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동했지만, 그중에서도 이 시기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무엇보다도 꽃과 과일 소비 촉진을 위해 벌인 일련의 캠페인이다. 농정원은 흔히 청탁금지법이라 부르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시행 이후 소비가 급감한 꽃과 과일의 소비 촉진을 위해 2017년 초부터 꽃 생활화, 명절 과일 선물하기 등의 소비 촉진 캠페인을 벌였다.

그중에서도 2017년 '꽃에는 힘이 있다'는 슬로건으로 제작한 꽃 생활화 광고영상에는 당시 TV 드라마 '도깨비'로 인기가 높은 배우 이동욱이 재능기부로 참여해 큰 관심을 모았다. 또 2019년 5월 운영한 '꽃이 있는 우리 집' 팝업스토어도 화제를 불러 왔다. 2020년 5월에는 유재석, 김숙, 이하늬 등 톱클래스의 연예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화훼농가를 돕기 위한 '부케 챌린지'를 진행했고, 꽃 생활화를 독려하는 대국민 영상공모전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쌀에서 잡곡으로, 나아가 꽃과 과일로 이어진 농정원의 농식품 소비 촉진 홍보는 단순히 해당 품

목의 소비 증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시와 농촌이 교감하며 공생하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내포돼 있었다.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개최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여러 기관·단체와 지자체가 다양한 박람회 형식의 행사를 개최했다. 그러다보니 비슷한 유형의 행사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났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관람객이 분산되고 비슷한 내용이 반복돼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에 2019년 정부는 행사의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취지에서 농업기술 박람회, 귀농귀촌 박람회, 말산업 박람회, 축산물 브랜드 페스티벌 등 연관성이 높은 행사들을 '대한민국 농업박람회(Korea Agriculture Show)'로 통합했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대한민국 농업박람회가 우리나라 농업을 대표하는 대규모의 종합박람회로 매년 개최되었다.

2019년 11월 2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의 경우, '농업의 새로운 발견'이라는 주제로, 미래농업, 농업생산 등 농업 전 과정을 전시 및 체험하는 전시관이 마련돼 큰 호응을 받았다. 무엇보다도, 첨단농업, 귀농귀촌, 사회적 농업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다채로운 내용이 소개돼 관람객들의 호평을 받았다. 특히 청년세대에게는 투자가치가 높은 '미래혁신 산업'으로서의 모습을, 일반 국민에게는 '안전하고 깨끗한' 농업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귀농귀촌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되었다.

2020년과 2021년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행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하지만 온라인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2020년 84만여 명, 2021년 140만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2년 연속 정부 주관 박람회 중 방문자 수 1위를 기록했다. 비대면 시대에 부합하는 박람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호평이 이어졌고, 기존의 오프라인 박람회와는 달리 농업과의 접점이 부족한 청년세대에게 온라인이라는 플랫폼으로 참여기회를 확대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줄을 이었다.

2020.11.11.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9 우수 공공기관 새 모델 제시

청렴문화 정착 및 사회적 가치 창출 노력

새 비전 및 중장기 경영전략을 공표한 이후 농정원은 정부의 정책방향에 부응하는 동시에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조직 재정비에 나섰다. 2017년 9월에는 세종·오송지역 4개 공공기관 공동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의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공공기관에 대해 높은 청렴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윤리경영을 가속화하여 청렴문화를 내재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윤리경영시스템을 한층 공고하게 정비한 것이 대표적이다. 박철수 원장이 2017년 1월 신년사에서 '청렴하고 반듯한 기관'이 될 것을 강조하며 윤리경영 방침을 명확히 한 것을 기점으로, 농정원은 모든 소통채널을 가동하여 청렴 의지를 확산해나갔다.

구체적으로, 청렴 조직문화 구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금품 등을 수수한 행위자에 대한 고발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고 익명제보시스템, 청렴우체통 등의 장치를 마련해 스스로 경각심을 갖도록 했다. 또 청렴서약서 징구대상을 확대하고 직급별 간담회, 청렴옴브즈만 운영 등을 통해 윤리의식을 높여나갔다.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권한을 확대하는 등 제도적으로 내부견제 기능도 강화했다. 2019년 들어서는 갑질 근절을 위한 교육도 강화했다.

공정거래 질서 확립도 간과하지 않았다. 농정원은 계약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고, 1차 협력사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개선하는 등 불공정행위 근절을 목표로 하는 공정거래 추진체계를 정착해나갔다. 2019년에는 입찰예상내역을 연초에 공개하고 설명회를 여는 방식으로 공개입찰제도를 개선해 해당 업체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했다. 나아가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들의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업역량이 부족한 중소협력사의 역량

2016.09.09.
「청탁금지법」
교육 및 청년 옴부즈만
위촉식

강화를 위해 기술교육을 지원하며, 사회적 약자 기업에 대한 구매를 확대하는 등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도 가속화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농정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평가에서는 1등급을 획득하고, 종합청렴도에서는 2등급을 얻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 평가대상 공공기관 중 1위를 달성했다.

2018년에도 농정원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1위를 달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청렴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한편, 농정원은 일자리 창출에도 발 벗고 나섰다. 기관의 업무특성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전략을 수립하고, 농업인재 육성이라는 평소의 사업영역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4차 산업혁명 시대 농업분야의 미래 신사업 개발·확산을 통해 미래 인적자원인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노력했다. 특히 2018년에는 일자리 지원을 위한 중장기전략을 수립하면서 인재양성본부에 일자리지원실을 신설하여 더욱 체계적으로 청년농업인 육성에 발 벗고 나섰다.

지역사회 상생 위한 사회공헌활동

사회공헌활동 역시 농정원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 분야이다.
2017년 농정원은 '나눔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공공기관'이라는 사회공헌 비전을 수립하고, '전문성과 경쟁력을 활용한 차별화된 사회공헌을 실시하여 사회통합과 국민행복에 기여'한다는 사회공헌목표를 명문화했다. 또 나눔으로 사

2019.06.19.
귀농귀촌종합센터
사회공헌활동

2020.06.12.
2020년 상반기
농식품소비본부
농촌 일손돕기 사회
공헌활동

회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의미에서 '손愛손'이라는 브랜드도 만들었다.
농정원은 사회공헌활동을 특성화 공헌사업과 일반 공헌사업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기관의 특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특성화 영역에서는, 농정원이 강점을 가진 차별화된 지식정보를 재능기부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또 각 본부별 전문성을 살려 농촌마을과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일반 공헌사업 영역에서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신뢰를 쌓아가는 봉사활동에 초점을 맞추었다. 설이나 추석 명절에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을 찾아 나눔활동을 하고, 노사 공동으로 행복바자회·일일찻집 등의 행사를 열어 그 수익금을 기부하는 활동도 펼쳤다.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예술공연을 개최하고, 하천이나 도로에 대한 환경정화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태풍·홍수 등 지역사회 재해지역을 찾아가 피해복구 지원 활동을 벌이는 데도 최선을 다했다.
이처럼 농정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문화 정착과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아, 2018년 1월에는 매경닷컴이 주관하는 '제3회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 대상'을, 12월에는 한국서비스산업진흥원 등이 주관하는 '제13회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사회봉사부문을 수상했다.

스토리가 있는 행복한 농촌을 꿈꾸며

신명식
농정원 3대 원장
2018.11.02. ~ 2021.12.05.

Q. 농정원이 출범 10주년을 맞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소회가 있으신지요?

A. 농정원은 출범 10년을 맞았지만, 기관 통합 이전의 역사까지 더하면 사실 30년이 된 조직입니다. 저는 재임 중에 농정원이 추구해야 할 목표로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정부 안에서는 혁신을 선도하는 건강한 공공기관, 농업인에게는 존재가치를 인정받는 공공기관, 직원에게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농정원은 그런 조직의 면모를 갖춘 것 같아 자랑스럽습니다.

Q. 농정원은 우리 농업·농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농정원은 특별히 더 많은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A. 농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40개 업무 중 26개 과(課)의 업무를 위탁받아 집행합니다. 농업의 거의 모든 분야를 다룬다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특히 더 전문성을 필요로 합니다.
농정원의 전문성은 현장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현장농업인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고 공감하면서, 그곳에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농업현장과 농업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농업인과 공감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농정원은 누구보다, 어느 조직보다 농업·농촌에 정통해야 합니다.

Q. 재임 중에는 주로 어떤 부분에 특히 역점을 두고 기관을 운영하셨는지요?

A. 어느 조직이나 신명나게 일하면서 소기의 성과를 창출하려면 일하는 방식의 개선, 공정한 업무분장, 공정한 평가, 합당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정, 배려, 현장중시 세 가지가 조직문화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를 만들고자 고민하며 직원들과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직급과 연차, 부서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서로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도록 했습니다.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양보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었지만, 나름 성과도 거둔 것 같아 보람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Q. '농업인들이 행복해져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셨습니다. 어떤 함의가 있는 것인가요?

A. 농민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농사를 업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농민이 행복해지려면 소득도 높아져야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농민의 사회적 역할이 높아지고 그 역할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어야 행복해진다는 뜻입니다. 농민의 사회적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이 원하는 농산업 원료를 생산하는 것, 국민이 원하는 질 높은 식품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농민만을 위한 농업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하는 농업, 소비자를 생각하는 농업이 되고, 그 안에서 소득도 높아진다면 농민들의 행복도 커질 것입니다. 농민이 행복해야 국민들의 먹거리도 풍요로워집니다.

Q. 재임 중에 "마을 단위로 스토리를 만들어 머무는 농촌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소개하여 주십시오.

A. 의식주 중에 '식(食)'은 문학과 예술이 결합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농산물에도 좋은 디자인과 풍성한 이야기가 입혀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 전설이 됩니다. 전설이 있는 농촌은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요즘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이 꽤 반응이 좋습니다. 한편으로는 마을작가를 선정해서 그 분들이 자기 마을의 이야기를 글이나 영상으로 홍보하도록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마을의 스토리를 만드는 데 유용해 보입니다. 잘 살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Q. 그밖에도 재임기간 추진했던 사업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화나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재임기간 중에 직원들의 기살리기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사실, 농정원 직원들 중에 일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지치거나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직원들의 기를 살리지 않으면 창의성을 바탕으로 사업의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업무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퇴근시간이 되면 사전에 인가받지 않은 PC가 자동으로 꺼지는 PC-OFF제를 실시했습니다. 습관적인 야근과 불가피한 야근을 구별하고 일하는 방식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3년 임기 중 2년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보냈습니다.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공식적인 회의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도 듣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솔직한 의견도 나누고 싶었는데 그런 기회를 가지지 못한 것들이 좀 아쉽습니다.

Q. 앞으로 농정원은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더 해 나가야 할까요?

A. 우리나라 농업 교육은 도제식 교육이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농정원이 농업마이스터, 현장교수, 신지식농업인 등 선도농업인과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우리 농업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분들을 더 많이 발굴하고, 이분들을 예우하며 그 지식을 활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나아가 청년후계농, 귀농인들이 농업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성원들이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는 데 더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자신의 업무에 높은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CHAPTER. 4

2021
2022

‘독립청사’시대,
미래농업 발전을 위해 도약하다

1. ‘독립건물’로 신청사 건립 이전
2. 농업교육체계 개편 및 식품전문인력 양성
3. MZ세대 대상 홍보와 먹거리 안전 선도
4. ‘스마트팜 혁신밸리 빅데이터센터’ 업무 개시
5. 국제협력 통한 농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
6. ‘제2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 실행
7. ESG 실천하는 농업·농촌의 동반자로

1 ‘독립건물’로 신청사 건립 이전

신청사 건립 추진과정과 개청식

농정원은 농업 인적자원 육성, 정보화 촉진, 농촌문화의 가치 확산, 농업경영체 역량 제고 등의 농업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농업인재개발원, 농촌정보문화센터 등 3개 기관이 통합하여 출범한 기관이다. 3개 기관이 통합하다 보니, 부득이 경기 안양시 관양동에 임시청사를 마련하여 3곳에 흩어져 있던 직원들이 한 곳에 모여 일할 수 있게 했다.

그 후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할 것을 결정함에 따라 2015년 9월 안양을 떠나 세종시 조치원읍으로 이전했다. 청사 이전에 따라 비로소 농정원의 ‘세종시대’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당시 입주한 건물은 세종시가 과거에 사용하던 것을 리모델링한 건물로, 2020년 9월까지 3년간 1~3층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농정원은 안정적인 기관 운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업무환경의 안정성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2017년 6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항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독립청사를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신청사 건립자금은 종전의 안양 청사 매각대금을 활용하기로 했다.

농정원은 청사 건립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약칭 행복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수차례 업무협의를 가지며 최적의 부지를 탐색했다. 또 실제 입주하여 근무할 임직원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임직원 대상 선호도조사를 실시하고, 청사 건립의 타당성을 연구·조사하는 용역도 실시했다.

사전준비를 마친 농정원은 2018년 7월 13일 세종특별자치시 4-1생활권에 있는 ‘국책연구원5로 19(반곡동 772-3번지)’ 일대 3,960㎡ 규모의 땅을 신청사 건립 부지로 확정하여 매입했다. 8월 10일에는 조달청과 기획·설계·시공 등 신청사 건립을 위한 사업관리 일체를 대행토록 하는 ‘맞춤형 서비스 약정’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조달청을 통해 신청사 설계 공모를 실시하여 ‘위드팜(With Farm)’을 당선작으로 선

정했다. 당선된 작품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농정원이 시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새롭고 창의적인 공간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자연농장과 같은 파사드를 통해 도시와 자연을 받아들이면서, 기존 공공업무시설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열린 공간을 구현하였고, 저에너지·저탄소를 구현한 녹색청사를 지향했다.

농정원은 2018년 12월 26일 설계용역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설계와 시공을 거쳐 약 28개월만인 2021년 4월 신청사를 완공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이전작업을 마친 후 5월 21일 정현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등 2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식을 갖고 새 청사에서의 업무를 시작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유관기관 관계자, 임직원 등은 온라인으로 참석하여 새로운 출발과 도약을 다짐했다.

2021.05.
농정원 신청사

2021.05.21.
신청사 개청식

세종청사 건립 및 개청 과정

2017.06.	독립청사 건립 방침 확정(이사회)
2018.07.13.	부지 매입(세종시 국책연구원5로 19)
2018.08.10.	조달청과 맞춤형 서비스 계약 체결
2018.08.	청사 설계안 공모
2018.12.14.	청사 설계안 당선작 선정
2018.12.26.	설계용역 착수보고
2019.12.	설계용역 완료,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확정
2019.12.	시공·감리업체 선정
2021.03.	청사 완공
2021.05.10.	이전 완료, 신청사에서의 업무 시작
2021.05.21.	신청사 개청식

세종청사 개요

부지면적	3,960㎡
연면적	4,949㎡
건축규모	지하 1층, 지상 4층
부대시설	주차장

새 청사는 연면적 4,949㎡의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 세워졌다. 지열을 이용한 친환경 냉난방 시스템, 빗물재활용시스템, 100% LED전등 설치 등 친환경시스템을 적용했고, 녹색건축물과 건축물 에너지효율(1++) 인증도 취득하여 저탄소 녹색청사의 면모도 갖추었다. 중요한 것은, 비로소 독립청사를 갖게 됨으로써 대외적으로 기관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것은 물론, 안으로는 '제2의 세종시대'를 개막하면서 업무능률도 높이고 방문객의 편의도 높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새 청사 1층에는 접견공간과 외부 고객 대기공간, 2층에는 인재양성본부와 농식품소비본부, 3층에는 지식융합본부와 국제통상협력처가 입주했다. 또 가장 위층인 4층에는 임원실, 경영혁신본부, 귀농귀촌기획실, 감사실이 각각 자리를 잡았다.

설립 10주년 앞두고 '제2도약' 시동

독립된 청사를 마련하여 새로운 환경에서 업무를 시작한 농정원은 2021년 12월 6일 이종순 원장이 제4대 원장으로 취임하면서 도약의 전기를 맞게 되었다. 신청사 이전이 계기가 되어 조직 전반에 심기일전의 의욕이 넘치는 분위기인 데다 농정원 설립 10주년을 눈앞에 둔 시점이어서 이번 기회에 '제2의 도약'을 이루자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취임한 이종순 원장은 취임사에서 "농업경쟁력 강화와 행복한 농촌 실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농정원의 역할 확대를 주문했다.

2021.12.06.
제4대 이종순 원장
취임식

"농업교육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대면 교육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방식을 개선하고 품질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고, "한국판 뉴딜과 스마트팜, 빅데이터 등의 신기술을 농정원의 사업과 강력히 연계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취임 직후인 2022년 초 한 언론과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는 "최근 코로나19, 식량안보, 기후변화 대응, 농축산물 수급·가격 등 새로운 이슈로 인해 농업·농촌을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남다른 의미를 지닌 올해 농정원의 핵심 미션, 비전과 함께 미래전략을 재정립함으로써 새로운 미래 10년으로 도약할 것"이라는 포부도 밝혔다.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 10년을 열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여 미래 핵심사업 발굴에 집중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에 따라 2022년 농정원은 각 사업본부가 한층 적극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농업교육부문에서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메타버스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교육방식을 개발하고 콘텐츠의 품질을 높이는 노력을 해나가기로 했다. 농업·농촌 가치 분야에서는 급변하는 소비트렌드 변화를 신속하게 현장과 접목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농식품 소비정보 제공자의 역할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보화 분야에서도 스마트팜,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은 디지털 뉴딜과 사회적 농업, 탄소중립 관련 사업은 그린뉴딜과 연계하여 신사업을 발굴하는 등 한국판 뉴딜과 농정원 핵심사업 간의 연계 수준을 강화하여 성과를 창출해 가기로 했다. 조직운영 측면에서는 기관의 자원과 역량에 특화된 사회적 가치와 ESG 과제를 도출하여 공정·상생·현장 중심의 경영으로 사회적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성과를 창출하고 국민의 신뢰 또한 높여나가기로 했다.

2 농업교육체계 개편 및 식품전문인력 양성

'스텝업 기술교육' 도입 및 비대면 교육 강화

2020년 농정원은 2040세대 농업인을 대상으로 '2040세대 스텝업 기술교육'을 새로 도입했다. 경쟁력 있는 품목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도입한 스텝업 기술교육은, 중급 수준에 머물러 있는 2040세대 농업인의 영농기술 역량을 고급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데 목표를 둔 학습조직 단위의 기술교육과정을 말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현장지도(문제해결형)·학습조직(4~8명)·전문가교육 등의 기법을 결합한 품목 전문 교육과정으로 운영되었다.

2020년에는 시범사업으로 4개 품목, 12개 학습조직, 73명을 선발하여 교육을 진행했는데, 참가자들로부터 매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에 농정원은 2021년에는 7개 품목, 18개 학습조직, 102명으로 확대하고, 2022년에는 품목 수를 8개로 늘리는 등 사업의 규모를 확대하여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미래농고, 영농창업특성화대학 등 영농창업특성화 과정에 대한 지원도 확대했다. 이들 학교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성과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가 하면, 농고의 실습학년제를 2~3학년으로, 농대의 실습학기제를 3~4학년으로 확대하여 심층적이고 집중적인 현장실습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영농 실무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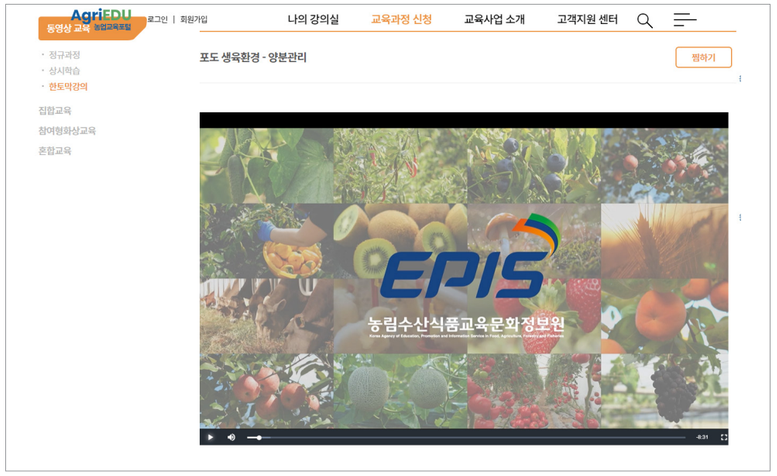
농정원은 청년후계농 육성에 특히 역점을 두었다. 청년후계농이 안정적으로 영농정착을 실현할 수 있도록 청년 후계농 맞춤형 희망교육을 도입하고 경영역량강화 교육을 제공하는가 하면, 온라인 커머스 입점을 지원하는 등 유통 및 판로개척에도 도움을 주고자 했다.

이와 함께 더 많은 여성인재의 농산업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농업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도 새로 개발하여 운영했다. 한편,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비대면 교육을 확대해 온 농정원은, 장기화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농업인이 보다 편리하게 농업교육포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 교육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23개 품목 450종에 걸쳐 각 품목별로 실습형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하는 한편, 산림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공동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정원의 교육콘텐츠는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온라인교육의 비중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처럼 비대면 교육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데 맞춰 2021년 9월 농업교육포털의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개편에서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이용자가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 중심으로 메뉴 체계를 변경하고 고령층이나 정보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로그인을 도입하는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도 획기적으로 바꾸었다. 온라인교육 서비스의 이용률이 높아진 점을 고려하여 콘텐츠 로딩 속도도 크게 개선했다. 이에 따라 농업교육포털 이용자들의 편의가 향상되고 만족도도 크게 높아졌다.

농업 교육 포털
온라인 강의



미래혁신식품 전문인력 양성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따라 고령친화식, 대체식품 등 새로운 유형의 식품이 유망식품으로 급부상하면서 관련 시장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분야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어 전문인력 양성 대책이 절실해졌다.

이에 농정원은 기능성 식품, 미래식품, 푸드테크 등 유망식품의 시장 성장 및 식품산업 트렌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전공의 식품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로 하고, 2020년 9월 '미래혁신식품 계약학과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계약학과란 식품 관련 기업과 대학이 상호 협약을 맺고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2020년 9월 한양대와 고려대가 기능성식품학과를 개강했다. 또 2021년에는 농식품 분야 최초로 경희대가 미래식품학과, 서울대가 푸드테크학과의 석사과정을 각각 개강했다.

기능성식품학과는 기능성 식품 소재, 제형, 임상시험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제조·R&D 역량을 고도화하는 교육을 한다. 또 미래식품학과는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따라 성장하는 맞춤형식품·특수식품·간편식품 등 새로운 식품산업 분야 육성 등을 교육하고, 푸드테크학과는 식품분야에 IT·AI 등 다양한 기술 융복합을 통한 '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을 운영한다.

농정원은 계약학과 사업을 통해 미래 유망식품 분야의 핵심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하고, 2021년 5월 13일 이들 4개 학교 및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하 '식품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식품산업 분야의 전문기술 인력 양성교육 지원, 상호 협력을 위한 인력의 교류, 현장교육을 위한 시설 및 기자재 활용 등의 내용이 협약에 포함되었다. 이 협약을 바탕으로 농정원은 식품진흥원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미래혁신식품 계약학과 교육에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계약학과 교육생 모집 시 식품진흥원의 협조를 통해 클러스터 입주기업에 공동 홍보를 진행하고, 현장전문가 DB를 구축하여 각 학교 교·강사로 활용하는 등 협력체계를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이로써 농정원은 대학과 식품진흥원의 전문성을 합쳐서 미래혁신식품 분야를 선도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큰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3 MZ세대 대상 홍보와 먹거리 안전 선도

‘갓생하루’ 캠페인과 ‘욱 크래프트’ 가상체험

국민에게 농업·농촌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2020년에 진행한 ‘#농-업그레이드 캠페인’은 매우 성공적인 농업·농촌 통합캠페인으로 평가되었다. 무엇보다도 미래세대를 포함한 1040세대를 타깃으로 하여 일상 속에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소재를 발굴, 제시함으로써 짧은 기간에 영상 조회수 880만 회를 돌파하는 등 많은 공감을 불러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기조를 이어서 2021년에는 ‘농업·농촌으로 갓생하루’ 캠페인을 전개했다. ‘갓생’이라는 용어는 긍정적 의미를 강조하는 ‘갓(God)’과 인생의 ‘생(生)’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MZ세대의 신조어로, 목표를 위해 매일 성실히 살아가는 삶을 뜻한다. 따라서 ‘농업·농촌으로 갓생하루’란 농업·농촌의 가치로 의미 있고 보람차게 살아가는 갓생의 라이프 스타일을 의미한다.

2021년 가치확산 캠페인 ‘농업·농촌으로 갓생하루’

2021년 들어 농정원은 농업·농촌가치 캠페인의 핵심타깃을 MZ세대로 선정하고, 코로나19가 장기화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유튜브를 중심으로 영상캠페인을 진행했다. 영상은 농산물, 스마트팜, 홈가든을 주제로 총 3편이 제작되었다. ‘농산물 편’은 식량자원으로서의 농업·농촌의 가치를 쌀을 통해 보여주고, ‘스마트팜 편’은 ICT기술을 활용하여 수출농업으로 부상한 미래 농업·농촌의 모습을 담았다. ‘홈가든 편’은 도심 속 반려식물을 통해 일상생활 속 농업을 쉽게 녹여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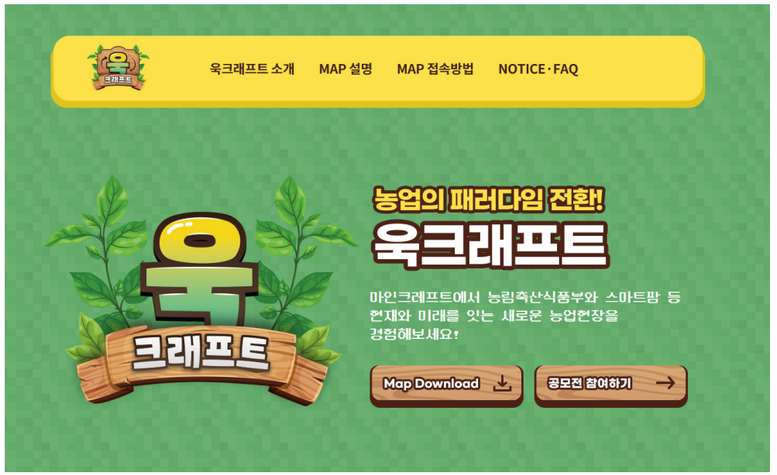
MZ세대가 공감할 수 있도록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코스프레, 스트릿 댄스 등의 방식을 차용해 제작한 캠페인 영상은 공개 한 달 만에 조회수 1,320만 회를 넘어섰고, 일상 속에서 갓생하루 인증 및 응원이벤트가 SNS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농정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알게 된 만큼 이 캠페인이 지금껏 당연하게 생각해 왔던 농업·농촌의 가치가 MZ세대들의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깊게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보다 한 달여 앞선 2021년 11월 농정원은 메타버스(Metaverse)를 활용하여 농식품 관련 정책과 미래가치 콘텐츠를 체험하고 소개하는 ‘욱 크래프트(wookcraft.kr)’를 선보여 관심을 모았다.

욱 크래프트는 메타버스 기반의 유명 게임인 마인크래프트를 활용해 농촌마을, 스마트팜, 농업박물관 등 다양한 농업·농촌 공간을 지도로 제작한 구축형 가상홍보 플랫폼이다. 마인크래프트 계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욱 크래프트에 접속해 농업기술과 농촌의 다양한 모습을 가상세계에서 체험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농정원은 MZ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농업정책에 대한 국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아이디어로 이 시스템을 만들었다. ‘욱 크래프트’라는 명칭은 농업의 방향을 새롭게 전환한다는 의미로 ‘농’을 뒤집으면 ‘욱’이 된다는 데 착안하여 명명되었다. 농정원은 욱 크래프트를 통해 농업·농촌 가치와 정책에 대한 젊은 세대의 관심이 늘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욱 크래프트’를 일회성 이벤트형 공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농식품 정책을 소개할 수 있는 소통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욱 크래프트’ 메인 화면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

2021년 3월, 이른바 '중국산 알몸김치'의 위생문제가 불거지면서 국민들은 수입산 김치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며 국산김치에 대한 소비조차 줄이기 시작했다. 이에 농정원은 이러한 부정이슈에 신속하고도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대한민국김치협회, 한국외식산업협회, 그리고 소비자단체와 유관기관 등 8개 기관이 참여하는 '공동대응 T/F'를 구성했다. 공동대응 T/F는 기존 외식·급식업체,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시행되던 '국산김치 자율표시제'를 소비자에게도 널리 확산하여 국산김치의 안전성을 알리고자 발족한 협의체이다.

이 협의체에서 농정원은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홍보전략을 수립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국내여론을 안정시키기 위해 매월 국산김치에 대한 긍정·부정 여론을 분석하여 홍보방향 등 현안과제를 발굴하고 대응책을 마련했다.

농정원은 김치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기로 하고, 300만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맘 카페와 전국 12개 지역 대표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국산김치에 대한 안전성을 홍보했다. 동시에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단체급식을 하는 초·중·고등학교의 참여도 이끌어냈다. 한편으로는 주요 일간지에 기획보도 및 광고를 집행하고 소비자단체 174만 회원 대상으로 홍보메일을 발송하는가 하면, 협의체 내 각 기관이 보유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국산김치 자율표시제를 알리는 등 전방위적인 홍보를 추진했다.

그 결과, 수입김치 위생문제의 여파로 16%까지 치솟았던 국산김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2021년 12월에는 4%로 떨어졌다. 이는 이슈 발생 이전에 국산김치에 대한 부정여론이 6%였던 것과 비교해도 무려 2%포인트가 떨어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산김치 자율표시제를 도입한 음식점은 10배 이상 증가했다. 김치에 대한 국민 불안이 사실상 해소된 셈이다.

이러한 성과는 농정원이 먹거리 안전문제에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고 대응했는지를 보여준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먹거리 안전과 직결된 문제에 대한 즉각적이고 신속한 대응 자세를 치하하는 찬사가 나왔고, 외식산업계의 참여를 유도하여 농식품 소비의 선순환 모델을 구축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러한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을 통해 2021년 12월 국민이 뽑은 농정원 기관 혁신 우수사례 1위로 선정된 데서도 거듭 확인되었다.

4 '스마트팜 혁신밸리 빅데이터센터' 업무 개시

AI 기반 스마트팜 확산 위한 지원확대

스마트팜은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의 원예시설·축사를 현대화하는 것을 말한다. 스마트팜을 도입하면 생산량은 평균 32% 증가하고 노동시간은 14% 아낄 수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을 만큼 스마트팜은 미래농업의 새로운 방향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농업 종사자의 삶의 질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우수 인력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이유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2억 4,000만 달러였던 우리나라 스마트농업 시장의 규모가 2025년 4억 9,000만 달러로 커져 연평균 15.5%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렇다 보니 농업인들도 59.5%가 "스마트팜을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서도 스마트팜 관련 정보량이 증가하고 있어 농업계 안팎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농정원은 농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스마트팜 보급·확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했다. 스마트팜 도입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널리 홍보하고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를 개설하는 등 스마트팜 청년농 육성 및 교육지원에 특히 관심을 기울였다. 스마트팜 장비규격 기준을 재정비하고 노지채소를 시작으로 스마트팜 모델 개발에도 지원을 강화했다.

2021년 10월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팜 인식 확산 및 기술발전을 위해 '스마트농업 AI 경진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처음으로 열린 이 경진대회는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팜 모델 개발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고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데 동기부여로 작용하는 등 적지 않은 효과를 가져왔다.

2021년 12월에는 청년들이 새로운 스마트팜 창업 생태계로 진입할 수 있

2019.11.22.
스마트팜 빅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도록 지원하고 스마트팜 농산물의 소비 대중화를 제고한다는 취지에서, 청년 농가 10곳을 대상으로 '크라우드 펀딩'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이란 '대중(Crowd)'과 '자금조달(Funding)'을 합친 말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실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좋은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이 투자자금의 부족으로 인해 사장되는 것을 막고, 청년농에게 용기와 도전의식을 심어주는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다. 농정원은 우선 사과·토마토·버섯 등을 재배하는 10여 곳의 농가를 선정하여 이 사업을 시작했다.

전국 4곳에 '혁신밸리 빅데이터센터' 구축

스마트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농정원을 비롯한 농업 관련 기관·단체들의 노력이 더해지면서 스마트팜은 빠르게 확산되었다. 스마트팜이 조성된 규모만 봐도, 2021년 기준 시설원예 분야는 약 6,485ha, 축사분야는 4,785호에 스마트팜이 보급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스마트팜 조성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하면서 작물의 생육 및 환경정보 등의 데이터를 기록하고 분석하는 각종 센서와 디지털장비들의 수요도 함께 늘어났다. 스마트팜이 농업과 ICT의 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유형의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점에서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말하자면 스마트팜이 농업 종사자와 ICT업계 모두에게 미래의 새 먹거리로 등장한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팜을 활성화하고 스마트팜에 특화된 청년농을 육성하며, 이를 통해 국내 스마트팜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22년 말까지 전국 4곳에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하기로 했다.

그리고 2018년에 1차로 경북 상주와 전북 김제를, 2019년에 2차로 전남 고흥과 경남 밀양을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스마트팜의 운영(교육) 및 스마트팜 기자재 연구·실증 기능을 집약한 ICT 기반의 농산업 클러스터를 말한다. 농업인과 기업, 연구기관 간 시너지를 창출하는 스마트팜 확산의 거점 역할을 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2021년 12월 상주와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준공되었고, 2022년 10월 현재 나머지도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이에 맞춰 농정원은 고효율의 디지털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을 위해 2022년 2월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최근 잦아진 기후변화와 농촌 고령화 등 농촌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농업인의 생산성 및 편의성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업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둔 사업이다.

2022.04.
김제 혁신밸리
빅데이터센터
운영 개시

이 사업은 풍부한 데이터를 보유한 민간기업과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스마트팜을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대상은 스마트팜,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개발 등 농업의 현장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용화 서비스와 솔루션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다. 성공적으로 운영된다면 농업인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스마트농업의 기반을 다지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농정원은 총 23개 컨소시엄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현장에서 농업인이 직면하고 있는 생산성 향상, 비용절감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데이터 기반 농업 서비스를 농가에 적용하도록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빅데이터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빅데이터센터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혁신밸리 내 입주농가에 생육·환경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또 작물 ICT융복합 전문인력을 적극 양성하고 인근지역의 스마트팜 농가에도 데이터기반 농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빅데이터센터는 2022년 4월 현재 1차 지구인 김제·상주가 준공되어 운영을 시작했고, 2차지구인 고흥·밀양도 2022년 상반기 중에 준공하여 가동될 예정이다. 농정원은 이를 기반으로 시설원예·노지채소 등 각 분야별 데이터의 표준을 마련하여 농업 데이터 활용의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문제해결형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의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여 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5 국제협력 통한 농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

국제통상 및 국제협력 업무의 내실화

농정원은 우리 농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글로벌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오랫동안 국제협력체계를 공고히 해왔다. 그러나 2019년 말 시작돼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세계 각국이 국경폐쇄와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는 바람에 국가 간의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한동안 원활한 협력체계를 가동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에 농정원은 신속하게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했다. 그리고 국내외의 코로나19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웨비나(Webinar, Web+seminar) 등 비대면 채널을 활용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단절 없이 국제농업교류가 가능하도록 했다.

덕분에 농정원은 전 세계적인 비상상황에도 불구하고 국제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확대해 나갈 수 있었다.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책토론회와 농업협력 초청연수 프로그램의 경우 당초 계획했던 대상보다 오히려 더 많은 대상과의 교류가 성사되었고, 국내 기업들에 대한 수출지원 프로그램도 통번역·법률자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원방식이 개발돼 결과적으로 지원의 스펙트럼이 더 넓어지는 효과를 가져왔다. 해외인턴십 프로그램은 국내 소재 국제기구에 파견하거나 국내에서 원격근무로 대체하여 기대했던 성과를 거둬들였다. 이에 따라 농정원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국제농업교류의 성과와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었다.

농정원은 FTA협상 지원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2018년 무렵만 해도 우리나라는 58개국과 16건의 FTA를 체결하고 있었다.

또 협상이 진행 중인 나라도 여럿 있었고 이미 체결된 협상안을 개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말하자면 협상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보니 그동안 FTA와 관련한 정보가 국가별·품목별로 방대하게 축적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갱신·분석·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해 협상에 대한 대응보다 기초자료 준비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비효율이 발생했다. 협상 노하우가 제대로 재활용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2019년 3월 농정원은 정책·교섭·이행·대책 등 농업통상 전 분야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FTA협상에 도움을 주는 'FTA협상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서비스를 시작했다.

FTA협상지원시스템은 정부 정책담당자에게 체계적·전략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맡게 되었다. 기존에 운영하던 농식품해외정보공유서비스(MAPs)는 대국민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농업인들에게 FTA에 특화된 대민 정보를 제공하는 'FTA활용정보서비스'로 탈바꿈했다. 이로써 농정원은 농림축산분야 FTA협상 대응을 지원하는 전문지원기관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때 구축한 FTA협상지원시스템은 지식정보 DB 중심으로 구축된 시스템이어서 미흡한 점이 많아 업그레이드가 불가피했다. 이에 농정원은 2019년부터 새로운 시스템 구축 작업에 착수하여 2020년 2월 운영을 시작했다. 새로 구축한 FTA협상지원시스템에서는 FTA협상 등에 필요한 FTA통계정보와 방대한 양의 협상DB를 구축하여 손쉽게 생산·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협상 지원을 위한 지식DB도 구축해 국제통상협력을 위한 업무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사업' 가속도

농정원은 국내 농기자재를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7년부터 '농기자재 수출활성화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농기자재 기업들의 규모가 작고 글로벌시장에 진출한 경험이 부족해 수출활성화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 때문에 농정원은 농기자재 품목별 유망수출국을 선정하고 해당 국가의 시장상황과 인허가 규제 등 각종 시장정보를 입수하는 데 주력했다. 또 해당 국가들의 수입관계자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도 힘을 쏟았다.

농정원은 수출 유망국가의 정책담당자 등을 초청한 가운데 우리 기업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농기자재 국제워크숍'을 매년 개최했다.

이 워크숍에서는 국가별 시장상황과 비관세장벽 등의 무역정책 등이 비중 있게 다뤄졌다. 한편으로 농정원은 '농기자재 수출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농기자재 수출현장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공유·확산하는 노력을 계속했다.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사업'도 꾸준히 전개하여, 2018년 23개사이던 지원 대상 기업을 2021년에는 67개 기업으로 확대했다. 특히 수출가능성이 높은 기업과 영세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수출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했다.

2020년 8월 11일에는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스마트팜을 포

2020.08.11.
K-스마트농업
세계화를 위한
KOTRA-농정원
업무협약 체결식

함한 농기자재 분야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농기자재 관련 대면·비대면 해외마케팅 및 정보교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국제개발협력사업도 공동 발굴하여 참여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2021년 2월에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前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공동으로 '2021 농기자재·스마트팜 분야 지원사업 공동설명회'를 열었다. 이 설명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온라인 플랫폼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되었는데, 농기자재 기업의 해외수출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양 기관의 담당자가 직접 사업을 설명하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이 자리에서 농정원은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한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사업을 집중 소개했다. 특히 인허가 취득 지원과 수출국별 제품 현지화를 위한 마켓 테스트, 그리고 현지 마케팅 활동에 대한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이듬해인 2022년 2월 9일에도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공동으로 같은 형식의 사업설명회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농정원은 '농기자재 수출활성화 사업'과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 지원사업'을 소개했다. 한편으로 농정원은 이미 구축해 놓은 '농기자재수출정보서비스(www.maps.or.kr)'도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을 권장하기도 했다.

현재 국내 농기자재 수출산업은 여전히 시장개척 단계이다. 하지만 농정원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전폭적인 지원과 수출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노력, 그리고 글로벌시장에서 스마트팜으로 대표되는 K-농업에 대한 평가가 상승 추세이므로, 머지않아 눈에 띄는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FSIS 사업, 국내 최초 'OECD 혁신사례' 선정

K-농업의 글로벌시장 진출 전략은 스마트팜, ODA(공적개발원조)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스마트팜은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ICT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글로벌시장에서도 경쟁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ODA사업을 통해 스마트팜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확대함으로써,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와 우리 기업의 시장개척을 동시에 이뤄낸다는 것이 농정원의 복안이었다.

농정원의 ODA사업은 크게 스마트팜과 디지털 공공행정 등 두 갈래로 추진되었다. 디지털 공공행정 분야는 '아세안+3 식량안보정보시스템(AFSIS)' 협력사업이 대표적이다. 이 사업은 아세안 식량안보정보시스템(AFSIS) 사무국의 요청에 따라,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미얀마 등 6개국을 대상으로 농업통계 데이터의 수집·분석·공유를 위한 ICT 시스템을 구축하여 아세안 역내 국가들이 식량안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4년부터 3단계로 나눠 추진한 이 사업은 2021년까지 1·2단계 협력사업이 완료돼 아세안 6개국의 농업 생산·유통 부문에 대한 통계 수집·활용 체계가 마련되었다. 2022년부터는 라오스를 시작으로 3단계 협력사업인 '원격탐사정보 활용 전략작물 생산예측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농정원은 개도국들의 국가농식품정보시스템 구축 외에도, 지속가능성과 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현지교육과 초청연수 등 인적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패키지로 지원하여 호평을 받았다.

이 사업을 통해 농정원은 해당 국가들에 효율적인 농업통계 행정체계를 구축하여 데이터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 결과, 2020년 기준으로 전체 누적 방문자수는 29만 9,466명을 기록하여 전년 대비 2,116% 증가했고, 정보등록건수도 8,545건을 기록하여 전년 대비 2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성과에 대해 2021년 9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ICT를 활용하여 개발도상국의 농업통계행정을 효율화하고 데이터 접근성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며 농정원의 AFSIS 사업을 'OECD 공공부문 혁신사례'로 선정해 발표했다. 우리나라 농업부문으로는 최초의 일로, 농정원의 전문분야인 농업 ICT를 활용한 국제협력 성과를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은 사례로 평가된다.

필리핀에 최초의 '한국형 스마트팜' 조성

글로벌시장에서 '한국형 스마트팜', 일명 K-스마트팜이 진가를 보인 것은 2019년 3월 오픈한 필리핀 최초의 한국형 스마트팜 모델사업이다. 이 사업은 필리핀 북부지역인 바기오(Baguio)와 타나이(Tanay) 2개 지역에 고품질 토마토 생산을 위해 한국형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민관협력사업이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이 지원하는 '필리핀 시설팜 구축을 통한 토마토 생산 최적화 및 고품질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데, 2017년 12월부터 2022년 6월 말까지의 일정으로 계획되었다.

3월 8일 개소식에 참석한 엠마뉴엘 피뇰 필리핀 농업부 장관은 "이는 필리핀 최초의 스마트팜"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2022.03.31.
필리핀 일로일로
스마트팜 개소식

협력운영모델 측면에서도 의미가 큰 사업이었다. 단순 시설구축에 그치지 않고 공동브랜드 개발 및 판매망 확보, 토마토 공동출하와 공동판매 등 필리핀 토마토 공급사슬의 전 과정을 패키지로 지원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농정원은 필리핀 농가의 역량강화 차원에서 현지 토마토협동조합 농가를 대상으로 이론·실습교육을 실시하고 필리핀 관계자 등을 초청해 연수도 진행하는 등 스마트팜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했다.

그 결과 스마트팜 조성 이후 해당 토마토 작물의 고품질화와 고수익화는 물론 연중생산 및 연중출하를 실현함으로써 운영 2년 만에 생산성은 6.5배, 현지 판매가격은 3.5배 상승하는 높은 향상율을 달성했다.

이 때문에 필리핀에서는 K-스마트팜에 대한 호평이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필리핀 전역으로 스마트팜을 확산하기 위해 2020년부터 4년 동안 민다나오(남섬), 비사야스(중섬) 등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적정기술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작물의 지속가능 생산체계 마련을 위한 스마트 농업 적용 사업'에 대해서도 강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ODA사업 통한 K-스마트팜의 해외 확산

필리핀 토마토 스마트팜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이후 새로운 ODA사업이 대거 시작되면서 K-스마트팜 협력사업도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2021년 8월 9일 베트남과, 9월 1일에는 캄보디아와, 9월 9일에는 인도네시아와 잇달아 K-스마트팜 ODA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의사록을 체결한 것이 그 시작이었다.

베트남의 경우, 베트남 남부 지역에 스마트 생산 및 신선유통체계 시범 구축사업을, 캄보디아의

2022.01.25.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국제 워크숍

경우 칸달주의 고품질 채소·과채류 스마트팜 추진을, 인도네시아는 K-스마트팜 도입을 통한 밀레니얼 농업인 소득개선 사업 추진을 위해 농정원과 손을 잡고 ODA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품목도 방울토마토, 파프리카, 딸기, 멜론, 수박, 고추, 양배추, 양돈 등 다양하다.

2021년 12월 15일에는 우즈베키스탄 농업부와 MOU를 체결하고,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정보교류 및 인적역량 강화 협력, 신규 스마트팜 ODA사업을 위한 협업기반 마련 등에 뜻을 모았다. 타슈켄트에 스마트팜을 구축하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과채류 고품질화 스마트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 MOU 성격이었다. 이 사업은 농정원이 처음으로 신북방 지역에 추진하는 ODA사업이라는 점에서 농정원 해외사업의 보폭을 넓히는 사례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2019년 8월 농정원은 세계은행, GKEDC(KDI 글로벌지식협력센터)와 공동으로 디지털농업이라는 주제의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또 9월에는 농림축산식품부, OECD 등과 함께 '제12차 OECD 농촌정책 컨퍼런스'를 주관하여 개최했다.

2022년 1월에는 UN식량농업기구(FAO), 세계은행(World Bank) 등 국제기구와 아세안 개발도상국들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에서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국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워크숍은 스마트농업의 현황과 한국이 강점을 가진 ICT 기반의 스마트농업 ODA 사례를 아세안 개도국들에게 전파하고 글로벌 스마트농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처럼 세계적인 기관들과 한국의 정책사례, 선진 농정 경험, 그리고 스마트팜 ODA사업 사례를 공유하는 국제행사를 연이어 가짐으로써, ODA 수원국(受援國)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대한민국의 저력과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그간의 정책과 경험, 기술 등을 널리 알릴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농정원의 위상도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6 ‘제2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 실행

제1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의 성과

농림축산식품부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5년마다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 발표해야 한다.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이라는 것이다. 이 계획에는 귀농귀촌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구체적인 실행계획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2017년에 처음으로 ‘제1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이 수립돼 시행에 들어갔다.

제1차 종합계획이 추진된 5년 사이에 귀농귀촌 부문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귀농귀촌을 촉진하기 위한 단계별 지원 방안을 담은 정책의 체계가 마련되고 지원 예산의 규모도 크게 늘었다. 귀농귀촌 정책이 국가 농정의 주요 정책으로 자리매김한 것도 큰 변화였다.

이에 힘입어 매년 50만 명 가까운 인구가 귀농 또는 귀촌하여 새로운 삶을 찾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 조사에 따르면 2017~2020년 사이에 귀농한 청년가구만 해도 8,891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귀농이 농업·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동력이 되고 있다 해도 지나치지 않은 성과였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는 일반농가의 71.1% 수준에 머물렀던 귀농가구의 소득도 88% 수준까지 상승했다. 귀농 또는 귀촌한 6,000가구를 대상으로 2021년 가을에 실시한 귀농귀촌 실태조사에서도 귀농가구의 72.8%, 그리고 귀촌가구의 76.2%가 만족감을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보니 해를 거듭할수록 귀농귀촌에 관심을 갖고 준비에 들어가거나 직접 실행하는 인구가 늘어났다. 최근의 라이프 스타일이 비대면에 익숙해지고 일과 삶의 균형(Work and Life Balance)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이러한 추이는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제2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 주요내용

2022년 3월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2017~2021)의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그동안의 변화된 여건과 다양한 정책수요를 반영한 ‘제2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2022~2026)’을 발표했다. 귀농귀촌의 사전준비부터 정착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담은 두 번째 5개년 계획이다.

제2차 종합계획은 ‘농업이 밝아지는 귀농, 농촌이 젊어지는 귀촌’을 새로운 비전으로 설정하고, 귀농 5년차 평균 가구소득을 농가 평균의 95%, 귀촌가구 생활만족도 85%를 2026년까지의 목표로 설정했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전략, 16개 과제를 제시했다.

5대 전략으로는 거주지 인근 충실한 사전준비 체계 마련, 귀촌인의 취·창업 및 다양한 활동 기회 제공, 귀농인의 영농활동 밀착 지원, 농촌다움을 유지하는 거주 환경 조성, 귀촌 플랫폼을 통한 통합정보 제공 등이다. 각 전략에는 각각 2~4개의 추진과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거주지 인근 충실한 사전준비 체계 마련

-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도시의 농협을 활용해서 사전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전국 특·광역시(7개) 및 모든 시(78개) 지역의 농협(85곳)을 통해서 자산관리 및 농지·주거 관련 컨설팅, 교육을 제공한다.
- 유사한 관심(지역·품목)을 지닌 도시민들이 함께 준비하며 농촌 정착까지 서로 이끌어주는 귀농귀촌 준비 커뮤니티를 지원한다.
- 2021년 처음 시행해 큰 관심을 끌었던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을 확대하고, 테마별 특화마을을 도입하여 밀도 높은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② 귀촌인의 취·창업 및 다양한 활동 기회 제공

-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농촌지역 내 취·창업을 활성화한다.
- 귀촌인들이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지역의 사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이주 전 재능·경력을 지역민과 나눌 수 있는 재능나눔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경제 활동 참여를 지원한다.

③ 귀농인의 영농활동 밀착 지원

- 농촌지역 농협에 ‘영농 네비게이터’를 운영하고, 귀농인과 지역 조합원 간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귀농인들의 영농 초기 정착을 돕는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한다.
- 청년 귀농인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제도 개선을 통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농이 실제로 필요한 농지를 우선 제공한다.

④ **농촌다움을 유지하는 거주 환경 조성**

- 축사, 공장 시설을 이전·재배치·집적화하는 등 농촌 공간의 정비를 통해 농촌을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든다.
- 주거와 생활SOC를 갖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농산어촌 주거플랫폼과 청년 농촌보금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의 빈집을 활용한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도 단계적으로 늘려나간다.

⑤ **귀농귀촌 플랫폼을 통한 통합정보 제공**

- 귀농귀촌인에게 각 부처·지자체의 정책, 농지·주거, 일자리 등 광범위한 정보·서비스를 관계기관 시스템과 연계해 통합 제공하는 '귀농귀촌 플랫폼'을 구축한다.
- 귀농귀촌 플랫폼이 개방되고 유연하게 운영되도록 범정부 운영협의체를 구성하여 상시 업그레이드하고, 민간의 참여도 유도하는 등 정보와 서비스 제공 기능을 한 단계 높여나간다.

제2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2022~2026)

비전	농업이 밝아지는 귀농, 농촌이 젊어지는 귀촌
목표	체계적인 준비, 정착 지원 강화로 귀농소득·귀촌생활만족도 향상
	귀농 5년사 평균가구 소득을 농가 평균까지 향상 : (2021) 88% → (2026) 95%
	귀촌 가구 생활 만족도 향상 : (2021) 76.2% → (2026) 85%

5대 추진전략 16개 추진과제

1. 거주지 인근 충실한 사전준비 체계 마련	① 도시 내 농협 인프라를 활용한 귀농귀촌 준비 지원 ② 농촌 장기체류형 체험·교육 강화 ③ 귀농귀촌 준비 커뮤니티 지원
2. 귀촌인의 취창업 및 다양한 활동 기회 제공	① 농촌지역 자원을 활용한 취창업 지원 확대 ② 지역 내 일자리 정보제공 확대 ③ 재능나눔, 사회적경제 등 다양한 활동 기회 제공 ④ 지역 내 일자리 확대를 위한 지자체 특화 프로그램 지원
3. 귀농인의 영농활동 밀착 지원	① 지역 내 생산체계 안착을 위한 정착 단계별 밀착 지원 ② 중앙정부·지자체 협약을 통해 농촌 활성화 집중 지원 ③ 귀농인의 영농 외 소득 다각화 지원
4. 농촌다움을 유지하는 거주 환경 조성	① 농촌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 공간 계획 제도화 ② 중앙정부·지자체 협약을 통해 농촌 활성화 집중 지원 ③ 농촌 공간 정비를 통해 매력적인 삶터 조성 ④ 다양한 주거 선택지 제공
5. 귀농귀촌 플랫폼을 통한 통합정보 제공	① 귀농귀촌 단계별 정보·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 구축 ② 관계 부처·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여 플랫폼 운영 효율화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 최대 관심사로

제1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의 마지막 해이자 제2차 종합계획의 실행계획이 준비되고 있던 2021년 3월, 농정원은 지금까지 축적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의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귀농귀촌을 실행하기 전에 미리 농촌에 장기간 거주하면서 농촌에서의 일자리와 생활을 체험해보고, 그 후에 자신감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이 그것이다.

이 사업은 입안 단계에서부터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2021년 1월 귀농귀촌 홈페이지에 사업이 소개되기가 무섭게 문의가 폭주했다. 지자체들이 "농촌에서 살아보고 결정하라"고 홍보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한 데다 언론도 큰 관심을 보이면서, 시작도 하기 전에 '가장 성공한 귀농귀

촌 사업'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호평이 잇따랐다.

당초에 농정원은 2021년 3월 19일부터 프로그램 참가 희망자를 공개모집해 전국 80개 시·군에서 98곳의 운영마을을 선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예상 외로 신청자가 몰리면서 88개 시·군 104곳으로 사업대상을 늘렸다.

농정원은 ①주요작물 재배기술과 농기계 사용법 등 영농 전반에 대한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귀농형, ②농촌이해·주민교류·지역탐색 등 농촌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귀촌형, ③청년들을 대상으로 단기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참여하는 프로젝트참여형 등 3가지로 나눠 운영했다.

도입 첫해인 2021년에 참여대상으로 선정된 도시민은 모두 649가구이다. 사업 시행 결과, 2021년 말 기준으로 이 중 11%인 73가구가 프로그램에 따라 농촌에서 살아본 후 실제 이주하여 전입까지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참가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참가자의 92.2%, 운영마을의 93.3%가 귀농귀촌에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평가했다. 당초 기대했던 그 이상으로 성공적인 결과가 나온 것이다.

농정원은 2021년 11월 1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농촌에서 살아보기'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고 포상과 함께 운영성과를 공유했다. 그리고 2022년에는 대상 마을을 95개 시·군 110곳으로 확대하고, '재배품목 장기실습형' 등 테마별로 특화한 마을을 새로 도입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농촌에서 살아보기'를 귀농귀촌 지원사업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 착수

2021년 3월 귀농귀촌종합센터는 홈페이지(returnfarm.com)에 '농촌에서 살아보기' 전용 페이지를 신설하여 전국의 운영마을 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해 볼 수 있게 했다. 9월에는 각 지역의 귀농귀촌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했다. 그동안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홍보, 교육신청 등 정책 활용 측면에 초점을 맞춰 운영해 왔으나, 이번 개편에서는 귀농귀촌 희망자의 주요 관심사인 지역의 다양한 정보를 한꺼번에 묶어서 볼 수 있도록 '지역 통합형 서비스'를 메인화면에 배치하고 참여형 콘텐츠도 확대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했다.

귀농귀촌종합센터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귀농귀촌인에게 정부부처·지자체의 정책, 농지·주거, 일자리 등 광범위한 정보·서비스를 관계기관 시스템과 연계하여 통합 제공하는 '귀농귀촌 통합플랫폼'을 구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통합플랫폼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준비단계와 수준 등 기본적인 상황을 진단한 후 각 단계별로 필요한 정보·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각 지자체에서는 회원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지역 내 귀농귀촌 수요 예측 및 지역개발 정책에 활용할 수도 있다. 그 외에도 농정원은 귀농귀촌 희망자들이 기대하는 다양한 편의기능을 통합플랫폼 내에 구현하여 귀농귀촌 준비에 드는 시간·노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다.

귀농귀촌종합센터는 2022년 말까지 귀농귀촌 플랫폼 1단계를 구축하여 시범서비스를 실시한 후 2023년에 2단계를 구축하여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귀농귀촌종합센터
메인 화면

7 ESG 실천하는 농업·농촌의 동반자로

조직혁신으로 건강한 조직문화 구축

독립된 세종청사로의 이전을 전후하여 농정원은 '제2의 세종시대'를 '제2의 도약'으로 승화하고자 했다. 중요한 것은, 제2의 도약은 외적인 성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농정원은 국민에게 더 많은 신뢰를 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려면 국민이 기대하는 그 이상으로 공공기관이 가진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를 위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조직혁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21년 들어 농정원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조직혁신을 추진했다. 2021년 1월 본부장 직위에 내부공모를 실시한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이다. 농정원은 지원자의 업적과 성과 평가결과는 물론, 직무수행계획 공개발표와 질의응답, 직원 선호도 투표 등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절차를 통해 경영혁신본부장에 김성아 경영기획실장, 농식품소비본부장에 김백주 가치홍보실장을 차기 본부장 내정자로 확정했다.

이번 직위공모에서는 설립 이래 처음으로 경영혁신본부장직에 여성 직원이 발탁돼, 성별, 연공서열 등 조직문화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자리 잡았던 관행에서 완전히 탈피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직혁신을 향한 농정원의 의지는 2022년 3월 'EPIS 이노베이터'를 발족하면서 더욱 속도를 내게 되었다. EPIS 이노베이터는 경력 10년 이상의 중간관리자급인 시니어그룹과 5년 내외의 청년세대들로 구성된 주니어그룹을 합쳐 17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지속가능한 경영과 신바람 나는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실천과제들을 발굴하고 조직 전체에 확산하는 등 조직문화 혁신과 소통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기관 출범 10주년을 앞두고 이종순 원장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발족한 EPIS 이노베이터의 활동은 농정원이 내실 있는 제2의 도약을 이루는 지렛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이보다 앞선 2021년 4월 농정원은 조직위험관리에 대한 국제공인인증인 ISO 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해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실현하는 데 의미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ISO 37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부패방지경영 표준으로, 국제표준의 부패방지 요구사항과 각국의 부패방지 법령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위험관리체계를 갖춘 기관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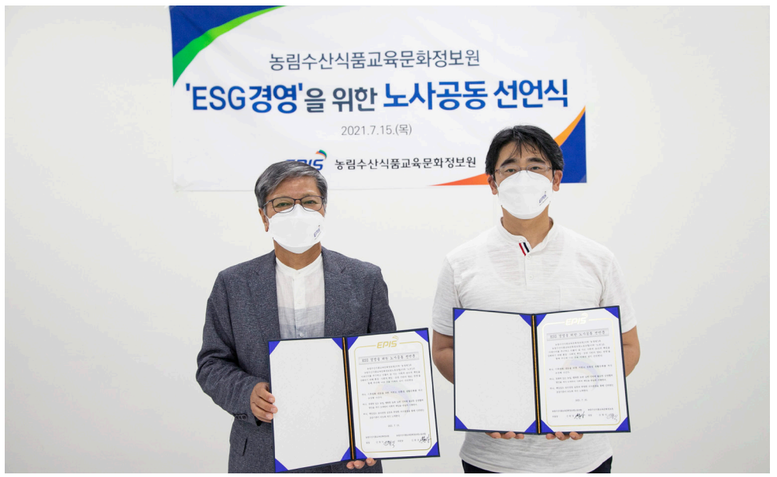
이미 2020년에 농정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평가에서도 V유형 최고등급을 달성했고,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반부패시책 평가에서는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국제인증 획득을 계기로 농정원은 윤리경영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기로 했다.

'ESG경영' 선언과 실천 프로그램들

농정원은 조직혁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ESG경영을 앞장서 실천하기로 하고, 2021년 7월 15일 노사공동선언식을 통해 ESG경영을 위한 '농정원 Green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ESG는 기업이나 조직의 비재무적 요소인 친환경(Environment), 사회적 책임 경영(Social), 지배구조 개선(Governance)을 뜻하는 말로,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면서 투명하고 윤리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실천해야 지속성장이 가능하다는 경영철학이다.

2022.03.11.
EPIS 이노베이터
출범식



2021.07.15.
ESG 경영 위한
노사공동 선언식

이 날 선언식에서 농정원은,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발자국 줄이기, 모두 함께 친환경 업무환경 만들기, 배려와 존중의 건강한 조직문화 만들기 등을 실천과제로 제시하고, 노사가 합심하여 직원들의 더욱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면서 ESG경영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미 농정원은 모든 직원들의 업무환경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최소화하고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올바른 분리배출을 실천해 왔다. 또 노조의 제안에 따라 본원 1층에 위치한 카페에서 세종지역 로컬푸드를 활용한 메뉴를 판매하고 다회용 컵 사용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탄소발자국을 줄이고자 노력해 왔다. 동시에 동료 간에 상호 존중하는 호칭과 존댓말 사용을 장려하는 등 직장예절을 권장하며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왔다.

이 같은 노력에 Green 캠페인이 더해지면서 ESG경영의 실천을 향한 농정원의 발걸음은 더욱 더 속도를 내게 되었다. 실제로 그 이후 농정원은 PC전력 절감 프로그램인 '그린터치' 사용, 1인 1톤 온실가스 줄이기 참여, 1회용품 대신 텀블러 사용 등 탄소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친환경 프로그램을 실천했다.

2021년 11월에는 11월 한 달 동안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를 목표로 내세우고, '워킹 투게더', '시장가는 날'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워킹 투게더는 자동차 이용을 줄이고 걷기를 권장하는 운동이며, 시장가는 날은 전통시장 이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상생 운동이다. 농정원은 본원 인근의 세종대평시장과 자매결연도 맺었다.

이와 함께 전국의 농협 하나로마트와 손잡고 11월 11일부터 4일간 '저탄소·친환경 국가인증 농

식품 프로모션' 행사도 진행했다. ESG경영의 철학에 따라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면서 동시에 우리 농식품의 판매촉진에도 기여하기 위한 이벤트이다.

지속가능한 '농촌행복'의 동반자가 되고자

농정원은 2022년 5월 23일로 출범 1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농정원은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확산하고 국가 농정에 대한 신뢰와 공감대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역량 있는 농업전문인재 양성에 주력하여 우리 농업이 미래 성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놓았고, 우수 농식품과 우리 농산물에 대한 인식 제고와 소비촉진을 선도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을 증진하고 국민들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지원자의 역할도 훌륭하게 소화해냈다.

귀농귀촌을 지원하여 농촌에 활력을 심어주고 도농교류를 활성화하여 도·농이 동반자로 함께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하는가 하면, 활발한 국제교류와 우리 농기자재의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서도 앞장서 노력했다. 과학적인 농업통계를 운영하여 국가의 농업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최근에는 ICT가 결합된 한국형 스마트팜의 보급·확산과 해외진출에도 많은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설립 10년 사이에 이룬 성과라고 하기에는 믿기 어려울 만큼 농정원은 농업·농촌의 변화를 이끌면서 그야말로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

덕분에 농정원 자신뿐 아니라 국가 농업정책에 대한 농업계의 신뢰가 높아지고 농촌이 활력을 찾아가는 모습은 농정원에게는 크나큰 보람이라 할 수 있다.

2022.04.28.
농정원 정기 이사회 모습

지금도 농정원은 '농업경영 혁신과 농촌가치 확산으로 경쟁력 있는 농업, 행복한 농촌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170여 임직원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농정원 스스로가 지속가능한 기관으로 성장을 이루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행복을 이루는 길이라 믿고 끊임없이 혁신하는 자세를 잃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

농정원이 단기간에도 많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기관의 문제 해결에 합심하고 함께 고민하는 노사화합의 문화가 바탕이 되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노사화합의 기반 위에서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문화가 정착한 것은, 앞으로도 농정원이 기대해도 좋을 만큼의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한다.

2022년 5월로 농정원은 출범 10주년을 맞았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농정원은 30년의 역사를 가진 기관이기도 하다. 그만큼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농업계의 모든 이들이 농정원을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출범 1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농정원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행복한 농업·농촌'을 실현하는 기수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창립 10주년, 신 발전전략체계 수립

2022년 5월, 농정원은 출범 10주년을 맞았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농정원은 30년의 역사를 가진 기관이다. 그만큼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농업계의 모든 이들이 농정원을 주목하는 이유이다.

출범 10주년을 맞아 농정원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내부구성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전전략체계를 재정립했다. 새 발전전략체계에서는 '미래농업 선도와 농촌가치 확산으로 튼튼한 농업, 활기찬 농촌 실현'을 미션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농촌 혁신성장 동반자'를 비전으로 명시했다. 또 공정, 존중, 창의, 상생을 핵심가치로, 농산업 핵심인력 육성, 디지털 농업 선도, 농업·농촌가치 증진, ESG 경영혁신을 4대 전략목표로 설정해 공유했다.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농정원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행복한 농업·농촌'을 실현하는 기수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新 발전전략 체계

MISSION

미래농업 선도와 농촌가치 확산으로 튼튼한 농업, 활기찬 농촌 실현

VISION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농촌 혁신성장 동반자

핵심가치

공정	존중	창의	상생
Even-handed	Personal respect	Innovative creativity	Sustainable win-win

전략목표

농산업 핵심인력 육성	디지털 농업 선도	농업·농촌 가치 증진	ESG 경영혁신

개원 10주년 기념행사 및 심포지엄

2022년 6월 8일 농정원 설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0년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10년의 비전을 선포하는
10주년 기념식과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식전 행사로 기념석 제막식이 진행되었으며
농업계 인사들의 릴레이 축하 메시지를 상영하였다.
1부 행사에서는 향후 10년을 준비하는 비전 선포식과 조직문화 실천 선언문 발표가 이어졌다.
2부 행사에서는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농정원의 전략적 역할 도출'이라는 주제로,
농정원 개원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진행되었다.

주제발표 1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농정원의 전략적 역할 고찰
청년농업인 육성을 중심으로

발표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엄진영 연구위원

1. 대내외 환경

- 농가 호수 및 청년 농가 지속적 감소, 특히, 청년 농가 감소 속도가 일반 농가 감소속도보다 높음
- 전체 농업 경영주 중 청년농업인 비중 1.2%(2020년 기준)
- 농업종사가구원 중, 청년층 비중도 지속적 감소
- 농업인구의 고령화율은 급격히 증가
- 세계적으로 디지털 기술 확산과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농업·농촌도 디지털 기술 융복합을 통한 디지털 농업 확대 가능성

→ 농업 생산 지속성을 위해서 디지털 전환 등의 사회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세대,
청년 육성 절실

2. 청년농업인 실태

- 청년 농업 경영주 수준 지속적 감소, 최근 감소세 둔화
- 청년세대의 품목변화 : 채소·산나물, 과수, 축산 농가 비중이 높고, 시설농의 비중도 높음
- 청년농가의 영농규모는 양극화(농지 등 규모 차이)
- 농축산물 판매금액은 청년 농가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청년 및 중년농가의 겸업비율은 높게 나타남
- 청년 농업인의 주 재배 품목 특성 : 높은 수준의 재배 시설 및 자재가 필요
- 청년 농업인의 신기술 도입을 위한 모임참여 및 모임 조직의 주도적 역할 수행이 높음
- 스마트팜 농가의 농업경영주의 영농진입 평균 연령은 30대
- 청년 농업인 감소가 지속될 경우, 혁신농업인 양성 제약 예상
- 청년농업인 육성으로 농업생산 기반 유지를 통한 지속성 확보가 필요하며,
  신기술 및 농업경력을 축적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혁신 농업인 육성의 발판이 필요

3. 청년농업인 관련 정책

- 정부정책

구분	지원사업	세부정책
청년농업인 육성 및 정착	청년 농업인 육성정책	- 영농정착지원금 정책
	유입지원정책	* 대상자별 유입 지원정책 마련 - 농업계 학생, 청년귀농, 비농업분야, 예비 청년창업농으로 구분하여 필요정책 설계

구분	지원사업	세부정책
청년농업인 육성 및 정착	정착지원정책	* 청년창업농 선발 지원 체계 구축 - 청년창업농 지원 관리를 위한 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 청년창업농 생활지원 - 청년창업농 영농기반(농지, 자금) 지원 - 청년창업농 기술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성장 지원정책	* 기술 고도화 - 청년창업농 법인화, 자금 투자 연결 등 성장 유도

- 농정원 사업

구분	지원사업		세부정책
청년농업인 육성	학교교육지원사업		- 미래농업선도고교 지원사업 - 영농창업특성화대학 지원사업 - 농업계학교 교육지원사업
	인력 양성	안정정착 지원	- 현장실습교육 - 청년후계농 필수교육 - 청년귀농장기교육 - 귀농귀촌 맞춤형 공모교육 - 청년창업형 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혁신인력 양성	-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 2040세대 농업인 스텝업 기술 교육 - 첨단기술 공동실습장을 활용한 ICT첨단기술교육
	탐색 및 체험활동 사업		- 청년여성 농업농촌 탐색 교육 - 농업일자리 탐색·체험 교육 - 귀농귀촌아카데미
	그 외		- 농식품분야 해외인턴쉽 - 농업인 학습공동체

- 청년농업인 유입과 정착,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의 성과가 있었음
- 그러나, 여전히 청년 농업인 유형에 따른 정책 요구 차이 반영한 정책 설계 및 정책 체감도 향상이 필요
- 기존의 농업교육과 함께 혁신 농업인을 육성할 수 있는 교육 기능 강화 필요

4. 농정원의 전략적 역할 고찰

- 4대 전략 목표 12대 전략과제의 지속적 추진
- 농산업 인력양성과 교육사업 확대 및 강화
- 미래를 대비한 농업 전문(스마트)인력 양성 사업 강화 방안 마련
- 정책홍보역할 강화

주제발표 2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농정원의 전략적 역할 고찰
스마트팜

발표자 서울대학교 손정익 교수

1. 농업의 미래선장산업분야는

- 농식품사업 미래성장포럼 주제(2021년)
  데이터가 이끄는 농업의 미래 → ICT융복합 스마트농업
- 최근 스마트팜 주요 정책 기조
  윤석열 정부 100대 과제 중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71번 과제)에서 스마트농업기반 디지털 혁신 제시

2. 현황

- 국내 : 백색혁명이라 불리는 온실농업의 발전을 통해 고부가가치 작물 생산에서 수직농장까지 발전
  - 국내 온실면적은 세계 2위 수준
  - 그러나, 온실관리에 어려움이(데이터 수집 및 환경관리) 있어 효율성이 감소(생산성 및 품질저하, 필요 노동력 증가)
- 일본은 시설원예 및 식물공장 해외진출 가속화

- 중국 식생활 변화로 채소 소비량 급증으로 미국, 유럽, 일본 회사의 중국 진출 시작

3. 왜 스마트팜인가?

- 국내농업, 농촌 상황 및 주변 국가의 대응을 고려한 자본·기술 집약 농업생산체계로서 스마트팜 기술 개발 필요
  - 세계 스마트농업시장 규모확대 전망 : 2020년 기준 138억 달러 → 2025년 220억 달러 전망 (연평균 9.8% ↑)

4. 체계적인 접근

- 2018년 스마트팜 혁실 밸리 사업시작(상주, 김제, 고흥, 밀양)
  - 빅데이터 관리
- 스마트팜 관련 표준화
- 네트워크 농업 개념으로의 전환→ 글로벌 네트워크 농업

5. 고도화 스마트 기술 적용

- 스마트팜 복합환경제어
- 기후 특성을 고려 연중 작물생산 효율 증대
- 정교한 작물생육 예측 및 모델링
- 스마트팜 및 수직농장 광환경 관리
- 환경 및 생육정보 기반 생육 예측 및 제어

6. 농정원의 전략적 역할

- 농정원은 기본 역할로 데이터 수집 및 활용/데이터 인프라 조성/서비스 표준화 모델/청년창업보육 및 교육/스마트팜 보급 및 확산/스마트팜 전문인력 양성/수마트팜 수축 지원사업 수행
- 스마트팜 혁실밸리와의 효율적 연계
- 전략적 데이터 수집– 관리–활용

  * 농정원 수집 데이터+AI기술 활용 등으로 발전

토론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농정원의 전략적 역할 도출”

좌장 : 윤주이(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초빙교수)
토론자 : 나명환(전남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박덕수(과일판다 대표), 변동주(농정원 총괄본부장),
손정익 교수(서울대학교 식물생산과학부 교수), 엄진영 연구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산업혁신연구부 연구위원), 정영환(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 사무총장),
한형수(농민신문 편집국장)

윤주이 빠르게 변화하는 대내외 상황 속에서 농정원이 새로운 가치체계 정립과 역할을 찾아가는 뜻깊은 심포지엄을 여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그 자리에 좌장을 맡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주제발표 중 하나가 청년농업인 육성이었는데 현장에서 청년농업인으로 성장해나가고 있는 과일판다의 박덕수 대표에게 첫 토론을 부탁하겠습니다.

박덕수 사실 청년농업인으로 할 말이 정말 많은데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 꼭 하고 싶은 말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2018년 청년농업인육성사업의 수혜자로 선정되어 혜택을 받은 사람이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청년농업인육성지원사업은 최근 10년이내 시행된 농업정책 중 가장 혁신적인 정책이었다고 판단됩니다. 주제발표에도 나왔듯이 최근 청년농업인의 감소 추세가 조금 둔화된 것도 이 정책의 영향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이런 정책이 상속 토지를 보유한 승계형 청년층에게 집중 지원하는 것이 정책효율성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승계형 청년 농업인만으로는 청년농업인육성이 한계가 있으니, 토지 보유 없이 외부에서 유입되는 청년창업농도 지원해야하기 때문에 승계형과 창업농을 구분해서 지원정책을 조금 더 세밀하게 짜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즉, 창업농의 경우 기반 조성적 측면, 토지와 기술에 대한 집중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승계농의 경우는 부모와의 불화, 소통부재, 다른 부가가치를 발생시키지 못하는 성취감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생산시설 현대화나 6차산업화로 도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심포지엄 전에 농정원 청년농육성담당 실무자들과 다양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새로운 아이디어와 열정에 감동했고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윤주이 토지와 기술문제, 승계농이 가진 문제를 잘 지적해 주셨고 그에 대해 의미 있는 해결방안 제시에 공감합니다. 두 번째 발표주제에 대해서 정영환 사무총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영환 첫 번째 주제인 청년농업인육성과 두 번째 발표주제인 스마트팜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농정원에서 이 주제로 심포지엄을 추진해 주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주제를 고민할 때 정부와 농식품부 그리고 농정원과 농가는 어느 수준까지 감소할 것인가에 대해, 그리고 감소추세를 둔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청년농업인이 오지 않는 이유는 농업농촌의 가치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농업과 농촌에 대한 감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직업으로서의 가치는 있느냐는 것인데 농식품부만 아니라 전 부처가 협력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만 농업이 생명산업으로서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스마트농업을 아무리 확산시켜도 그 기술을 운용할 사람이 없는 문제를 고민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은 고령농가이지만 농사짓기 쉽고 직불금제도가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영이양을 늦추는 게 현실입니다.
고령농가가 청년층에 토지를 이양하고 고령농은 농촌에서 남아 살 수 있도록 정책을 해주고 청년농은 새로운 기술로 영농을 이어가야 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잡월드에 방문을 했었는데 그 수많은 직업관련 콘텐츠 중에 스마트팜이 없었습니다. K-디지털직업교육에서도 농업분야는 훈련기관이 없습니다. 농업을 직업으로 하는 전문교육기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농정원이 K-디지털 농업 직업교육을 하는 기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부와 협력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농업이 직업이라는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농업이 들어가야 합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청년농업인 유입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스마트팜에 있어 농정원의 역할이 무엇인가?
지금까지 장치중심 스마트팜이었다면 앞으로는 네트워크와 데이터 기반 영농으로 발전시켜야 경험 없이도 영농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 집중해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한형수 농정원이 향후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자리에서 청년농업인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가장 중심적인 주요 사업으로 정하신 것에 박수를 보냅니다.
농정원은 기관명칭처럼 청년농 중심의 농업인재육성 교육, 농업농촌의 가치, 빅데이터 농업의 세 가지 방향으로 중심으로 열심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얼마 전 대한상의에서 수도권 젊은이 300명에게 직업이 있다면 지방을 갈 수 있겠냐는 질문에 70% 이상이 싫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로 가족과 떨어지기 싫고 네트워크가 부족해서 지방으로 가기 싫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방에 가기 싫다고 답한 70% 이상의 청년들을 어떻게 농촌에서 농업을 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주이 저도 지방에 다니며 느낀 것이 지방소멸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방으로 가기 싫다는 70%의 청년을 유입할 수 있는 매력적인 농업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주 중요한 점을 말씀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전남대학교 나명환 교수님께 토론을 요청드립니다.

나명환 손정익 교수 발표에 덧붙여 농정원의 역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스마트팜이 중요한 것은 결국 데이터입니다.
다양한 기관에서 환경, 수확량 등 400여 가지 데이터가 쌓이고 있는 중인데 데이터 영역 확장이 필요합니다. 영상을 통한 생육형태, 역병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3D이미지 데이터 수집이 필요합니다.
노지에는 드론이나 인공위성을 통한 이미지 등의 데이터 영역을 넓혀 수집해야 하고 다른 기관에서 수집한 데이터가 있다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연구해야 합니다.
제가 3년 전 병해충 관련 이미지만 찍어서 판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급했더니 현장 농업인들이 말하기를 '결국 병이 난 다음에 무슨 병인지 알려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병이 나기 전에 증상을 분석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패 데이터분석, 데이터 품질 등에 대한 연구가 많이 필요합니다. 센서 계측의 차이로 인해 수집된 데이터가 쓸모없게 되고 버려집니다. 계측되는 데이터의 정확도, 안전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급된 센서의 품질확보가 필요하니 센서 등에 대한 인증기관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수집된 데이터 공유가 필요한데 로우데이터가 아니라 파생변수, 지식 데이터 등

가공 데이터 공유가 필요하고, 농정원이 그런 데이터를 서비스 해주는 기관이 되어야합니다.
청년농업인육성, MZ 세대가 농업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기회제공 필요합니다. 메타버스 내 가상농업경영 등을 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을 해주는 지원정책이 필요합니다.

윤주이 데이터영역 확대, 메타버스를 활용한 역할이 필요하고 농정원이 지금도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향후에 좀 더 세밀한 역할이 필요하다는 중요한 내용을 말씀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심포지엄을 주최하신 농정원의 변동주 총괄본부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변동주 먼저 제가 농정원에 부임하고 지난 1년간 고민했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주제발표로 제안해 주셔서 두 분 발표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년농업인지원을 위해서 단계별 교육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홍문표 의원이 인사말을 통해 했던 유렵에서 농사를 지으러 가려면 4가지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 등에 깊이 공감하며 여러 토론자분께서 주신 말씀 등을 고려해서 농정원이 청년농업육성과 스마프팜 확산에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윤주이 주제발표와 토론을 다 들으신 플로어에서 질문받겠습니다. 다른 생각도 좋고 질문도 좋습니다.

신원상 엄진영 연구원님과, 박덕수 대표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농업기술교육을 하는 곳이 많은데 농정원이 어떤 차별점을 갖고 교육해야 하는지를 여쭙고 싶고요. 또 하나는 교육만 하면 후계농이 영농정착할 것이다는 정책에는 사람의 특성이 농업노동의 하나의 요소로만 보는 것이 강한 것 같은데 농촌에서 청년농으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보완점을 말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덕수 교육만 받으면 영농정착이 가능한가 무엇이 더 필요한가의 질문은 사실 소득안정화 단계 이후에 할 수 있는 고민이어서 지금은 우선 정착을 먼저 고민할 단계다고 말씀드립니다.
그중에 우리의 청년창업농이 창농 이전에 예비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니 장기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 현장교육의 경우는 아직 도제 형식이 가장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청년농업인지원정책이 5년이 되었으니 처음 지원받아 성공적 정착을 하신 청년농을 발굴해 지역(광역) 별로 거점교육기관 협력이 필요하니 농정원이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현장 농업인들에게 들어보면 거의 많은 분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받는다고 말합니다. 다른 교육기관의 교육은 정보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기관들을 네트워크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자체-교육기관-청년농업인, 후계농업인을 엮어주는 일이 농정원 일이 되어야 합니다.
청년농이 독립경영체를 운영하기 전 단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정부와 농정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사례가 청년농지원정책에 있어 준비기를 참고할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 부분이 부재합니다.

손정익 데이터 기반 재배기술 교육으로 교육 차별화를 해야 한다는 게 농정원의 향후 과제라고 봅니다. 기술이 없이도 창농을 하면 데이터 기반 재배기술로 재배가 가능하도록 하는 교육이 향후 농정원의 차별화된 교육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도 연구에서 200농가를 수집했지만 그중 20농가의 데이터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농가의 일지와 상황이 맞지 않아서 사용하지 못하여 생육모델링을 못했습니다. 수집목적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데이터 수집이 무용할 수 있으니 데이터 품질을 높여 데이터 재배기술을 모델링 해야 합니다.

이경개 데이터수집과 품질에 대한 기관과 민간의 역할을 어떻게 상생적으로 구분하는 게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이강오 유효성 있는 데이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하는 400농가에서 하루에만 720만 건이 수집되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수집해야지 서비스할 수 있는 가공데이터로 만들 수 있을지가 고민입니다.

나명환 데이터를 민간과 공공기관이 수집한 것인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데이터 품질을 높이는 체계 수립인데 이는 공공기관이 해야 하고 그것을 농정원이 하고 센서에 대한 인증이 반드시 필요하니 그 역할도 필요합니다.

윤주이 여러분 오늘 심포지엄을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저는 지금 시점에 매우 유익한 심포지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는 청년농 3만 명 육성을 5년 동안 이루겠다는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1년에 6,000명을 육성한다는 것인데 쉽지만은 않겠지만 농정원이 정부, 관계자 등과 협력하여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 심포지엄을 마칩니다.

환경변화를 기회로 삼아 행복한 농촌 실현

이종순 | 농정원 원장

Q.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시기에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농정원 임직원은 물론 전국의 농업인들과 인연을 맺게 돼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지만, 한편으로는 중책을 맡은 것에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Q. 농정원이 기관 통합 1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농정원은 꾸준히 역할을 확대하며 많은 성과를 이루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농정원은 설립 이래 농식품 분야의 교육·홍보·정보화 촉진 등의 업무를 일관되게 추진해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존 업무에 국한되지 않고 급변하는 농업 환경과 이에 따른 정부 정책의 변화, 그리고 농업·농촌 현장의 수요에 맞춰 확장성 있게 기관을 운영해 왔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농·전문농의 육성 및 정착, 귀농귀촌 활성화, 농식품 소비가치 확산, 스마트팜 확산, 빅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농업·농정 서비스 체계 구축, 농업분야 국제협력 강화 등 많은 성과를 이루어 왔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농업·농촌에 다가온 변화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Q.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우리 농업의 현실을 보면 앞으로 농정원이 해야 할 일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점에 역점을 두고 운영해나갈 생각이신지요?

농정원은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행복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공공기관입니다. 따라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그리고 우리 농식품의 소비 가치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둘 생각입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 청년세대 영농 정착 확대와 귀농귀촌 활성화를 촉진할 것이고, 이는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또 이들이 생산한 농식품의 소비유통 활성화로도 연결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선순환 체계의 기반이 구축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농정원은 농업인이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면서 행복한 농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맡은 바 사업 추진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Q. 평소에도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홍보'를 자주 강조하시는데,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란 어떤 의미인지요?

농업·농촌의 가치와 기능은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하는 생산적 기능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환경 보전, 지역사회 유지 등을 통해 사회통합과 포용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측면의 공익적 가치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봐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농정원은 기관의 특화된 역량과 사업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농업 본연의 공익적 기능을 제대로 전파하고, 미래세대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농업의 새로운 가치 발굴과 확산에 앞장섬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Q.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은 농업 분야에서도 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해나갈 생각이십니까?

농업 분야는 농가 인구감소와 고령화, 농축산물 시장 개방, 이상 기후 등의 국내외 이슈에 대응하는 게 시급합니다. 디지털 전환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생산성·편의성을 향상시켜 농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첨단 농업의 확대는 젊고 우수한 인재의 농촌 유입과 청년실업 해소에도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동안 농정원은 농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스마트팜 보급·확산과 데이터 기반 농가의 생산성 향상에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ICT를 활용한 혁신성장 사업이 확대되는 추세에 발맞춰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해 디지털 농업의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축적해온 스마트팜 보급 성과를 민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데이터 활용 모델을 발굴하고, 농가 활용 지원사업을 통해 농가에 필요한 데이터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Q.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수요도 커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해나갈 계획이신지요?

그동안 농정원은 국민들의 건강한 먹거리 소비를 위해 유용한 농식품 정보를 제공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국내 농산물의 소비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연령대에 맞춘 맞춤형 소비정보를 제공해 왔고, 최근에는 코로나19 이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농산물 소비 트렌드, 명절 선물 소비 트렌드, 과일 소비 변화 등 국민의 식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소비 트렌드까지도 분석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보유한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을 통해 우리 농산물의 가치와 건강한 제철 농산물을 소개하는 활동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문화 정착과 우리 농식품의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발굴하고 서비스하는 데 심혈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Q. 우리 사회에서 '청년농'과 '귀농귀촌'이 꾸준하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농정원의 역할도 중요해질 텐데, 이 사업들은 어떤 그림을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실 생각이신지요?

최근 청년농이 많아지고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농촌에 활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농정원은 이 흐름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청년농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 임대 등을 연계하여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농지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협력하여 청년농들의 안정적인 농지 확보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농귀촌에 있어서는 귀농귀촌 통합플랫폼을 기반으로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또 '농촌에서 살아보기' 등 현장 변화와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지원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여 시행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농업 분야에 더 많은 인력 유입을 촉진하여 고령화된 농촌의 성공적인 세대교체를 이루는 초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Q. 말씀하신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면 직원들의 역량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조직 및 개인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농정원과 직원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농정원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기능을 다하려면 우리 직원들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과 농업·농촌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배려와 공정, 현장 중시의 업무스타일이 농정원의 고유문화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농정원의 모든 임직원은 '3농(農) 중심주의' 정신으로 무장하도록 주문하고 있습니다. 3농이란 농업·농촌·농민을 뜻하기도 하지만, 다산 정약용 선생이 말한 편하게 농사짓는 편농(便農), 농업에 이득이 되는 후농(厚農), 농민의 지위를 높이는 상농(上農)의 뜻도 있습니다. 농정원이 하는 모든 사업이 농업·농촌·농민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편농·후농·상농을 실현하여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지를 항상 염두하는 문화를 정착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농업인과 소통하면서 현장 중심의 사업추진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Q. 기관 통합 10주년을 맞아 임직원에게, 혹은 농업 종사자와 관계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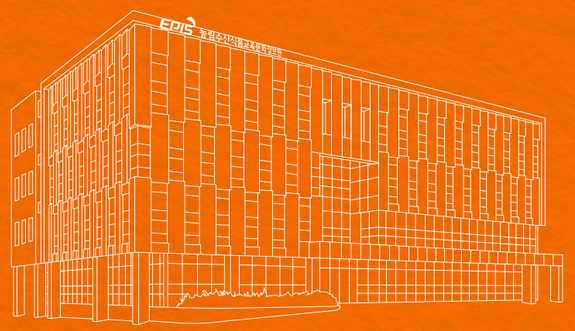
지금은 코로나19, 탄소중립 등 전 세계를 아우르는 이슈도 많고 예측할 수 없는 위기요소도 많은 때입니다. 그렇다보니 변화의 속도도 빨라져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많지만, 달리 생각하면 변화는 또 다른 기회이기도 합니다.

저는 모든 임직원이 이런 변화의 흐름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고 능동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하여, 우리 농업·농식품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성과 창출에 매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농민은 물론 모든 국민이 우리 농업·농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농정원은 농식품 서비스 전문기관으로서 농업·농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농정원이 그러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농업인은 물론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성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Part 3.

PRESENT 사업현황

농정원은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인재양성교육과 농식품 소비 확산을 위한 분위기 조성, 농식품 ICT 융복합 촉진 등을 지원하며 글로벌 통상 정책에 대응하고, 귀농귀촌의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CHAPTER 1.
인재양성본부

CHAPTER 2.
농식품소비본부

CHAPTER 3.
지식융합본부

CHAPTER 4.
국제협력처

CHAPTER 5.
귀농귀촌종합센터

CHAPTER. 1

인재양성본부

농업·농촌 활성화의 핵심은 '사람'이기에

인재양성본부는 농업전문인력을 육성하고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을 수행하며 농업인력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1. 인재양성본부 개요
2. 농업계 교육기관 지원 및 운영
3. 농업인력 전문성 제고 교육
4.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5. 농업·농촌 활성화 위한 지원
6. 농업교육포털 운영 및 온라인 교육 확충

01. 인재양성본부 개요

어떤 일이든 '사람'이 중요하다. 농업·농촌의 가치를 전파·확산하고 농촌의 활성화를 실현하는 일도 사람이 핵심이다. 어떤 계획이 성공하려면 그 일을 해낼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말과 같다. 농업·농촌의 활력을 높이려면 좋은 인재가 양성되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인재양성본부가 농업인력 양성에 나서는 마음가짐이다.

인재양성본부는 말 그대로 농업인재 양성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김기주 본부장 직무대행을 비롯하여 인재기획실, 전문인재실, 미래인재실, 일자리지원실 등 4실에 정원 34명의 인사·교육 전문가들이 이 일을 수행하고 있다.

인재양성본부의 업무는 광범위하다. '사람'을 '인재'로 만드는 과정이 간단하지 않고, 필요한 인재의 역량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인재양성본부의 업무를 요약하면, 농업·농촌 교육훈련 지원, 농업마이스터 지정·관리, 농고·농대 지원, 현장실습교육, 농식품 전문인력 육성, 여성 농업인 양성, 농업인 취·창업 및 청년후계농 육성 지원, 농산업 취·창업 캠프 운영 등이다. 농업인 교육의 산실이라 할 수 있는 '농업교육포털'도 운영한다. 농업교육포털은 최근 비대면 과정을 확대하는 추세이다.

그 외에도 인재양성본부는 원산지 표시 위반자 교육, 농촌인력 고용지원 사업, '농업회의소' 설립 지원, 농업경영컨설팅 제공, 농업교육 통합상담센터 운영 등 농업·농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1.
고등학생
현장실습교육

02. 농업계 교육기관 지원 및 운영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려면 미래농업인의 육성이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인재양성본부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미래농업의 주역이 될 농고·농대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

최근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2016년에 시작한 '영농창업특성화과정'이다. 고교과정에서는 미래농업선도고교, 대학과정에서는 영농창업특성화대학을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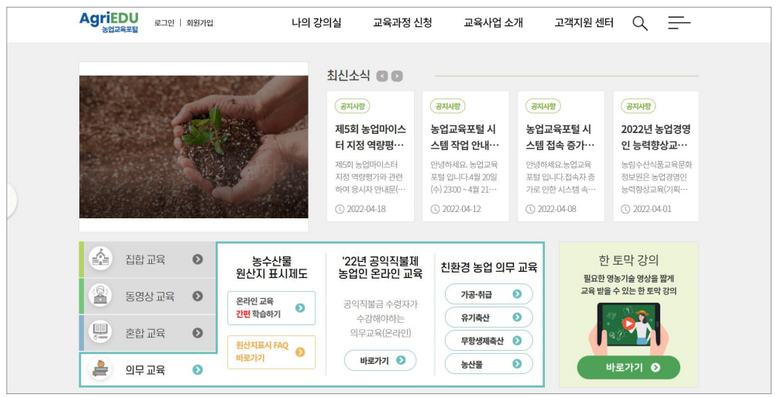
미래농업선도고교는 영농의지가 있는 학생을 선발하여 농업직업교육을 정규과정으로 편성한 후계인력을 양성한다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홍천농고, 충북생명산업고, 호남원예고 등 3개교이며, 학생 수는 2021년 기준 689명이다. 영농창업특성화대학은 기존 농대에 현장실습이 강화된 영농창업 특별과정을 운영하여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청년창업농을 육성한다는 목적으로 시작됐다. 연암대, 충남대, 전북대, 전남대, 경북대 등 5개교에 학생 수는 466명이다.

이들 학교는 영농 실무능력 배양을 위해 국내외에서의 현장실습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농고의 경우 2~3학년 대상 실습학년제를, 농대의 경우 3~4학년 대상 실습학기제를 적용해 심층적이고 집중적인 실습 기회를 제공한다. 또 해외 현장실습 연수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다만 최근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실제 해외연수 대신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 현장실습을 대체하고 있다.

인재양성본부는 이들 학교에 대해 운영성과, 취·창업률, 우수사례 등을 평가하여 지원한다. 또 성과가 미흡한 경우 성과 개선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한다.

한편, 농고·농대생의 농산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농업계학교 교육 지원사업도 계속되고 있다. 농고의 경우 취·창업 마인드와 농산업분야 직무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실무 중심으로 직업교육을 운영한다. 농대의 경우는 스마트팜과 드론 등 첨단농업 지식 함양을 위한 교육에 역점을 두고 농산업분야 취·창업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산업분야 취·창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세대융합 영농창업, 산학연계, 융복합 특화 교육 등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영농창업 캠프, 영농창업 컨설팅, 취·창업 캠프, 미래농업캠프 등 실전 취·창업 캠프도 다양하게 운영한다. 농고·농대에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영농창업 인큐베이팅 등 실습에 도움이 될 ICT 시설도 지원한다.



'농업교육포털' 메인 화면

03. 농업인력 전문성 제고 교육

농정원이 시행하는 농업인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현장실습교육(WPL: Work Place Learning)이다. 현장실습교육이란 이론교육장과 실습장 등을 갖추고, 선도농업인이 보유한 전문기술과 핵심노하우를 후발농업인에게 전수하는 현장 실습형 교육을 말한다. 각 품목의 베테랑 농업인들과 전문가들이 현장교수가 되어 직접 실시하는 맞춤형 멘토 교육이라는 점에서 교육생의 수요와 만족도가 높다.

인재양성본부는 교육생의 여건에 맞춰 다양한 현장실습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1) 선도농업인을 활용한 현장 맞춤형 실무역량 개발

먼저, 품목별로 전 작기(파종·재배·수확 등)를 실습할 수 있는 100시간 이상의 장기 교육과정을 68개 과정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청년농·귀농인 등 신규 농업인의 조기 영농 정착을 위해 240시간 교육하는 창농인큐베이팅 교육과정도 3개 과정으로 늘렸다. 창농인큐베이팅은 실습장 일부를 독립경영공간으로 제공하여, 생산에서부터 판매에 이르는 작기 전체 과정과 농업경영 전반에 대해 현장실습 교수와 도제식으로 실습교육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선도농업인의 핵심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여 후발농업인의 현장문제를 해결하고 경영·기술역량을

2018.11.26.~27.
2018년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서 수여식 및
현장교수 역량강화
워크숍

강화하고자 하는 '선도농 멘토링'도 멘토링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교육대상별로 맞춤형 교육으로 운영되고 있다.

(2) 첨단 농업기술 역량강화

첨단 농업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첨단기술 공동실습장을 통한 농업생산 디지털화 촉진 교육은, 지정 실습장 12개소에서 첨단 ICT 설비를 활용하여 교육하고 있다.

최근에는 선진국 수준의 전문농 양성을 위해 '첨단기술품목특화 전문교육'이 도입되었다. 우선은 ICT 활용 경력 3년 이상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토마토, 딸기, 포도, 파프리카, 버섯 등 5개 품목에 대해 ICT 첨단기술을 적용한 현장 문제 해결형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점차 대상과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3)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2009년 처음 시작된 '농업마이스터대학'은 전문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고급과정으로, 전국 9개 대학 30개 캠퍼스에서 100개 전공이 운영되고 있다.

2012년부터는 '농업마이스터 지정 제도'를 도입해 성공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농업마이스터는 해당 분야의 고급 기술·지식과 경영능력을 갖추고, 다른 농업인에게 전문적인 농업경영, 기술교육 또는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지도력 있는 농업경영인을 말한다. 소정의 심사·평가를 거쳐 선정한다. 2012년 제도 도입 이후 2013년에 처음으로 102명이 농업마이스터로 지정이 되었고, 그 후 격년제로 지정이 이루어져 2020년까지 총 224명이 지정되었다.

(4) 학습조직 단위의 문제해결형 교육

중급 수준의 2040세대 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기술 향상과 현장문제 해결능력 배양을 위해 '2040세대 스텝업 기술교육'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2020년 시범 도입한 이후 참여자들의 호응이 높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이 교육은 2040세대 농업인 학습조직 단위의 교육으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과제로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학습조직 맞춤형 교육과정이다.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영농기술교육, 현장방문지도, 전문가 초청교육, 학습조직활동이 이루어진다. 학습조직별로 154시간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한다는 점이 타 교육과정과의 차이점이다.

대상 품목은 2020년 토마토, 딸기, 사과, 포도 등 4개 품목에서 2021년에는 수박·참외·장미가 추가되어 7개 품목으로 늘었고, 학습조직의 수는 2020년 12개 학습조직 73명에서 2021년에는 18개 학습조직 102명으로 확대되었다.

04.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창업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 임대 지원 등을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지속적으로 농업 분야에 진출하도록 촉진하여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를 완화함으로써 농업 인력구조를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최장 3년 동안 월 최대 10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이 지급되고(2차년도 90만 원, 3차년도 80만 원으로 연차별 차등지급), 농지 임대 우선지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우대보증, 영농기술 교육 등이 패키지로 지원된다. 특히 소득이 불안정한 영농 초기 청년창업농에게 제공되는 영농정착지원금은 많은 청년농들을 성공한 경영주로 만드는 데 큰 힘이 되었다. 이들의 성공사례가 인터넷 등을 통해 퍼져나가면서 지원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지원사항이 적지 않은 만큼 선발과정은 엄격하다. 지자체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50%씩 추천한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원자로부터 5개년 영농계획서를 제출받아 영농목표와 영농계획의 구체성·실현가능성, 생산·경영·판매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한다. 지금까지 이 사업으로 지원한 인원은 2022년 지원대상을 포함하여 누적 기준으로 8,600여 명에 이른다.

인재양성본부는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스스로 작성한 영농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펼친다.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컨설팅과 전담 콜센터 운영에서부터 지자체 현장지원단 지원, 간담회, 유통·판로 지원에 이르기까지 현장 밀착형으로 지원한다. 지금은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기간이 경과된 청년후계농에 대한 사후관리체계를 개선하는 중이다.

2022.04.07.
2022년 청년후계농 선정자 역량강화 교육

05. 농업·농촌 활성화 위한 지원

인재양성본부가 하는 일 중에는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행하는 지원사업이 있다. 그중 하나가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다.

인재양성본부는 농업·농촌에 활력을 심어주고 인력부족 문제 해소에 도움을 준다는 취지에서 농산업 분야의 다양한 일자리와 창업 정보를 제공하는 '도·농 일자리 중개 서비스' 사이트를 개설하여 도시 구직자와 농가 간의 일자리를 연결하고 있다. 인재양성본부는 이 중개 사이트를 2022년까지 인력중개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업경영체의 역량 향상 및 농업분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청년층의 영농정착 확대 및 신규인력 유입을 촉진한다는 취지에서 농업법인 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도 펼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인재를 찾는 기업과 청년구직자를 연결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농림축산식품 일자리 박람회'도 개최하고 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을 감안하여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했는데, 2021년의 경우 5만여 명이 방문해 1만 1,000여 건의 상담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역사회에서 '농업회의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한다. 농업회의소는 지역의 농업인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민의를 수렴하고 농정에 참여하며 지역의 농업문제를 해결하는 자율적인 대의기구이다. 2010년 시범사업이 시작된 이후 농업회의소를 도입하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인재양성본부는 지역사회가 설립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간 주도의 농업회의소를 설립하여 지역공동체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농업경영체의 역량을 진단하고 역량 수준에 따라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활동도 펼치고 있다. 전문역량을 갖춘 민간의 전문 컨설팅업체들 중에서 선별하여 인증한 후, 컨설팅을 신청한 경영체에 인증된 컨설팅업체를 추천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받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재양성본부는 적절한 컨설팅이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하고 경영체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등 컨설팅품질을 관리하고 있다.

'도·농 인력중개 서비스' 메인화면

06. 농업교육포털 운영 및 온라인 교육 확충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은 인재양성본부가 운영하는 우리나라 농업교육 최대·최고의 교육시스템이다. 2022년 4월 기준으로 회원 수가 32만 명을 넘어설 만큼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사용자의 활용 정도를 보여주는 페이지뷰는 무려 누적 기준으로 4,200만 뷰가 넘는다. 이 포털에 참여하는 운영기관도 1,143개에 달하고, 교육과정은 온라인 235 개, 오프라인 6,000개가 넘는다. 연간 교육수료자가 온·오프라인을 합쳐 50만 명을 넘는다.

이 때문에 농업인들 사이에서는 "농업인들이 반드시 봐야 할 웹사이트 3개 가운데 하나"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평가가 좋다. 최근에는 참여형 화상교육과 혼합교육(집합+온라인) 등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해 적용했다.

인재양성본부는 2021년 9월 농업교육포털을 개편하여 새로 선보였다. 이번 개편에서는 연령대가 높은 사용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환경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정보기술 취약층의 편의를 높이고자 간편로그인 기능을 도입했다. 신규로 도입된 온라인 교육 기능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 분류별 정보를 전면에 배치하고 기타 콘텐츠 노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디자인도 전면 개선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전환된 공익직불제교육 등 농업인 대상 의무교육을 비롯해 학습자 이용빈도가 높은 교육과정은 바로가기 버튼을 이용하여 보다 편리하게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인재양성본부는 '차세대 농업교육포털 스마트 2.0'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최신 IT 기술을 활용한 가상 농업실습교육을 제공하고 학습자 맞춤교육 추천하는 등의 기능이 탑재될 전망이다. 이 포털이 완성되면 농업교육의 비대면 실습교육이 확대되고, 농업인들의 평생 교육 관리를 위한 디지털 기반이 갖춰지게 된다.

한편, 전체 교육과정에서 집합교육의 비율이 월등히 높지만,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온라인교육 콘텐츠를 크게 확충했다. 특히 교육생의 교육수요를 반영하여, 청년농과 귀농희망자 등이 상시학습, 반복학습이 가능하도록 2022년 4월 기준으로 260개 과정의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2021년 12월에는 농업계 학교, 단체·협회, 농업교육협의회, 농업교육위탁 운영기관, 농업인 등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농산업 온라인 공개강좌 콘텐츠 플랫폼 '한토막 강의(마이크로러닝)'를 구축해 운영을 시작했다. 인재양성본부는 이 플랫폼의 품질관리와 생성·폐지 등 이 플랫폼의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할 방안을 담은 운영매뉴얼을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CHAPTER. 2

농식품소비본부

농업·농촌 가치 확산과 농식품 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농식품소비본부는 농업, 농촌의 가치 공감대와 농식품 소비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며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1. 농식품소비본부 개요
2. 농업·농촌 가치 및 도·농 교류 홍보
3. 도시농업 활성화 및 동물복지 지원
4. 농식품 소비 촉진 홍보
5.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운영

01. 농식품소비본부 개요

농식품소비본부는 농업·농촌·농식품의 공익적 가치를 널리 홍보하여 이해를 높임으로써 도농상생(都農相生)의 가교 역할을 하는 조직이다. 폭넓은 홍보활동을 통해 우리 농식품의 소비를 촉진하여 농업인의 생산의욕을 제고하고 판매기반을 확보함으로써 농업·농촌의 활력을 증진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이러한 임무를 다하기 위해 농식품소비본부는 도·농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도시농업을 장려하며, 식생활교육 홍보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우리 농식품의 소비촉진을 위해 소비자단체와의 협력도 공고히 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성숙한 반려동물 양육문화 조성을 위한 동물보호복지 교육홍보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농식품소비본부의 조직명칭은 기관 출범 초기에는 '가치확산본부'였다. 초기에만 해도 농식품·농촌의 가치를 홍보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이후 농식품 소비촉진 지원, 농식품 안전성 홍보, 식생활 교육 등 농식품 소비 관련 업무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그에 맞게 조직명칭을 변경했다.

2022년 3월 현재 농식품소비본부는 가치홍보실, 소비전략실, 소비문화실, 도농공감실, 그리고 동물복지팀 등 4실 1팀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본부 정원은 김백주 본부장 포함 32명이다.

농식품소비본부는 다음의 5가지 전략방향을 설정해두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확산 및 농정 공감대 형성
② 우수 농식품 인식 제고 및 소비촉진
③ 주요 농산물 소비촉진 및 건전한 식생활 확산
④ 대국민 소통 및 도농교류 활성화
⑤ 성숙한 반려동물 양육문화 조성

이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농식품소비본부는 자체적으로 구축한 홍보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농식품소비본부가 직접 운영·관리하는 홍보채널은 농업·농촌 전문 유튜브 채널 '스마트팜TV', 우리 농식품 정보를 제공하는 소비자 소통 플랫폼 '농식품정보누리', 농식품 전문 매거진 『농식품 소비공감』, 그리고 각종 SNS 등이 있다.

스마트팜TV의 구독자 수는 2021년 말 기준으로 1만 7,524명을 기록했고 유튜브 누적 조회수는 933만 회

『농식품 소비공감』
2021 가을호 vol.33

를 넘어섰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13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정보사이트 가운데 농정원이 구독자수, 조회수, 영상콘텐츠 수에서 1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 밖에도 농식품소비본부는 각종 출판물, 영상물, 포스터 등의 홍보 툴(tools)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고,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각종 이벤트 프로모션 방식의 홍보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또 기존의 TV 및 라디오 방송, 신문·잡지, 인터넷(포털, SNS 등), 홈쇼핑 채널 등 대중적 기반을 가진 미디어도 사안에 따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02. 농업·농촌 가치 및 도·농 교류 홍보

농정원은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농식품 서비스 전문기관'으로서 '경쟁력 있는 농업, 행복한 농촌'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농업·농촌의 가치를 널리 홍보하고 상호 교류하는 상생의 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정책고객들에게 농정(農政) 현안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확보하는 홍보활동도 전개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홍보 채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스마트팜TV 등 농정원이 보유한 자체 채널과, 지상파 방송, 인터넷 포털 등 외부의 채널이 모두 해당된다. 주요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기도 하지만, 외부 미디어를 활용하여 취재·제작을 지원·협찬하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파하는 경우가 많다. 국민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체험활동을 통해 농업·농촌 가치에 공감하고 도시와 농촌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전시·박람회, 사진이나 아이디어 등 각종 공모전 행사도 실시한다.

메시지의 내용은 1차적으로 농업·농촌 가치 확산에 맞춰져 있다. 농업·농촌이 건강하게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이 얻을 수 있는 편익과, ICT 융복합 기술 도입 및 6차산업화로 우리 농업이 변화하는 모습을 메시지에 담았다.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ODA 및 식량원조, 스마트팜, 농식품 수출 등 'K-농업'의 성과를 홍보함으로써 우리 농업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하는 내용도 크게 늘었다.

2020년 KBS 다큐온 프로그램에 방송된 '농촌, 사회적농업과 만나다' 편은 농업·농촌 가치 확산 홍보의 새로운 지평을 보여주었다는 찬사를 받았다. 사회적농장 사례를 소재로 하여, 치유·힐링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사회적 약자 돌봄 등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제시함으로써 감동을 불러왔다.

일상에서 흔히 느낄 수 있는 농업·농촌 가치 홍보를 위해 2020년 시작한 '#농-업그레이드 캠페인'도 큰 호응 속에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에 활력을 주는 농업·농촌의 긍정 이미지를 전하고자 시작한 이 캠페인은 2020년 일자리편, 2021년 친환경편과 먹거리편 등의 시리즈로 진행해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최근 미래세대인 MZ세대를 메인타깃으로 설정하여 진행한 '농업·농촌으로 갓생하루' 캠페인은 그야말로 '공전의 히트'라는 말이 나올 만큼 엄청난 화제를 모으며 사회 곳곳으로 파급되었다. 일상 속 농업가치를 체감하며 농업·농촌 가치에 공감할 수 있도록 영상으로 구성한 것인데, 인터넷에서 SNS, 블로그 등을 통해 재확산되면서 캠페인의 효과도 커지고 있다.

2020.
제9회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
온라인 홍보영상

도농교류를 촉진하고 생활 속 농업에 대한 도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개최하는 '대한민국 도시농업 박람회' 홍보에는 별도 홈페이지도 운영한다. 또 학교텃밭 체험활동이나 도시농업교육,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 등 도시농업 확산을 위한 홍보도 강화하여 도시민에게 인성 함양 및 힐링의 계기를 제공하고 농업의 중요성도 재인식하게 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03. 도시농업 활성화 및 성숙한 반려동물 양육문화 조성

도시농업이란 도시 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행위로,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농사행위를 뜻한다. 2011년 농정원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도시텃밭 조성, 도시농업 홍보, 민간참여 체험행사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2012년부터는 '대한민국 도시농업 박람회'를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2012년 제1회는 서울특별시, 제2·3회는 대구광역시, 제4회는 전라남도 순천시, 제5회는 광주광역시, 제6회는 경기도 시흥시 등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했다. 다만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의 유행 여파로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했다.

2015년에는 도시농업 포털 '모두가 도시농부' 사이트를 오픈해 도시농업의 저변 확대 및 참여 유도를 위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듬해인 2016년에는 국가전문자격제도인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제도를 신설했다. '도시농업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개정안을 공포하여 도시농업 교육·홍보 인프라 확충 및 관련분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최근 들어 도시농업에 대한 도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시농업 참여자 수가 급증하여 2021년 말 현재 185만여 명에 이르고 도시텃밭 면적도 1,060ha에 달한다. 도시농업관리사의 수는

2021.
온라인으로 진행한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

2021년 말 기준으로 7,760명이며, 중학생 대상 학교텃밭 체험 프로그램에는 이미 70여 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다.

한편, 농식품소비본부는 동물보호복지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숙한 반려동물 양육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2017년 9월 건강한 먹거리에 관심 있는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인증 농장 체험행사를 진행한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도는 소·돼지·닭 등 농장 동물의 복지를 보장하는 농장을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2018년에는 농정원이 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농식품소비본부가 중심이 되어 동물의 보호·복지, 교육·상담 등의 서비스를 전담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2019년에는 맹견 소유자에 대한 의무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고, 2020년부터는 동물보호복지 분야의 실태조사 담당 기관으로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2021년에는 동물복지팀을 신설하여 동물보호복지 분야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정책적 중요성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체계를 강화했다.

이처럼 역할과 기능이 확대·강화됨에 따라 2021년부터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성숙한 반려동물 양육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동물보호복지 교육 및 정보 나눔을 위해 온라인 교육 포털 '동물사람 배움터'를 새롭게 신설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동물사랑 배움터에서는 반려동물 양육가이드를 비롯한 교육교재와 교육콘텐츠, 홍보콘텐츠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 어린 시절부터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초등학생 대상 교육과정도 신설하여 제공하는 한편, 동물등록제 활성화, 펫티켓 준수, 동물보호복지 공익광고 제작 등을 통해 국민들의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인식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2022년 4월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동물학대 예방, 국민 대상 입양 전 교육 확대 등 관련 분야에서 농식품소비본부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04. 농식품 소비 촉진 홍보

농식품소비본부는 ①농식품 소비정책에 대한 소비자 공감대 확산, ②농식품 국가인증제도 및 관리정책에 대한 홍보, ③국산 농산물에 대한 긍정 인식 확산을 통한 소비촉진, ④식생활 교육을 통한 국산 농산물 소비 유도 등 크게 4가지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 중이다.

우리 농산물·농식품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려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홍보활동이다. 최근에는 식량안보의 기본이 되는 쌀과 밀, 콩 등 전략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여 안정적인 식량수급의 기반을 구축하고 농촌의 소득도 증진함으로써 도농상생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농식품소비본부는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농식품 소비 정책을 확산하기 위한 전략을 기획하고, 농식품 소비 정책에 대한 홍보, 고품질·안전 농식품 관련 정책 홍보, 농식품바우처에 대한 홍보 및 교육 등 식생활 소비 관련 주요 정책·제도의 홍보와 운영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 소비정책에 대한 소비자 공감대 확산을 위해 소비자단체들과의 정책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PLS제도 전면 시행에 따른 우리 농산물의 신뢰 제고를 위한 홍보를 펼치고 있다. 코로나19 등 전염병 문제, 먹거리 안전 이슈 등 갑자기 발생하는 부정 현안에 대응하여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대형 마트, 인터넷 쇼핑 등 유통망과 연계한 농식품 소비 확산 활동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쌀 소비 확산을 위한 활동은 초기부터 역점을 두었던 분야인데, '아침밥 먹기'처럼 올바른 식문화와 연계한 캠페인 홍보를 펼치는가 하면, 쌀에 대한 다양한 품종 정보 홍보를 실시하고 요리 레시피를 개발하여 출판물 또는 콘테스트 등의 방식으로 전파하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최근에는 초등학생 대상 '쌀 맛나는 학교'를 선정하는 사업과 대학생 대상 '천원의 아침밥' 캠페인도 전개하고 있다.

2019.12.04.
2019 쌀 중심 교육
학교 및 아침간편식
사업 시상식

이를 통해 쌀 중심의 식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쌀 외에도 수입의존도가 높은 밀, 콩 등 잡곡류에 대한 소비 진작을 위해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거나 온라인 프로모션을 전개해 농가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상황에서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부케 챌린지 캠페인, 정기구독 프로모션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용한 이벤트를 열어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이 캠페인은 농식품 혁신 정책콘서트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한편, 농식품사업본부는 '농식품정보누리'라는 매우 중요한 농식품 종합정보망을 운영하고 있다. 2013년에 그때까지 운영하던 '농식품안전정보시스템'을 확대 개편하면서 명칭도 바꾸었다. 개편 직후인 2014년에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은 실속 있는 웹사이트이기도 하다. 2015년에 유관기관들과의 협의에 따라 관련 정보망을 연계·통합하여, 농식품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의 종합정보망으로 발전했다.

농식품정보누리 서비스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식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농식품 안전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소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국민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합리적인 농식품 소비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05.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운영

농식품소비본부가 담당하는 주요한 업무 중 하나는 '대한민국 농업박람회(Korea Agriculture Show)'를 운영하는 것이다. 2019년 11월 22일부터 3일 동안 서울aT 센터에서 열린 제1회 행사 때부터 농식품소비본부가 맡아 운영하고 있다.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는 농업의 현재와 미래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종합 박람회라 할 수 있다. 농업기술 박람회, 귀농귀촌 박람회, 말산업 박람회, 축산물 브랜드 페스티벌 등 농업 관련 행사들을 통합 또는 연계하여 개최하는 행사여서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국내에서는 각종 박람회 행사들이 속속 생겨났다. 행사의 수가 많다 보니 정보가 분산되어 관람객의 수가 늘지 않고 효율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이에 농정원이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를 신설하면서 기존 행사들을 통합하여 정부 차원의 행사로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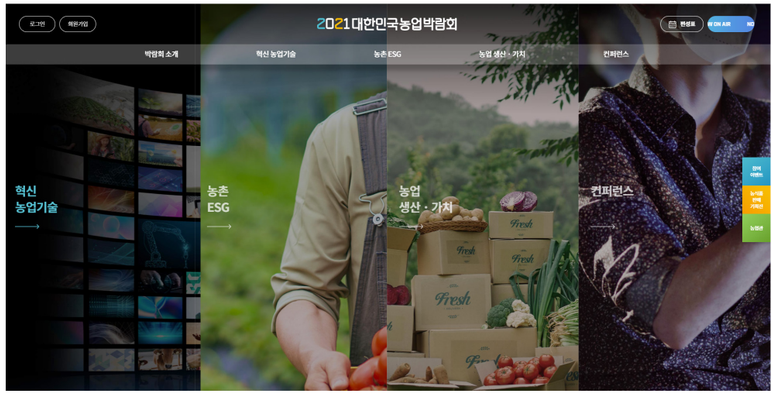
제1회 행사의 경우 '농업의 새로운 발견'이라는 주제로 농업의 생산에서부터 소비·생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첨단농업, 최신 식품·유통의 트렌드, 귀농귀촌 및 사회적 농업 등 다채로운 내용이 소개되었다. 청년세대에게는 투자가치가 높은 '미래혁신 산업'으로서의 모습을, 일반 국민에게는 '안전하고 깨끗한' 농업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다.

'농업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열린 제2회 행사는 2020년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 동안 열렸는데,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인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되었다. 비대면 행사이기는 하지만 농업의 다원적 가치, 일자리, 혁신기술 등을 언팩쇼, 토크쇼, 영상기획전, 1:1 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개하고, 농식품 소비촉진을 위한 기획판매전, 온·오프라인 연계 체험 등도 함께 진행했다.

제3회 행사는 2021년 9월 8일부터 4일간 전년도에 이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되었다. '농업의 새로운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디지털 농업으로의 대전환'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농업의 혁신성과 지속가능성, 산업적 확장성을 보여주는 콘텐츠를 대거 선보였다. 특히 미래기술 특별 세션과 언팩쇼, 혁신기술영상 기획전, 그린뉴딜과 농촌재생 컨퍼런스, 메타버스 체험공간 등이 큰 인기를 모으면서, 온라인 방문객이 무려 140만 명을 넘어서 정부 주관 박람회 중 방문자 수 1위에 올라서는 기록을 세웠다.

농식품소비본부는 박람회 운영을 위해 전용 홈페이지 운영과 유튜브 방송을 위한 콘텐츠도 기획하고 있다. 향후에도 메타버스 가상 전시·체험, 체험키트를 활용한 랜선 체험 등 비대면 체험형 콘텐츠를 확대하고, 고객의 참여 및 상호소통이 가능한 콘텐츠도 개발에도 힘을 쏟아 더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여 농업·농촌 가치를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2회 행사 때부터는 '농림축산식품 일자리 박람회'와 연계하여 개최함으로써 박람회를 통해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거둘 수 있도록 했다. 2021년 제3회 행사의 경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마사회 등 공공기관 20개, 농협계열사 20개, 농식품 분야 민간기업 80개 등 총 120여개 기관·기업이 참여하여 일자리정보를 제공하고 화상상담 등 온라인 채용상담도 벌였다.



2021.
대한민국농업박람회
홈페이지 화면

CHAPTER. 3

지식융합본부

가장 스마트한 농업·농촌을 만들고자

지식융합본부는 농식품 ICT 융복합 촉진과 스마트 농정 지원 관련 사업을 진행하며 우리 농업이 ICT에 기반을 둔 미래성장동력으로 발전할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1. 지식융합본부 개요
2. 농식품 정보 포털 서비스
3. 농식품 공공데이터·빅데이터 활용 지원
4. 스마트팜 모델 개발 및 확산
5.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지원
6. 스마트 통계체계 구축 및 운영

01. 지식융합본부 개요

지식융합본부는 우리 농업·농촌의 정보화에서부터 농정의 현대화, 농산업의 글로벌화에 이르기까지 매우 넓은 영역의 업무를 담당한다. 우리 농업·농촌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우리 농업이 전통적인 개념의 농경(農耕)에서 벗어나 빅데이터, AI 등 ICT에 기반을 둔 미래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농업을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미래로 이끌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지식융합본부는 농식품 분야의 정보체계를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관리·운영하는 임무를 갖고 있다. 지식정보서비스, 농정 빅데이터 플랫폼, 생명자원정보서비스, 농식품 공공데이터, 농경지 전자지도(팜맵), 농림행정시스템 등 농산업 분야의 핵심적인 정보화시스템 관리·운영 등의 업무가 지식융합본부에 주어져 있다. 도매시장 통합 홈페이지와 가격데이터 관리, 농업경영장부 구축, 농업법인 현황조사 등 조사사업, 농식품 통계, 공익직불 관리까지도 업무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기관 내부적으로는 농정원의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하고 전산자원의 운영·관리도 맡고 있다.

최근에는 스마트팜 관련 업무의 비중이 매우 높아졌다. 스마트팜 통합 플랫폼, 스마트팜 혁신밸리 빅데이터센터 운영 등 데이터 기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스마트농업 관련 사업을 기획하여 집행하고 있다. 스마트팜 보급 확산을 위해 농가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 및 컨설팅에도 나서고 있다.

지식융합본부는 '지식정보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서비스하여, 농촌사회는 물론 농업 관련 기관단체와 국민 모두가 최고의 농업정보서비스를 받는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식융합본부가 직접 관리하거나 운영에 깊이 참여하는 정보사이트만 해도 한둘이 아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식정보포털 '농업ON'이다. 농업ON을 통해 영농일지, 농업경영장부, 맞춤형 영농정보 등을 제공하여 농업인들이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농림사업관리 업무지원시스템인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효율적인 농업경영체 지원을 위한 '농업경영체 지원 통합관리시스템' 등 과학적 농업행정을 실현하는 시스템과, 생명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인 '생명자원정보서비스(BRIS)', '국가 농식품 통계서비스(KASS)', 농경지 전자지도 '팜맵(Farm Map)' 등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비스하는 시스템도 여럿이다.

2022년 4월 현재 지식융합본부는 정보기획실, 스마트농업실, 빅데이터실, 농정정보실, 그리고 스마트농업실 산하에 구성된 스마트팜확산팀을 포함하여 모두 4실 1팀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정원은 김태완 본부장을 포함해 46명이다.

2019.08.30.~09.01.
2019 A Farm Show
창농·귀농 박람회
홍보부스

02. 농식품 정보 포털 서비스

지식융합본부는 오랜 기간에 걸쳐 완성도 높은 농식품 정보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왔다. 대표적인 것이 공익직불제 운영에 핵심 역할을 하는 농림사업관리 업무지원시스템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이다. 흔히 '애그릭스'로도 불리는데, 농업과 관련된 사업정보, 법령정보, 통계정보, 농림축산식품부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은 179만 명에 이르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활용해 농림사업 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전산화하여 농업보조금 관리에 활용되고 있다. 2004년 처음 구축된 이후 지속적으로 성능을 개선했고, 최근에는 농림사업 신청서식을 표준화하고 업무처리를 간소화하여 농업보조금 운영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개선했다.

지식융합본부는 2014년부터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는 2025년 최종 완공을 목표로 '차세대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계획을 추진 중이다. 차세대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은 AI, 빅데이터, 드론, 클라우드 등의 디지털 신기술을 도입해 농림사업과 관련한 맞춤형 통합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방문 없이도 비대면으로 농림사업 신청을 지원한다는 점이 장점이다.

농업인들에게 가장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이트로는 '농업ON'이 있다. 과거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에서 서비스하던 '아피스(AFFIS)'에서부터 시작된 사이트이다. 2010년에 '옥답(Okdab)'으로 서비스 명칭을 변경하고, 2017년에는 이용자의 수요조사 및 요구사항 분석을 통해 생애주기, 농식품 산업관계자, 농정대상자, 이용자 등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로 개선하면서 '옥답4.0'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그 후 2019년 4월, 민간 포털과 차별화하고 서비스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사용자와 토론자가 함께 참여하는 서비스 설계·검토 과정을 거쳐 데이터 기반 농식품정보 분석 채널 '농업ON'으로 개편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20.07.23.
농업ON 사용자 의견 수렴을 위한 2020년 농업ON 사용자 패널 발대식

농업ON은 농식품에 대한 가격정보와 주요 통계 등을 제공하는 데이터ON, 농업경영장부와 맞춤형 영농서비스, 기술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영농지원ON, 그리고 뉴스와 각종 농업지식을 서비스하는 콘텐츠ON으로 구성되어 있다.

03. 농식품 공공데이터·빅데이터 활용 지원

농식품 분야에서도 빅데이터는 매우 중요하다. 지식융합본부는 2017년 4월 농식품 빅데이터 운영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농식품 빅데이터센터'를 오픈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농업생산·유통, 농촌생활, 농정 등 각 분야별 데이터를 수집해 처리·가공하고, 분야별 빅데이터와 트렌드를 분석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빅데이터센터에서는 빅데이터의 수집·분석은 물론 개방·활용에 더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50억 개 이상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통계에 기반을 둔 다양한 생활정보를 제공해주고 있기도 하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생활정보는 언론에서도 기다릴 만큼 유익한 정보가 되고 있다.

2019년에는 축산 분야에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스마트 축산'을 실현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스마트 축사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표준-유통-활용으로 이어지는 빅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여 농가경영 및 전후방 산업을 과학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2019년 12월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공공기관, 생산자단체, 민간업체 등 60여 개 기관·기업과 업무협약을 맺고 축산 빅데이터의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2020년 9월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던 '농정 빅데이터 플랫폼'은 2021년 5월 완료되었다. 농정 빅데이터 플랫폼은 주제·분야별 농식품 데이터를 통합하고, 빅데이터·AI 기술을 적용해 분석하여 농정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19개 기관의 협조를 얻어 64종 약 11억 개에 이르는 데이터를 농정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통합했다.

농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이 완료됨으로써 공익직불제 지원, 보조금 관리의 적정성 강화 등 차세대 농정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토대가 구축되었다. 이에 따라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농업보조금 신청인의 자격 검증에 필요한 데이터가 통합돼 자격검증 기간이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되는 효과가 발생했다. 또 농업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검증체계도 마련되었다.

농정 빅데이터 플랫폼은 2021년 10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되고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으로부터는 데이터 품질인증 골드(Gold) 등급을 획득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민간에서 팜맵(Farm Map)을 기반으로 드론을 활용해 농지조사를 하거나 무인방제 솔루션을 구축하는 등의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팜맵을 구축한 것은 농정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민간의 관점에서도 획기적인 성과라 할 수 있다. 농정원은 민간에서도 팜맵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를 공개했다. 따라서 농업행정뿐 아니라 민간의 신규사업 창출이나 학계의 농업·농촌 분야 연구에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지식융합본부는 농식품 공공데이터를 확대 개방하고 품질관리를 강화해 농식품 데이터의 활용도 제고와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2021년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 품질수준 평가에서 97.2점을 받아 최상위 등급으로 평가를 받았다.

04. 스마트팜 모델 개발 및 확산

스마트팜(Smart Farm)이란 비닐하우스·유리온실·축사 등에 ICT를 접목하여 원격·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노동력·에너지·양분 등을 종전보다 덜 투입하고도 농산물의 생산성과 품질을 높일 수 있어 최근 각광을 받고 있다.

데이터 기반의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지식융합본부는 스마트팜의 보급·확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업경영체가 적극적으로 스마트팜을 도입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애로사항이 있으면 즉시 해결하고 있다.

지식융합본부는 본격적으로 스마트팜이 보급·확산될 수 있도록 스마트팜 모델 개발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2017년에는 '수직형 농장 비즈니스모델 실증사업' 공모전을 열어 수직형 농장의 새로운 모델 개발에 나서기도 했다. 수직형 농장은 완전히 밀폐된 공간에서 생육환경(빛·공기·열·양분 등)을 인공적으로 제어해 외부환경에 영향 받지 않고 계획생산이 가능한 농업모델을 말한다. 선정된 사업 대상자에게는 복합환경제어시설, 재배설비, 공조설비 등의 수직형 농장 설비를 지원했다.

개발된 스마트팜 모델이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식융합본부는 2017년 12월 '스마트팜 장비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개정하여 한층 정교해진 기준을 마련했다. 동시에 기존 5

스마트팜 현장

2017.10.24.
농업계 학교 대상
수직형 농장 현장체험
프로그램

개(시설원예, 과수, 양돈, 낙농, 양계)이던 대상 분야에 2개(한우, 노지채소)를 추가해 범위를 확대했다.

이때 추가된 노지채소 품목을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노지채소 스마트팜 모델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노지채소 재배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지채소의 스마트팜 모델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성공하면 노지채소 농가에 널리 보급하는 것은 물론, 그 외의 작물로도 범위를 확장하여 스마트팜 모델 개발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05.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지원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정부가 2018년 4월 발표한 '스마트팜 확산 방안'으로부터 시작된 스마트팜 정책의 핵심사업이다. 스마트팜 집적화, 청년 창업, 기술혁신 등 스마트팜의 생산·교육·연구 기능이 집약된 첨단 융복합 클러스터이다. 정부는 전북 김제, 경북 상주, 경남 밀양, 전남 고흥 등 4개 거점지역을 스마트팜 조성지역으로 지정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예비 청년농 스마트팜 교육, 청년농 대상 임대형 스마트팜 지원, 스마트팜 기술의 연구·실증 지원 등의 기능을 하게 된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보육·임대·실증온실, 빅데이터 센터 등의 핵심시설을 갖추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해 데이터 활용 인프라 구축, 기업경쟁력 강화 및 수출 지원, 청년 보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농정원이 빅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지원, 청년보육센터의 운영 지원 역할을 맡게 되었고, 그 업무를 지식융합본부가 수행한다.

2018.03.28.
청년창업의 꿈
스마트 팜으로
도전하라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사업
오리엔테이션

'스마트팜 혁신밸리 빅데이터센터'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발생하는 생육·환경 등의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전국의 스마트팜 보급 확산에 활용하고, 보유한 빅데이터를 관련기업과 연구기관에 제공하여 스마트팜 관련 제품과 서비스개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2021년 12월 김제와 상주의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준공돼 가동을 시작하면서 빅데이터센터도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는 이보다 이른 2018년에 개설되어 이미 교육이 진행 중이다. 청년들이 스마트팜을 활용하여 창농할 수 있도록 기본교육부터 창업초기 전문컨설팅까지 전 과정을 보육·관리하여 영농 조기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위해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들어서는 김제, 상주, 밀양, 고흥 등 4개 지자체를 운영기관으로 지정했다.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는 스마트팜 전문인력 양성 및 청년들의 관련 분야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팜에 특화하여 운영하는 실습중심의 장기 교육과정이다. 창업교육, 입문교육, 경영형 실습으로 나눠 각각 2개월, 6개월, 12개월 동안 진행된다.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은 해당 지자체가 주관이 되어 실시한다.

06. 스마트 통계체계 구축 및 운영

농정원은 농식품 통계자료를 집적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농정원이 통계 관리를 위해 운영하는 시스템도 다양하다. 2014년 12월 오픈한 '농식품 해외정보공유서비스(MAPs)'(현 농식품FTA활용정보서비스) 시스템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농업분야 FTA 정보와 해외농업 동향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3.0 시책에 따라 구축한 '도매시장 유통관리시스템'도 농식품의 가격 및 유통 관련 통계정보를 서비스하고 있다. 2016년부터는 매년 귀농귀촌 실태조사를 실시해 통계로 관리하고 있다.

농정원이 수행하는 통계관리업무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데이터 중심의 과학적 농정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구축한 '스마트농정 통계체계'이다. 현장과 밀접한 농경지 경계 정보를 바탕으로 각종 통계와 행정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 통합한 팜맵을 구축하여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농정을 실현한 시스템이다.

스마트농정 통계체계에서 '국가농식품통계서비스시스템(KASS)'을 빼놓을 수 없다. KASS는 2016년 구축한 91종의 행정자료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서비스하는 시스템인데, 농업 관련 기관의 각 실무부서나 협회 등 단체에서 업무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스마트농정 통계체계는 농업·농촌의 현실을 반영한 기초통계를 확충하고 미래지향적 통계기반을 구축하는 등 농식품 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분석·활용하기 위한 플랫폼이다. 이 통계체계를 구축·운영함으로써 빅데이터·AI 기반의 농업·농촌 혁신성장이 촉진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지식융합본부는 스마트농정 통계체계를 기반으로 주요 농정에 직접 접목할 수 있는 활용모델을 발굴하고, 행정자료와 연계한 통계데이터를 적극 개방하여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데이터들이 우리 농업·농촌의 정보화, 과학화를 실현하는 유익한 토양이 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국가 농식품통계
서비스 메인 화면

CHAPTER. 4

국제협력처

해외로 농토 넓혀 K-농업의 새로운 미래를

국제협력처는 농식품 국제통상정책, 농업협력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며
우리 농업의 글로벌 농토 확장에 앞장서고 있다.

1. 국제협력처 개요
2. 공적개발원조 사업 기획·운영
3. 글로벌 농업협력 강화
4. 통상협상 대응 지원 및 해외정보 활용
5. 농업 분야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
6. 농기자재 수출 활성화 지원

01. 국제협력처 개요

국제협력처는 우리 농산업이 글로벌시장에서 강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농업 분야의 통상협력을 증진하고 수출기업들의 경쟁력을 향상토록 지원하는 조직이다. 말하자면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외로 농토를 넓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국제협력처는 FTA 협상과 같은 국제통상협상 지원, 농식품 관련 해외시장 정보 조사, 국가 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농업협력 강화 등의 업무를 기본적인 업무로 수행해 왔다. 그러나 국경을 넘어 시장이 개방되고 국가 간의 협력이 중요해지면서 업무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또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고 스마트팜과 같이 신기술에 바탕을 둔 새로운 유형의 협력모델이 생겨나면서 국제협력처의 업무 스펙트럼도 넓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국제협력처는 ODA(공적개발원조)사업, 농기자재 수출 지원,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 활성화 지원 등의 업무가 추가되고 그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스마트팜 수출은 ODA(공적개발원조)사업과 연계되어 추진되면서 빠른 속도로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세안+3 식량안보정보시스템(AFSIS)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세계은행, OECD 등 국제기구와 공동 워크숍을 진행하는 등 국제무대에서 존재감이 높아지고 있어 활동폭도 커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우리 농업의 글로벌화를 이끌어갈 유능한 인재 육성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2019.08.26.
농정원-세계은행
MOU 체결

국제협력처가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국제통상협상 및 농정 지원 해외농업정보 수집·분석 제공
② 국제통상협상 대응논리 개발 및 이해관계자 공감대 형성
③ 농기자재·스마트팜 수출 활성화 및 청년들의 글로벌 진출기회 제공
④ 농식품분야 공적원조개발(ODA)사업 기획·운영
⑤ 국가·지역 간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과제 발굴·운영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제협력처는 국제통상협력실과 국제농업협력실 2실 체제를 갖추고 있다. 국제통상협력실은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 FTA 협상 대응 및 정책지원체계 마련'과 청년·농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국제농업협력실은 '글로벌 농업협력 확대'를 업무목표로 삼고 있다.

국제협력처는 다른 부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서 운영에 변동이 많았던 편이다. 2012년 5월 기관 출범과 동시에 미래전략실 소속의 국제통상지원팀으로 출발했는데, FTA 등 국제협력 이슈가 많아지면서 2014년 10월 국제통상협력실로 확대 개편되었다. 산하에는 국제통상팀이 편제되었다. 그 후 2017년 2월 국제통상협력처로 개편되면서 산하에 국제통상협력실과 신성장전략실을 두었다. 하지만 1년여 만에 신성장전략실이 폐지됨에 따라 기존의 국제통상협력실이 국제통상실과 국제협력실로 개편되었다. 현재의 조직체계는 2021년 2월 개편된 구조이다. 정원은 장철이 처장을 포함해 모두 13명이다.

02. 공적개발원조 사업 기획·운영

국제협력처는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개발원조, 즉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ODA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이나 사회발전 또는 복지증진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원조 사업으로, 공적개발원조 또는 정부개발원조라고도 한다.

현재 ODA사업은 정부의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 ODA 확대 정책에 따라 ①스마트팜, ②디지털 공공행정 등 2개 분야로 구분하여 추진되고 있다. 스마트팜 분야는 스마트팜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기반 조성, 스마트팜 시설 구축, 전문가 파견, 인적 역량 강화 등 스마트팜 구축을 위한 일련의 과제가 모두 포함된다. 디지털 공공행정은 디지털 농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스마트팜 ODA사업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합친 패키지형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때 하드웨어는 기자재 지원, 시설 및 시스템 구축 등을, 소프트웨어는 훈련연수나 인력양성과 같이 스마트팜 운영을 위한 현지 공무원과 농업인 역량강화 업무를 의미한다.

첫 ODA사업은 AFSIS(아세안 식량안보정보시스템) 사업이다. 아세안(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국을 대상으로 식량안보를 위한 국가별 국가농식품정보시스템을 구축 또는 업그레이드하고, 이를 AFSIS 사무국 및 국제기구와 공유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세안 역내 농식품 정보를 수집·분석·공유할 수 있게 하여 식량안보 대응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이다. 2026년까지 3단계로 나눠 추진할 예정이다.

2015.10.18.~28.
기초 역량 교육을
위한 AFSIS 협력사업
초청연수

국제협력처는 2014년 라오스의 식량안보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시작으로 캄보디아, 필리핀, 미얀마,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6개국에 차례로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리고 2021년에 1, 2단계 협력사업을 완료하고, 2022년부터는 3단계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매우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스마트팜 ODA사업은 우리나라의 스마트팜 기술이 국제사회에서 높이 평가받는 데 힘입어 최근 여러 건의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처음 시행한 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지원하는 '필리핀 시설팜 구축을 통한 토마토 생산 최적화 및 고품질 지원사업'이다.

이를 발판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국제농업협력사업(ODA)으로 2020년부터 필리핀, 2021년에는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와 잇달아 ODA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의사록을 체결했다. 베트남은 남부 지역에 스마트 생산 및 신선유통체계 시범 구축사업, 캄보디아는 칸달주 고품질 채소·과채류 스마트팜 사업 추진, 인도네시아는 밀레니얼 농업인 소득개선 사업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그해 연말에는 우즈베키스탄 농업부와도 MOU를 맺고 본격적인 스마트농업 확산 사업에 앞서 협업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한국형 스마트농업 기술 전수를 통해 현지인력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

2022.03.31.
필리핀 일로일로
스마트팜 개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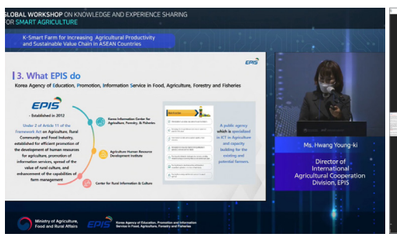
고, 이를 통해 생산성 향상, 소득 개선 및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수출기업들에게 해외진출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국제협력처는 스마트팜 ODA사업을 기반으로 삼아 저개발국의 스마트농업 확산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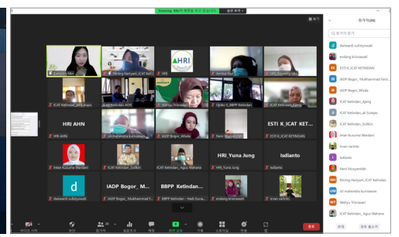
03. 글로벌 농업협력 강화

국제협력처는 우리 농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국제기구 및 국가들과 교류를 활성화하며 농업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
국제사회와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여러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 하나가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현지 정부와의 글로벌 농업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다. 현재는 스마트팜 수출유망국인 카자흐스탄, 베트남을 대상으로 협력관계를 쌓아가고 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 KOTRA 등 국내 2개 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지의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재배·시설 관리사를 파견해 한국형 스마트팜 조성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광역두만개발계획(GTI, Greater Tumen Initiative) 농업위원회를 통한 '광역두만지역 스마트농업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도 추진되고 있다. GTI는 UNDP(유엔개발계획) 지역협력 프로그램의 하나로, 동북아지역의 개발 및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 4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의체이다.
광역두만 지역은 대규모의 비옥한 토지를 갖추고 있어 농업잠재력이 매우 큰 지역인데, 기후변화, 식량위기 등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농업 도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 같은 여건을 고려하면 향후 스마트농업의 적용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고, 2020년 9월 제5차 GTI 농업위원회에서 신규 프로젝트로 제안하여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우리나라가 GTI와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은 처음이어서, 이 프로젝트의 성과에 따라 향후 더 많은 사업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최근 국제협력처가 글로벌 농업협력을 위해 역점을 두는 또 하나의 방향은 국제기구·국가들과 워크숍 등의 모임을 통해 파트너십을 쌓아가는 것이다. 2020년 12월 열린 '한국혁신기술주간' 세미나와 2019년 8월 열린 'GKEDC 디지털농업 공동 워크숍' 등 세계은행이 주관하는 세미나에 두 차례 참여했고, 2019년 9월에는 '제12차 OECD 농촌정책 컨퍼런스'를 주관하여 우리 농업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
앞으로도 국제협력처는 스마트농업 관련 국제워크숍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거나 직접 운영하면서 우리나라의 스마트팜 기술과 농업정책 등을 설명하고 협력관계를 다져나갈 계획이다.

04. 통상협상 대응 지원 및 해외정보 활용

국제협력처는 2013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FTA 정보조사 업무를 이관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FTA 정보조사 업무를 수행했다. FTA협상 상대국의 농업현황, 수출입 동향 등 시장에 대한 정보조사를 강화하고, 통상협상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주요 FTA의 국제통상 쟁점들을 조사하여 분석했다.
한편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원활한 국제통상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국가들과 우호적인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노력도 계속했다. 최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농업협력 초청연수, APEC 식량안보 정책토론회, P4G 정상회의 식량농업세션 등 다양한 국제행사를 개최하여 국제무대에서의 활동폭을 넓혔고, SPS와 FTA 규범 역량강화 세미나도 개최했다.
특히 의미가 있는 것은 'FTA협상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한다는 것이다. 이 시스템에는 FTA 통계정보와 협상 DB 등 FTA 협상에 도움이 될 데이터가 집적되어 있어 FTA 협상 등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보유한 정보데이터들을 적극 활용하도록 서비스하는 데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국제통상 및 세계농정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2014년 12월 오픈한 '농식품 해외정보공유서비스(MAPs)'(2019년에 '농식품 FTA활용정보서비스'로 개편) 시스템이 그 예이다. 농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유관기관의 해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통합하여 농업협상정책 담당자를 대상으로 농업정보와 통계정보를 제공하는 이 서비스를 시작했다.
MAPs 시스템은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와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바탕으로 최신 정보를 제공하여 정부가 국가통상정책을 수립하는 데 든든하게 뒷받침을 해주었다. MAPs 시스템은 2018년 FTA협상지원시스템 구축 계획이 수립되면서 기존 농업협상정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던 서비스를 대민서비스로 전환했다. 2019년 이후에는 농식품 FTA활용정보서비스로 시스템명을 재개편하여, 주간리포트, 시장분석보고서, 글로벌 이슈카드뉴스, 수출정보 인포그래픽, 일일동향조사 등 다양한 형식의 수요자 맞춤형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통상협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및 활용기반을 확충한다는 취지에서 정책-교섭-이행-대책 등으로 이어지는 농업통상 전 분야 대응을 위해 'FTA협상지원시스템'을 확대 구축했다. 이를 통해 FTA뿐 아니라 WTO SPS·양자협상 등 각종 협상에 대응한 통





2022.01.25.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국제 워크숍

합정보관리가 가능해졌다. 또한, 국내 농가 피해 최소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FTA 활용정보서비스도 강화했다.

05. 농업 분야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

농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은 국제협력처의 빼놓을 수 없는 과제이다.

국제협력처가 운영하는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한-뉴질랜드 FTA 농수산 협력사업'이다. 2015년 12월 체결한 한-뉴질랜드 FTA 농림수산협력에 관한 약정에 따라 양국 간 농수산 분야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이 협력사업이 추진되었다. 어학연수, 훈련비자, 전문가 훈련, 장학금 지급, 수의역학 워크숍 등 5가지 세부 프로그램으로 추진되었는데, 이 중 수의역학 워크숍은 2018년에, 장학금 지급 사업은 2020년에 각각 종료되었고, 어학연수와 훈련비자 사업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이후 잠정 중단되었다.

대학 2학년 이상의 학력을 가진 만 19~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농식품분야 해외인턴십(OASIS: Overseas Agriculture Sector Intern Scholarship)은 글로벌 감각을 갖춘 전문 농업인력을 양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프로그램이다. 농업 관련 국제기구나 해외 민간기업·연구소 등에서 3~6개월간 인턴십으로 근무한다. 근무 후에는 해당 국제기구에 계약이 연장되거나 취업하는 경우도 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원격근무 또는 국제기구의 한국사무소 등으로 파견하기도 했다. 2021년의 경우 10개소에 43명이 참가했다.

2018.07.
2018 한-뉴 농어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06. 농기자재 수출 활성화 지원

최근 우리 농업의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기자재와 스마트팜의 수출을 증진하려는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농기자재 수출 활성화를 위해 2017년 3월 '농기자재 수출 활성화사업 추진계획'이 수립되었다. 효과적인 수출전략을 도출하고 수출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며, 교육이나 워크숍 등을 통해 수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게 핵심이었다. 이를 토대로 농기자재 수출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한편으로는 글로벌시장 개척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시도를 계속했다.

현재 농기자재 수출을 위한 지원은 농기자재 기업의 수출 전 주기에 걸쳐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가동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원칙 아래, 크게 수출정보 제공, 수출기업 육성, 네트워크 강화 등 세 갈래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출정보 제공 측면에서는 농식품 FTA활용정보서비스(MAPs) 내에 '농기자재 수출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농기자재 품목별·국가별 통계자료와 현지전략 정보 등을 서비스하고 있다. 또 수출기업 육성 측면에서는 해외 인허가 취득과 글로벌 마켓테스트(전시회, 로드쇼 참가 등)를 지원하고 있다. 네트워크 강화 측면에서는 농기자재 수출기업 간담회 및 국제워크숍 개최, 수출국 현장조사단 파견(2020~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내기업과 해외 바이어 간 비대면 1대1 수출상담회로 전환) 등을 통해 수출관계자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국제협력처는 수출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 농기자재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농기자재 수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수출활성화의 성과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가동하고 있다.

CHAPTER. 5

귀농귀촌종합센터

행복한 귀농귀촌의 안내자가 되어

귀농귀촌종합센터는 귀농귀촌 활성화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하며 귀농귀촌 희망자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1. 귀농귀촌종합센터 개요
2. '귀농귀촌 종합계획' 실행 지원
3. 귀농귀촌 상담과 멘토링 서비스
4. 현장 수요 반영한 맞춤형 교육
5. 지역 지원사업과 '농촌에서 살아보기'
6.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 구축 착수

01. 귀농귀촌종합센터 개요

귀농귀촌종합센터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설립된 조직이다. 귀농귀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필요한 상담을 실시하며 교육도 진행한다. 귀농설계, 컨설팅, 1대1 맞춤형 귀농닥터 연계 등 귀농귀촌을 위한 종합상담과,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귀농귀촌 관련 최신 정보, 농촌지역별 현장 소식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귀농귀촌종합센터는 다음과 같은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①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에 대한 귀농귀촌 상담(방문·전화·온라인)
② 귀농닥터를 통한 1:1 맞춤형 현장전문가 멘토링 서비스
③ 대상, 유형, 단계를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 귀농귀촌 교육
  * 기초교육, 농업일자리교육, 맞춤형 공모, 청년귀농 장기교육, 귀촌인 농산업 창업교육
④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제공
⑤ 귀농귀촌 실태조사를 통한 정책 기초자료 수집
⑥ 귀농귀촌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 정책 홍보

귀농귀촌 희망자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귀농귀촌 종합정보시스템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귀농귀촌상담에서부터 교육정보 및 신청, 정책지원 사항과 각종 통계자료, 지역정보, 지자체별 홍보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심지어 주택정보까지도 제공하고 있다. 귀농귀촌 포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귀농귀촌종합센터
상담 장면

2015.
귀농·귀촌아카데미
기본공통교육 야간 수료

귀농귀촌종합센터는 2021년에 이 사이트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여 보다 편리하게 필요한 정보를 서비스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농업 일자리 정보탐색 기능, 다양한 교육신청 기능, 그리고 동네작가, 귀농귀촌 지식인과 같은 지역 기반의 소통형 콘텐츠를 대폭 강화했다.

귀농귀촌 희망자들에 대한 교육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 농업·농촌 현장사례 중심의 귀농귀촌 아카데미 교육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실시하고 있고, 민간 교육기관을 통한 맞춤형 공모교육도 다양하게 운영한다.

현재 귀농귀촌종합센터 조직은 귀농귀촌기획실과 귀농귀촌지원실 2실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귀농귀촌기획실은 귀농귀촌 실태조사,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평가, 귀농귀촌종합센터 운영,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 맡고, 귀농귀촌지원실은 귀농귀촌 교육, 청년귀농 장기교육, 귀촌인 농산업 창업교육 등 교육업무를 맡고 있다.

귀농귀촌종합센터는 2012년 3월 이후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해 왔으나 2014년 7월 농정원으로 그 업무가 이관되었다. 농정원의 모든 부서가 세종시에 위치해 있을 때에도 귀농귀촌종합센터는 업무 성격상 도시민의 접근편의성을 고려하여 서울 양재동 aT센터 4층에 입주해 있었으나, 2021년 농정원이 독립청사를 갖게 되면서 상담·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귀농귀촌지원실을 제외한 귀농귀촌기획실은 세종시 본원으로 이전했다. 현재 정원은 조경익 센터장을 포함해 13명이다.

02. '귀농귀촌 종합계획' 실행 지원

귀농귀촌종합센터의 업무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정부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이다.

이 계획안에는 귀농귀촌 교육훈련과 전문인력 육성, 귀농·귀촌인의 주거, 생활 및 농업 경영지원 등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 및 농업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모든 시책이 포함된다. 2017년에 처음으로 '제1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2017~2021) 수립돼 시행되었고, 2022년에 '제2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2022~2026)이 시작되었다. 제2차 종합계획에는 귀촌 정책을 강화하고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굵직한 계획 외에도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실천과제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귀농귀촌종합센터는 귀농귀촌 사업의 최일선에 있는 조직으로서, 이 계획이 보다 실효성 있게 수요자 중심으로 입안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하여 추진전략을 구체화하고 세부과제를 작성하는 데 힘을 보탠다. 현재는 제2차 종합계획의 기본방향과 세부계획을 센터의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실천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귀농귀촌 실태조사'가 선행된다. 이 조사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농귀촌 가구를 대상으로 귀농귀촌 유형, 귀농귀촌 이유, 소득, 주거형태, 경영여건, 지역융화 등의 실태를 조사하는 법정조사이다. 이 조사를 토대로 최적의 귀농귀촌 정책을 수립하고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2016년 실시된 첫 조사 때만 해도 5년마다 조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2018년 제2차 조사 때부터 매년 조사로 전환되었고, 제3차 조사인 2019년부터는 국가승인통계로 그 지위가 격상되었다.

03. 귀농귀촌 상담과 멘토링 서비스

귀농귀촌종합센터에서 가장 일상적으로 계속되는 업무는 상담과 교육이다. 상담과 교육은 귀농귀촌을 실행하는 입구와도 같은 과정이어서 귀농귀촌 희망자가 의사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귀농귀촌종합센터는 효과적인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상담자의 귀농귀촌 준비 및 정착 지원과 관련된 것이라면 상담내용에 제한이 없다.

보다 충실한 상담을 위해 교육, 정책, 주택, 농지 등 분야별로 전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도 활발하게 운영 중이다. 집단숙의제라는 새로운 상담방식도 도입했다. 심도 있는 질문에는 복수의 상담원이 공동 대응하여 정확한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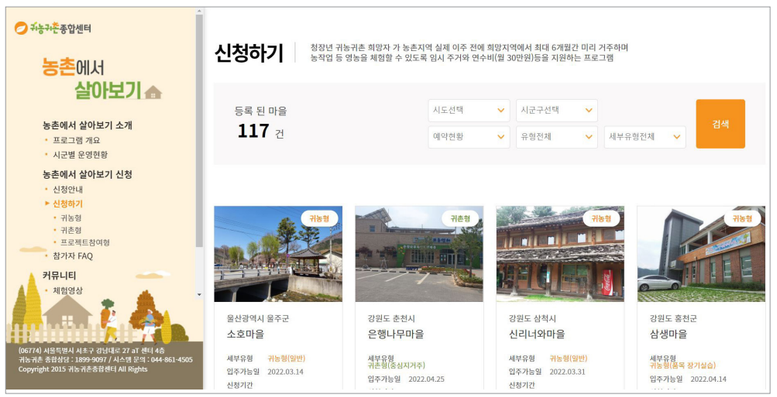
이다. 시행 후 조사 결과 고객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스톱 상담도 지원한다.
최근 귀농귀촌종합센터는 CTI 시스템을 활용하여 상담DB를 구축하고 통계 기반의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담의 품질이 향상돼 상담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상담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현장으로 연결되어 컨설팅이나 멘토링으로 계속된다. 그중 현장밀착형 귀농닥터 서비스는 단연 만족도가 높다. 이 서비스는 귀농귀촌 준비 단계에서의 궁금한 사항, 또는 귀농귀촌 정착 후 발생 가능한 사항에 대해 귀농귀촌 준비자가 해당 분야의 전문가 또는 선배 귀농인을 방문하여 현장 중심으로 1대1 컨설팅을 받는 서비스이다.
여성 농업인 양성을 위한 귀농닥터 멘토링서비스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귀농귀촌의 초기 단계에서 겪을 수 있는 애로사항을 분야별로 전문가가 해결해줘서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서비스도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 멘토링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여 귀농귀촌자의 물리적 제약을 해소하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04. 현장 수요 반영한 맞춤형 교육

귀농귀촌종합센터의 교육 서비스는 귀농귀촌 아카데미, 농업일자리교육, 맞춤형 심화교육(맞춤형 공모교육, 청년귀농 장기교육, 농산업창업교육) 등 크게 3가지 갈래로 나뉜다.
그중 '귀농귀촌아카데미'는 귀농귀촌 교육의 중심을 이루는 교육이라 할 수 있다. 귀농귀촌종합센터가 직업 운영하는 교육과정이다. 이곳에서는 예비 귀농귀촌인이 귀농귀촌의 개념과 과정을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귀농귀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현장 수요 맞춤형 기초교육을 제공한다.
2021년에는 교육과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다. 기존에는 교육대상의 구분 없이 기본공통과정과 소그룹강의로 나눠 통합과정으로 운영했지만, 교육대상에 따라 기본공통과정, 귀농특화과정, 귀촌특화과정으로 유형을 재분류했다. 또 교육분야도 대상별 특징과 교육수요를 반영하여 귀농특화과정은 4개 분야 20개 과정으로, 귀촌특화과정은 3개 분야 22개 과정으로 세분화했다. 귀농귀촌종합센터는 기본공통과정 이수 후, 귀농 또는 귀촌 여부에 따라 귀농특화과정이나 귀촌특화과정을 수강하기를 권장한다.
교육방식도 획기적으로 바꾸었다. 비대면 교육을 본격적으로 도입해 운영하는가 하면, 아카데미 수료생을 대상으로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농업일자리교육, 맞춤형 공모교육, 청년귀농 장기교육, 귀촌인 농산업창업교육 등의 심화교육과정도 운영한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실직·폐업하고 농업분야에 취·창업하고자 하는 희망자를 지원하고자 농업일자리 탐색·체험교육도 신설했다. 이 교육과정은 제38회 공공 HRD 콘테스트에서 교육과정분야 인사혁신처장상을 받기도 했다.
귀농귀촌 맞춤형 심화교육 중 대표적인 교육과정인 '맞춤형 공모교육'은 민간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교육과정이다. 수요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전국 각지의 교육운영기관을 공모하여 지정하고 있다. 귀농귀촌 희망자의 연령과 귀농귀촌 유형, 준비 진척단계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있다. 2021년의 경우 청년창업농, 전직창업농, 은퇴창업농 등 총 9개 분야에서 25개 기관, 35개 과정을 지정해 운영했다.
최근 장기화하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집합교육·대면교육에 어려움이 생겼지만, 귀농귀촌종합센터는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지속가능한 교육 제공을 위해 비대면 방식을 도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을 혁신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05. 지역 지원사업과 '농촌에서 살아보기'

귀농귀촌종합센터는 귀농귀촌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사회 또는 외부기관과 다양한 영역에서 지원 또는 협업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지역사회의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그 성과를 평가하고 포상하는 일이다.
이 제도는 지자체들이 고령화·과소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의 활력 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도시민 농촌 유치 프로그램들을 심사·평가하여 지원하거나 표창하는 제도이다. 2007년 처음 도입돼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다가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는 2021년에 새롭게 개편되었다. 기존의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귀농인의 집, 마을융화교육 사업이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으로 단일화되고 지원방식도 변경했다. 이와 함께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이 2021년에 처음 선보여 큰 반향을 불러왔다.
이 프로그램은 귀농귀촌 실행 전에 도시민에게 농촌에 거주하며 일자리, 생활 등을 체험하고 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도 제공하여 성공적 정착을 유도한다. 참가자에게 최장 6개월간 주거 및 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운영자에게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농



귀농귀촌종합센터 '농촌에서 살아보기' 신청 페이지 화면

림축산식품부와 농정원, 각 지자체가 역할을 나눠 추진했는데, 귀농귀촌종합센터는 전용 웹 페이지를 구축해 운영하고 사업을 홍보하는 등의 역할을 맡았다.

이 사업은 2021년 기획재정부로부터 '국민 삶을 개선하는 특색사업 60선'에 선정되었고,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는 '국민과 함께 하는 농식품 혁신정책' 동상을 수상하는 등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행정안전부의 '정부24'와 온라인 상담서비스를 연계하는 협력사업도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정부24'와 귀농귀촌종합센터 간 행정망으로 상담데이터를 연계하여 귀농귀촌 희망DB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온라인 상담서비스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2021년 7월부터 협의를 시작한 이후 2022년 5월 '정부24'에 '귀농귀촌 온라인 상담서비스'를 오픈함으로써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06.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 구축 착수

귀농귀촌종합센터의 홈페이지는 2014년 12월 대대적인 리뉴얼 개편 이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다. 특히 2021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민들에게 농업·농촌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볼 수 있도록 영농 근로체험, 귀농 등 일자리 정보, 지역여건과 관련 교육신청까지 통합 제공하는 포털 수준으로 발전했다. PC뿐만 아니라 모바일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고 교육의 신청·취소 현황도 실시간으로 문자 알림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그동안 홈페이지는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확충하고 성능을 개선해 왔다. 그러나 귀농귀촌종합센터를 찾는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한층 고도화된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귀농귀촌종합센터는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새로 구축하려는 통합 플랫폼은 기존의 홈페이지에 비해 획기적인 수준으로 기능과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홈페이지가 공급자 중심의 분산·분절된 정보 제공 방식이었던 것과는 달리, 귀농귀촌 관련 각 부처의 정책정보, 정주여건, 농지, 경제활동, 복지, 교육 등 필요한 대부분의 정보를 관계기관 시스템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또 정보분류 체계를 도입하여 단계별로 관심정보 검색 및 매칭을 제공하는 기능을 탑재하고, 상담 및 회원DB, 조사·통계 자료, 행정데이터 등을 토대로 빅데이터 분석·지원 기반을 갖추게 된다.

따라서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은 회원에게는 필요한 정보·서비스를 획득하는 통로가 되고, 정부·지자체에게는 인구이동이나 지역개발의 기초정보를 확보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토대가 되며, 일반 국민에게는 회원 정보를 기반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여 플랫폼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귀농귀촌종합센터는 2023년까지 통합플랫폼 구축 작업을 완료하여 귀농귀촌 대표 포털로서의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핵심기능이 반영된 통합 플랫폼 기능을 완성할 계획이다. 그리고 전체 기능의

귀농귀촌종합센터
안내판

유기적 연계 및 활용을 활성화하고 빅데이터 기반 수요분석 및 정책 발굴 기능을 수행토록 안정화·고도화 과정을 거쳐 2026년에 최종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때는 민간개방을 통해 사업화 모델을 확산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INFOGRAPHIC

1st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설립근거를 둔 최고 기관

11,623

농고·농대 실무교육 제공 인원
(~ 2021년 누적)

2012년 **34개소**

2021년 **1,404개소**

IT융합모델 확산 보급
농가수

2014년 **8개 과정**

2021년 **235개 과정**

온라인 교육 운영
과정수

2015년 **17.9%**

2021년 **42.1%**

귀농귀촌 정착률

2017년 **1,894명**

2021년 **3,314명**

도시농업 참여자수

2014년 **28.4%**

2019년 **54.1%**

농업전문인력육성 농업인
소득증가 기여율

2017년 **871건**

2021년 **2,249건**

농식품공공·빅데이터
정부·민간활용지원건수

2017년 **6,783건**

2021년 **16,555건**

농식품공공·빅데이터
사용자이용건수

APPENDIX 부록

1. 현 임원진

2. 역대 원장 및 임원

3. 현 조직도

4. 조직변천

5. MOU 현황

6. 인증 및 수상

7. 연표

1 현 임원진

정광하 이사 신창선 이사 안경아 이사 박헌춘 이사 이종순 원장 이명자 이사 변동주 총괄본부장 정도채 이사

2 역대 원장 및 임원

역대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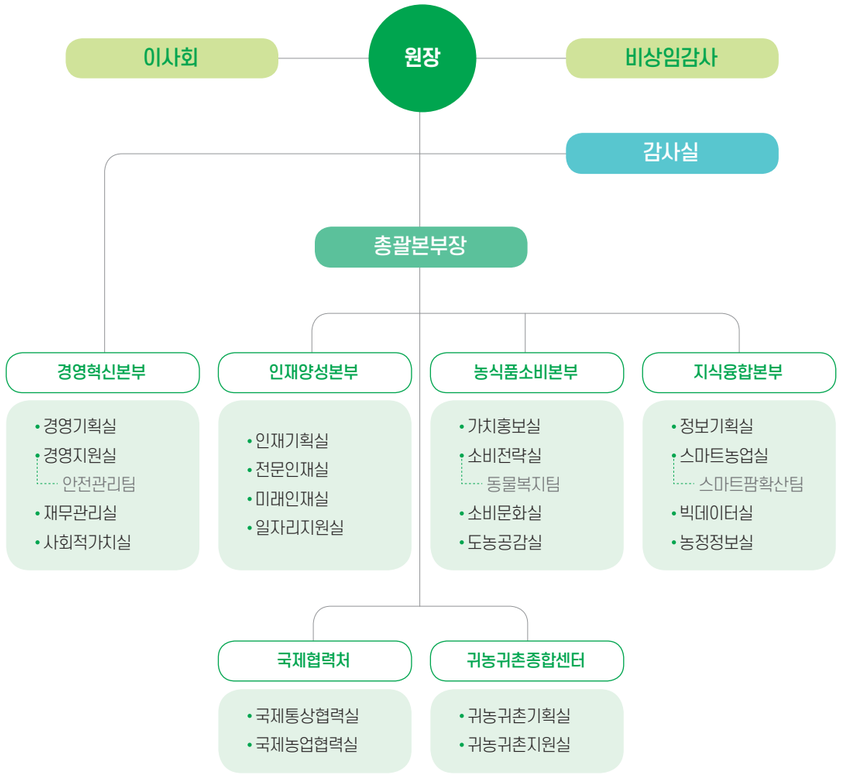
구 분	성 명	재임기간
1대 원장	하영효	2012.05.23. ~ 2015.05.22.
2대 원장	박철수	2015.05.23. ~ 2018.11.01.
3대 원장	신명식	2018.11.02. ~ 2021.12.05.
4대 원장	이종순	2021.12.06. ~ 현재

임원

구 분	성 명	임 기
상임이사 (총괄본부장)	윤달상	2012.05.23. ~ 2014.02.04.
	이득섭	2014.02.05. ~ 2017.02.26.
	박경아	2017.02.27. ~ 2021.03.22.
	변동주	2021.03.23. ~ 2023.03.22.
비상임이사 (당연직)	이준원	2012.05.23. ~ 2013.04.18.
	김현수	2013.04.19. ~ 2015.03.31.
	안호근	2015.04.01. ~ 2016.12.07.
	이재욱	2016.12.08. ~ 2017.02.27.
	조재호	2017.02.28. ~ 2017.09.21.
	이주명	2017.09.22. ~ 2019.04.14.
	박병홍	2019.04.15. ~ 2019.06.27.
	김덕호	2019.06.28. ~ 2019.12.22.
	김정희	2019.12.23. ~ 2021.12.26.
	정현출	2021.12.27. ~ 현재
비상임이사 (선임직)	나승일	2012.05.23. ~ 2013.04.19.
	유승우	2012.05.23. ~ 2014.07.06.
	이길홍	2013.10.25. ~ 2014.05.01.
	강 용	2012.05.23. ~ 2014.07.06.
	김준봉	2012.05.23. ~ 2015.05.22.
	류석호	2012.05.23. ~ 2015.05.22.
	심재천	2012.05.23. ~ 2015.05.22.
	전정희	2012.05.23. ~ 2015.05.22.
	권오욱	2014.07.07. ~ 2016.07.06.
	김계웅	2014.07.07. ~ 2016.07.06.
	정혜경	2014.07.07. ~ 2016.07.06.
	류준걸	2015.06.18. ~ 2018.06.28.
	김태곤	2015.06.18. ~ 2018.06.28.
	성효용	2015.08.18. ~ 2018.06.28.
	김금순	2015.08.18. ~ 2018.06.28.
	강혜정	2016.07.27. ~ 2018.11.01.
	채상헌	2016.07.27. ~ 2018.11.01.
	함영화	2016.07.27. ~ 2017.03.06.
	하태종	2017.03.07. ~ 2019.03.06.
비상임이사 (선임직)	황은주	2018.06.29. ~ 2020.08.11.
	이종순	2018.06.29. ~ 2018.10.16.
	전창재	2018.06.29. ~ 2020.08.11.
	김상민	2018.06.29. ~ 2020.08.11.
	이영희	2018.11.02. ~ 2020.12.06.
	이계임	2018.11.02. ~ 2020.12.06.
	주윤식	2019.01.18. ~ 2021.02.16.
	김희경	2019.04.12. ~ 2019.08.28.
	신창선	2019.12.23. ~ 2021.12.22.
	이명자	2020.08.12. ~ 2022.08.11.
	안경아	2020.08.12. ~ 2022.08.11.
	정광하	2020.08.12. ~ 2022.08.11.
	이혜경	2020.12.07. ~ 2022.12.06.
	박헌춘	2020.12.07. ~ 2022.12.06.
	정도채	2021.02.17. ~ 2023.02.16.
비상임감사 (선임직)	박형규	2012.05.23. ~ 2014.05.22.
	김정호	2014.10.17. ~ 2016.10.16.
	조은기	2017.01.02. ~ 2019.03.05.
	고희관	2019.03.06. ~ 2021.04.13.
	이보람	2021.04.14. ~ 2023.04.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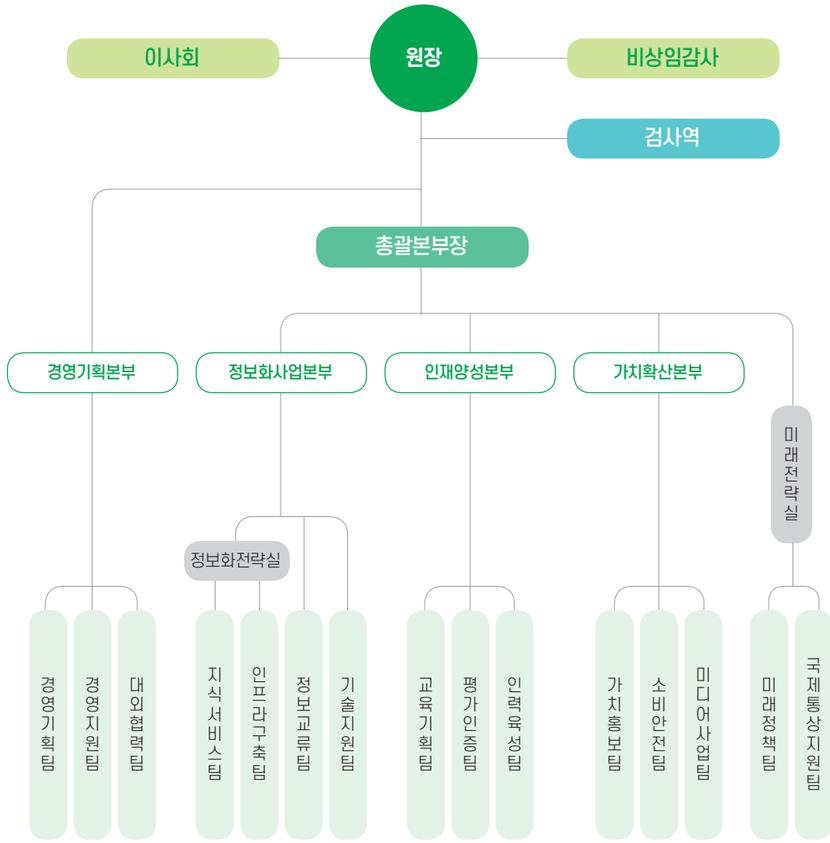
3 현 조직도

2021~2022. 4본부 1처 1센터 21실 3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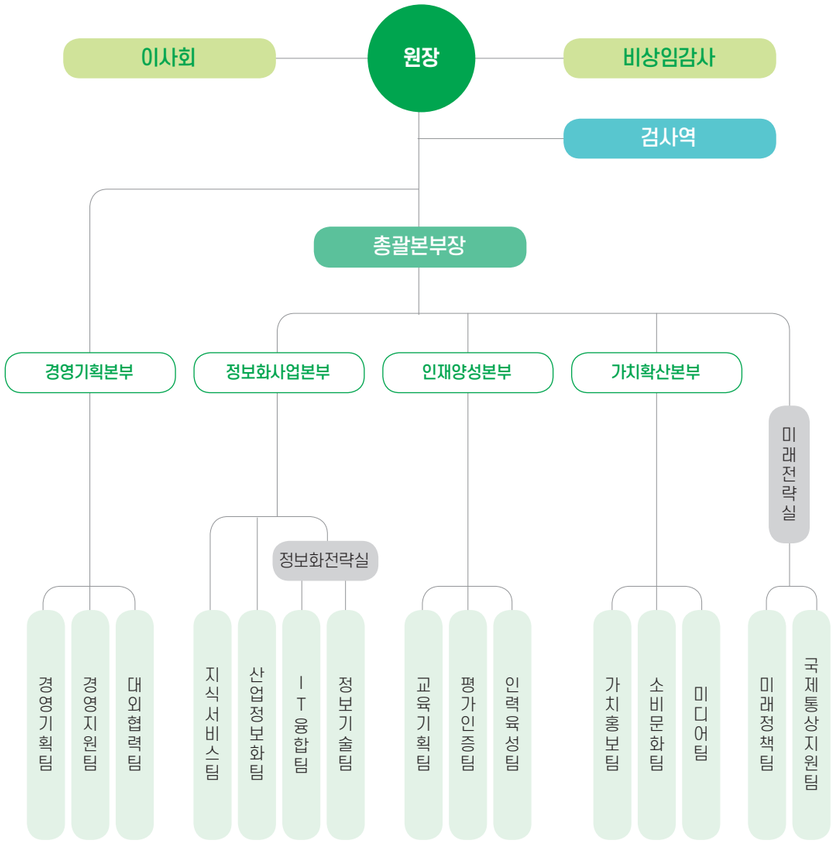
4 조직변천

2012. 창립당시 조직도 4본부 2실 15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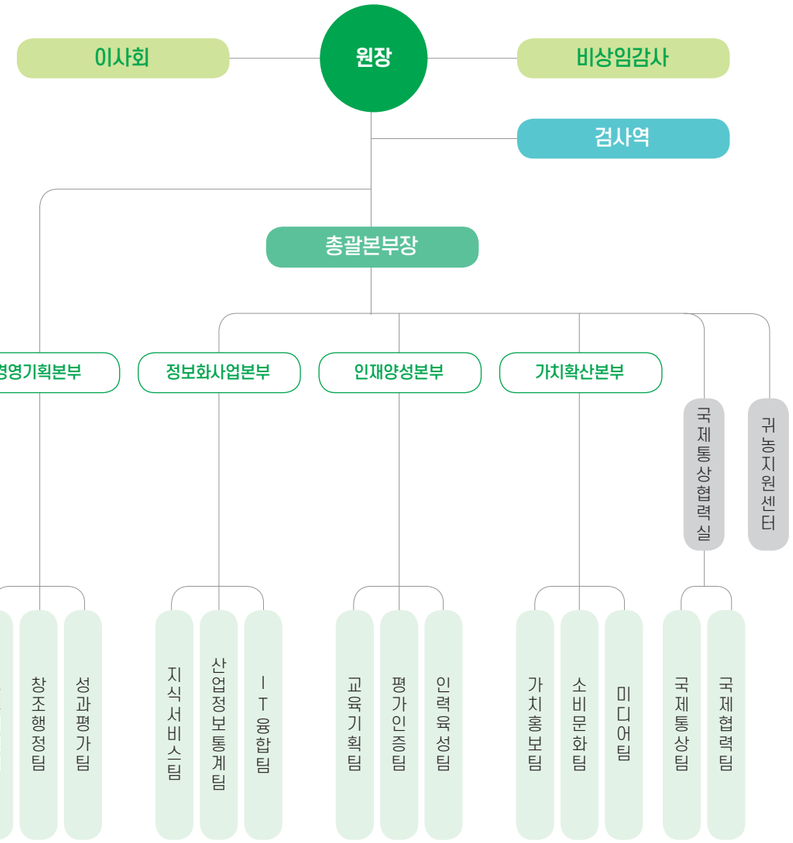


4 조직변천

2013. 4본부 2실 15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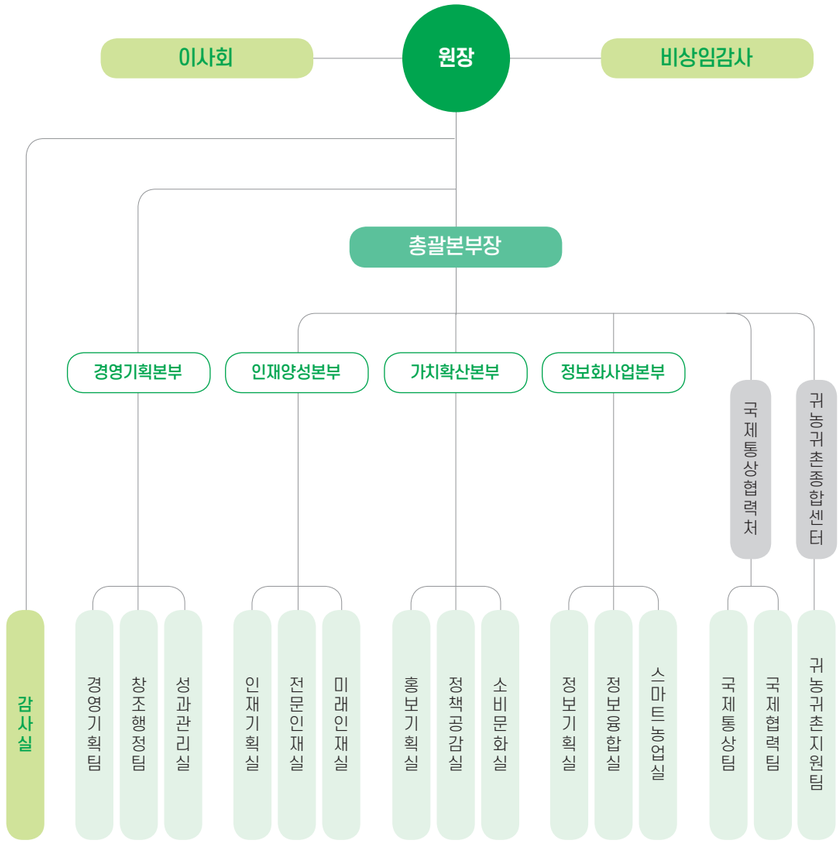


2014. 4본부 1실 1센터 14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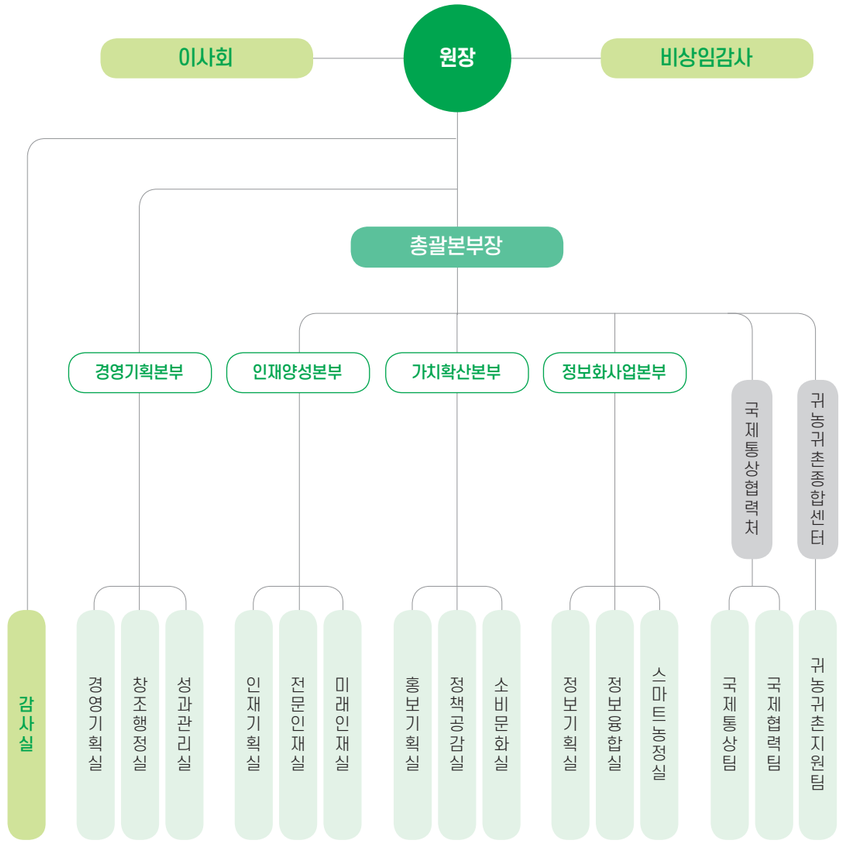


4 조직변천

2015. 4본부 1처 1센터 13실 3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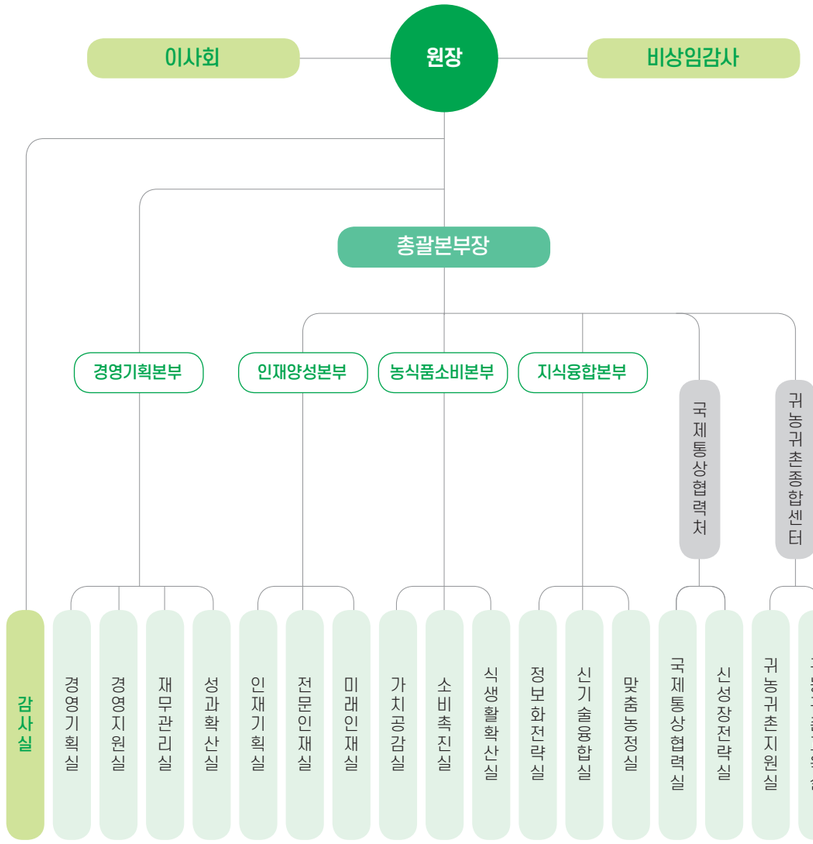


2016. 4본부 1처 1센터 13실 3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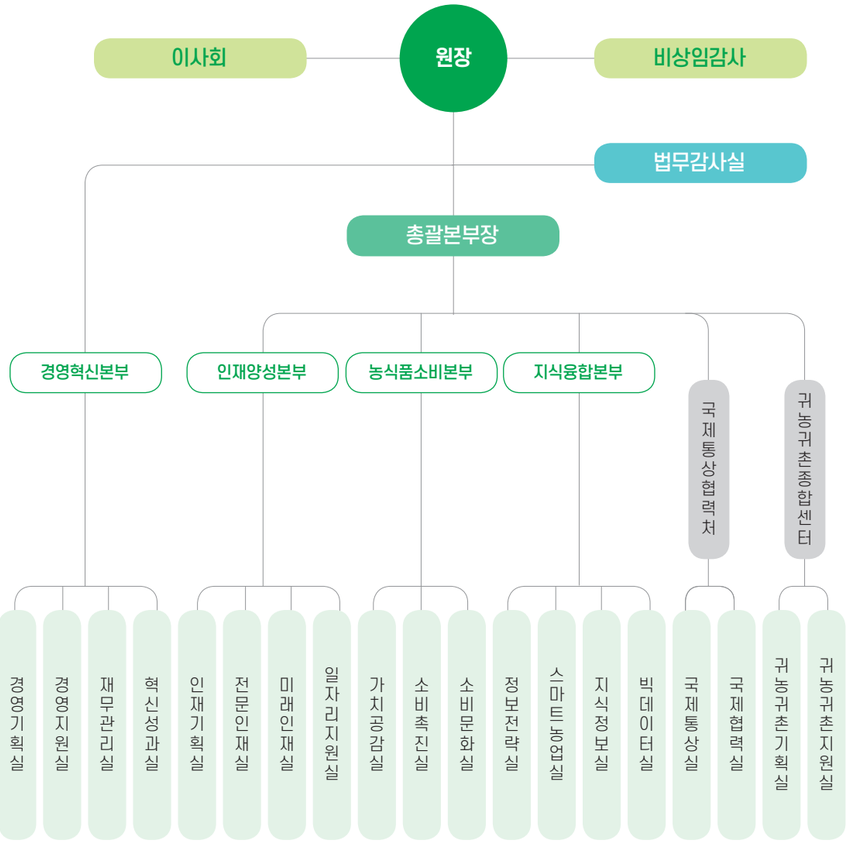


4 조직변천

2017. 4본부 1처 1센터 18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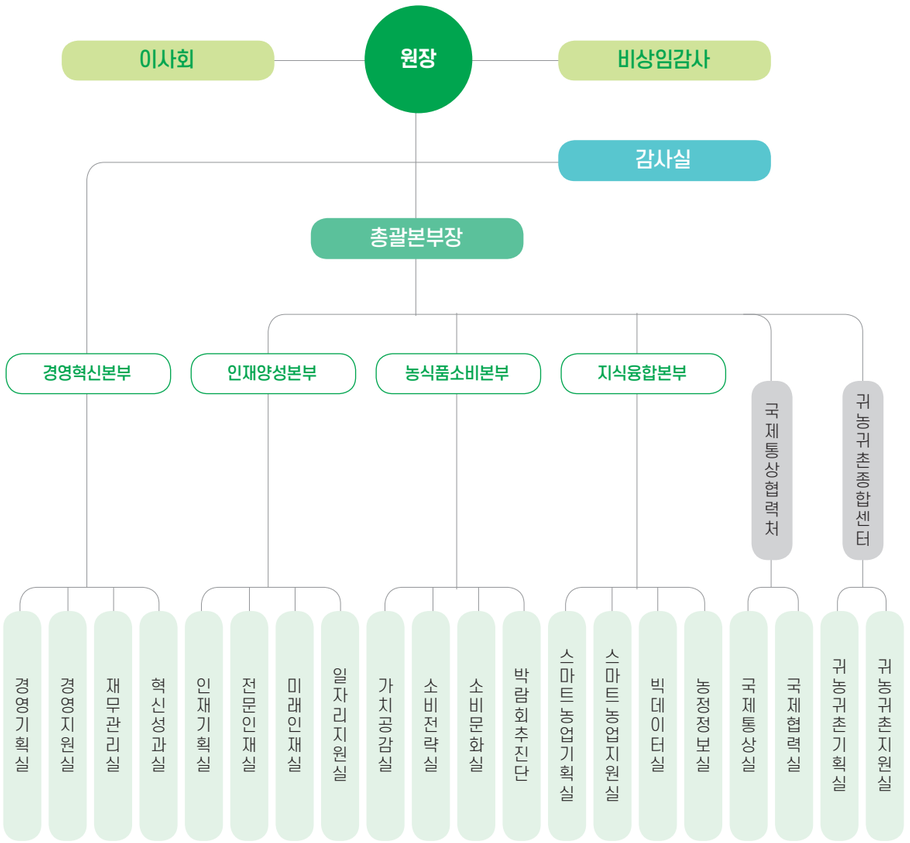


2018. 4본부 1처 1센터 20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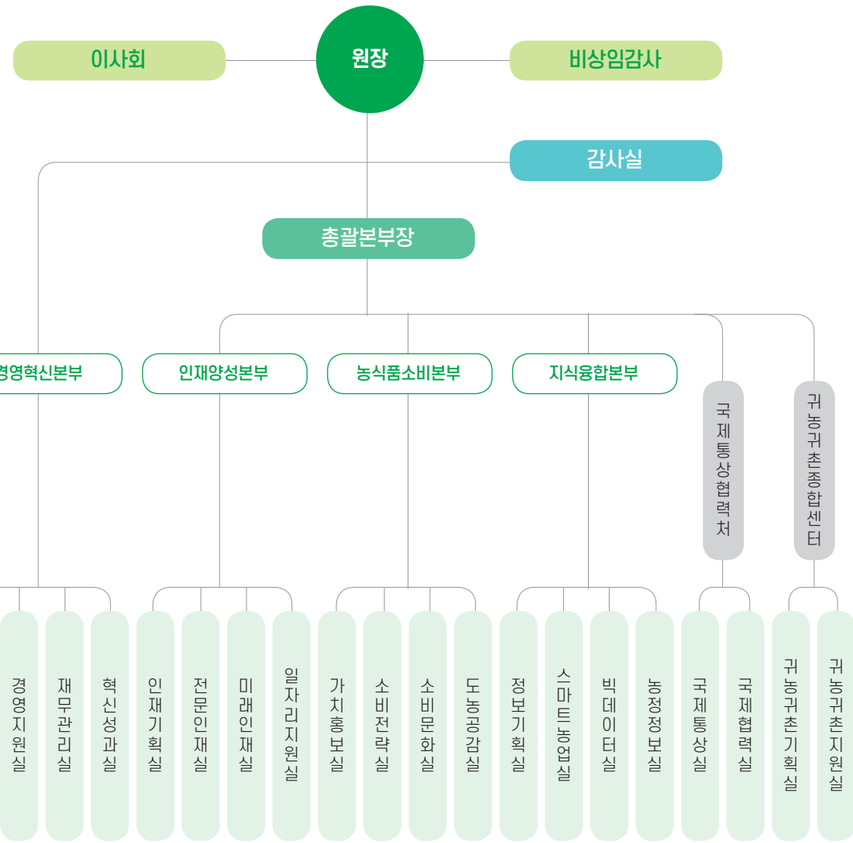


4 조직변천

2019. 4본부 1처 1센터 20실 1단



2020. 4본부 1처 1센터 21실



5 MOU 현황

날 짜			내 용	기 관(회사)
2012	06	26	농식품 관련 콘텐츠 분야 협력	레젤그룹
	07	27	중국 농식품 미디어인프라 조성	아주뉴스코퍼레이션
	08	23	정보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한국소비자원
	10	15	농식품 전문지식 맞춤형 콘텐츠 제작 및 협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02	15	세종시 이전 지원 및 세종시 농업 발전 협력	세종시
	06	11	친환경급식 확대 및 올바른 식습관 형성 지원 협력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18	농어촌인성학교 식생활 교육 관련 협력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07	16	우수 농식품 소비촉진 공동 마케팅	㈜이베이코리아
	09	02	아세안+3식량안보시스템 협력	AFSIS사무국
		12	멀티미디어 콘텐츠 공동 활용 및 확산	한국정책방송원
		25	농식품분야 ICT 융·복합 촉진	(사)한국사물인터넷협회
		27	산림자원화와 임업발전을 위한 협력	한국산림아카데미
	10	02	농업인 정보화 및 교육지원을 위한 협력	한국농수산대학
	11	06	농업통상 및 농정연구 국제협력	노스다코타주립대학 CAPTS
		19	관민간 창조·융합·협업의 미디어인프라 구축	CJ E&M
		27	종자품종맵 구축	국립종자원
		28	농어촌 현장체험 중심 인성교육 활성화	(사)한국4-H본부
	12	05	귀농·귀촌인의 취·창업 지원	(사)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27	농어업 청년리더 1만 명 양성	경상북도교육청
2014	03	06	농정원과 정보통산산업진흥원 간 협업	NIPA SW공학센터
	07	25	북한이탈주민의 영농정착지원	남북하나재단
	10	21	귀농·귀어·귀촌 활성화	국립수산과학원
		30	농식품 ICT활용확산을 위한 협력	부안군정보화농업인연구회
	11	04	농업교육공동개발 및 운영 협력	와게닝겐 UR LEI(네덜란드)
	12	02	표준화 관련 기술 개발 협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09	농업분야 통상 연구 및 공동협력	한국관세무역개발원
		19	정보협력의체 구성 및 운영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지역진흥재단
2015	05	13	농업농촌 미디어 콘텐츠 공유	한국 소비자TV
	06	30	콘텐츠 서비스 제휴	뉴법률방송㈜
	08	25	모바일 쇼핑을 활용한 농산물 판매	LG유플러스
	09	03	쌀 디저트 메뉴개발	설빙
		16	귀농귀촌 정보교류 및 협력	농민신문사
	10	14	전역예정간부 귀농귀촌 취창업지원	국방전직교육원
	12	15	농협 귀농start통장 및 예·적금 금융상품 개발 협약	농협중앙회

날 짜			내 용	기 관(회사)
2016	03	21	한-뉴농업협력장학금(KNZACS) 공동사업	에듀케이 뉴질랜드(ENZ)
	05	25	농업인 정보화교육의 조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자원 및 노하우 공유	한국정보화진흥원
	06	27	농업 인적자원 육성 정보 공유	대만 TARI
2017	03	24	농업 분야 청년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 파견 협력	SEGES
		28	한국 양돈 생산성 개선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선언문(헌장)	와게닝겐
	04	25	국토교통부와 공간정보 양방향 연계기관 간 공간정보 공동활용	국토교통부
	06	16	농식품분야 공공데이터와 농협은행 핀테크 오픈플랫폼 융복합촉진	농협은행
	12	12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활성화	국립농업과학원
2018	02	06	농축산 정보 공동활용 및 이용활성화	축산환경관리원
	04	30	농식품(특히 양돈산업) 분야 해외인턴십 파견을 위한 협력	코펜하겐 대학교
	05	02	농업 빅데이터 분석 및 스마트팜 관련 해외인턴십 파견을 위한 협력	Pessl Instruments
	07	05	필리핀 농업 빅데이터 분석 및 스마트팜 관련 해외인턴십 파견을 위한 적정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농업 구축사업	필리핀 농업부
	12	05	북한이탈주민의 영농정착지원	북한이탈주민재단(남북하나재단)
		13	현장실습교육에 관한 필요사항	고려대세종캠퍼스
		27	농식품 분야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가치 실현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2019	07	10	청년창업농 농특산물 판로확대 및 소득향상	서울특별시 지역상생교류사업단
	08	19	노지작물 스마트팜 모델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데이터 수집 공동 활용	지역별농업기술센터 (장흥군, 영광군, 태백시, 제천시, 제주도, 부안군, 청주시, 무안군, 신안군)
		23	현장실습교육에 관한 필요사항	고려대세종캠퍼스
		26	국제농업협력사업	세계은행
	09	10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킨텍스 장기개최	킨텍스
		11	각 기관에 산재된 해외진출 관련 지식정보를 통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반 구축	대외경제정보센터
		25	영유아에게 농업, 농촌과 우리 농산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및 교육	한국보육진흥원
	10	22	유통, 판로지원 및 서울과 지역의 상생협력	서울디자인재단
	12	11	청년창업 활성화	창업진흥원
		18	축산 빅데이터 플랫폼 공동활용 및 전후방 산업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축산분야 ICT장비기업

5 MOU 현황

날 짜			내 용	기 관(회사)
2020	01	11	우수 청년 인재의 양성을 통한 농산업 분야의 활성화	㈜건지, ㈜선진
	03	24	우수 청년 인재의 양성을 통한 농산업 분야의 활성화	㈜중앙타프라, ㈜그린랩스
	04	08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 (1시장 1기관 자매결연 협약서)	세종전통시조치원상인회
		29	데이터 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06	16	전북 스마트팜 혁신밸리 빅테이터 센터 구축 사업	김제시, 상주시
		26	청년창업농의 유통, 판로확대 및 경영역량 강화	한국우편사업진흥원
	07	01	우수 청년 인재의 양성을 통한 농산업 분야의 활성화	㈜국제원예종묘, ㈜대관령양떼목장
		30	2020년 농생명소재 활용 기업, 기관 수요 맞춤형 특허컨설팅 지원사업	㈜샘표식품, ㈜케이푸드아이엔지
	08	03	2020년 농생명소재 활용 기업, 기관 수요 맞춤형 특허컨설팅 지원사업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04	우수 청년 인재의 양성을 통한 농산업 분야의 활성화	㈜대흥, ㈜정남진장흥표고, ㈜부농종묘, ㈜엘에스엠트론
		11	스마트팜, 농기자재, 농업기술 분야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업무 효과적으로 수행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디지털 뉴딜 추진	한국정보화진흥원 외
	09	08	청년창업농의 경영역량 향상 및 네이버쇼핑 입점	네이버
		23	전문성 및 운영사업을 연계, 활용하여 세종지역 6차산업과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	세종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11	06	우수 청년 인재의 양성을 통한 농산업 분야의 활성화	㈜자연의모든 것, ㈜국일에프앤비
		11	법무보호대상자의 영농정착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3	교육품질 향상 및 각 기관 운영의 효율성 제공	농림식품 교육훈련기관 발전협의회
		17	기관 간 업무협력을 추진,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 실현과 지역 발전에 기여	세종농업전문기관
		23	우수 청년 인재의 양성을 통한 농산업 분야의 활성화	㈜팜에이트, ㈜플랜티팜, 한 살림축산식품유한회사, 산두레 유한회사, 지리산피아골식품영농조합법인, ㈜휴먼바이오
	12	30	실력 중심의 취업문화 형성과 고졸취업 활성화	한국장학재단

날 짜			내 용	기 관(회사)
2021	02	01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 사업에 관한 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	한국전시산업진흥회
		22	FAO로 해외인턴십 파견을 위한 인턴십협약	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FAO)
	03	05	감자농가와 감자수매를 계약하는 회사, 청년 감자농가 사이에 농심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청년수미" 프로그램	㈜농심
	04	30	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지식농업 기반 구축	경북농민사관학교
	05	13	식품산업의 육성 발전, 전문직업인 양성, 고용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상호 협력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미래혁신식품계약학과
	10	15	공간정보 기반 수급관리 업무협약 체결	마늘자조금협회

6 인증 및 수상

날 짜			내 용	주 관/주 최
2012	11	05	2013 대한민국 모바일 앱 어워드 우수상	머니투데이
		28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 PR·이벤트 부문	한국사보협회
2013	11	20	2013 을지연습 유공 장관 표창	농림축산식품부
	12	04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 최우수상·사보협회장상	한국사보협회
2014	10	23	2014 소비자의 선택 2014 – 농식품·농어촌 정보서비스 부문 대상(옥답)	중앙SUNDAY
		29	2014 소비자의선택 – 농식품·농어촌정보서비스 부문 대상	중앙일보
		31	해피버스데이 농업·농촌 현장체험	한국PR협회
	11	19	정부3.0우수사례경진대회 – 장려상	안전행정부
	12	03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 최우수 광고상	한국사보협회
		17	2014 콘텐츠제공서비스품질대상 – 우수상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2015	10	03	제6회 대한민국 블로그어워드 – 마케팅상	한국블로그산업협회
	11	03	대한민국 세종대왕 나눔봉사 대상 – 농해수위위원장상	(사)한국국제연합봉사단
		12	2015 소비자의선택 – 공공서비스부문대상, 농식품·농어촌정보서비스부문 대상	중앙일보
		25	제8회 대한민국 소셜미디어 대상 – 준정부기관부문 대상	한국인터넷소통협회
		27	2015 대한민국 최우수공공서비스 대상 – 공공서비스부문	매일경제
	12	02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 인쇄사보공공부문 편집대상·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상·한국광고홍보학회장상	한국사보협회
		09	인터넷에코어워드 2015(iECO AWARD KOREA 2015) 대상(옥답)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10	2016 대한민국 베스트셀링브랜드 선정 – 공공서비스부문	동아일보 (사)한국브랜드 디자인학회
		14	2015년 국가중점 공공데이터 개방 우수기관상	행정자치부
		24	2015년 정부3.0전반추진실적 및 성과우수공공기관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29	2015년도 정보자원(EA)관리 우수기관상	농림축산식품부
		31	정부3.0 업무 우수기관 표창	농림축산식품부
2016	05	25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선정	고용노동부
	07	08	iECO AWARDS KOREA 2016 – 공공정보분야 대상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인터넷에코어워드 2016 – 인터넷에코혁신대상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08	03	2016 소비자평가 No.1 브랜드 대상 – 농식품·농촌 정보서비스 부문 대상	중앙일보, 중앙선데이
		09	노사문화우수기업 선정	고용노동부
	11	23	대한민국 소셜 미디어 대상 – 준정부기관부문	한국인터넷소통협회
		25	제11회 1사1촌 대상 특별상	세종특별자치시
	12	01	2016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 우수PR·이벤트 대상·우수CSR 대상	(사)한국사보협회
		29	2016 대한민국 소통경영 대상	한국경제

날 짜			내 용	주 관/주 최
2016	12	29	공공기관 노사관계 합리화 부문 고용노동부 장관상	대전지방 고용노동청
2017	10	19	제7회 대한민국 SNS대상(Korea SNS AWARD 2017) – 공공기업 및 비영리부문 최우수상	헤럴드경제, (사)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
	11	08	2017 대한민국 데이터품질대상 – 우수상	한국데이터진흥원
	12	02	2017 올해의광고상 – 최우수CM송	한국광고PR실학회
		06	2017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 인쇄사보분야 한국편집기자협회장상	(사)한국사보협회
		14	I-AWARDS 2017 WEB AWARD KOREA – 공공서비스부문우수상·최우수상	(사)한국사보협회
		20	2017 아시아경제 올해의 히트상품 – 식품통합정보서비스부문	아시아경제
			ebay Best Partner 2017 – Best Partner	㈜이베이코리아
		22	대한민국 OOH 광고대상 (꽃 생활화 대국민 홍보) – 공공부문 최우수상	한국OOH광고학회
2018	01	11	제3회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 대상 – 창조인재경영	매경닷컴
	02	19	부패방지 시책추진 자체평가 최우수상	농림축산식품부
	03	23	2018 제12회 대한민국 서비스 만족 대상 – 공공서비스/귀농귀촌분야	한국일보, 한국브랜드협회
	06	01	Asia-Pacific Stevie® Awards 2018 – SILVER STEVIE	스티비어워즈
	10	11	제8회 대한민국 SNS 대상 – 비영리부문 최우수상	(사)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
			제4회 올해의 SNS – 올해의 SNS 유튜브	(사)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
	12	06	2018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 특별상·우수SNS대상	(사)한국사보협회
		13	I-AWARDS 2018 WEB AWARD KOREA – 공공서비스분야 우수상	(사)한국사보협회
		19	제13회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 사회봉사부문	한국서비스산업진흥원, 대한민국전문가자원봉사연합회
2019	01	03	서울영상광고제 2018 – TV부문 '은상'(쌀이 답이다)	서울영상광고제 집행위원회
	05	27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 – 국무총리상	고용노동부
	08	21	2019 International Business Award – 최우수사보_일반인대상, 최우수기타출판물_홍보, 올해의 마케팅 캠페인 : 산업카테고리_농업/산업/건축물	IBA
	09	18	ILDEX Indonesia 2019 – 부스디자인상(THE MOST INSPIRING STAND 2)	VNU Exhibitions Asia Pacific Co.,Ltd(인도네시아)
	11	07	2019년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공모전 – 장려상(대전YWCA회장상)	대전광역시, 고용노동부대전지방고용노동청
		19	제5회 2019 올해의 SNS – 유튜브 공기업 및 비영리부문 최우수상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 헤럴드경제
		28	2019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 – 베스트콘텐츠부문 우수상, 공공부문 장려상	(사)한국인플루언서산업협회

6 인증 및 수상

날 짜			내 용	주 관/주 최
2019	11	30	올해의 PR캠페인상 - 정부 및 공공부문(꽃 생활화 캠페인), (쌀이 답이다 캠페인)	한국광고PR실학회
	12	03	전자정부 해외진출 유공	행정안전부
		09	2019 전자정부 성과보고회 - 전자정부 해외진출 행정안전부 장관상	행정안전부
			2019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 한국광고영상제작사협회회장상·최우수아이덴티티디자인대상	한국광고영상제작사협회
2020	02	07	2019년도 부패방지 시책추진 자체평가 – 우수상	농림축산식품부
	11	23	2020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 전자사보웹진부문 디자인대상	(사)한국사보협회
		27	제38회 공공HRD콘테스트 교육과정 분야 우수성적 – 인사혁신처장상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12	09	2020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 블로그 및 카페부문 조직 커뮤니케이션 블로그 대상·해외특별상부문(New York Festival) 해외특별상	(사)한국사보협회
		30	전자정부 성과관리 향상	농림축산식품부
		31	2020 올해의 인플루언서 – 기업/단체부문상	인플루언서 글로벌 협동조합
			2020년 농림축산식품 정보자원관리 유공	농림축산식품부
2021	11	17	제14회 대한민국 소셜미디어 대상	한국인터넷소통협회
		24	2021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 외교통상위원장상	(사)한국사보협회
	12	16	쌀 생산 등 농정시책 성과 제고에 대한 포상	농림축산식품부
		30	법무보호복지사업 발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7 연표

날 짜			내 용
2012	05	23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설립(경기도 안양시)
			제1대 하영효 원장 취임
	06	04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개원식
	12	16	제1회 농업마이스터 지정 1차 필기시험 개최
2013	01	30	FTA정보조사사업 농정원으로 이관
	01	02	비전 및 미션 선포식
	02	01	농업·농촌 다원적 가치 확산 캠페인 '처음 알았습니다'
	05	19	도시민 농촌체험프로젝트 '해피버스데이'
	08	30	농식품 IT 융합 모델 우수사례 전시회 개최
	11	01	도농공감 창 DID 구축
2014	01	30	농식품 통합 홍보기반 구축(PRDB)
	01	01	농업교육 패널조사 신규 추진
			스마트팜 도입 및 활용 확산
	03	30	농식품 ICT 확산을 위한 농가 컨설팅 실시
	04	02	AFSIS 사무국 – 농식품부·농정원 협의의사록 체결
	07	01	귀농귀촌종합센터 업무 개시(서울시 양재동)
	11	19	농업 미래성장 대토론회 행사 : (부제)농업, 대한민국 새로운 미래를 열다!
2015	04	05	현장 밀착형 귀농닥터 도입
	05	22	제2대 박철수 원장 취임
	07	02	농업·농촌 다원적 가치 확산 캠페인 '우리 곁의 미래, 농업농촌'
		21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9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08	07	광복70주년, 농림업 70년 사진전
		25	선도적 임금피크제 도입(직급별 정년 60세로 통일) 도입
			대학생 농산업분야 창업캠프 신규 개최(~28)
		26	2015 콘텐츠제공서비스 모바일 부문 콘텐츠 품질인증 획득
	09	12	기관 이전(세종시 조치원읍)
	10	17	농식품 분야 아이디어 발굴 및 창업 콘테스트 '나는 농부다'
	11	02	정부 3.0 GIS기반 행복한 농촌마을 통합정보서비스 실시
		04	이전 개원 및 비전 선포식
		24	농산업 분야 창업 활성화와 취업을 돕기 위한 취업창업설명회 신규 개최

7 연표

날 짜			내 용
2016	01	01	네이버 TV 제휴협약을 통한 콘텐츠 확산
	05	24	4개 웹 서비스 '2016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 인증' 획득
	06	01	농림사업정보시스템,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조회 서비스 제공
	07	01	한-뉴 FTA 체결을 통한 제1회 농어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추진(~10월)
	11	02	농업법인 정보화수준조사 국가승인통계 지정
		22	제1차(2017~2021)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 수립
2017	01	01	농업·농촌 가치 확산 캠페인 '농업은 미래로, 청년은 농업으로'
	01	01	스마트팜 실습형 교육 실시
		02	청렴한 조직구현을 위한 윤리경영체계 확립
		24	귀농귀촌종합센터 확대 이전 개소(양재동 aT센터)
	03	02	현장실습 및 전문역량 교육을 강화한 미래농업선도고교(3개교) 및 영농창업특성화대학(5개교) 본격 운영
		13	농기자재 수출활성화사업 추진계획 승인
	04	25	농식품 빅데이터센터 개소
	07	01	식량산업 핵심기술습득(드론 면허취득) 교육 신규 추진(~11월)
	10	01	농림행정통계체계(KASS) 구축
	11	02	신 비전 및 중장기전략 수립
	12	26	스마트팜 장비 규격 및 서비스 기준 개정 공청회 개최
2018	01	01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구축 운영
		31	청년귀농 장기교육 신설
	03	02	실습학기제(농대), 국외현장실습 프로그램(농고, 농대) 신규 운영
	04	06	노지채소 스마트팜 모델개발 사업 대상 지자체 선정
	11	02	제3대 신명식 원장 취임
2019	01	01	스마트 축산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02	01	귀촌인 농산업 창업교육 신설
	03	02	농고에 실습학년제 신규 도입 (실습학년(기)제 농고까지 확대)
		08	농정원, 필리핀 현지에 최초의 스마트팜 모델 시범구축 지원
	04	09	농식품지식정보서비스 브랜드 변경(OKDAB → 농업on)
	06	03	농산업분야 취·창업 지원을 위한 '청년두드림센터' 개소
	07	10	농고교사의 현장실습 능력 배양 등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학점 연계 교육 과정 개발·운영
		11	농업경영체 맞춤형 데이터활용 컨설팅 지원
	09	27	제1회 팜(farm) 터지고 펀(fun)한 농업·농촌 영상공모전

날 짜			내 용
2019	10	01	국내·외 기관별 청년지원정책 현황 조사 신규 추진
	10	28	귀농귀촌 실태조사 국가승인통계 승인
	11	11	리얼 농촌체험, 사색캠프(~12.13)
	12	09	권익위조사 청렴도 2등급으로 향상
2020	05	26	농업일자리 탐색체험교육 신설
	06	01	스마트팜 혁신밸리 빅데이터센터 구축
	08	03	농식품 공공·빅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 추진
	09	20	2020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온라인 개최
		24	'스마트농업 데이터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11	13	2020년 농식품 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 대상작 '투볼메이커' 팀 대통령상 수상
		17	농업농촌농식품 메타버스 활용, 핵심 농정과제에 대한 대국민 소통 활성화(욱크래프트 구축운영)
	12	30	농업농촌 가치확산 캠페인 '농-업그레이드'
2021	03	05	지역밀착형 프로그램 '농촌에서 살아보기' 신규 도입
	04	01	반부패경영시스템(ISO 37001) 국제인증 취득
	05	06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차단을 위한 검증체계 구축
			농정·영농 DW·DM 및 빅데이터 메타·품질 관리기반 구축
		17	신청사 건립 및 이전(세종시 반곡동)
	08	31	스마트팜 데이터 단절/장애 대응 등 종합관제체계 운영
	09	08	2021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온라인 개최
		09	인도네시아 K-스마트팜 도입을 통한 밀레니얼 농업인 소득개선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의사록 체결
	11	02	스마트팜 기술 단체표준 제정(시설원예)
	12	06	제4대 이종순 원장 취임
		13	농업농촌 가치확산 캠페인 '농업·농촌으로 갓생하루'
		21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국제인증 취득
2022	03	03	제2차(2022~2026)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 수립
	05	23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설립 10주년

감수위원

감수책임 김성아 김기주 김백주 김태완 장철이 조경익

감수실무 백부천 김영식 손영미 권혁준 황영기 김준영

교차감수 송근석 김재욱 최원일 김지훈 정윤용

간　　사 김귀영

기획제작

㈜다니기획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26길 78
02-545-0623 / www.dani.co.kr

총괄책임 추기숙

집필 이행배

기획총괄 최　진

기획·진행 성지은, 정윤희, 이새별

교정·교열 권태원, 김혜원

아트디렉터 이동훈

편집디자인 신아영

사진촬영 장윤경(스튜디오J)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10년사
2012-2022

발행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5로 19
044-861-8888

발행인 이종순

발행일 2022년 5월

이 책에는 한국출판인회의에서 배포하는 'KoPub 서체'와
에스코어 주식회사에서 배포하는 '에스코어 드림'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책에 수록된 내용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허락 없이는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COPYRIGHTⓒ 2022 EPIS All rights Reserved.